

---

# 2021년도 일자리·국정과제 평가

## - 국정과제 과제별 보고서 -

---

2022.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조정실



|              | 국정과제 (주관부처)                                            | 국정과제 (주관부처)                                 |
|--------------|--------------------------------------------------------|---------------------------------------------|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 전략 1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                    |
|              |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정산 (법무부)                                |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부)                       |
|              |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법무부)                           |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교육부)            |
|              |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                           |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             |
|              |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방통위)                             |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
|              | ■ 전략 2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 ■ 전략 3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
|              | 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행안부)                          |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계 구축 (행안부)       |
|              |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행안부·인민위)                |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행안부)      |
|              |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국조실)                           |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식약처)             |
|              | ■ 전략 3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
|              |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안부)                             |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
|              |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 60 발원천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산업부·원안위)      |
|              |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외교부)                   |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건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
|              |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처)                      |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수부)                   |
|              |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기재부)                          | ■ 전략 4 :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 전략 4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부)                         |
|              |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경찰청·감사원·국정원)                |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고용부)                    |
|              |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                        |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가부)      |
|              |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기재부)                     |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
|              | ■ 전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 ■ 전략 5 :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
|              |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화부)           |
|              |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화부)       |
|              | 18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화부)       |
|              |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통위)                        |
|              |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
|              |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                       |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화부)             |
|              |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                                   |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화부)                  |
|              | ■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 ■ 전략 1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
|              |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행안부)           |
|              | 24 재벌 중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행안부·기재부)           |
|              |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공정위)                     |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교육부)               |
|              |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재부)                                     | 77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행안부)         |
|              |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부)                         | ■ 전략 2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
|              | ■ 전략 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산업부·국토부·행안부)       |
|              |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기부)                               |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국토부)   |
|              |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                             | 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해수부)               |
|              |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조실)                             | ■ 전략 3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31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국토부·과기정통부)                   |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              |
|              | 32 국가기관교량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부)                 |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농식품부)                |
|              | ■ 전략 4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식품부)                |
|              |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과기정통부)          |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수부)                    |
|              | 34 고부가가치 창출 마당 산·농·수·목·수산·제조·서비스 융합 (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부·부처) | ■ 전략 1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
|              |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과기정통부)                      | 85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부)                |
|              | 36 청년대학진학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과기정통부)                |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략권 조기 전환 (국방부)           |
|              |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산업부)                              |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화의 강력한 추진 (국방부)               |
|              |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산업부)                      | 88 방산리 혁신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국방부·방사청) |
|              | ■ 전략 5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 89 장비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국방부)           |
|              |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기부)                              | ■ 전략 2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
|              | 40 중소기업의 든든한 성장 환경 구축 (중기부)                            |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통일부)             |
|              |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안정화 (중기부)                | 91 남북기본합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통일부)               |
|              | ■ 전략 1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
|              |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부)               |
|              |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풍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통일부)               |
|              |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외교부)             |
|              |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                     | ■ 전략 3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
|              |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국토부)                          |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외교부)              |
|              |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                             |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외교부)                |
|              | ■ 전략 2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외교부)                    |
|              |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교부)            |
|              |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산업부)           |





| 국정과제 |                                | 기관          | 쪽  |
|------|--------------------------------|-------------|----|
| 1    |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 법무부         | 1  |
| 2    |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 권익위·법무부     | 2  |
| 3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 행안부         | 4  |
| 4    |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 방통위         | 6  |
| 5    |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 행안부         | 8  |
| 6    |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 법무·행안·인권    | 10 |
| 7    |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 국조실         | 12 |
| 8    |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 행안부         | 13 |
| 9    |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인사처         | 15 |
| 10   |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 외교부         | 17 |
| 11   |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 보훈처         | 19 |
| 12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 기재부         | 21 |
| 13   |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 법무·경찰·감사·국정 | 23 |
| 14   |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 경찰청         | 25 |
| 15   |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 기재부         | 27 |
| 16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 고용부         | 29 |
| 17   |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 복지부         | 31 |
| 18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고용부         | 33 |
| 19   |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 고용부         | 35 |
| 20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 기재부         | 37 |
| 2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 금융위         | 39 |
| 22   |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 금융위         | 41 |
| 23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공정위         | 43 |
| 24   |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 공정위         | 45 |
| 25   |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 공정위         | 47 |
| 26   | 사회적경제 활성화                      | 기재부         | 49 |
| 27   |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 중기부         | 51 |
| 28   |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 중기부         | 53 |
| 29   |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 금융위         | 55 |
| 30   |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 국조실         | 57 |
| 31   |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 국토부·과기부     | 59 |
| 32   |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 국토부         | 61 |

| 국정과제 |                                      | 기관          | 쪽   |
|------|--------------------------------------|-------------|-----|
| 33   |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과기정통부       | 63  |
| 34   |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 산업·과기·국토·복지 | 65  |
| 35   |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 과기정통부       | 67  |
| 36   |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 과기정통부       | 69  |
| 37   |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 산업부         | 71  |
| 38   |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 산업부         | 73  |
| 39   |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 중기부         | 75  |
| 40   |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 중기부         | 77  |
| 41   |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중기부         | 79  |
| 42   |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복지부         | 81  |
| 43   |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 복지부         | 83  |
| 44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 복지부         | 85  |
| 45   |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 복지부         | 87  |
| 46   |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 국토부         | 89  |
| 47   |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 국토부         | 91  |
| 48   |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 복지부         | 93  |
| 49   |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 교육부         | 95  |
| 50   |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교육부         | 97  |
| 51   |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교육부         | 99  |
| 52   |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 교육부         | 101 |
| 53   |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 여가부         | 103 |
| 54   |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 교육부         | 105 |
| 55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 행안부         | 107 |
| 56   |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 행안부         | 109 |
| 57   |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 환경부·식약처     | 111 |
| 58   |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환경부         | 113 |
| 59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 환경부         | 115 |
| 60   |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 산업부·원안위     | 117 |
| 61   |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 환경부         | 119 |
| 62   |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 해수부         | 121 |
| 63   | 노동존중 사회 실현                           | 고용부         | 123 |
| 64   |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 고용부         | 125 |
| 65   |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 여가부         | 127 |
| 66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 여가부         | 129 |

| 국정과제 |                                  | 기관       | 쪽   |
|------|----------------------------------|----------|-----|
| 67   |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 문체부      | 131 |
| 68   |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저작권 보장     | 문체부      | 133 |
| 69   |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 문체부      | 135 |
| 70   |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 방통위      | 137 |
| 71   |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 고용부      | 139 |
| 72   |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 문체부      | 141 |
| 73   |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 문체부      | 143 |
| 74   |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 행안부      | 145 |
| 75   |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 행안부·기재부  | 147 |
| 76   |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 교육부      | 149 |
| 77   |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 행안부      | 151 |
| 78   |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 산업·국토·행안 | 153 |
| 79   |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 국토부      | 155 |
| 80   |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 해수부      | 157 |
| 81   |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 농식품부     | 159 |
| 82   |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 농식품부     | 161 |
| 83   |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 농식품부     | 163 |
| 84   |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 해수부      | 165 |
| 85   |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 국방부      | 167 |
| 86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 국방부      | 169 |
| 87   |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 국방부      | 171 |
| 88   |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 국방부·방사청  | 173 |
| 89   |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 국방부      | 175 |
| 90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 통일부      | 177 |
| 91   |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 통일부      | 179 |
| 92   |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 통일부      | 181 |
| 93   |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 통일부      | 183 |
| 94   |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 통일부      | 185 |
| 95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 외교부      | 187 |
| 96   |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 외교부      | 189 |
| 97   |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 외교부      | 191 |
| 98   |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 외교부      | 193 |
| 99   |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 외교부      | 195 |
| 100  |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산업부      | 197 |



|                       |                                                                                                                                                                                                                                                                                                                                                                                                                                                                                                                                                                                                                                                                                                                                                                                                                                                                                                                                                                                                                                                                                                                                                                                                                                                                                                                                                                                                                                                                                                                                                                                                                                                                                                                                                                                                                                                                                                                                                                                                                                                                                                                                                                                                                                                                                                                                                                 |
|-----------------------|-----------------------------------------------------------------------------------------------------------------------------------------------------------------------------------------------------------------------------------------------------------------------------------------------------------------------------------------------------------------------------------------------------------------------------------------------------------------------------------------------------------------------------------------------------------------------------------------------------------------------------------------------------------------------------------------------------------------------------------------------------------------------------------------------------------------------------------------------------------------------------------------------------------------------------------------------------------------------------------------------------------------------------------------------------------------------------------------------------------------------------------------------------------------------------------------------------------------------------------------------------------------------------------------------------------------------------------------------------------------------------------------------------------------------------------------------------------------------------------------------------------------------------------------------------------------------------------------------------------------------------------------------------------------------------------------------------------------------------------------------------------------------------------------------------------------------------------------------------------------------------------------------------------------------------------------------------------------------------------------------------------------------------------------------------------------------------------------------------------------------------------------------------------------------------------------------------------------------------------------------------------------------------------------------------------------------------------------------------------------|
| 1                     | <b>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법무부)</b>                                                                                                                                                                                                                                                                                                                                                                                                                                                                                                                                                                                                                                                                                                                                                                                                                                                                                                                                                                                                                                                                                                                                                                                                                                                                                                                                                                                                                                                                                                                                                                                                                                                                                                                                                                                                                                                                                                                                                                                                                                                                                                                                                                                                                                                                                                                                    |
| <b>과제목표</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농단 보충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 추진</li> <li>■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관계 파악, 재발방지 및 문화행정체계 혁신</li> </ul>                                                                                                                                                                                                                                                                                                                                                                                                                                                                                                                                                                                                                                                                                                                                                                                                                                                                                                                                                                                                                                                                                                                                                                                                                                                                                                                                                                                                                                                                                                                                                                                                                                                                                                                                                                                                                                                                                                                                                                                                                                                                                                                                                                                                                  |
| <b>총평</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농단 관련자 엄중처벌 노력, 범죄수익환수 대상 확대,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엄정한 후속조치 이행</li> <li>■ 범죄수익환수조치 강화, 문화행정 투명성 향상 등 관련 실효적 제도 적용을 위해 지속 노력 필요</li> </ul>                                                                                                                                                                                                                                                                                                                                                                                                                                                                                                                                                                                                                                                                                                                                                                                                                                                                                                                                                                                                                                                                                                                                                                                                                                                                                                                                                                                                                                                                                                                                                                                                                                                                                                                                                                                                                                                                                                                                                                                                                                                                                                                                                                                   |
| <b>'21년도<br/>주요성과</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수익 환수대상 확대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2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 법상 열거된 56개 법률 168개 조항에 한해서만 환수 가능하여 '부동산 투기' 등 열거되어 있지 않은 범죄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이상인 모든 범죄는 환수대상 포함</li> </ul> </li> </ul> </li> <li>• 법무부장관의 "부동산 범죄수익 철저 환수 및 엄정 대응 지시"('21.3)에 따라 부동산 투기사범 엄단 및 범죄수익 환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검)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설치('21.3) → 62명 구속, 1,506.4억원 보전 조치 (전국 43개 검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편성('21.3) → 19명 구속, 283.3억원 보전 조치</li> </ul> </li> </ul> </li> <li>■ 예술인 권리보장 강화 및 문화행정의 투명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체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보장 공동선언' 채택('21.3월)</li> <li>• 문화예술인의 권리 보장 및 피해 구제방안*을 담은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21.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예술인 등 사각지대 예술인 보호,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술인 권리구제 수단 마련</li> </ul> </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 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각 영역의 잘못된 정책과 제도, 관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 '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지('17.9월)</li> <li>(교육)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17.5월), 진상조사 및 백서발간('18.5월)</li> <li>(문화예술)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18.6월), 징계·수사('18.12월), 문화예술계 참여 예산제 도입('19.1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백서 발간('19.2월), 「문화예술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9월) 등</li> <li>(산업)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실태조사 및 구조조정 권고('18.7월)</li> <li>(국방)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진상규명('18.7월), 기무사령부 해편('18.9월)</li> <li>(복지) 국민연금 스튜어디스 코드 도입('19.2월) 및 의결권 행사방향 사전공개('19.3월)</li> </ul> </li> <li>• 국정농단 관련자 사법처리 및 적폐청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순실 등 45명 기소, 전원 1심 유죄선고, △최순실 등 재판선고액 초과재산 추징보전 조치 완료, △최순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추징금 63억원 전액 완납('20.6월)</li> </ul> </li> <li>• 범죄수익환수 제도 정비* 및 범죄수익 환수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수익은닉규제법」('19.4월 '20.5월 '21.12월), 「부패재산몰수법」('19.8월), 「마약거래방지법」('20.5월) 개정</li> <li>**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18.2월) 신설, 범정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18.6월) 출범</li> </ul> </li> </ul> </div> |
| <b>개선·보완<br/>필요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수익환수조치 강화*, 예술인 권리 보장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지속 정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수익 환수대상 외연 확대에 따른 실질적 집행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 필요</li> <li>** 정부의 예술인 지원제도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21.10, 국회), 제도 정비 및 이행과정에서 정책수요자 소통강화 등 대책 마련 필요</li> </ul> </li> </ul>                                                                                                                                                                                                                                                                                                                                                                                                                                                                                                                                                                                                                                                                                                                                                                                                                                                                                                                                                                                                                                                                                                                                                                                                                                                                                                                                                                                                                                                                                                                                                                                                                                                                                                                                                                                                                                                                                                                                                                                                                    |

|   |                                     |
|---|-------------------------------------|
| 2 | <b>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 · 법무부)</b> |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부패 개혁을 위해 부패방지체계 강화, 예산집행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 확대, 국민권익보호,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강화 등 추진</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간 강력한 반부패·공정정책 추진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청렴도·투명도는 지속개선, 부패방지 관련 법적 기반도 충실히 마련</li> <l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새로운 법·제도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방지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한 부패통제의 실효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자 사익추구 근절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21.5월)* 및 법 적용 대상 공직자(200만명) 대상 교육 추진 등 법 시행('22.5월) 대비 철저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익추구 금지대상 확대(행정부 외 입법·사법부, 지자체 등 포함),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기피 등 이해충돌방지 10대 행위 기준 등 규정</li> </ul> </li> <li>• 입시비리·노동강요행위 등을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등 공익신고 대상법을 확대(467→471개)*, 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1.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근로기준법」 등 4개 법률 추가</li> </ul> </li> <li>•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21.8월)</li> </ul> </li> <li>■ 부패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국민불신 극복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주재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21.3월)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계획 등 범부처 총력 대응 방안 논의</li> <li>•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관행 혁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점검, 공공재정 부정청구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li> </ul> </li> <li>■ 인명 피해범죄 근절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및 대국민 의견수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인명피해에 대한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li> </ul> </li> <li>•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준비 범정부TF」를 구성하여 범부처 협력 강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노동계·경영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강화*('21.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등 (경영계)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건설협회·중소기업연합회 등</li> </ul> </li> </ul> </li> <li>■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무관용 처벌로 반칙 없는 사회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스타항공 等 5대 중대 부패범죄* 적극 수사, 지역 토착비리 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스타항공 주식 저가매도에 따른 특경가법(배임)으로 현직 국회의원 구속기소('21.5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횡령·배임 부패범죄사범 236명 기소, 그 중 76명 구속('21.12월)</li> <li>** 전남교육청 납품 비리 사건 등 토착비리사범 77명 단속, 19명 구속('21.1~6월)</li> </ul> </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설치 통해 각종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21.6월)</li> </ul> <p>■ 사회 각계 연대·협력을 통한 반부패 거버넌스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계·시민사회단체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5회 개최하여 '21년 총 7건*의 반부패정책 의결·제안</li> <l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21.3월), △대학입시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강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위험관리 체계 개선('21.6월),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 개선, 공익법인 등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갑질 근절대책의 강화('21.9월), △청렴계약제 실효성 제고 방안('21.11월)</li> </ul> <p>■ 공익법인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법인에 대한 통일적·체계적 관리를 통해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21.7월)</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 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범정부 반부패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17.9월~)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협력 제도화,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18.4월) 및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출범('18.3월)</li> <li>* 반부패 총괄 기능 수행을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국회 제출('20.6월)</li> </ul> </li> <li>•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18.10월), 공익신고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3개월→1년),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한도 상향(20억원→30억원)으로 신고자 보호 강화</li> <li>*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 법률 187개 추가('20.11월, '21.4월),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 개정('20.5월),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20.6월)</li> </ul> </li> <li>•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적폐 근절로 부패·불공정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발선에서의 불평등(유치원 및 학사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우월적 지위 남용(공공분야 갑질,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보조금 부정수급, 지역 토착비리, 탈세, 보험수급 비리, 재건축 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 생활적폐 9개 과제 확정 및 개선대책 추진('18.12월~)</li> <li>*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21.3월)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계획 등 논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이행 점검('21.9월 기준 26개 과제 완료, 59개 추진중)</li> </ul> </li> <li>• 국가청렴도 제고로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국가청렴도(CPI, 국제투명성기구, '22.1월 발표) 62점, 32위('20년 33위, '19년 39위)</li> <li>* 공공청렴지수(IPI, 반부패 국가역량 유럽연구센터, '22.1월 발표) 18위('19년 대비 2단계 ↑)</li> </ul> </li> </ul> </div> |
| <p><b>개선·보완<br/>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자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월 시행)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마련 및 교육·홍보 지속 추진 필요</li> <li>•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관계부처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추가 보완과제* 집중 추진 필요</li> <li>*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으나('22.1.27), 제도 수범자인 기업 등에서 규정의 모호성·제도 실효성·중소기업 대응여력 부족 등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 제기</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8광주민주화운동, 제주4.3 등 완전한 해결 추진,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과거사 청산 및 사회통합 지원 추진</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8 및 4·3사건의 진실규명과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적 요구에 부응</li> <li>■ 과거사 문제해결 등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위해 관련 단체간 긴밀한 협의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총체적·객관적 조사활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진상규명 신청사건 조사개시결정 및 위원회 차원의 직권조사 개시 결정 등 적극적인 조사 활동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개시결정('21.1~12월) : 신청사건(52건), 직권조사(10건/광주 북한특수군 주장사건 등)</li> </ul> </li> <li>• 사건현장과 관련기관 방문조사(124개), 문헌조사(9,718권), 장·사병(200여명) 증언청취 등 객관적인 증거확보를 통해 5·18당시 발생 사건들을 재구성 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 성과를 발표('21.5월)</li> <li>• 5·18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와 소재를 조사하여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41년간 이름 없이 묻혀있던 5·18 무명열사의 신원(故 신동남씨)이 밝혀져 유가족의 품으로 인계</li> </ul> </li> <li>• 방송 및 제보·고백 공익캠페인 등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감대 및 참여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현황) '20.12월 : 신청52건, 제보247건 → '21.12월 : 신청164건, 제보280건</li> </ul> </li> </ul> </li> <li>■ 제주4·3사건 해결을 위해 피해보상 근거 마련 및 기념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3사건법」 개정*으로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 근거 마련, 연구용역 추진 등 과거사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통해 수형인이 된 2,500여 명에 대해 특별재심으로 명예회복 및 4·3사건 희생자의 피해보상 근거 마련('21.2.26, 4·3사건법 전부개정 국회 통과)</li> <li>** 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4·3희생자 보상기준 등을 담은 「4·3사건법」 국회 본회의 통과('21.12.9) 및 시행령 개정 추진</li> </ul> </li> <li>•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접수(7차), 심사 및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3사건법 개정, 집중홍보 등의 노력으로 신고접수 급증: 7차('21.1~6월) 32,615명 접수<br/>→ 6차 추가신고 접수('18.1~12월/21,696명) 대비 50.3%(10,919명) 증가 / 면담 및 사실 조사,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 심사 진행 중</li> </ul> </li> <li>•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21.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주관 공식적 추념식으로 대통령, 행안부장관, 유족 등 참석(국방부장관·경찰청장 최초 참석)</li> </ul> </li> <li>• 4·3행방불명인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4·3희생자 유해 3구 발굴(3.31.), 유가족 채혈 전담병원 운영 등</li> </ul> </li> </ul> </li> <li>■ 2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활동 본격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제복지원 사건 등 미해결 과거사 사건 총 12,541건 신청 접수('21년 누계)하여,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7,605건 처리('21년 누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리한 7,605건 중 조사개시 6,792건, 각하 744건, 사전조사 19건, 기타 50건</li> </ul> </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순사건법」, 「3·15의거법」 제정으로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순사건 발생 73년 만에 진상규명 등을 위한 「여순사건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통과(6.29), 공포(7.20), 설립준비단 설치(8.23),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 추진 중</li> </ul> </li> <li>•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인 3·15의거 발생 61년 만에 「3·15의거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통과(6.29), 국무회의(7.13), 공포(7.20), 진화위 협의·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 추진 중</li> </ul> </li> </ul> </li> <li>■ 추념 및 화해·치유사업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과거사 문제해결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 치유·재활을 위해 <b>트라우마센터</b> 운영(광주·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적('21.12월 기준): 9,653명 이용(상담 1,001명, 방문 842명, 예술치유 1,583명, 물리치료 6,227명 등)</li> </ul> </li> <li>• 민주주의 발전 유공 <b>정부포상</b> 수여(3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故 김근태 등 국민훈장 모란장(25명), 국민포장(4명), 대통령 표창(2명)</li> </ul> </li> <li>• 인권탄압의 상징 옛 남영동 대공분실 '<b>민주인권기념관</b>' 건립 착공(6.10)</li> <li>•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설계 및 사전절차 이행</li> <li>• (가칭)과거사통합재단 설립 검토 초안 마련을 위한 진화위 협의, 전문가 자문</li> </ul> </li> </ul> <div data-bbox="344 936 1417 1534"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18.3월)을 통해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출범('19.12월)으로 진상규명 조사활동 착수</li> <li>•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해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20.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10년) 이후 담보상태에 머물던 미해결 과거사 전반에 대한 진실규명 재개(신청접수 1호: 형제복지원 사건)</li> </ul> </li> <li>• 제주4·3사건에 대한 국가의 사과, 명예회복 조치, 피해보상의 노력을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4·3추념식 참석 국가폭력에 깊이 사과, 4·3희생자·유족 추가신고 및 결정, 연구용역 등을 통한 합리적 보상방안 수립, 4·3사건법 개정을 통한 보상 법제화</li> </ul> </li> <li>• 위령시설 조성, 옛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사회 환원, '19년 처음으로 민주주의 발전 유공 정부포상 수여 등 치유·화해 사업으로 국민통합 추진</li> </ul> </div> |
| <b>개선·보완<br/>필요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사 해결·진실규명을 위한 「여순사건법」 및 「3·15의거법」 제정(7.20) 이후,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조사기구 및 절차 마련, 위령·기념사업 등 후속 조치 준비</li> </ul> </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및 보도·제작·편성의 자유 보장</li> <li>■ 인터넷상 자유로운 소통 문화 확산</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지원 등을 통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표현의 자유 증진에 기여</li> <li>■ 다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방송법 입법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의 독립·자율성 강화 노력으로 방송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면접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주요 내용 공개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통해 공영방송 신뢰도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견 접수채널을 확대(우편, 이메일, 홈페이지)하고, 이사 후보자에게 국민을 대신하여 질의</li> <li>** 가장 신뢰받는 매체 조사 결과, KBS는 신뢰하는 방송매체 1위를 기록(시사인 '20년, '21년)</li> </ul> </li> <li>•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와 철저한 이행점검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 위반사례 지속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 개선계획 수립, 외부 전문기관 진단 요구, 이행조건 부과 등</li> <li>** 방송심의 규정 중 공정성 위반 제재 건수: ('18년) 5건 → ('19년) 2건 → ('20~'21년) 0건</li> </ul> </li> <li>•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 회복 노력을 인정받아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42위로 3년 연속 아시아 1위*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 63위 → ('18년) 43위 → ('19년) 41위 → ('20년) 42위 → ('21년) 42위</li> </ul> </li> </ul> </li> <li>■ 민간자율의 팩트체크 지원, 재난방송을 활용한 올바른 방역 정보제공 등을 통해 사회 현안 검증의 신뢰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위정보 관련 신속한 제보접수·삭제·차단체계 구축*, 민간자율의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올바른 방역 정보 전파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위조작정보 제보시스템 운영) 접수 2,717건, 유튜브 등 허위조작정보 2,148건 차단,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 약 2,671건</li> <li>** (팩트체크넷) 전문·시민 팩트체커가 협업을 통해 팩트체크 수행 후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이용자수 150,734명, 페이지뷰 849,732건)</li> </ul> </li> <li>• 재난방송을 통한 코로나 예방요령, 확진자 정보 등 정확한 정보의 선제적* 이고 신속한** 전파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포털 안내메뉴에 접종계획 추가, '코로나 백신' 정보 검색 시 정부 공식 홈페이지 우선 노출</li> <li>** KBS1TV 뉴스특보(3,476회), 국민행동요령 캠페인(2,521회), 영어 흘림 자막방송(16,605회) 실시 등 지상파, 중편·보도 채널에서 다양한 형태의 코로나19 재난방송을 수행</li> </ul> </li> </ul> </li> <li>■ 제도개선·자율규제 강화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정보에 대한 공적규제를 축소하고 사업자의 자율규제 역할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규제 참여 사업자: ('17년) 51개 → ('21년) 63개(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 등)</li> </ul> </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임시조치 제도*</b>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신설, 반론기회 부여 등 권리침해 주장자와 정보게재자 간 <b>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b></li> </ul> <p>*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 최소화를 위해 사업자가 해당 게시물을 임시차단</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영방송 이사 선임 투명성 제고*, 엄격한 재허가·재승인 심사로 자율성·공정성 강화**를 통해 공영방송의 신뢰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후보자 면접제도를 처음 도입, 지원서를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후보자에 대한 의견 및 질의를 접수(총 434건)</li> <li>**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공정성 조항 위반 제재: ('18년) 5건 → ('19년) 2건 → ('21년) 0건</li> </ul> </li> <li>•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방송을 강화*하고 민간자율의 팩트체크**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년)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li> <li>('21년)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 수립,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구축</li> <li>** (팩트체크넷) 누구나 팩트체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플랫폼 운영</li> <li>(팩트체크 교육) 전문교육(팩트체커 양성교육+보수교육) 총 20회, 수료인원 354명 / 시민교육(일반 시민대상 교육) 총 92회, 수료인원 1,688명</li> </ul> </li> <li>• 지상파 방송-종합편성채널 간 의무송출제도, 방송편성규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등 차별적 규제제도 개선*으로 형평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편채널 의무편성제도 폐지('19.12월), 종편에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 부과('18.12월), 분담금 징수율을 종편 단일비율에서 매출액별 차등 부과방식으로 통일('19.8월)</li> </ul> </li> <li>• 인터넷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기구 지원*,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 확대**, 국제공조 점검단*** 신설('20.1월) 등을 통해 민간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서비스 제공단체가 청소년 유해·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할 수 있게 하고, 정부 지원 근거 마련</li> <li>** ('17년) 51개사 → ('21년) 63개사(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 등)</li> <li>***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주요 해외 플랫폼과 협업하여 불법·유해 정보 삭제(또는 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요청 및 정책 공조</li> </ul> </li> </ul> </div> |
| <p><b>개선·보완<br/>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방송법 입법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b>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b></li> <li>-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여야 및 이해관계자 등 이견으로 개정 지연</li> </ul> <p>* 발의 의원 정청래('20.6월), 박성중('20.8월), 정필모('20.11월), 허은아('21.1월), 한준호('21.1월), 전해숙('21.3월), 황보승희('21.7월)</p>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이 국민과 가까이 호흡하고 주요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li> <li>■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을 마련하고, 핵심 인재군을 추천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사시스템 구축</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능형 인재추천 서비스 적극 활용, 공공기관 주요 일정공개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 구현에 노력</li> <li>■ 다만,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악산(백악산) 1단계 개방 성공적 운영 및 2단계 개방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개방('20.11월) 후, 코로나19 확산 및 5개소 안내소 중 2개소가 각 1달간 공사로 인한 폐쇄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관람객 약 88%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개방 전/'19.11월~'20.10월) 14.3만 명 → (1단계 개방 후/'20.11월~'21.10월) 26.9만 명</li> </ul> </li> <li>• 청와대 방호를 보장하며 자연유산 북악산 2단계 전면개방 준비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악산 관계기관 협력 시민 개방 세부계획 수립('21.4월, 면적56만㎡, 탐방로3km) / 청와대 방호, 수막타워·헬기배정 등 산불대비, 관람안전 편의시설 정비, 안내 해설체계 정비 등 / 북악산 역사문화자원 디지털(AR·VR) 자원화 등 활용콘텐츠 개발·제작 등</li> </ul> </li> </ul> </li> <li>■ 저도(대통령별장) 본 개방 지속 및 관리권 전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많은 관심 속에 본 개방('20.9월)을 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람선 운항 일시 중단('21.6~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도 방문객현황 : 총 15,431명 방문('21.12월 기준)</li> </ul> </li> <li>• 저도 내 대통령별장 외곽개방 결정('21.12월)을 통해, '22.2월부터 대통령 별장 외곽 산책로를 추가 개방하고 지정장소에서 사진 촬영 허용</li> <li>• 저도 관광 활성화 및 방문객 편의 제공을 위해, 저도 당일 입도절차를 마련하여 '22.2월부터 시행</li> <li>•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저도 상생협의체' 검토를 통해 관리권 이관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저도 개방협약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생협의체 : 국방부, 행안부, 해군, 경남도, 거제시</li> </ul> </li> </ul> </li> <li>■ 지능형 인재추천서비스 활용 및 정부헤드헌팅 통한 민간인재 영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를 AI 기술 기반*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분야별 즉시·적격 인재 추천, 인물정보 자동 수집 통한 신속 현행화 등</li> <li>** 지능형 인재추천서비스 고도화 사업 완료('20년), 시범 운영('21.3~6월), 소기관 확산(7월~)</li> </ul> </li> <li>• 공공분야 전반에 국가인재DB 활용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천인원 : ('20년) 46,180명 → ('21년) 53,450명 / 전년대비 15.7% 증가</li> </ul> </li> <li>•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 직접검색 서비스를 공공기관까지 확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국가·지자체에 제공하던 직접검색을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21.8월)</li> </ul> </li> <li>• 정부 민간인재 영입(헤드헌팅) 활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입인원 : ('18년) 6명 → ('19년) 5명 → ('20년) 16명 → ('21년) 24명(중앙11, 공공기관13)</li> </ul> </li> </ul> </li> </ul> |

|                              |                                                                                                                                                                                                                                                                                                                                                                                                                                                                                                                                                                                                                                                                                                                                                                                                                                                                                                                                                                                                                                                                                                                                                                                                                                                                                                                                                                                                                                                                                                                                                                                                                                                                                                                                                                                                        |
|------------------------------|--------------------------------------------------------------------------------------------------------------------------------------------------------------------------------------------------------------------------------------------------------------------------------------------------------------------------------------------------------------------------------------------------------------------------------------------------------------------------------------------------------------------------------------------------------------------------------------------------------------------------------------------------------------------------------------------------------------------------------------------------------------------------------------------------------------------------------------------------------------------------------------------------------------------------------------------------------------------------------------------------------------------------------------------------------------------------------------------------------------------------------------------------------------------------------------------------------------------------------------------------------------------------------------------------------------------------------------------------------------------------------------------------------------------------------------------------------------------------------------------------------------------------------------------------------------------------------------------------------------------------------------------------------------------------------------------------------------------------------------------------------------------------------------------------------|
|                              | <p>■ <b>광화문 재구조화 사업</b>(서울시 주관) <b>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협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광화문광장추진단)와 협조체계를 구축,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현황 공유를 통해 지속 모니터링 실시</li> <li>* 서울시에서 역사성 등을 보완·발전시킨 2차 변경안 발표(6.23), '23년 완료 목표로 시민광장 조성사업('20.11월~'22.6월)은 정상 진행중('21.12월말 기준 공정률 61%), 역사광장 조성사업('22.2.~'23.12.)을 위한 사업자 선정('21.12.)</li> <li>•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이 집무실 이전 등을 고려한 서울청사 기능 유지 및 청사 주변 교통체계에 문제가 없도록 업무 협의('21.1월~7월)</li> </ul> <p>■ <b>주요 인사 일정공개 제도 점검·추진을 통한 투명한 정부 구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 정보공개종합평가 「사전공개 충실성 지표」를 통해 공공기관 일정 공개 운영현황 점검 및 관리 독려</li> <li>* ('19년) 6.9점 → ('20년) 7점 → ('21년) 8.6점 (※ 10점 만점)</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lt; 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 &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청 및 광역지자체 기관장 주요일정 공개*로 국민 알권리** 증진('19.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 공개 대상을 장관 등 28명에서 청장 및 광역지자체장까지 확대(총 62명)</li> <li>** 법적근거 마련(「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 '19.12), 일정 등록시점 명확화(전일 19시 이전)</li> </ul> </li> <li>• '저도' 및 청와대 인근 북악산 개방을 통해 대국민 소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저도' 개방 방침 발표('19.7.30, '19.9월부터 1년간의 시범개방 및 '20.9월 부터 개방범위·인원 등을 확대하는 등 정식개방 실시)</li> </ul> </li> <li>• 청와대 인근 북악산(명승 백악산) 시민 개방을 통해 국민소통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청와대 앞길 24시간 개방 → ('18년)인왕산길 완전 개방 → ('20년)북악산 북측면 개방 → ('22년)북악산 남측면 개방</li> </ul> </li> <li>• 국민참여 확산 방안 컨설팅을 통한 국민추천제 활성화 계획 수립('18.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신규 개선을 통한 국민 참여·접근성 강화('18.8월)</li> </ul> </li> <li>• 지능형 인재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재발굴 체계화('18.12월)</li> <li>•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인재를 추천하는 지능형 인재추천 시스템 구축('20년)</li> <li>• 정부 민간인재 영입(헤드헌팅) 공공기관까지 확대('20.7월) 등 활용 활성화</li> </ul> </div> |
| <p><b>개선·보완<br/>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공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위해 관할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요인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li> </ul>                                                                                                                                                                                                                                                                                                                                                                                                                                                                                                                                                                                                                                                                                                                                                                                                                                                                                                                                                                                                                                                                                                                                                                                                                                                                                                                                                                                                                                                                                                                                                                                                                                                                          |

|   |                                      |
|---|--------------------------------------|
| 6 | <b>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b> |
|---|--------------------------------------|

|                       |                                                                                                                                                                                                                                                                                                                                                                                                                                                                                                                                                                                                                                                                                                                                                                                                                                                                                                                                                                                                                                                                                                                                                                                                                                                                                                                                                                                                                                                                                                                                                                                                                                                                                                                                                                                                                                                                               |
|-----------------------|-------------------------------------------------------------------------------------------------------------------------------------------------------------------------------------------------------------------------------------------------------------------------------------------------------------------------------------------------------------------------------------------------------------------------------------------------------------------------------------------------------------------------------------------------------------------------------------------------------------------------------------------------------------------------------------------------------------------------------------------------------------------------------------------------------------------------------------------------------------------------------------------------------------------------------------------------------------------------------------------------------------------------------------------------------------------------------------------------------------------------------------------------------------------------------------------------------------------------------------------------------------------------------------------------------------------------------------------------------------------------------------------------------------------------------------------------------------------------------------------------------------------------------------------------------------------------------------------------------------------------------------------------------------------------------------------------------------------------------------------------------------------------------------------------------------------------------------------------------------------------------|
| <b>과제목표</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위 자율성 강화 및 실효성 확보, 국가권력의 불법사찰 근절, 국가 폭력 피해자 지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인권 수준 향상</li> </ul>                                                                                                                                                                                                                                                                                                                                                                                                                                                                                                                                                                                                                                                                                                                                                                                                                                                                                                                                                                                                                                                                                                                                                                                                                                                                                                                                                                                                                                                                                                                                                                                                                                                                                                                                            |
| <b>총평</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교정분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노력으로 촘촘한 인권보호망 구축 성과 도출</li> <li>■ 다만,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간 합의점 마련을 통해 피의자 인권향상 필요</li> </ul>                                                                                                                                                                                                                                                                                                                                                                                                                                                                                                                                                                                                                                                                                                                                                                                                                                                                                                                                                                                                                                                                                                                                                                                                                                                                                                                                                                                                                                                                                                                                                                                                                                                                                             |
| <b>'21년도<br/>주요성과</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인권정책의 통합적 추진(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 등)을 위한 「인권 정책기본법」 제정안 마련('21.12월 국회 제출), 인권존중 문화 확산 선도</li> <li>■ 통신수사과정의 불법사찰 근절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통신제한조치시 법원 사후허가 필수화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21.3)</li> </ul> </li> <li>■ 수사·교정분야 인권보호 강화로 인권 침해 사각지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 검찰청 내 기존 인권감독관을 '인권보호관'으로 격상, 기관장 직속으로 배치하여 인권 업무의 총 책임자 역할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직접수사 6대 범죄 관련 적법절차 위반 여부 감독, △수사정보 유출 관련 진상조사 등 담당</li> </ul> </li> <li>• (교정) 전국 교정시설 수용처우 관련 수용자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54개 교정기관 수용자 51,038명 중 46,504명 응답, 응답률 91.1%</li> <li>** 수용공간 확충·급식 단가 증액·급양물품 개선·운동시간 연장·접견시간 확대 등</li> </ul> </li> </ul> </li> <li>■ 범죄피해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범위를 고의범죄 피해에서 과실범죄 피해까지 확대하기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21.11월)</li> <li>• 범죄피해자 직접지원 예산 확대 위해 보건복지부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 결정('21.5월)</li> </ul> </li> <li>■ 합리적 개인정보 보호로 국민의 정보주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시대 정보주체 권리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제출('21.9월)</li> <li>• 아동학대 발생시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아동 보호 및 피해구제 강화('21.4월)</li> <li>• 한-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채택*('21.12월) 등 한-EU간 국제협력 강화 통해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기업이 EU 고객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는데 필요했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시간이 절감되는 등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대</li> </ul> </li> </ul> </li> <li>■ 자원봉사 지원체계 확립을 통한 봉사활동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대응 자원봉사 참여 지원으로 코로나19 극복 활동 적극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 171만명, '21년 상반기 198만명 참여(농촌 일손돕기, 취약계층 지원 등)</li> </ul> </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자의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역할 표준안 및 운영가이드를 마련하여 원활한 예방접종에 기여('21.12월 기준 23만명 참여)</li> <li>• 자원봉사자 보험 개선으로 전년 대비 1인당 보상액 및 수혜율 대폭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상액) '20년 1.55백만원 → '21년 2.61백만원, (수혜율) '20년 27% → '21년 44.3%</li> </ul> </li> <li>■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21.5월), 제1차 시민사회기본계획('22~'24년)* 수립 및 시행('21.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간 부처별로 각각 추진되던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정책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수행 가능</li> </ul> </li> </ul> </li> <li>■ 기부제도 개선으로 기부문화 투명성·책임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통합관리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실시('21.2월) 및 안정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들의 기부정보 접근성 향상 및 모집등록 절차 전산화 등 기부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21.2.8. 개통 완료)</li> </ul> </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 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의 과거 인권침해 반성 및 제3차 인권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과거사위원회 운영('17.12~'19.6) 및 '故박종철 고문치사', '형제복지원' 사건 검찰총장 사과('18.3.11월), '5·18 계엄군 성폭력 사건' 국방부장관 사과('18.11월)</li> <li>* 범죄피해자 주거지원을 보복범죄·아동학대 피해자 등까지 확대('18.3월),</li> <li>* 국민 안전권 및 기업의 인권책임 등 반영,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 수립('18.8월)</li> <li>* 舊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개관('18.12월)</li> </ul> </li> <li>• 국가 권력에 의한 불법사찰 근절 및 국가 폭력으로부터 국민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편검열·통신감청 기간을 최대 1년으로 규정, 위치정보 추적 수사 요건 제한('19.12월)</li> <li>* △경찰특공대 투입을 엄격 제한하는 「경찰특공대 운영규칙」 개정('19.6월), △살수차 원칙적 미배치를 규정한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1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20.3월),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20.7월)</li> </ul> </li> <li>• 개인정보보호 체계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본격 시행 및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20.8월)</li> <li>* 한국 이전 개인정보 처리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적용을 위한 보완규정 제정('20.9월)</li> </ul> </li> <li>•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 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중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20.12월)</li> <li>*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20.12월)을 통한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정보와 행안부 및 시도 기부금품 모집등록정보 통합 제공('21.2월~)</li> </ul> </li> </ul> </div> |
| <b>개선·보완<br/>필요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관련 유관기관간 합의점 마련**을 통해 피의자 인권향상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 재판단계가 아닌 수사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개정안 법제처 심사 진행 중</li> <li>** 형사공공변호공단 신설 및 운영 관련 법원·대한변협·예산당국 등 관계기관 이견</li> </ul> </li> </ul>                                                                                                                                                                                                                                                                                                                                                                                                                                                                                                                                                                                                                                                                                                                                                                                                                                                                                                                                                                                                                                                                                                                                                                                                                                                                                                                                                                                                                                                                                                                                                                                                                                                                                                                                                                                                                                                                                                                                                                                                                                                        |

| 과제목표          | ■ 촛불민심 등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개헌, 정치선거제도 개혁 등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총평            | ■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개헌안 취지를 담은 정책·제도 등을 마련하여 추진 중<br>■ 다만, 국회 논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      |      |               |          |  |     |      |      |      |      |    |            |     |     |     |    |               |          |
| '21년도<br>주요성과 | ■ 대통령 개헌안 취지를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구현<br>• 관계부처 합동으로 4개 분야* 181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br>* (지방분권 강화 및 지방자치 활성화) 주민발안법 제정('21.9.28), (노동자 권리 강화)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및 결사의 자유 협약 관련 3법(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 추진('21.1.5), (사회적 약자 기본권 강화) 소외계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급액 인상('20년 1만원 → '21년 10만원),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개선('21.10월), (교육 받을 권리 강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21.2월)<br>•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 점검·관리<br><table><tr><th rowspan="2">계</th><th colspan="5">이행완료</th><th rowspan="2">추진중</th></tr><tr><th>'18년</th><th>'19년</th><th>'20년</th><th>'21년</th><th>소계</th></tr><tr><td>181개(100%)</td><td>83개</td><td>35개</td><td>14개</td><td>9개</td><td>141개<br/>(78%)</td><td>40개(22%)</td></tr></table><br>■ 「주민조례발안법」 제정('21.9.28)을 통해 국민 참정권 강화<br>•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청구, 청구 연령 하향 조정(19세→18세), 청구권자 서명인원 수 요건을 인구 규모별로 세분화·완화 등<br><div><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대통령 개헌안」 마련·발의('18.3월)<br/>* '18.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개정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개헌에 대한 국회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li><li>• 개헌안 취지를 반영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br/>* '대통령 개헌안 취지 반영 후속조치 계획' 수립('18.6월, 4개분야 181개 세부과제), 주기적으로 이행상황 점검 관리</li><li>• 국민참정권 확대, 공직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19.12월)<br/>* 선거권자 연령과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람 연령 조정(만19세 → 만18세), 준연동형 (50%) 비례대표제 도입</li></ul></div> | 계    | 이행완료 |      |               |          |  | 추진중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소계 | 181개(100%) | 83개 | 35개 | 14개 | 9개 | 141개<br>(78%) | 40개(22%) |
| 계             | 이행완료                                                                                                                                                                                                                                                                                                                                                                                                                                                                                                                                                                                                                                                                                                                                                                                                                                                                                                                                                                                                                                                                                                                                                                                                                                                                                                                                          |      |      |      |               | 추진중      |  |     |      |      |      |      |    |            |     |     |     |    |               |          |
|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소계            |          |  |     |      |      |      |      |    |            |     |     |     |    |               |          |
| 181개(100%)    | 83개                                                                                                                                                                                                                                                                                                                                                                                                                                                                                                                                                                                                                                                                                                                                                                                                                                                                                                                                                                                                                                                                                                                                                                                                                                                                                                                                           | 35개  | 14개  | 9개   | 141개<br>(78%) | 40개(22%) |  |     |      |      |      |      |    |            |     |     |     |    |               |          |
| 개선·보완<br>필요사항 | • 선거제도 관련 법안 등 개헌안 취지를 담은 법안 추가 논의 시 적극 지원 필요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이 정책입안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li> <li>■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최첨단기술 기반 지능형 정부,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행정 구현</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정책 참여 기반을 확대하여 국민과 함께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체감형 행정 구현</li> <li>■ 다만, 감염병 데이터 등 민간활용도가 높은 국가중점 데이터의 공공개방 확대에 따른 관련 대책 마련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사전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체감형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접종 안내를 비롯해 필요한 행정정보를 개인맞춤형으로 알려주는 '국민비서' 서비스 개시(3.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99만명 이용자 달성 생활정보 3,182만 건 백신접종 3억 7천만 건 국민지원금 1,696만 건 알림 발송(12.30.기준)</li> </ul> </li> <li>•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직접 관리·활용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 개시(2.25.) 및 대민 포털서비스 개시(24종, 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금융기관에 11종 서비스를 시범제공하여 신용카드발급 은행신용대출 등에 2,295만건 활용(21.12월 기준)</li> </ul> </li> <li>• 국민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손쉽게 지급받도록 카드사 연계·협업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속 지급(21.10.29.신청마감일 기준, 대상자 98.7% 수령)</li> </ul> </li> <li>•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민간서비스 활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 예방접종센터 현황, 위탁의료기관별 잔여백신 현황 등 / (기타) 선별진료소·감염 현황 등</li> </ul> </li> <li>• 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지속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 수 : ('17년)2.1만개 → ('21.11월)6.6만개 / 활용 수 : ('17년)188만건 → ('21.11월)3,250만건(누적)</li> <li>** 국가중점데이터 : (~'20년) 121개 분야 → ('21년) 자율주행, 감염병 등 26개 추가 개방</li> </ul> </li> </ul> </li> <li>■ 국민이 필요한 행정서비스 제공 확대를 통한 국민편의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24'·'정부합동민원센터'·'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등 온·오프라인 어디에서나 칸막이 없는 서비스를 위해 공공서비스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지방세 통합 민원실 : ('18년) 2곳 → ('19년) 21곳 → ('21년) 36곳</li> </ul> </li> <li>• 전자증명서 등 디지털 기반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 편의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제공 : ('19년)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 → ('20년)국세납세증명 등 100여종 → ('21년)가족관계증명서 등 306여종 / 업무 활용기관 수 : 금융기관(농협·신한 등), 통신사, 병무청, 농어촌공사, TOSS, 교보생명 등 106개 기관('21.12월말 기준)</li> </ul> </li> <li>• 임신·출산·사망 등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한 곳에서 안내받고 일괄 신청하는 생애주기 통합제공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심상속(14→16종), 행복출산(7→8종), 맘편한임신(9→14종) 서비스 통합신청 대상 추가</li> </ul> </li> <li>•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참여기관 및 개방자원 지속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74개 기관 49,228개 시설·물품·장비 공유서비스 제공('21.12월 기준)</li> </ul> </li> </ul> </li> <li>■ 주민 중심의 지역사회혁신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휴공간을 지역사회혁신 활동 공간으로 활용지원하는 '지역자산화 지원 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년) 2개소 → ('20년) 12개소 → ('21년) 예비대상지 28개소</li> </ul> </li> <li>•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21년 춘천·전주·제주 개소, 누적 총 6개소 운영)</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추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10개 지역 총 159개 의제 실행</li> <li>** ('19년) 대구, 강원, 광주, 충북, 대전, 경남, ('20년) 전남, 충남 추가, ('21년) 부산, 울산 추가</li> </ul> </li> <li>■ 정부 운영과정 전반에 국민의 다양한 정책참여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운영으로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참여를 통한 정책대안 발굴 및 국민 소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21.11월) 총 58회 개최, 10,160명 참여, 229개 정책제안 발굴 및 176개 정책반영</li> </ul> </li> <li>국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 등을 통한 국민제안 95건을 정부혁신 과제로 발굴·속성하여 정책화로 추진('21.12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사례 : 아이스팩수거함 설치 및 재사용, 실손보험 등 보험금 청구시 서류 간소화 등</li> </ul> </li> <li>'도전.한국','리빙랩' 등 국민-정부가 협력하여 복잡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전.한국 : 1,130개 국민 공모과제, 5차례 공모에 4,623건 아이디어 접수(누적)</li> <li>** 총 225개 리빙랩 의제를 시민·전문가 등 약 15,000명 참여하여 발굴·시행</li> </ul> </li> <li>실질적 참여권 보장을 위한 국민참여 관련 법률 재·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원법 하위법령 제정 및 행정절차법(온라인공청회 활성화, 청문대상 확대) 개정(12.9 국회통과)</li> </ul> </li> </ul> </li> <li>■ 정보공개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열린 정부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공개 절차 간소화(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및 수수료 인하(1건 5,000원 → 1GB마다 800원) 등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6.23.)</li> <li>원문정보 공개(율) 확대 및 정보공개포털 이용자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문정보 공개(건) : ('20년) 2,355만(45.7%) → ('21년) 3,642만(62.7%)</li> <li>** 정보공개포털 방문자(수) : ('18년) 435만 → ('19년) 548만 → ('20년) 712만 → ('21년) 935만</li> </ul> </li> </ul> </li> <li>■ 국민안전, 정보격차 해소 등 혁신조달을 통해 국민 삶의 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 K-뉴딜 등 국정현안 대응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수요자인 국민과 기관이 직접 혁신제품을 선정하는 '스카우터', '수요 인큐베이팅'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제품 지정(누적): ('19) 66개 → ('20) 345개 → ('21) 968개(+623개 신규 지정)</li> </ul> </li> <li>코로나19 대응, 화재안전, 산간지역 와이파이서비스 제공 등 혁신제품 활용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시) 혁신제품 '스마트 소화기'를 사용하여 부산시 사상구 화재 조기진압 성공</li> <li>'감염환자 이송용 음압캐리어'를 활용하여 의료진 등 방역현장 추가 감염 방지</li> </ul> </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1년 OECD 정부신뢰도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ECD 데이터 개방지수 평가」 3회 연속 1위, '19년 OECD 디지털 정부평가 1위, UN 전자정부평가 온라인 참여지수 2회 연속 1위 등 각종 디지털 정부 관련 평가 1위 기록</li> </ul> </li> <li>'국민비서' 서비스(3.29)로 백신접종 등 행정정보 9종을 개인맞춤형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정보 3,182만 건, 백신접종 3억 7천만 건, 국민지원금 1,696만 건 알림 발송('21.12월 기준)</li> </ul> </li> <li>국민생활 밀접 분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백신접종 전자증명서 발급(국문:'21.2.26.~/영문:'21.12.17.~)</li> <li>** 이용자(지갑)수 2,327,607명, 발급 2,299,069건, 제출 408,706건('21.12월 기준)</li> </ul> </li> <li>소통협력공간 공동브랜드 '커먼즈필드(COMMONZ FIELD)' 해외 디자인상 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브랜드&amp;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본상(Winner) 수상('21.8월)</li> </ul> </li> </ul> </div> |
| 개선·보완<br>필요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율주행 및 감염병 데이터 추가 개방 등 민간활용도가 높은 국가중점 데이터의 공공개방 확대에 따른 발생 가능한 문제점* 검토 및 대책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유출,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침해, 사적·영리·상업적 목적 등으로 악용 우려 등</li> </ul> </li> <li>국민참여 정책제안 활성화를 통한 우수 정부혁신 과제 지속 발굴 및 전파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화된 우수사례에 대한 온라인 국민설명회 개최 등 대국민 홍보 강화 등</li> </ul> </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인사시스템 구축 및 공직윤리 강화, 소수자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전문성·역량에 중점을 둔 인사 등 추진</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인재DB 활용 확산을 통해 공정·투명한 인사를 추진하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근절 기반을 마련해 공직사회 신뢰 제고</li> <li>■ 다만, 인사제도에 대한 세대별 인식도 조사 및 정책반영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법·부당한 인사에 대한 방지 시스템 내실화로 공정·투명한 인사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인재DB 추천인원·활용기관 지속 확대* 등 국가인재DB 활용 확산**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정부인사의 공정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천인원: ('20년) 46,180명 → ('21년) 53,450명 (15.7% 증가)</li> <li>공공기관 중 활용기관 : ('19년) 41개 → ('20년) 94개 → ('21년) 121개</li> <li>** 국가인재DB 활용률 : ('18년) 11.6% → ('19년) 13.0% → ('20년) 14.2% → ('21년) 16.1%</li> </ul> </li> <li>•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처리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고충처리제도 운영 컨설팅' 정례화 등을 통해 각 부처 고충처리 역량강화 전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고충심사위 처리건수 : ('18년) 90건 → ('19년) 174건 → ('20년) 203건 → ('21년) 233건</li> </ul> </li> </ul> </li> <li>■ 공직윤리를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을 통해 부동산 관련 공직자 대상 재산등록 확대 등*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근절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 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업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 신설 등 포함</li> </ul> </li> <li>•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실효성 강화**를 통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상황 사전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관여금지의무 적용 대상 구체화 및 직무관여금지 제재 강화(과태료 상향) 등</li> <li>** 한국토지주택공사(LH) 취업심사 대상자 확대 및 퇴직공직자의 퇴직 전 기관 대상 청탁·알선 금지 의무 위반 시 해당 취업자 해임 요구 근거 마련 등</li> </ul> </li> </ul> </li> <li>■ 차별 없는 균형 인사의 전 공공부문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발간('21.9월)으로 전 공공부문의 연도·기관별 균형인사 실적을 공개하는 등 공공부문의 자발적 균형인사 독려</li> <li>• '19년 '장애인 근무환경 개선 종합대책' 마련 후 맞춤형 인사관리 매뉴얼 발간('21.4월) 및 중증장애인 멘토링('21.6월) 등 장애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li> <li>• 공공부문 여성관리자·지역인재·장애인 임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 ('18년) 6.7% → ('19년) 7.9% → ('20년) 8.5% → ('21년) 10.0%</li> <li>본부 과장급 : ('18년) 17.5% → ('19년) 20.8% → ('20년) 22.8% → ('21년) 24.4%</li> <li>* (지역인재) 7·9급 수습직원 선발인원 : ('20년) 389명 → ('21년) 476명</li> <li>* (장애인) 7·9급 구분모집 채용 : ('20년) 255명 → ('21년) 285명</li> </ul> </li> </ul> </li> </ul> |

|                          |                                                                                                                                                                                                                                                                                                                                                                                                                                                                                                                                                                                                                                                                                                                                                                                                                                                                                                                                                                                                                                                                                                                                                                                                                                                                                                                                                                                                                                                                                                                                                                                                                                                                                                                                                                                                                                                                                                                                                                                                                                                                                                                                                                                                                                                                                                                                                                                                                   |
|--------------------------|-------------------------------------------------------------------------------------------------------------------------------------------------------------------------------------------------------------------------------------------------------------------------------------------------------------------------------------------------------------------------------------------------------------------------------------------------------------------------------------------------------------------------------------------------------------------------------------------------------------------------------------------------------------------------------------------------------------------------------------------------------------------------------------------------------------------------------------------------------------------------------------------------------------------------------------------------------------------------------------------------------------------------------------------------------------------------------------------------------------------------------------------------------------------------------------------------------------------------------------------------------------------------------------------------------------------------------------------------------------------------------------------------------------------------------------------------------------------------------------------------------------------------------------------------------------------------------------------------------------------------------------------------------------------------------------------------------------------------------------------------------------------------------------------------------------------------------------------------------------------------------------------------------------------------------------------------------------------------------------------------------------------------------------------------------------------------------------------------------------------------------------------------------------------------------------------------------------------------------------------------------------------------------------------------------------------------------------------------------------------------------------------------------------------|
|                          | <p>■ 개방형직위·전문직공무원 운영 혁신으로 민간인재 공직 유입 확대 등 공직 개방성·전문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형직위로 유입된 민간인재에 대해 ▲시기별 교육 ▲방문컨설팅 ▲멘토링 ▲공직 적응 매뉴얼 제공 등 공직 적응 단계별·맞춤형 지원을 통해 만족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형직위 민간인 임용률 : ('14년) 14.9% → ('20년) 44.3% → ('21년) 45.3%</li> </ul> </li> <li>• 전문직공무원 신규채용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에서의 진입 장애 요인을 해소*('21.7월)하는 등 전문직공무원 만족도를 제고해 장기재직 효과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이미 재직중인 공무원의 전직을 통해서만 선발 → (개선) 경력·자격증 보유 민간전문가를 전문직공무원으로 즉시 채용 가능</li> <li>** 전문분야 평균 분야 내 재직기간 비교: (일반직 3~5급) 3년 9개월 → (전문직공무원) 6년 3개월</li> </ul> </li> </ul> <p>■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비대면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등 미래지향적 공직 교육체계 확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쏠 공무원이 필수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공공·민간의 디지털 관련 최신 학습콘텐츠를 일괄 제공하는 '디지털 아카데미' 운영('21.8월~)</li> <li>• 비대면 온라인 학습시스템 인 '인재개발 플랫폼' 2년차를 맞아 실시간 화상교육 시스템, 빅데이터·AI 기반 맞춤형 학습 등 핵심기능을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3단계('20~'22년)에 걸쳐 추진 / 올해 2단계 사업을 통해 플랫폼 핵심기능 구현 일부 부처 시범운영</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대 비리* 해당 시 임용대상에서 원천 배제 등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 강화('17.11월) 및 성비위 무관용 원칙 정립을 통해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li> </ul> </li> <li>•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0.6월), 공직자윤리법('20.12월) 개정을 통해 공직자 재산신고·심사, 퇴직자 취업·행위제한 등 공직윤리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윤리 종합개선도 : ('17년) 74.5점 → ('18년) 75.2점 → ('19년) 76.6점 → ('20년) 78.7점</li> </ul> </li> <li>• 개방형 직위 확대 및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확산으로 혁신적 공직문화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 한 분야에서만 근무하며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하는 제도('17.5월 도입)</li> </ul> </li> <li>•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시행('18.9월)으로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종합적 공무상 재해관리 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보상 적용대상 확대, 위험직무순직 요건 재정비, 순직 공무원 보상 수준 현실화 등</li> </ul> </li> <li>•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시행('18.1월)으로 초과근무 감축·연가 활성화*, 육아·출산 지원** 강화하여 근무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과근무 : ('17년) 28.6시간 → ('19년) 23시간 → ('20년) 22시간 → ('21년) 21.3시간</li> <li>연가 : ('17년) 10.9일 사용 → ('19년) 12.9일 → ('20년) 15.0일 → ('21년) 15.9일</li> <li>**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5→10일), 유·사산 휴가일수 확대(5→10일) 등</li> </ul> </li> </ul> </div> |
| <p><b>개선·보완 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제도에 대한 세대별 인식도 조사의 정기적 실시 및 이를 통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li> <li>• 신규공무원 퇴직자 수 증가* 관련, 신규직원 퇴직 현황에 대한 심층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미만 근무 공무원 퇴직자 수: ('17년) 5,181명 → ('20년) 9,258명</li> </ul> </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계적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구축,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해외 체류 우리국민 신분 보호 강화 추진</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국민 보호인프라를 강화해 체계적·통합적 보호체계를 공고화하고, 재외동포·재외국민 대상 맞춤형 영사서비스 제공으로 편의 제고</li> <li>■ 재외동포 대상 상시 네트워크 구축 및 비대면 영사민원서비스 개선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사고에 대한 보호 인프라 강화로 재외국민 보호체계 공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국민 보호 관련 추진체계 구축* 및 매뉴얼 제정**을 통해 체계적·통합적 관점의 재외국민보호정책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출범 및 제1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1-’25년)」 심의·확정(‘21.10월)</li> <li>** 재외국민보호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개정(‘21.10월)</li> </ul> </li> <li>• 해외안전지킴센터 상시(365일/24시간) 가동, 신속대응팀 파견 등으로 해외 위난상황시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성과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프가니스탄 체류 재외국민 안전 철수(‘21.6월),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대응(‘21.2월) 등</li> </ul> </li> </ul> </li> <li>■ 코로나19 장기화 속 국민 안전 및 경제활동 보호 성과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국민 귀국 및 현지 복귀 지원*, 재외국민 대상 각종 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월~’21.12월) ▲ 126개국 63,997명 귀국(정부임차 전세기 7개국 2,000여명 포함) ▲ 46개국 23,249명의 국내 일시체류 재외국민 해외 복귀 지원</li> <li>** ▲ 산소발생기,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 운송 지원 ▲ 국군의무사령부, 소방청 등과 협업체 비대면 원격진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li> </ul> </li> <li>• 해외진출 기업인·기업들의 신속한 출입국 및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인) 23개국에 3만2천여명 예외입국 지원, 해외출장 다수요 국가 대상 ‘신속통로’(6개국) 도입 (기업) 재외공관 「기업활동지원협의회」 활성화 → 중국인도 등 봉쇄조치시 즉각 교섭으로 애로 해소 사례 등</li> </ul> </li> </ul> </li> <li>■ 재외동포 네트워크 활성화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포용적 재외동포 지원정책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행사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정상추진(‘20년 1회 → ‘21년 6회) 및 재외동포 정책 각급 위원회 상시 운용*(‘20년 1회 → ‘21년 9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동포 정책위 분과위원회 신설(‘21.1월) → ‘21년 각급 위원회 총 9회 개최(분과위 7회, 실무위 1회, 정책위 1회)</li> </ul> </li> <li>• 재외동포 대상 한민족 자긍심·정체성 함양 위한 다양한 지원노력 경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언어·역사·문화 등 원격수업 인프라 확대: (‘20년) 23개교 5.7억 → (‘21년) 31개교 6.5억 ▲ 한글학교 평균지원액 확대: (‘20년) \$8,300 → (‘21년) \$9,020</li> </ul> </li> <li>• 강제이주·강제동원 동포 및 소외동포 대상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 시행(‘21.1월)으로 334명 대상 영주귀국·정착 지원 실시(‘21년) ▲ 한인입양인 가족 찾기를 위한 유전자 채취·등록서비스 167건 실시(‘20~’21년)</li> </ul> </li> </ul> </li> </ul> |

|                              |                                                                                                                                                                                                                                                                                                                                                                                                                                                                                                                                                                                                                                                                                                                                                                                                                                                                                                                                                                                                                                                                                                                                                                                                                                                                                                                                                                                                                                                                                                                                                                                                                                                                                                                                                                 |
|------------------------------|-----------------------------------------------------------------------------------------------------------------------------------------------------------------------------------------------------------------------------------------------------------------------------------------------------------------------------------------------------------------------------------------------------------------------------------------------------------------------------------------------------------------------------------------------------------------------------------------------------------------------------------------------------------------------------------------------------------------------------------------------------------------------------------------------------------------------------------------------------------------------------------------------------------------------------------------------------------------------------------------------------------------------------------------------------------------------------------------------------------------------------------------------------------------------------------------------------------------------------------------------------------------------------------------------------------------------------------------------------------------------------------------------------------------------------------------------------------------------------------------------------------------------------------------------------------------------------------------------------------------------------------------------------------------------------------------------------------------------------------------------------------------|
|                              | <p>■ <b>통합전자행정시스템을 활용한 영사민원 혁신 창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구축(~'20년)을 토대로 온라인 발급문서 대폭 확대, 재외국민의 민원처리 시간 획기적 절감 등으로 연간 200억원 절감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사민원24' 이용자 수: ('19년) 1,574명 → ('20년) 30,406명 → ('21년) 196,924명</li> <li>** 재외공관 방문비용 121억원, 서류 번역비용 37억원 등 행정비용 절감효과 발생</li> </ul> </li> <li>• <b>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21.12월~) 및 온라인 여권서비스 대폭 확대*로 우리국민 신분보호 강화 및 출입국 편의 제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24 및 영사민원24를 통해 10종의 온라인 여권서비스(분실신고·재발급신청 등) 통합 제공, 이용건수는 '20년 대비 약 3.3배 증가(('20년) 10백만건 → ('21년) 33백만건)</li> </ul> </li> <li>• <b>「격리면제서 신청·발급」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속 재외국민의 모국 방문 신속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7~12월 간 179,468건의 온라인 격리면제서 발급</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안전지킴센터 개소('18.5월) 및 개편('20.3월, 8월), 영사조력제도팀 신설('20.8월) 등 재외국민보호 대응체제를 구축확대해 해외 사건사고 대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안전지킴센터 인력증원(10인→14인) 및 근무체계 개편(3교대→4교대) 등 유사시 즉각적 대응능력 강화</li> </ul> </li> <li>• 코로나19 상황 하 「재외국민 귀국지원TF」 구성('20.3월) 및 총 10차례 정부 임차 전세기 투입* 등 귀국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크루즈선 집단감염('20.2월) ▲에콰도르('20.3월) ▲이탈리아('20.4월) 등</li> </ul> </li> <li>•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19.1월 공포, '21.1월 시행)으로 헌법상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영사조력 제공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사절차, 범죄피해 등 유형별 영사조력 내용 구체화 ▲여행경보제도·신속해외송금제도 등 법적 근거 마련</li> </ul> </li> <li>•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서비스('20.12월) 및 병역미필자 여권 발급제도 개선('20.3월) 등 여권서비스 지속 개선을 통해 국민의 출입국 편의 증진</li> </ul> </div> |
| <p><b>개선·보완<br/>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상시적인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재외동포 대상으로 정책서비스 수요 및 만족도를 수시로 조사하고 정책에 반영 필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트워크) 현재 '세계한상대회' 등 이벤트성 행사 위주 운영으로 상시 네트워크 부재 (정책서비스 수요조사) 그동안 미시행해오다 '21년에 처음 시행</li> </ul> </li> <li>• <b>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영사민원서비스 이용 확대 추세를 고려, 재외국민 온라인 본인인증 체계 마련 필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상황 하 비대면 영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공동인증서 발급을 위해 재외공관 방문 필요</li> </ul> </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li> <li>■ 독립-호국-민주의 보훈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지원 강화 및 적극적 국내외 보훈정책 추진으로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과 국격 제고에 기여</li> <li>■ 보훈대상자 지속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민간기관과 의료·요양 인프라 협력 및 서비스 질 관리 강화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생·공헌에 합당한 보상으로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적 보상금 인상*을 통해 '21년에는 보훈대상자 45만명에게 4조 4,584억원을 지원하여 보훈대상자의 실질소득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17년 3.5% → '18~'20년 4.5% → '21년 3%</li> </ul> </li> <li>•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기준 개선(6월)* 및 등록기간 단축('20년 283일 → '21년 24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직무에 코로나방역 등 추가, 보훈보상 대상에 의무복무자의 직무관련성 폭넓게 인정 등</li> <li>* 심사안건 인용률 : '19년 47.7% → '20년 48.8% → '21년 50.4%</li> </ul> </li> <li>• 국가유공자 명패를 전몰·순직군경 등 유족까지 확대 보급('21년 10만여 명)</li> </ul> </li> <li>■ 의료·안장 수요 대응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예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병원 대폭 확대('20년 418 → '21년 518개소), 보훈요양병원·재활센터·치과 병원* 등 의료·요양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요양병원('21년), 광주·부산재활센터('21년),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23년 완공 예정) 등</li> </ul> </li> <li>• 국립묘지 확충('21년 2개소* 완공), 국가유공자 합동묘역(7개소)의 국가관리묘역 지정(7월) 및 기초수급자 전제로 장례서비스 지원 확대('21년 865명에게 17.3억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호국원(신설, 1만기), 대전현충원(확충, 4.9만기)</li> </ul> </li> </ul> </li> <li>■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발굴·포상 등을 통해 독립정신 계승·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등 악재에도 홍범도장군 유해 국내봉환(8월),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개보수·활성화 지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완공(11월,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보수) 홍범도 묘역, 여순 관동법원, 리들리 애국선열비 및 다뉴바 기증자의 벽 등 △(활성화) 이준열사기념관, 한중우의공원, 최재형기념관 등</li> </ul> </li> <li>• 독립유공자 포상심사기준 개선(4월)*으로 독립운동 및 3·1운동 100주년 때(647명)보다 많은 인원 포상('21년 656명), 여성 독립운동가 적극 발굴·포상('20년 21명 → '21년 5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형기록·인적사항 등이 미확인되는 경우 등에 대한 심사기준 구체화</li> </ul> </li> <li>•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을 위한 생활지원금 대상 발굴 시스템 구축(4월)으로 247명 신규 발굴('21년 총 2만 526명 지원)</li> </ul> </li> <li>■ 코로나 상황에도 국제보훈 교류협력 활성화로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현지 위로 및 감사행사 등으로 21개 참전국과 우호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연방 참전용사 온라인 초청행사(4월),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 연계 참전용사 초청(5월) 등</li> </ul> </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참전국 정상과 보훈외교 확장</b>으로 유엔참전국 간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든 미대통령 주관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 참석(5월),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보훈협력 MOU 체결(8월) 등</li> </ul> </li> <li>• 美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벽(5월) 등 국외 <b>참전시설</b>(4개) <b>건립 지원</b></li> <li>■ <b>6·25 전사자 유해발굴 지속 추진으로 국가에 대한 신뢰도 향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무장지대까지 발굴지역 확장 등을 통해 <b>유해 370구 발굴</b>, 신원확인센터 개소(3월)로 <b>신원 확인율 향상</b>(’20년 19구 → ’21년 24구)</li> <li>• 한·미 공동감식 및 상호봉환행사 추진, 유엔군 추정유해에 대한 국적판정 심의 및 무관협의 등 한·미·유엔참전국 협력기반 구축</li> </ul> </li> <li>■ <b>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확대 기반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비대상 제대군인의 <b>구직활동 전직지원금</b>을 ’08년 신설 이후 <b>13년만에 인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복무) 월 25만원 → 50만원, (장기복무) 월 50만원 → 70만원(40~100% ↑)</li> </ul> </li> <li>• 어려운 고용여건에도 <b>제대군인 취·창업 목표 100% 달성</b>(7,007명), 특히 60세 이상 제대군인 등 <b>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확대</b>(’20년 964명→’21년 1,102명)</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 및 예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상금 인상(’15~’17년 3.5→’18~’20년 4.5→’21년 3%), △참전명예수당 인상(’17년 22→’21년 34만원),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 지원(’18~’21년 7만 7,591명 지원)</li> <li>* △국가유공자 명패 보급(’19~’21년, 45만여 가구), △독립유공자 유해 국내봉환(~’21년 144명)</li> </ul> </li> <li>• 독립유공자 포상 및 사적지 발굴·보존 강화로 독립정신 계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심사기준 개선(’18.4월), △독립유공자 포상(’17.8월~’21년 2,437명), △여성독립운동가 포상(’49~’17년 299명→’18~’21년 245명), △유관순 열사 서훈 추서(’19년)</li> <li>*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완공(’21년), △충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19년)</li> </ul> </li> <li>• 의료·요양시설, 국립묘지 신규조성 등 안장능력 적기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보훈병원(’18년), △강원권 보훈요양원(’20년), △광주·부산재활센터(’21년), △광주 요양병원(’21년), △위탁병원 확대(’19년 320→’21년 518개소)</li> <li>* △대구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18년), △생전안장심사제 도입(’19년), △괴산호국원(’19년), △제주호국원(’21년, 1만기), △대전현충원 봉안당(’21년, 4.9만기)</li> </ul> </li> <li>• 잘 알려지지 않은 보훈 기념일을 국가·정부기념일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념일 격상) 대구 2·28민주운동(’18년), 대전 3·8민주의거(’18년) 및 6·10 만세운동(’20년), △(정부기념일 지정)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20.11월)</li> </ul> </li> <li>• 유엔참전용사법 제정(’20.9월), 6·25 참전국 방역마스크 지원(’20.5월, 22개국 100만장)</li> </ul> </div> |
| <b>개선·보완<br/>필요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훈대상자 지속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의료·요양인프라 <b>신규건립 수요를 면밀히 점검</b>하고, <b>민간 의료기관 활용 등 내실있는 사업추진</b>을 도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훈대상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참전유공자의 급격한 감소로 전체 보훈대상자 지속 감소 (’17년 85.4만 → ’18년 84.6만 → ’19년 84.3만 → ’20년 84.1만 → ’21년 83.9만)</li> </ul> </li> <li>• 중대범죄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예우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생애 범죄경력 확인 등 <b>국가보훈대상자 등록에 대한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b> 필요</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정책 수립, 시행 및 평가체계 확립</li> <li>■ 정보공개 확대 및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으로 자율 책임경영체제 내실화</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공정채용 문화 정착, 직무중심 보수체계 확산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li> <li>■ 다만, 사회적가치기본법 및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등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정채용 문화 확산, 안전관리등급제 시행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대응, 한국판 뉴딜 추진, 안전관리 강화, 고용·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필수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증원('21년도 총 6천명 이상)</li> <li>• 공공기관 채용비위 근절을 위해 채용실태 전수조사('21.7~12월) 실시, 공정채용 컨설팅 개최 등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채용비위로 볼 수 있는 수사의뢰 내지 징계요구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 170건 → ('18년) 84건 → ('19년) 40건 → ('20년) 25건</li> </ul> </li> <li>• 모든 공공기관에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21.2월)·공시 의무화('21.4월)하고, '21년 최초 안전관리등급심사를 실시('21.3~6월), 결과 공개('21.8월)·후속조치 실시('21.9~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 미흡기관에 대한 개선 필요과제 1,347개를 신속하게 이행점검·평가 추진</li> </ul> </li> </ul> </li> <li>■ 공공기관 보유시설 개방·혁신포털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개방시설 분류 체계 개선(유형→지역별), 지도검색 서비스개발 등 유용한 정보 지속 발굴·공개('21.11월)</li> <li>• 청년들이 자주 찾는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어디서나 쉽게 찾아보고, 맞춤형 채용정보를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잡알리오) 개발</li> <li>• 경영공시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상생협력·사회공헌활동 등 사회적 가치 항목을 대폭 신설·보완('21.2월)하여,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이행을 선도</li> <li>•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기술마켓에서 발굴·인증한 제품의 정부혁신 조달 진입규모가 전년대비 114.7% 증가('20년 34건 → '21년 73건)</li> </ul> </li> <li>■ 수요자 중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21.8월)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자료 데이터베이스(DB)화 및 평가과정 전산화를 위한 평가정보시스템 구축, 평가검증단 신설 등 상시적·전문적 평가 강화</li> <li>• 중대사고 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 0점 처리, 유사·중복 지표 정비·간소화 등 국민·공공기관이 공감하는 국민체감형+기관맞춤형 평가 도입</li> </ul> </li> </ul> |

|                              |                                                                                                                                                                                                                                                                                                                                                                                                                                                                                                                                                                                                                                                                                                                                                                                                                                                                                                                                                                                                                                                                                                                                                                                                                                                                                                                                                                                                                                                                                                                                                                                                                                                                                                                                                                                                                                                                                                                                                                                                                                                                                                                                                                                                                                                                                                   |
|------------------------------|---------------------------------------------------------------------------------------------------------------------------------------------------------------------------------------------------------------------------------------------------------------------------------------------------------------------------------------------------------------------------------------------------------------------------------------------------------------------------------------------------------------------------------------------------------------------------------------------------------------------------------------------------------------------------------------------------------------------------------------------------------------------------------------------------------------------------------------------------------------------------------------------------------------------------------------------------------------------------------------------------------------------------------------------------------------------------------------------------------------------------------------------------------------------------------------------------------------------------------------------------------------------------------------------------------------------------------------------------------------------------------------------------------------------------------------------------------------------------------------------------------------------------------------------------------------------------------------------------------------------------------------------------------------------------------------------------------------------------------------------------------------------------------------------------------------------------------------------------------------------------------------------------------------------------------------------------------------------------------------------------------------------------------------------------------------------------------------------------------------------------------------------------------------------------------------------------------------------------------------------------------------------------------------------------|
|                              | <p>■ 경사노위 논의,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합의 추진</p> <p>* 직무급 도입 실태조사 결과, 1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p> <p>■ 지역사회 문제해결, 일자리 창출 등 지방공공기관의 혁신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윤리성 강화*, 사회적 가치 중심의 경영평가 개편** 등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추진</li> <li>* 윤리경영 저해 시 경영평가 등급 조정 등(「지방공기업법」 개정안 통과, '22.1월)</li> <li>** 사회적가치 비중 확대(3점 증가), 신규채용(2점) 및 체험형 일자리(가점1점) 등</li> <li>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경영평가 실적지표를 발굴·적용하는 등, 지역 내 지방공기업의 역할 강화 추진</li> <li>* ① 코로나19 대응체계, ② 소상공인 등 피해회복 지원, ③ 지역 소비·투자 확대, ④ 지역사회 책임성 제고, ⑤ 기타 사회기여 및 혁신 등</li> <li>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수립·배포('21.4월),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후속조치('21.9~12월) 등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월) 전, 사전 대비체계 확립</li> <li>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주민참여단 확대로 주민이 경영평가 실사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전문가 평가의 한계 보완</li> <li>* ('20년) 40개 기관(5개 유형, 80명) → ('21년) 48개 기관(7개 유형, 96명)으로 확대</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월)'에 따라 정규직 전환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계획(누적) : ('17) 37천명 → ('18) 78천명 → ('19) 91천명 → ('20) 96천명 → ('21) 96천명</li> <li>전환결정(누적) : ('17) 40천명 → ('18) 88천명 → ('19) 100천명 → ('20) 105천명 → ('21) 108천명</li> </ul> </li> <li>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실시('17.10~'21.12월) 및 채용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비위 연루 임직원 수사 및 징계의뢰 ('17년) 170건 → ('20년) 25건</li> <li>** 해임근거 등 공운법 개정('18.9월), 채용실태공사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18년)</li> </ul> </li> <li>공공기관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18.12~'19.4월) 및 안전종합대책 마련('19.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1개 공공기관 주요시설물(24.8만개소)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보수·보강(3,989건), 예방조치(8,168건), 사후관리(1,391건) 등 총 18,569건 조치 완료</li> </ul> </li> <li>종합포털시스템(알리오 플러스) 구축('19.3월)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국민 접근성 강화</li> <li>사회적가치 등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17.12월) 및 추가 개편안 마련('21.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가치 구현 5대 지표 신설 : ①일자리, ②균등기회, ③안전환경, ④상생협력, ⑤윤리경영</li> <li>* 안전평가 대폭강화('19.3월) : ('18) 2점 → ('19) 6점 / 적부평가제 도입, 안전지표 차등화</li> </ul> </li> <li>공운법 개정 노력을 통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지속 추진하고, 개정 전 노동이사제 취지를 살린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마련('21.12월말 기준 134개 기관 자율도입)</li> <li>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82개 기관) 및 주민이 참여하는 경영체계 확립(주민참여 확대계획('17.4월)에 따른 경영평가 주민참여단 확대·운영 등)</li> </ul> </div> |
| <p><b>개선·보완<br/>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가치 기본법」, 「지방공기업법」 등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통과 노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가치 기본법) 21대 국회 재발의 중으로, 기본법 제정 필요성 설명 등 입법 노력 지속 필요</li> <li>* (지방공기업법)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여야 이견(상임위 계류중)으로 지연</li> </ul> </li> <li>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각종 현안사항 지속추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등급제, 경영평가 제도개선, 직무급제도입, 공정채용, 공무직 처우개선 등</li> </ul> </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인사 관련 제도 정비,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통해 인권옹호적 기능 수행 등 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li> <li>■ 인권친화적 경찰개혁, 감사원의 독립성·투명성 확보, 국정원 개편 추진</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이행, 검찰 인사 및 징계 제도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등 권력기관 개혁을 지속 추진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li> <li>■ 향후 주요 사건에 대해 긴밀한 검·경 상호협력을 통해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출범('21.1월)으로 공직사회 신뢰도 및 국가 투명성 제고</li> <li>■ 수사권 개혁 후속조치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하위법령 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및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하위법령 시행('21.1월)*</li> <li>* △검경 수사의 기본 원칙(오후 9시~오전 6시 심야조사 및 12시간 초과 장시간 조사 제한 등),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 및 '보완수사' 요구 등</li> <li>• 개정 형사소송법의 신설 제도 등을 반영한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제정('21.1월)*</li> <li>*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시, 사법경찰관이 그 영장청구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5개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 설치</li> </ul> </li> <li>■ 국민인권 보호를 위한 검찰수사 절차 및 조직문화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직접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의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21.3월) 및 개정('21.6월)</li> <li>* '별건범죄' 발견시 소속청 '인권보호관'의 검토와 검사장 승인 후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본건범죄 수사부서 이외의 부서에 배당하여 검찰권 행사의 객관성 도모</li> <li>•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정(안) 마련('21.6월)</li> <li>• 검찰구성원 인권감수성 제고 위해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전담 검사 및 수사관' 및 '북한이탈주민 전담 검사' 대상 특화된 인권교육 실시('21.4~7월)</li> </ul> </li> <li>■ 검찰 기능 재편을 통해 검찰인사의 중립성·독립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 「검사징계법」 시행('21.1월)으로 검사징계위원회 외부위원 확대*</li> <li>* 전체 9명 중 5명(기존 3명)을 외부인원으로 구성하여 검사징계의 공정성·객관성 확보</li> <li>• 법무부의 탈검찰화 강화(검사 보임 71개 직위 중 39개를 외부전문가로 임용), 검사파견 축소(40개 기관 64명 →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3개 기관 46명, '21.12월 기준)</li> </ul> </li> <li>■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시·도별 맞춤형 치안행정 제공, 국가수사본부 신설로 경찰수사의 공정성·전문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경찰제 전면시행('21.7월)에 앞서, △시·도별 조례 제정 및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시범운영 실시('21.1~6월) 등 안정적으로 제도 정착</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경찰관서에 인권전담부서 설치 등 인권보호 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찰 개혁 로드맵’ 발표(‘21.6월), 전체 경찰관서에 <b>인권 전담부서 설치</b>(‘21.7월) 등 인권친화적인 경찰상 확립</li> <li>•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침해 및 고충 확인을 위한 ‘<b>유치장 피의자 면담제</b>’ 시행(‘21.7월)</li> </ul> </li> <li>■ 경찰 현장대응·법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회 등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 개정·시행(‘21.1월)을 통해 <b>채증범위 등을 구체화</b>*하여 집회시위의 자유 및 참가자 기본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증 범위) 범죄행위 중 또는 직후 가능하도록 구체화</li> <li>(목적·한계) 범죄수사 목적으로 채증하며, 필요 최소한도 범위에서 실시</li> <li>(채증 고지) 최초 채증 및 매 20분마다 채증 사실 고지</li> </ul> </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 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경 수사권 견제와 균형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1월) 및 개정(‘20.12월)</li> <li>*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20.1월) 및 하위법령 제·개정(‘20.10월)</li> </ul> </li> <li>• 민생·법치 중심의 검·경 조직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검찰 징계 수준을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한 「검사징계법」 개정(‘19.4월),公安부 폐지(‘19.8월), 특수부 축소(‘19.10월), 직접수사 부서(13개)를 민생 중심의 형사·공판부로 전환(‘20.1월, 9월), 법무부 탈검찰화 강화 및 검사파견 축소 등</li> <li>* (경찰) 불법사찰 금지, 정보활동범위 제한을 담은 「정보경찰활동규칙」 제정(‘19.1월), 경찰업무를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국가수사본부로 규정한 경찰법 개정(‘20.12월)</li> </ul> </li> <li>• 검·경 수사 관행 개혁 등 인권 개선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인권감독관 전국 검찰청 전면 배치(‘19.9월), ‘피의자 인권개선방안’ 시행(‘19.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의사실공표·공개소환·포토라인 폐지 등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 제정(‘19.10월)</li> <li>· 장시간 조사, 심야조사, 별건수사 원칙적 금지 등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19.10월)</li> <li>· 사건 관계인의 권리보장을 강화한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20.1월, 9월)</li> </ul> </li> <li>* (경찰) 집회·시위 시 살수차 원칙적 미배치(‘17.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기관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 시행(‘18.6월), 대화경찰관 투입(‘18.8월)</li> <li>· 경찰 수사 시 변호인 참여 확대(‘18.6월), 자기변호노트 도입(‘18.6월), 검거·호송 단계에서 뒷수갑 사용 제한(‘19.1월), 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19.11월)</li> <li>· 인권보호 원칙, 차별금지 및 약자·소수자 보호 등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정(‘20.6월)</li> </ul> </li> </ul> </li> <li>• 감사원과 국정원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원, 국내정보업무 폐지 등 조직개편(‘17.6월)</li> <li>* 감사 사각지대였던 대통령비서실, 대검, 국정원에 기관운영감사 최초 실시(‘18.3·6·12월)</li> <li>* 대공수사권 경찰청 이관, 정치적 중립 운영원칙을 규정한 「국정원법」 개정(‘20.12월)</li> </ul> </li> </ul> </div> |
| <b>개선·보완<br/>필요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변화된 형사사법 시스템 하에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의 수사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수사 체계 정립 필요</li> </ul>                                                                                                                                                                                                                                                                                                                                                                                                                                                                                                                                                                                                                                                                                                                                                                                                                                                                                                                                                                                                                                                                                                                                                                                                                                                                                                                                                                                                                                                                                                                                                                                                                                                                                                                                                                                                                                                                                                                                                                                                                                                                                                                                                                                                                                               |

|    |                                     |
|----|-------------------------------------|
| 14 | <b>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b> |
|----|-------------------------------------|

|                       |                                                                                                                                                                                                                                                                                                                                                                                                                                                                                                                                                                                                                                                                                                                                                                                                                                                                                                                                                                                                                                                                                                                                                                                                                                                                                                                                                                                                                                                                                                                                                                                                                                                                                                                                                                                 |
|-----------------------|---------------------------------------------------------------------------------------------------------------------------------------------------------------------------------------------------------------------------------------------------------------------------------------------------------------------------------------------------------------------------------------------------------------------------------------------------------------------------------------------------------------------------------------------------------------------------------------------------------------------------------------------------------------------------------------------------------------------------------------------------------------------------------------------------------------------------------------------------------------------------------------------------------------------------------------------------------------------------------------------------------------------------------------------------------------------------------------------------------------------------------------------------------------------------------------------------------------------------------------------------------------------------------------------------------------------------------------------------------------------------------------------------------------------------------------------------------------------------------------------------------------------------------------------------------------------------------------------------------------------------------------------------------------------------------------------------------------------------------------------------------------------------------|
| <b>과제목표</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수요 중심의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치안정책 추진</li> <li>■ 신종 진화범죄 대응을 위한 치안 R&amp;D 활성화, 과학수사 역량 확대</li> </ul>                                                                                                                                                                                                                                                                                                                                                                                                                                                                                                                                                                                                                                                                                                                                                                                                                                                                                                                                                                                                                                                                                                                                                                                                                                                                                                                                                                                                                                                                                                                                                                                                                                   |
| <b>총평</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치안 활성화,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내실있는 보호를 통해 민생치안을 강화하고, 치안 R&amp;D 사업 확대 등 과학치안 역량 강화</li> <li>■ 다만, 현장 출동 경찰관의 대응 역량 강화 및 강화된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필요</li> </ul>                                                                                                                                                                                                                                                                                                                                                                                                                                                                                                                                                                                                                                                                                                                                                                                                                                                                                                                                                                                                                                                                                                                                                                                                                                                                                                                                                                                                                                                                                                                                                                              |
| <b>'21년도<br/>주요성과</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 통해 국민 체감안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력·지역안전순찰 등 주민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현장의견을 반영한 경찰 활동으로 범죄안전 체감수준 개선('20년 83.2점→'21년 83.3점)</li> <li>•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 집중 진단 및 환경 개선 통해 전년 대비 △총범죄 11.1% 감소, △5대범죄 13.3% 감소</li> </ul> </li> <li>■ 다각적인 치안역량 강화 노력을 통해 직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안R&amp;D 예산을 확대하고('20년 491 → '21년 592억원) 현장 장비 및 과학수사 기법 개발로 5대 범죄·절도 등 검거율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대범죄 검거율) '20년 79.1% → '21년 79.6%, (절도 검거율) '20년 64.3% → '21년 66.6%</li> </ul> </li> <li>• 민생치안 분야 중심으로 인력 총원('22년 정부안 포함 2,030명 포함 20,589명)하고, 112출동수당 지급범위 확대(22시~06시 → 24시간) 등 관계부처 협의 완료</li> </ul> </li> <li>■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확산으로 소외될 수 있는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효과적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사이버성폭력 집중 단속,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집중 관리 등을 통해 전년 대비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8.8% 감소</li> <li>• (아동) 아동학대 전담수사체제를 구축하고 피해아동 분리 등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실시하여 전년 대비 아동학대 검거 116% 증가</li> <li>• (피해자)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신변보호 실시, 전년 대비 신변보호 건수 53.5% 증가*(스마트워치, CCTV설치, 주거지 순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변보호 숫자 : ('20년) 12,511건 → ('21년) 19,206건</li> </ul> </li> <li>• (실종) '실종경보 문자' 제도 시행('21.6월), 실종 수색용 드론 추가 보급 등을 통해 실종아동·치매환자 등 조기 발견</li> </ul> </li> <li>■ 코로나19 대응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점검 및 백신접종 인센티브 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방역점검·제도 및 위반사례 엄정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안성시 합동 점검 및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구시 합동 점검 등 외국인 밀집시설 23,178개소 점검·제도, 마스크 37만여 개 배부</li> </ul> </li> <li>• 불법체류 외국인 백신접종 인센티브 제도 시행 코로나19 확산 방지 기여(21.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체류 외국인이 '21.12.31.까지 백신접종 후 출국 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li> </ul> </li> </ul> </li> </ul> |

|               |                                                                                                                                                                                                                                                                                                                                                                                                                                                                                                                                                                                                                                                                                                                                                                                                                                                                                                                                                                                                                                                                                                                                                                                                                                                                                                                                                                                                                                                                                                             |
|---------------|-------------------------------------------------------------------------------------------------------------------------------------------------------------------------------------------------------------------------------------------------------------------------------------------------------------------------------------------------------------------------------------------------------------------------------------------------------------------------------------------------------------------------------------------------------------------------------------------------------------------------------------------------------------------------------------------------------------------------------------------------------------------------------------------------------------------------------------------------------------------------------------------------------------------------------------------------------------------------------------------------------------------------------------------------------------------------------------------------------------------------------------------------------------------------------------------------------------------------------------------------------------------------------------------------------------------------------------------------------------------------------------------------------------------------------------------------------------------------------------------------------------|
|               | <p>■ 지속적인 교정시설 조성사업 통해 교정교화 기능 정상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및 현대화 위해 '21년 <b>796억원 투입</b>(전년 대비 13.2% 증가)<br/>* (1일 평균수용률) '18년 114.5% → '19년 113.8% → '20년 110.9% → '21년 106.6%</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물이용·디지털 성폭력 등 여성대상 범죄 엄정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 특별단속(3,994명 구속 920명) △웹하드 해비업로더 등(672명) 검거('19년)</li> <li>**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 박사·갓갓 등 디지털 성범죄자 3,575명 검거('20년)</li> </ul> </li> <li>•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을 강화하여 국민 체감안전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이 원하는 시간·장소를 반영한 탄력순찰제 도입·시행('17.7월), 주민 의견수렴 및 범죄안전진단을 통해 범죄취약지에 CCTV·비상벨 등 방범시설 28,303개 설치</li> </ul> </li> <li>• 경찰인력을 증원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치안현장으로 집중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 1,870명 → ('18년) 2,057명 → ('19년) 4,582명 → ('20년) 3,991명 → ('21년) 3,323명</li> </ul> </li> <li>• 치안 R&amp;D 활성화, 과학수사 장비·기법 개발 등 치안 인프라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드론을 활용한 현장 경찰지원 기술, 약물이용범죄 신속탐지기술, 긴급구조용 정밀위치 측정기술 등 641억 상당의 치안 R&amp;D 추진</li> <li>**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19~'21년), 치안장비 개발·수출 지원 등 치안산업발전 도모</li> </ul> </li> <li>• 경찰·국과수 합동 법과학감정실 구축, 미제사건 전담팀 운영으로 사건해결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과수 미설치지역인 경기남·전북('19년), 충남·경북('20년) 설치</li> <li>**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미제 강력사건 중 56건의 범인 83명 검거('11.12월~'20년)</li> </ul> </li> </ul> </div> |
| 개선·보완<br>필요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 채용·교육과정 개편, 경찰장비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경찰관의 현장 대응 능력 강화 및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필요</li> <li>* 층간소음난동 사건(인천)·신변보호 대상자 사망사건(서울) 등 경찰의 현장대응능력에 대한 우려 제기</li> </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조세·재정 개혁과제에 대한 특별기구 설치 및 공정·형평 과세방안 마련</li><li>■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 및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세정 정립</li></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1년 세법개정 등을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회복 지원, 기업환경 개선 등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대책 마련</li><li>■ 다만,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국제공조 및 국내입법준비를 철저히 하고,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필요</li></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 및 소비 진작 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등을 신속하게 개정<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0.12. '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21.1. 정부안 발표 → '21.2. 기재위 의결</li></ul></li></ul> <div><p>※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21.2월)</p><p>①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p><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1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적용(한도 100만원)</li></ul><p>②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p><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상가 임대료를 인소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li></ul><p>③ 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감안한 고용증대세제* 한시 개편</p><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1,200만원(대기업: 2년간, 중소·중견기업: 3년간)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li><li>** '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19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지속 적용(단, '21년에 '19년 고용 수준 유지 필요)</li></ul></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납세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세정지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4월 부가세 예정고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7월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등 유예</li></ul></li><li>• 적극적인 세제·세정지원으로 내수 활성화 및 고용 개선 등 경기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는데 기여</li></ul> <div><p>(전년 동기비)</p><table><tr><td></td><td>'20.1/4</td><td>2/4</td><td>3/4</td><td>4/4</td><td>'21.1/4</td><td>2/4</td><td>3/4</td></tr><tr><td>GDP 성장률(%) :</td><td>1.5</td><td>△2.6</td><td>△1.0</td><td>△1.1</td><td>1.9</td><td>6.0</td><td>4.0</td></tr><tr><td>민간소비 증가율(%) :</td><td>△4.8</td><td>△4.2</td><td>△4.5</td><td>△6.6</td><td>1.2</td><td>3.7</td><td>3.2</td></tr><tr><td>취업자 증감(만명) :</td><td>28.8</td><td>△40.7</td><td>△31.4</td><td>△44.1</td><td>△38.0</td><td>61.8</td><td>57.7</td></tr></table></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디지털세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최종 합의문 승인 및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21.10월)</li><li>•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추가 과세권 확보 가능,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며, 향후 추가쟁점 논의를 거쳐 국내 법제화 추진</li></ul> |       | '20.1/4 | 2/4   | 3/4     | 4/4  | '21.1/4 | 2/4 | 3/4 | GDP 성장률(%) : | 1.5 | △2.6 | △1.0 | △1.1 | 1.9 | 6.0 | 4.0 | 민간소비 증가율(%) : | △4.8 | △4.2 | △4.5 | △6.6 | 1.2 | 3.7 | 3.2 | 취업자 증감(만명) : | 28.8 | △40.7 | △31.4 | △44.1 | △38.0 | 61.8 | 57.7 |
|               | '20.1/4                                                                                                                                                                                                                                                                                                                                                                                                                                                                                                                                                                                                                                                                                                                                                                                                                                                                                                                                                                                                                                                                                                                                                                                                                                                                                                                                                                                                                                                                                                                                                                                                                                                                                                                                                                                                                                                                                               | 2/4   | 3/4     | 4/4   | '21.1/4 | 2/4  | 3/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GDP 성장률(%) :  | 1.5                                                                                                                                                                                                                                                                                                                                                                                                                                                                                                                                                                                                                                                                                                                                                                                                                                                                                                                                                                                                                                                                                                                                                                                                                                                                                                                                                                                                                                                                                                                                                                                                                                                                                                                                                                                                                                                                                                   | △2.6  | △1.0    | △1.1  | 1.9     | 6.0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민간소비 증가율(%) : | △4.8                                                                                                                                                                                                                                                                                                                                                                                                                                                                                                                                                                                                                                                                                                                                                                                                                                                                                                                                                                                                                                                                                                                                                                                                                                                                                                                                                                                                                                                                                                                                                                                                                                                                                                                                                                                                                                                                                                  | △4.2  | △4.5    | △6.6  | 1.2     | 3.7  | 3.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업자 증감(만명) :  | 28.8                                                                                                                                                                                                                                                                                                                                                                                                                                                                                                                                                                                                                                                                                                                                                                                                                                                                                                                                                                                                                                                                                                                                                                                                                                                                                                                                                                                                                                                                                                                                                                                                                                                                                                                                                                                                                                                                                                  | △40.7 | △31.4   | △44.1 | △38.0   | 61.8 | 57.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선도형 경제 전환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신설,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업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등 마련</b></li> <li>•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별도 지원트랙으로 신설하여, 기술개발 연구개발(R&amp;D) 비용 및 시설투자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대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연구개발(R&amp;D) 비용 + 10%p 상향, 시설투자 + 3~4%p 상향</li> </ul> </li> <li>• <b>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비수도권 기업 청년·고령자 고용증가 세액공제 확대(+100만원), 경력단절여성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3년→2년)</b></li> <li>■ <b>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대 및 국세정보 제공 확대</b></li> <li>• 대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절차를 기존 세무서 심의·승인에서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승인으로 변경하여 납세자권익보호를 더욱 두텁게 보장</li> <li>• <b>국세통계센터 이용대상 확대, 데이터 결합 지원, 통계분석지원서비스 제공</b> 등으로 이용실적이 전년대비 3배 가까이 향상 * ('20년) 40건 → ('21년) 116건</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조세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운영('18.4~'19.2월) 및 특위발표 권고안 조세정책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종부세 개편('18), ②환경관련 개소세 개편('18), ③1세대1주택 비과세 부속토지 범위조정('19), ④고소득층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19), ⑤3주택이상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등</li> </ul> </li> <li>• '17년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18년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등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주요 세법개정 과제 대부분 입법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고용증대세제 신설 등(12.19. 공포)</li> <li>( '18년) 근로장려금 확대, 종부세 및 주택임대소득과세 개편 등(12.31. 공포)</li> </ul> </li> <li>• <b>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자산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 과세 근거 마련('20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 최고세율 42%에서 45%로 인상 ⇨ 사회적 연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li> <li>•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신설 ⇨ 과세형평성, 조세중립성, 과세합리성 제고</li> <li>• 가상자산 과세근거 마련 ⇨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과세형평 원칙 실현</li> </ul> </li> </ul> </li> <li>• 국세청 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18.4월)하여 납세자보호조직 독립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청, 7개 지방청, 130개 세무서 설치 / 납세자보호(담당)관 외 모든 위원 민간 구성</li> <li>* '18.4~'21.10월까지 세무조사 관련 268건 재심의 통해 89건 시정(세무조사 기한연장 등)</li> </ul> </li> <li>• 통계자료 제공방식·범위를 전면 혁신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통계센터 설립('18.6월), 국세통계포털 개통('21.4월), 수시공개 확대(연3회 → 5회) 등</li> </ul> </li> </ul> </div> |
| <b>개선·보완<br/>필요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디지털세 관련 국제논의 적극대응 및 국내 입법화 준비 철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 쟁점(적용제외, 실효세율 계산 방식 등) 논의 과정에서 우리측 이해관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및 제도화를 위한 국내 입법에도 지속 대응</li> </ul> </li> <li>• <b>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세수추계 오차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필요</b></li> </ul>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 구축 및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li><li>■ 사회적 대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li></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과감한 재정투입 및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고용회복세 견인</b></li><li>■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및 탄소중립에 대응한 노동전환 지원 및 지역 중심의 일자리 창출도 속도감 있게 추진 필요</li></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적극적인 고용안정 노력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악화 방어</b><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취업자수 증감(만명, 전년비): ('17) 31.6 ('18) 9.7 ('19) 30.1 ('20)△21.8 ('21) 36.9</li><li>• '20~'21년 간 고용유지 및 창출 지원 등 72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하여 취업자 증가 등 고용지표 회복세를 시현<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0년 본예산 및 추경(4회): 37조원 / '21년 본예산 및 추경(2회): 35.1조원</li><li>* ①고용유지지원금('20년 77.3만명, '21년 33.9만명)</li><li>②특고·프리랜서 등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20~'21년 179.2만명)</li><li>③공공·민간일자리 창출 지원('20년 158.5만개, '21년 154만개)</li></ul></li><li>•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금지업종 등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유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영세사업장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제도 개선<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실적('21년): 4.1만개소, 33.9만명, 1.28조원</li><li>* 제도개선 실적: ①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여행업 등 14개, ~'22.3.31)</li><li>②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확대(최대 180일 → 최대 300일, '21.1월~)</li><li>③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지원금 지원허용('21.1월)</li><li>④3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유예('21.1월분~12월분)</li></ul></li></ul></li><li>• 범정부 일자리정책 발굴·조정(일자리위원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및 고용영향평가 확대*** 등 일자리정책 체계적 조정·관리 강화<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전략(환경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국토부) 등 고용부 외에도 각 부처가 소관 산업·정책분야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적극 수립·추진</li><li>** '21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24개 부처 145개 사업</li><li>***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20년) 850개 → ('21년) 1,023개</li></ul></li><li>■ <b>공공부문의 선도적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b><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질병관리청 신설('20년) 및 소방·경찰·사회복지 등 민생현장 공무원 13.9만명 충원('17년~'21년)을 통하여 공공서비스 품질 지속 향상<table><tr><th>구 분</th><th>'17년</th><th>'18년</th><th>'19년</th><th>'20년</th></tr><tr><td>112 긴급신고 대응시간</td><td>6분14초</td><td>6분2초</td><td>6분1초</td><td>5분56초</td></tr><tr><td>소방차량 7분이내(골든타임) 도착률</td><td>62.8%</td><td>64.4%</td><td>65.1%</td><td>65.7%</td></tr><tr><td>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td><td>4.81명</td><td>4.74명</td><td>4.61명</td><td>4.46명</td></tr><tr><td>찾아가는 복지상담 지원(건)</td><td>225만</td><td>310만</td><td>381만</td><td>397만</td></tr></table></li><li>•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원칙 아래,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하여 20.3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17년~'21년)</li></ul></li></ul> | 구 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112 긴급신고 대응시간 | 6분14초 | 6분2초 | 6분1초 | 5분56초 | 소방차량 7분이내(골든타임) 도착률 | 62.8% | 64.4% | 65.1% | 65.7% |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 | 4.81명 | 4.74명 | 4.61명 | 4.46명 | 찾아가는 복지상담 지원(건) | 225만 | 310만 | 381만 | 397만 |
| 구 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      |               |       |      |      |       |                     |       |       |       |       |               |       |       |       |       |                 |      |      |      |      |
| 112 긴급신고 대응시간       | 6분14초                                                                                                                                                                                                                                                                                                                                                                                                                                                                                                                                                                                                                                                                                                                                                                                                                                                                                                                                                                                                                                                                                                                                                                                                                                                                                                                                                                                                                                                                                                                                                                                                                                                                                                                                                                                                                                                                                                                                                                                                                                 | 6분2초  | 6분1초  | 5분56초 |      |      |               |       |      |      |       |                     |       |       |       |       |               |       |       |       |       |                 |      |      |      |      |
| 소방차량 7분이내(골든타임) 도착률 | 62.8%                                                                                                                                                                                                                                                                                                                                                                                                                                                                                                                                                                                                                                                                                                                                                                                                                                                                                                                                                                                                                                                                                                                                                                                                                                                                                                                                                                                                                                                                                                                                                                                                                                                                                                                                                                                                                                                                                                                                                                                                                                 | 64.4% | 65.1% | 65.7% |      |      |               |       |      |      |       |                     |       |       |       |       |               |       |       |       |       |                 |      |      |      |      |
|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       | 4.81명                                                                                                                                                                                                                                                                                                                                                                                                                                                                                                                                                                                                                                                                                                                                                                                                                                                                                                                                                                                                                                                                                                                                                                                                                                                                                                                                                                                                                                                                                                                                                                                                                                                                                                                                                                                                                                                                                                                                                                                                                                 | 4.74명 | 4.61명 | 4.46명 |      |      |               |       |      |      |       |                     |       |       |       |       |               |       |       |       |       |                 |      |      |      |      |
| 찾아가는 복지상담 지원(건)     | 225만                                                                                                                                                                                                                                                                                                                                                                                                                                                                                                                                                                                                                                                                                                                                                                                                                                                                                                                                                                                                                                                                                                                                                                                                                                                                                                                                                                                                                                                                                                                                                                                                                                                                                                                                                                                                                                                                                                                                                                                                                                  | 310만  | 381만  | 397만  |      |      |               |       |      |      |       |                     |       |       |       |       |               |       |       |       |       |                 |      |      |      |      |

- 보육 보조교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노인돌보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30.1만명을 확충('17년~'21년)하여 복지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

## ■ 지역 및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성과 가시화

-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6개 중 5개 모델에서 **1,300여개의 직접·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투자 9,000억원을 유치**하는 등 성과 도출

\* 상생형 일자리(6개): 광주('20.6월), 황성('20.10월), 밀양('21.10월), 부산·군산('21.2월), 구미('21.12월)

\* 성과사례: 광주형 일자리(현대차 '캐스퍼' 생산)는 신규 채용인원 505명 중 93%가 지역인재, 20~30대 청년이 79%에 달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지역이 주도하여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뒷받침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9개 자치단체 컨소시엄에서 11,109개 일자리 창출**(21년)

\* 고용안정 선제대응 사업 참여 지자체: 부산, 인천, 광주,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 추가연장('20.12 → '21.12월)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14개) 등 위기지역·업종 집중 지원

\* 고용위기지역(7개): 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목포·영암

\* 특별고용지원업종(14개):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 항공기취급, 면세점, 전시·국제 회의, 공항버스, 노선버스, 영화, 유원시설, 수련시설, 항공기부품제조, 외국인전용카지노

### <정부 출범('17.5월~) 이후 핵심성과>

- **적극적 고용안정 노력으로 OECD 주요 국가 대비 고용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고용지표 회복**

\* 고용률(15~64세, %): ('16) 66.1 ('17) 66.6 ('18) 66.6 ('19) 66.8 ('20) 65.9 ('21) 66.5

< OECD 주요국가별 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 효과 >

| 구 분                                               | 호주             | 캐나다   | 한국           | 이탈리아          | 독일            | 영국            | 일본            | 미국   |
|---------------------------------------------------|----------------|-------|--------------|---------------|---------------|---------------|---------------|------|
| 코로나 이전('20.2월) 대비 '21.12월 고용회복률(%), 계절조정 취업자수 기준) | 101.4<br>(11월) | 101.3 | <b>100.2</b> | 99.5<br>(11월) | 99.3<br>(11월) | 98.3<br>(10월) | 98.2<br>(11월) | 98.2 |
| '19년 대비 '20년 취업자 증감률(%)                           | -1.5           | -5.2  | <b>-0.8</b>  | -2.0          | -1.3          | -0.3          | -0.7          | -6.2 |
| '19년 대비 '20년 실업률 상승폭(%p)                          | +1.3           | +3.8  | <b>+0.2</b>  | -0.8          | +0.6          | +0.7          | +0.4          | +4.4 |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으로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목표의 86.6% 달성 (목표: 81.4만명<~'22년>, 실적: 70.5만명<~'21년 기준>)

\*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실적('21년 기준): 소방·경찰·복지 등 현장공무원 13.9만명, 공공기관 6.2만명,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0.3만명, 사회서비스 30.1만명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의 추진성과를 제고**하고, 노사민정 자율협약을 맺은 지역(3개)에 대해서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신속히 선정되도록 노력** 필요
- \* 상생형 지역일자리(6개) 고용실적: 1,150명(광주 505명, 밀양 63명, 황성 157명, 군산 352명, 부산 71명, 구미 사업착수예정)
- \* 자율협약지역(3개) 일자리 기대효과: 대구1('19.6월, 120명), 대구2('21.11월, 302명), 신안('21.2월, 5,600명)
- 코로나19 상황에서 추진한 고용대책의 지원성과를 면밀히 분석·점검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및 디지털 전환·저탄소 이행에 대비한 일자리 회복 발판 마련 필요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노인, 장애인 대상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및 공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li> <li>■ 다만,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개 창출로 국가적 고용위기 해소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확대 및 범부처 일자리 발굴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개 추가 창출('17~'21년 누적 30만개)</li> <li>•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속 확대로 보편적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확충('20년 5.7만명→'21년 6.3만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강화('20년 3.0만명→'21년 3.3만명),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20년 1.8만명→'21년 2.4만명) 등</li> </ul> </li> <li>•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확대, 공공의료 강화 등 최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돌봄 분야 외 다양한 영역*의 일자리 확대로 국민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지원·보건의료·생활편의 등 돌봄분야 외 비율 : ('18년) 41% → ('21년) 54%(13%p↑)</li> </ul> </li> </ul> </li> <li>■ 사회서비스원 14개 시·도 설립 완료로 사회서비스 공적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3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추가 설립*하고 종사자 직접 고용을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원 개소 수 : ('19년) 4개→('20년) 11개(+7개)→('21년) 14개(+3개, 울산·전북·제주)</li> <li>** 직접고용 종사자 : ('19년) 1,156명→('20년) 2,680명(+1,524)→('21년) 3,605명(+925)</li> </ul> </li> <li>• 취약계층 돌봄공백에 적극 대응하여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적 돌봄에서 배제되는 국민이 없도록 민간 기피대상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코로나19 긴급돌봄 4,810건, 질병·사고 등 긴급돌봄 7,675건 지원</li> <li>** ('21년) 2인 돌봄 종사자 필요, 주말 서비스 등 민간 기피대상 5,197건에 대해 서비스 제공</li> </ul> </li> <li>• 근로시간 단축, 휴게시간 보장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교대 근무율 : ('14년) 12.6%→('20년) 16.8%</li> <li>주1회 유급휴일 부여율 : ('14년) 65.8%→('20년) 84.6%</li> </ul> </li> </ul> </li> </ul> |

|                              |                                                                                                                                                                                                                                                                                                                                                                                                                                                                                                                                                                                                                                                                                                                                                                                                                                                                                                                                                                                                                                                                                                                                                                                                                                                                                                                                                                                                                                                                                                                                                                                                                                                                                                                                                                                                                                                                                 |
|------------------------------|---------------------------------------------------------------------------------------------------------------------------------------------------------------------------------------------------------------------------------------------------------------------------------------------------------------------------------------------------------------------------------------------------------------------------------------------------------------------------------------------------------------------------------------------------------------------------------------------------------------------------------------------------------------------------------------------------------------------------------------------------------------------------------------------------------------------------------------------------------------------------------------------------------------------------------------------------------------------------------------------------------------------------------------------------------------------------------------------------------------------------------------------------------------------------------------------------------------------------------------------------------------------------------------------------------------------------------------------------------------------------------------------------------------------------------------------------------------------------------------------------------------------------------------------------------------------------------------------------------------------------------------------------------------------------------------------------------------------------------------------------------------------------------------------------------------------------------------------------------------------------------|
|                              | <p>■ <b>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역주민 복지서비스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94.4%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설치*를 완료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담팀 : ('20년) 3,197개 → ('21년) 3,312개(+115개소 / 전국 3,501개 읍면동의 94.6%)</li> <li>** 전담인력 : ('20년) 11,674명 → ('21.11월) 12,100명(+426명)</li> </ul> </li> <li>• 단전·단수 등 빅데이터(34종*)를 활용하여 고위험군 133만명을 발굴, <b>현장 조사로 66.2만명 위기가구를 신속히 확인·지원</b>(민관복지서비스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위기발굴 시스템의 예측도를 높이기 위해 '통신비 체납' 정보를 추가</li> </ul> </li> <li>• 받을 수 있는 <b>사회보장 급여를 찾아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제도*</b>」를 도입('21.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9월) 기준수급자 등 대상 15개 사업 → ('22년) 전국민 대상 10개 부처 80여개 사업</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17.10월)에 따라 정부출범 후 공공부문 사회 서비스 일자리 누적 30만개 창출*( '22년 목표 34만개 대비 8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창출 수(순증) : ('17~'18년) 5.5만개→('19년) 9.5만개→('20년)9.3만개→('21년) 6.0만개</li> </ul> </li> <li>•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1.9.24)으로 설립근거 마련,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소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원 개소 수 : ('19년) 4개소→('20년) 11개소→('21년) 14개소</li> </ul> </li> <li>• 전국 읍면동(3,501개)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을 설치하여 위기 가구 발굴·연계*, 복지상담, 방문건강관리 등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가구 지원실적(누적) : ('17년) 7.6만명→('18년) 13.3만명→('19년) 22.8만명→('20년) 44.3만명→('21년) 66.2만명</li> </ul> </li> <li>• 범부처 「사회서비스 종합대책」 마련('18.12월), 「제2차('19~'23) 사회보장계획」 반영('19.2월)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 보장수준 강화, 지역 간 격차해소, 일자리 창출, 공공성 강화, 전달체계의 통합성 확보, 서비스 이용·제공과정에서의 사회권 실현 등</li> </ul> </li> </ul> </div> |
| <p><b>개선·보완<br/>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간 확충된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22년까지 35.8만개 예상)에 적합한 평가·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평가체계 구축 연구('21.8~12월), 시범평가('21.12월)</li> </ul> </li> <li>•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1.9월) 되었으나, <b>민간과 공공의 합리적인 역할 재정립</b> 등 노력 필요</li> </ul>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청년 구직활동 및 고령사회에 대응한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li><li>■ 출산·육아 등 직장 내 차별 해소 및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li></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청년·신중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및 맞춤 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에도 고용안정성 향상에 기여</li><li>■ 초고령사회 도래, 산업구조·근무환경 변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취업 취약계층 총체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li></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청년) 고용창출 노력 및 구직지원 등으로 고용지표 개선 추세<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청년 고용률(15~29세, %): ('18년) 42.7 → ('19년) 43.5 → ('20년) 42.2 → ('21년) 44.2</li><li>* 청년 실업률(15~29세, %): ('18년) 9.5 → ('19년) 8.9 → ('20년) 9.0 → ('21년) 7.8</li><li>• 코로나19 위기 속에 「청년고용활성화대책(21.3월)」을 수립하고, 2.5조원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여 <b>청년 46만명 이상 고용지원</b><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고용창출: 청년추가고용장려금(1.5조원 8.5만명), 청년일자리창출(6,315억원, 10만명) 직업훈련: K-Digital Training(747억원 11천명), K-Digital Credit(11.2억원 9천명)</li></ul></li><li>• 국민취업지원제도 전격 시행(21.1월)으로 미취업 청년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생활안정지원 및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직에 전념토록 여건 마련<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원실적('21년): 수급자격 인정자 총 42.3만명 중 청년 26.3명(62.2%)</li></ul></li><li>•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뒷받침하고, 청년ON 프로젝트, 청년고용응원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일경험과 직무훈련 기회 제공<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8년) 12.9만명 → ('19년) 14.2만명 → ('20년) 10.6만명 → ('21) 8.5만명</li><li>* 청년내일채움공제('21년): 119,783명, 51,162개 사업장</li><li>* 청년고용응원 프로젝트 참여현황: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스타벅스 등 11개사 - 1,700여명</li></ul></li><li>•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3%) 적극 이행으로 정원대비 청년채용 비율이 5년 연속 5% 상회 및 의무달성 공공기관 비율 84.9% 달성('20년 기준)</li></ul></li><li>■ (신중년) 인생3모작 지원 강화로 고용안정성 향상에 기여<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신중년 고용률(50~69세, %): ('18년) 66.6 → ('19년) 66.9 → ('20년) 66.2 → ('21년) 66.4</li><li>* 신중년 상용직 비중(50~69세, %): ('18년) 38.3 → ('19년) 40.3 → ('20년) 43.0 → ('21년) 44.1</li><li>• 신중년 근로자 대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자율적 고용연장 유도<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고용유지지원금(신중년): ('20~'21년) 근로자 312,375명에게 총 9,754억원 지원</li><li>* 고령자고용지원금('22년 신설): 6,000명, 54억 예산 배정</li><li>*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20년 신설): ('20~'21년) 2,309개소, 근로자 5,031명</li></ul></li><li>• 신중년 특화 교육훈련을 지속 확대하는 등 재취업 지원인프라를 개선하고, 신중년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신중년 인력 활용 촉진</li></ul></li></ul> <table><tr><th>구분</th><th></th><th>'18년</th><th>'19년</th><th>'20년</th><th>'21년</th></tr><tr><td rowspan="2">폴리텍<br/>교육</td><td>인프라</td><td>4개소 7과정</td><td>7개소 12과정</td><td>10개소 16과정</td><td>13개소 20과정</td></tr><tr><td>교육인원</td><td>307명</td><td>489명</td><td>704명</td><td>914명</td></tr><tr><td rowspan="2">재취업<br/>서비스</td><td>경력설계</td><td>28,112명</td><td>32,514명</td><td>23,334명</td><td>37,984명</td></tr><tr><td>취업실적</td><td>34,495명</td><td>38,314명</td><td>27,527명</td><td>38,801명</td></tr><tr><td colspan="2">적합직무장려금</td><td>825개사 1,159명</td><td>2,092개사 3,119명</td><td>2,451개사 3,522명</td><td>2,873개사 3,996명</td></tr></table> | 구분           |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폴리텍<br>교육 | 인프라 | 4개소 7과정 | 7개소 12과정 | 10개소 16과정 | 13개소 20과정 | 교육인원 | 307명 | 489명 | 704명 | 914명 | 재취업<br>서비스 | 경력설계 | 28,112명 | 32,514명 | 23,334명 | 37,984명 | 취업실적 | 34,495명 | 38,314명 | 27,527명 | 38,801명 | 적합직무장려금 |  | 825개사 1,159명 | 2,092개사 3,119명 | 2,451개사 3,522명 | 2,873개사 3,996명 |
| 구분            |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폴리텍<br>교육     | 인프라                                                                                                                                                                                                                                                                                                                                                                                                                                                                                                                                                                                                                                                                                                                                                                                                                                                                                                                                                                                                                                                                                                                                                                                                                                                                                                                                                                                                                                                                                                                                                                                                                                                                                                                                                                                                                                                                                                                                                                                                                                                                                                                                                                                                                                                                                                                                                                                                                                                                                                                    | 4개소 7과정      | 7개소 12과정       | 10개소 16과정      | 13개소 20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인원                                                                                                                                                                                                                                                                                                                                                                                                                                                                                                                                                                                                                                                                                                                                                                                                                                                                                                                                                                                                                                                                                                                                                                                                                                                                                                                                                                                                                                                                                                                                                                                                                                                                                                                                                                                                                                                                                                                                                                                                                                                                                                                                                                                                                                                                                                                                                                                                                                                                                                                   | 307명         | 489명           | 704명           | 914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취업<br>서비스    | 경력설계                                                                                                                                                                                                                                                                                                                                                                                                                                                                                                                                                                                                                                                                                                                                                                                                                                                                                                                                                                                                                                                                                                                                                                                                                                                                                                                                                                                                                                                                                                                                                                                                                                                                                                                                                                                                                                                                                                                                                                                                                                                                                                                                                                                                                                                                                                                                                                                                                                                                                                                   | 28,112명      | 32,514명        | 23,334명        | 37,984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업실적                                                                                                                                                                                                                                                                                                                                                                                                                                                                                                                                                                                                                                                                                                                                                                                                                                                                                                                                                                                                                                                                                                                                                                                                                                                                                                                                                                                                                                                                                                                                                                                                                                                                                                                                                                                                                                                                                                                                                                                                                                                                                                                                                                                                                                                                                                                                                                                                                                                                                                                   | 34,495명      | 38,314명        | 27,527명        | 38,80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합직무장려금       |                                                                                                                                                                                                                                                                                                                                                                                                                                                                                                                                                                                                                                                                                                                                                                                                                                                                                                                                                                                                                                                                                                                                                                                                                                                                                                                                                                                                                                                                                                                                                                                                                                                                                                                                                                                                                                                                                                                                                                                                                                                                                                                                                                                                                                                                                                                                                                                                                                                                                                                        | 825개사 1,159명 | 2,092개사 3,119명 | 2,451개사 3,522명 | 2,873개사 3,996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1,000인 이상) 퇴직자에 대한 의무적 이직지원 관행이 정착('20.5월 시행)되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을 확대 지원하여 고령자의 퇴직후 삶의 질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직지원 서비스 의무화 시행으로 대기업 958개소 중 725개소(75.7%)가 이행</li> <li>*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 ('17년) 6,081명 → ('19년) 10,513명 → ('21.11월) 11,24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 보람·자부심 62.1%, 여가활용 43.8%, 의욕증진 38.0%</li> </ul> </li> </ul> </li> <li>■ (여성) 경력중단 위기 해소 노력으로 고용지표 회복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고용률(15~64세, %) : ('18년) 57.2 → ('19년) 57.8 → ('20년) 56.7 → ('21년) 57.7</li> <li>* 여성 취업자수(15~64세, 만명) : ('18년) 1,043.3 → ('19년) 1,052.7 → ('20년) 1,027.7 → ('21년) 1,039.7</li> <li>*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 : ('18년) 59.4 → ('19년) 60.0 → ('20년) 59.1 → ('21년) 59.9</li> </ul> </li> <li>• 「여성 고용위기 회복대책('21.3월)」 마련, 맞춤형 취업지원, 인턴십 제공 및 장기재직 지원, 가족돌봄비용 지원, 온라인 직업훈련 등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여성취업자수를 비롯 고용지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일센터(전국 175개소) 활용 맞춤형 취업지원 : ('20년) 17.7만명, ('21년) 18만명</li> <li>인턴십 및 장기재직 지원 : ('20년) 6,945명, ('21년) 11,761명</li> <li>가족돌봄비용 지원 : ('20년) 139,662명, 529억원, ('21년) 26,875명 91억원</li> </ul> </li> <li>• 경력단절예방 서비스기관 확충('20년 60개소→'21년 75개소), 여성 고용유지 모델 개발, 경력단절여성법 전면개정('12.7 공포) 등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으로 경력단절여성 규모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단절예방서비스 수혜자 : ('20) 1,801개사 4.8만명 → ('21) 2,375개사 6.8만명</li> <li>* 경력단절여성 규모 : ('20년) 1,506천명 → ('21년) 1,448천명(△57천명, △3.8%)</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월~)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과 생계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2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내용) ①구직촉진수당 지급(중위소득 50%이하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 월50만원×6개월), ②취업지원서비스 제공(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연계 등)</li> <li>* '21년 기준 42.3만명 지원 중('21년 64만명 지원 목표)</li> </ul> </li> <li>•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에도 신중년 고용의 양과 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자와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 924.4만명, 36.8% → ('21년) 1,026.2만명, 44.1%</li> </ul> </li> <li>* 정년 퇴직자 수 증가[('17년) 352천명 → ('21년) 394천명] 및 주된 일자리 근로자 평균 연령 지속 상승[('17년) 47.2세 → ('20년) 48.1세]</li> </ul> </li> <li>•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조성 노력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 적용대상 사업장 범위: ('18년) 300인 이상 지방공사·공단 → ('19년) 전체 지방공사·공단, 대규모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사업장 추가</li> <li>* 남녀고용평등법 소 사업장에 적용('19.1월)</li> <li>*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15~64세, %): ('17년) 59.0 → ('19년) 60.0 → ('21년) 59.9</li> <li>* 여성 고용률(15~64세, %): ('17년) 56.9 → ('19년) 57.8 → ('21년) 57.7</li> </ul> </li> </ul> </div> |
| <p><b>개선·보완<br/>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고령사회 도래, 산업구조·근무환경 변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따라 고용 취약계층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총체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li> <li>•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청년,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고용위기극복 지원대책 확대 추진 필요</li> </ul>                                                                                                                                                                                                                                                                                                                                                                                                                                                                                                                                                                                                                                                                                                                                                                                                                                                                                                                                                                                                                                                                                                                                                                                                                                                                                                                                                                                                                                                                                                                                                                                                                                                                                                                                                                                                                                                                                                                                                                                                                                                                                                                                                                                                                                                                                                                                                                                                                                                                                                                                                                                                                                                              |

|            |                                                                                                                                                                                                                                                                                                                                                                                                                                                                                                                                                                                                                                                                                                                                                                                                                                                                                                                                                                                                                                                                                                                                                                                                                                                                                                                                                                                                                                                                                                                                                                                                                                                                             |         |                 |           |                |         |                |           |    |         |                 |         |       |  |  |  |  |           |  |
|------------|-----------------------------------------------------------------------------------------------------------------------------------------------------------------------------------------------------------------------------------------------------------------------------------------------------------------------------------------------------------------------------------------------------------------------------------------------------------------------------------------------------------------------------------------------------------------------------------------------------------------------------------------------------------------------------------------------------------------------------------------------------------------------------------------------------------------------------------------------------------------------------------------------------------------------------------------------------------------------------------------------------------------------------------------------------------------------------------------------------------------------------------------------------------------------------------------------------------------------------------------------------------------------------------------------------------------------------------------------------------------------------------------------------------------------------------------------------------------------------------------------------------------------------------------------------------------------------------------------------------------------------------------------------------------------------|---------|-----------------|-----------|----------------|---------|----------------|-----------|----|---------|-----------------|---------|-------|--|--|--|--|-----------|--|
| 과제목표       |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을 통해 중층적 고용안전망 체계 구축                                                                                                                                                                                                                                                                                                                                                                                                                                                                                                                                                                                                                                                                                                                                                                                                                                                                                                                                                                                                                                                                                                                                                                                                                                                                                                                                                                                                                                                                                                                                                                                                                           |         |                 |           |                |         |                |           |    |         |                 |         |       |  |  |  |  |           |  |
| 총평         | ■ 코로나19 위기에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및 적기에 서비스 전달 노력<br>■ 다만, 고용안전망 지원체계 및 추진사업에 대한 실적 모니터링, 정책효과 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 사업관리 및 성과제고 노력 필요                                                                                                                                                                                                                                                                                                                                                                                                                                                                                                                                                                                                                                                                                                                                                                                                                                                                                                                                                                                                                                                                                                                                                                                                                                                                                                                                                                                                                                                                                                                                |         |                 |           |                |         |                |           |    |         |                 |         |       |  |  |  |  |           |  |
| '21년도 주요성과 | ■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여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차질없이 준비<br>• (1차 안전망) 고용보험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및 두루누리지원사업 운영 등 노력으로 다양한 고용형태 취업자에 대한 보호체계 구축<br>* 고용보험 가입자수(만명): ('17년) 1,296 → ('19년) 1,386 → ('20년) 1,411 → ('21년) 1,455<br><table><tr><td>취업자 유형</td><td>임금 노동자</td><td>예술인</td><td>특수형태 근로종사자</td><td>플랫폼 종사자</td><td>자영업자 (현행 임의가입)</td></tr><tr><td>고용보험 적용시점</td><td>기존</td><td>'20.12월</td><td>'21.7월 (12개 직종)</td><td>~'22.7월</td><td>~'25년</td></tr><tr><td></td><td></td><td></td><td></td><td colspan="2">단계적 확대(안)</td></tr></table><br>• (2차 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21.1.1)으로 청년·여성 및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동시에 생계 보호 기반 마련<br>* (주요내용) ①구직촉진수당(중위소득 60%이하 구직자, 최대 300만원, 월50만원×6개월)<br>②취업지원서비스(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연계 등)<br>* (지원현황) 신청자 수 509,647명, 수급자격 인정 422,620명(12.31. 기준 누적)<br>•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21.4월, '22.4월 시행예정)을 통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근거 마련<br>* 주요내용: ①(대상) 30명이하 중소기업, ②(시행시기) '22.4월<br>③(특례) 최저임금 120%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 정부지원<br>* 퇴직연금제도 운영현황('20년): (적립금) 255.5조원 (가입사업장) 408천개소<br>■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br>• 직업훈련체계를 개편(정부 주도 → 민관 협력)하고, 내일배움카드 지원을 확대하여 실업자·재직자 중심 직업훈련을 국민 대상 직업능력개발체계로 개편<br>*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21.9월, 일자리위):<br>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개정('21.9월)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22.2월 시행예정)<br>* 국민내일배움카드 확대: 현행 졸업예정자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21.9월 시행)<br>• 이론에서 실무 능력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 신설·개편('21.8월)*,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를 지속·확대**하여 다양한 직업 수요 및 산업현장 변화에 대응<br>* (신설) 이러닝운영관리사 등 4종목, (분할·통합·폐지) 일반기계기사 등 9종목<br>(개편) 전자기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실무내용 개선 34종목<br>**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 ('18년) 2개소 → ('19년) 5개소 → ('20년) 11개소 → ('21년) 14개소<br>• 원격훈련 확대, 산업기사 자격검정시험(295종목)을 CBT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네이버·카카오 모바일에서 확인·활용토록 서비스 개시 | 취업자 유형  | 임금 노동자          | 예술인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플랫폼 종사자 | 자영업자 (현행 임의가입) | 고용보험 적용시점 | 기존 | '20.12월 | '21.7월 (12개 직종) | ~'22.7월 | ~'25년 |  |  |  |  | 단계적 확대(안) |  |
| 취업자 유형     | 임금 노동자                                                                                                                                                                                                                                                                                                                                                                                                                                                                                                                                                                                                                                                                                                                                                                                                                                                                                                                                                                                                                                                                                                                                                                                                                                                                                                                                                                                                                                                                                                                                                                                                                                                                      | 예술인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플랫폼 종사자   | 자영업자 (현행 임의가입) |         |                |           |    |         |                 |         |       |  |  |  |  |           |  |
| 고용보험 적용시점  | 기존                                                                                                                                                                                                                                                                                                                                                                                                                                                                                                                                                                                                                                                                                                                                                                                                                                                                                                                                                                                                                                                                                                                                                                                                                                                                                                                                                                                                                                                                                                                                                                                                                                                                          | '20.12월 | '21.7월 (12개 직종) | ~'22.7월   | ~'25년          |         |                |           |    |         |                 |         |       |  |  |  |  |           |  |
|            |                                                                                                                                                                                                                                                                                                                                                                                                                                                                                                                                                                                                                                                                                                                                                                                                                                                                                                                                                                                                                                                                                                                                                                                                                                                                                                                                                                                                                                                                                                                                                                                                                                                                             |         |                 | 단계적 확대(안) |                |         |                |           |    |         |                 |         |       |  |  |  |  |           |  |

## ■ 디지털·비대면·AI 기반 공공 고용서비스 고도화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

- 고용복지+센터 확충('20년 171개소 → '21년 174개소),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방안('21.6월)」 마련 등 공공고용서비스 확충 기반 마련

\* (주요내용)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충, 맞춤형 채용·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등

- 디지털·비대면 서비스\* 제공, AI기반 매칭서비스 "The Work" 등으로 코로나19 속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고용서비스 제공

\* 화상면접·상담 지원,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총 34회, 1,875개 기업·2,259명 구직자 참여), 비대면 집단상담·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긴급대책 지속이행

- 사업장의 고용유지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소득을 지원하는 한편, 위축된 민간 고용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 전개

\* ('21년 고용유지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1.28조원 ⇒ 4.1만개 사업장, 33.9만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3,043억원 ⇒ 3.9만개사 6.2만명  
 고용유지비용 대부: 878억원 ⇒ 7,131개사 37,557명  
 고용안정협약 지원: 210억원 ⇒ 388개 사업장 25,549명  
 특별고용지원업종(8개) 지원기간 연장(연180일 → 최대 300일)

\* (사각지대 지원) 특고·프리랜서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4조원 ⇒ 179.2만명('20~'21년)

\* (공공·민간일자리 창출) '20년 158.5만개, '21년 154만개

### <정부 출범('17.5월~) 이후 핵심성과>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중층적 구조의 고용안전망 강화기반 구축

\* 고용보험료 지급수준 인상: 평균임금의 50% → 60% / 지급기간 연장: 3~8개월 → 4~9개월

\*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20.5.20)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예술인 포함('20.12.10 시행)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 추진('20.12월 국회 통과, '21.7.1 시행)

\* 방문판매원 등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20.7.1~)

\*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정법률안 국회통과('20.5.20) → 수급요건 등 세부규정안 마련(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9~12월) → 본격 시행('21.1.1)

- 적극적인 고용안정 지원으로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신속하게 고용 회복

\* '20~'21년 간 고용유지 지원,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생계안정 지원, 공공·민간일자리 창출 등 고용안정 대책에 일자리예산 72조원 투입

< OECD 주요국가별 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 효과 >

| 구 분                                               | 호주             | 캐나다   | 한국    | 이탈리아          | 독일            | 영국            | 일본            | 미국   |
|---------------------------------------------------|----------------|-------|-------|---------------|---------------|---------------|---------------|------|
| 코로나 이전('20.2월) 대비 '21.12월 고용회복률(% , 계절조정 취업자수 기준) | 101.4<br>(11월) | 101.3 | 100.2 | 99.5<br>(11월) | 99.3<br>(11월) | 98.3<br>(10월) | 98.2<br>(11월) | 98.2 |
| '19년 대비 '20년 취업자 증감률(%)                           | -1.5           | -5.2  | -0.8  | -2.0          | -1.3          | -0.3          | -0.7          | -6.2 |
| '19년 대비 '20년 실업률 상승폭(%p)                          | +1.3           | +3.8  | +0.2  | -0.8          | +0.6          | +0.7          | +0.4          | +4.4 |

\* 출처: 각국 통계청, OECD Stat(LFS by sex and age)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적용확대 직종의 고용보험 가입 제고를 위해 지원확대 필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체계 및 추진실적 모니터링,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정책효과를 분석하여 성과 제고 추진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와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력 확보</li> <li>■ 신규 시장 개척, 업종 간 융합 활성화로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서비스 산업 혁신 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저변 확대</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및 유망 서비스시장 활성화, 영세서비스업 경쟁력 제고, 소비진작 등 경제회복 및 민생안정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li> <li>■ 다만,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노력 지속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가동, 소비·투자 활성화, 고용·일자리 유지 등 각종 대책을 마련·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경제중대본회의 27회 개최 → 120건 이상의 위기극복·경제회복 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실행계획(1월), ②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3월), ③청년고용 활성화 방안(2월), ④소상공인 구독경제 활성화 방안(8월) 등</li> </ul> </li> <li>• '21년 110조원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 가동, 제도 개선, 현장애로 해소 등 전방위적 지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투자) 행정절차 간소화,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한 '기업투자 지원회의' 수시 개최 (민자사업)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전문가·업계 간담회' 개최를 통해 투자애로 해소 등 지원</li> </ul> </li> <li>• 한국판 뉴딜의 체계적 관리·추진 및 「한국판 뉴딜 2.0」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투자) '21년 본예산(21조원), '22년 예산(33.1조원) 등 차질 없는 재정투자로 마중물 역할 강화 (법·제도개선) 제도개선 과제 191개 마련·추진 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43개 법률) 중 입법완료 28개</li> </ul> </li> </ul> </li> <li>■ 한걸음 모델을 통한 신서비스 도입기반 마련, 유망 서비스업의 코로나19 피해지원과 중장기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걸음 모델을 통해 도심 공유 숙박('21.1월),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 물류 서비스 도입('21.11월) 합의 도출로 신서비스 도입 기반 확충</li> <li>• 공연·관광 등 유망 서비스업 대상 정책금융·재정사업 등 맞춤형 지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추경을 통해 문화관광체육 채용지원 등에 1,023억원을 투입 약 27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유지 기대</li> </ul> </li> <li>• 비대면 환경,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스마트 관광도시를 지속 확대('21년 신규 6개소),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헬스 경쟁력 확보와 미래의료 혁신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형 암(K-cancer 통합) 빅데이터 구축방안(2월),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6월) 등</li> </ul> </li> </ul> </li> <li>■ 영세서비스업 소상공인이 코로나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금융지원·임대료 감면 등을 최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성지원) 4차 재난지원금 총 18.3조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피해회복에 집중 지원 (금융 지원)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6조원 긴급자금 공급 등 업종 유지를 위한 지원 실시 (임대료감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통한 임대료 감면 간접유도,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li> </ul> </li> </ul> |

■ 서비스산업 중장기 로드맵(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 '21.3월) 수립, R&D 활성화, 서비스 인력양성 등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민간의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지속 강화
  - \* 신성장 원천기술 세액공제 우대 적용기한을 연장('21.12월 → '24.12월), R&D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업종을 종전 19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디지털전환 시대에 대응, '25년까지 41.3만명의 SW인재양성 방안 마련

■ 대규모 소비행사 개최 및 소비대책 마련을 통한 소비 진작 추진

- 대·중소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상생형' 소비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성공적 안착('21년 2,460여개 참여)
  - \* (매출액)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전년동기 대비 16% 증가, 온라인 기획전 매출액 1,180억원 달성 (판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신규 판로로서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비대면 채널 발굴·확대 계기
- 상반기 민간소비는 2분기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하며 국내소비(해외소비 제외) 기준으로는 위기 전('19.4/4) 대비 99% 수준 회복

|                 |       | '19.4/4 | '20.1/4 | 2/4  | 3/4  | 4/4  | '21.1/4 | 2/4 | 3/4  |
|-----------------|-------|---------|---------|------|------|------|---------|-----|------|
| * 민간소비 증가율(%) : | [전기비] | 0.9     | △6.6    | 1.2  | 0.2  | △1.3 | 1.2     | 3.6 | △0.3 |
|                 | [전년비] | 2.2     | △4.8    | △4.2 | △4.5 | △6.6 | 1.2     | 3.7 | 3.2  |

<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

- 코로나19 대응시스템 가동으로 위기극복·경제회복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한국판 뉴딜·투자활력 제고를 위한 100조원 투자프로젝트('20년) 등 추진
  - \* 민생·경제 종합대책('20.2월), 소비·지역경제 활성화 대책('20.7월) 등
- 공유경제 등 신서비스 활성화 및 상생발전 노력
  - \* 택시제도 개편방안('19.8월),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20.6월) 등
  - \* 택사·키폴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도출('19.3월), 농어촌빈집 공유숙박 시범사업 추진 합의('20.8월) 등
-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유망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
  - \* (관 광)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19.4월), 관광내수시장 활성화 대책('20.5월) 등
  - (보 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19.5월),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20.1월) 등
  - (콘 텐 츠)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19.9월),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 산업 성장 전략('20.9월) 등
- 저임금 서비스업종의 생산성 혁신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 \* IoT, VR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에 적용하는 '스마트상점' 보급사업 추진('19년)
  - \* IoT 기술접목, 고객관리 등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지원하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 신설('19년)
- 신제품·신서비스의 원활한 출시를 위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18.9월 국회 통과)
  - \*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 규제자유특구법, 금융혁신특별법, 스마트도시법, 연구개발특구법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서비스산업의 근본적 도약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 적극 노력
  - \* 법안 발의('11.12월) 이후 지속된 핵심쟁점(보건의료 분야 등)에 대한 이견 해소, 입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조속히 입법 마무리 (국회, 기재위 계류 중)
-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제시장 안정을 위한 「한국판 뉴딜 2.0」 지속추진
  - \* 한국판 뉴딜의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재정투자, 뉴딜펀드 조성, 관련 법·제도개혁, 지역균형 뉴딜 등 지속 추진 필요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채주도에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가계부채 위험 해소</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대응 및 가계부채 질적 개선 노력을 통해 가계부채 위험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li> <li>■ 다만, 가계부채 관리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에서의 혼선과 수요자 불만을 완화하는 소통 노력과 지원방안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계부채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 및 서민·실수요자 보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융정책 정상화 및 부채관리를 위한 정책기조 변화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21~'22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목표 제시('21년 5~6%대, '22년 4~5%대 / '21.4월)</li> <li>② 가계부채 급증세 억제를 위한 총량관리 강화('21.7월)</li> <li>③ 한국은행도 정책 공조 하에 주요국 중 최초로 기준금리 인상('21.8월)</li> </ul> </li> <li>• 가계부채 관리 시 불가피하게 발생한 국민 불편사항에 미세조정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세대출) 금년도 4/4분기 중 취급된 전세대출을 총량관리에서 제외</li> <li>(잔금대출) 금년중 입주 예정 사업장별(118개) 잔금대출 애로 모니터링 및 지원</li> </ul> </li> <li>• 차주별DSR 확대 등 DSR제도 보완으로 상환능력심사 강화 및 차주 상환 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산</li> <li>•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 노력으로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담대 비중(%) : [고정금리] ('13.) 16 ('20.) 50 ('21.9월) 46, [분할상환] ('13.) 19 ('20.) 54 ('21.9월) 55</li> </ul> </li> </ul> </li> <li>■ 코로나19 피해 연체채무자에 대한 적극적 신용회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방안 실시 등 코로나19로 채무상환에 곤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 특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복위·캠코 특별상환유예 73,988건(14,784억원), 프리워크아웃 특례 5,259건(406억원), 채무조정 특례 10,046건(4,753억원), 개인 연체채권 매입 6,460건(422억원)</li> </ul> </li> <li>•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연체채무자 경제적 재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조정 평균 감면율 : ('20년) 38% → ('21년) 43.7%</li> </ul> </li> <li>•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소액신용카드 발급 등 채무조정 이후 재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액대출 3.8만명 995억원, 소액신용카드 발급 3.1만명 115.1억원</li> </ul> </li> </ul> </li> <li>■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1.3월)에 따른 하위규정 제정 및 현장안착 지원을 통해 청약철회권 행사건수 증가, 민원 감소 등 긍정적 변화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철회권 행사 : (법시행 전, '20년) 1.9만건 → (법시행 후, '21.3~9월) 9.6만건(5배 증가)</li> <li>** "금소법 상황시행반"을 설치하여 현장의 금소법 안착 상황을 모니터링·지원('21.3~9월)</li> </ul> </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주요 규제에 대한 세부지침 제공(총 4건) 등 금융현장 지원을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금융거래상 불편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규제 가이드라인(6.8),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7.1),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7.14), 권역별 표준 내부통제기준(8.31)</li> </ul> </li> <li>카드포인트 현금화 시스템 구축('21.1월), 금리인하요구권 활용 홍보 강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관련 제도개선('21.6월) 등 소비자 권리행사 지원</li> </ul> <p>■ 서민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24 → 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금리 이용 취약차주의 이자부담 경감 및 부작용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 초과금리 차주(239만명) 중 약 208만명(14.2조원)이 연 4,830억원 이자부담 경감 기대</li> </ul> </li> <li>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햇살론 17 금리를 2%p 인하한 햇살론 15 출시 및 고금리대출(20% 초과)자의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 출시</li> <li>최고금리 인하에 대응하여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4개월) 운영, 범부처 공조를 통한 강도 높은 단속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 집중 투입 단속('21.7~10월) : 총 472건, 1,031명 검거</li> </ul> </li> </ul> <p>■ 주택금융 이용자들의 원리금 상환부담 축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기 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21.7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 신설('21.9월, 금리 0.1%p 인하) 등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층·신혼부부 대상 초장기 모기지 출시 6개월간('21.7~12월) 2.1조원 공급</li> </ul> </li> <li>‘주택 가치만큼만 책임을 지도록’ 제도화하는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한책임대출 공급(조원) : ('17년) 0.9 → ('18년) 3.8 → ('19년) 5.6 → ('20년) 12.6 → ('21년) 12.8</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환능력을 갖춘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공급원칙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대상지역 LTV 규제 30~50%로 강화, DSR제도 도입·시행('18.10월)</li> <li>* 금융채무 불이행자 감소(만명) : ('18년) 93.0 → ('19년) 88.4 → ('20년) 81.8 → ('21년) 74.8</li> </ul> </li> <li>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를 통한 고금리 대출 이자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균 대출금리(%) : ('16년) 23.5 → ('17년) 21.9 → ('18년) 19.6 → ('19년) 17.9 → ('20년) 17.0</li> </ul> </li> <li>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방안 발표('17.8월) 및 547만건 50조원 소각('17~'21.9월),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개선('19년) 및 코로나 피해 재기지원 강화방안 마련('20.4월)</li> </ul> </li> <li>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20.3월) 및 유한책임대출 민간은행 대출까지 확대</li> </ul> </div> |
| <b>개선·보완<br/>필요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계부채 관리강화 과정에서 정책 변경에 따른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수요자 불만을 완화하는 소통 노력과 지원방안 마련 필요</li> <li>유한책임대출 단계적 확산(민간은행 취급 확대)에 따라 주택가격 하락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민간은행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도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민간은행의 공급목표 초과달성도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감면(우대요율)</li> </ul> </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li> <li>■ 소비자 중심 금융관리·감독체계 마련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li> <li>■ 다만,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애로 해소방안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규제특례 부여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속 추진으로 혁신산업 육성 및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21.7월)을 통해 사업자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금융사업자가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유예·면제) 지정기간을 최대 1년 6개월 추가 연장(기존 4년)</li> </ul> </li> <li>•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19년) 이후 총 185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에서 서비스 전담인력 1,237명 고용, 총 2,732억원 투자 유치</li> </ul> </li> <li>•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실적 급증으로 기존 금융산업에도 긴장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대출비교 서비스) 31만명, 총 5조 5,378억원 대출 → 약 210억원 이자 절감<br/>(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74만명, 총 8,577억원 투자 → 해외주식 투자 접근성 향상</li> </ul> </li> </ul> </li> <li>■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및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년만의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토스뱅크, '21.6월) 및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 사업자의 첫 온라인 전문보험사 예비허가(카카오손보, '21.6월)</li> <li>•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21.6월)으로 소액단기보험회사 자본금 요건 완화 (300 → 20억) 등 진입규제 완화</li> <li>• 소규모 라이선스 활성화를 통한 신규 사업자 진출로 경쟁과 혁신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려동물 보험, 레저·여행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 활성화</li> </ul> </li> <li>•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성공적 안착 및 토스뱅크 출범으로 일자리 창출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 인터넷전문은행 직접 고용 1,682명, 외주인원 포함 시 3,220명의 고용 창출</li> </ul> </li> </ul> </li> <li>■ 클라우드펀딩이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1.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행한도를 기존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프로젝트 투자대상 사업을 확대</li> </ul> </li> <li>• 클라우드펀딩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보완방안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개기관의 불건전 영업행위 모니터링 강화, 후원형 클라우드펀딩 가이드라인 제공('21.2월)</li> </ul> </li> <li>• 클라우드펀딩 도입('16년) 이후 849개 기업이 총 1,535억원 조달</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노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EO의 임원추천위 참석 금지, 감사위원 임기보장, 최대주주 자격심사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국회 제출('21.6월)</li> <li>•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및 적극적인 인식제고 노력에 따라 건전한 지배구조 관행이 정립되어 가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평가('21.10월) 결과 '19년 대비 상위등급 취득사 대폭 증가 : (A+) 3→5, (A) 6→11, (B+) 20→16, (B) 10→9, (C) 7→5, (D) 2→1</li> </ul> </li> </ul> </li> <li>■ <b>「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1.3월) 등 소비자 중심 관리체계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기능 재편 및 부서 신설을 통해 증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및 분쟁조정 업무에 대응('2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3월말 기준 13개 부서, 44개팀, 421명('20.3월말 대비 14명 증가)</li> </ul> </li> <li>• 금소법, 소비자보호 제도 및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기획·제도개선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으로 일원화하고 기능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상품분석국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미스터리 쇼핑 등 현장점검 기능 보강</li> </ul> </li> <li>• 금소법 시행 이후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금감원, 각 업권별 협회와 "현장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21.3~9월)</li> <li>• "금소법 시행상황반"(長: 금융위 사무처장)을 설치하여 매월 회의를 개최하면서 현장의 금소법 안착 상황을 모니터링·지원('21.3~9월)</li> </ul> </li> </ul> <div data-bbox="343 1137 1417 1758"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산업 진입장벽 완화 및 신규인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토스), 온라인전문보험사 본허가(캐롯손보)·예비허가(카카오손보)</li> <li>** 인터넷전문은행법('19.1월), 신용정보법 개정('20.1월)을 통해 영위업무별 자본금 차등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21.6월)을 통해 소액단기보험사 자본금요건 완화(300 → 20억원)</li> </ul> </li> <li>•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및 금융혁신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혁신지원법 시행('19.4월) 및 혁신금융서비스 지정(185건 지정, 서비스 출시 97건)</li> <li>* '19.12월 오픈뱅킹 전면시행(누적인원 1억 651만명, 누적등록 21,181만 계좌 / '21.12월초)</li> </ul> </li> <li>• 금융분야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법 개정('20.2월)</li> </ul> </li> <li>• 클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행금액(연 15억원 → 30억원) 및 투자한도 확대(연 5백만원 → 10백만원)</li> </ul> </li> </ul> </div> |
| <b>개선·보완<br/>필요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온라인 신규인가 확대에 따른 디지털 소외계층 보호 방안 필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점 폐쇄 등 고객과의 관계에 기반한 전통적인 서비스 채널이 축소되면서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이용에 어려움 가중 우려</li> </ul> </li> <li>• <b>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조속한 입법 노력 필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과 관련 지방은행 경쟁력 등 기존 금융권의 상생방안 요구, 빅테크 외부청산 의무화와 관련 지급결제 권한에 대한 한국은행 이견 등 해소 필요</li> </ul> </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소기업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성장기반 마련</li> <li>■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 및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강화 등 제도적 기반 강화</li> <li>■ 다만, 최근 제기되고 있는 플랫폼중사자들에 대한 불공정행위방지 관련 「온라인 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조속 추진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민주당, 공정위 등 관계부처, 청와대)’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민생문제 해결 노력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차 회의(6.22)에서 코로나 19 피해구제, 건설분야 산업재해 방지, 온라인 플랫폼 시장 건전화 등을 논의하였고, 이후 관련 제도개선 추진</li> </ul> </li> <li>■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법집행 강화로 하도급 분야 거래질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자료 요건 완화* 등을 통한 기술자료 보호 강화(8월), 대금조정 협의권자에 중기중앙회 추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 도입 등(12월) 하도급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 ‘비밀로 관리되는’ 으로 개정</li> </ul> </li> <li>• 기술유용, 부당 단가인하, 서면 미발급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기준 986건의 법 위반행위를 제재(경고조치 이상)</li> </ul> </li> <li>• 설추석 전후 하도급 신고센터(전국 10개) 운영으로 388개사 471억원 하도급대금 지급</li> </ul> </li> <li>■ 갑을관계가 고착화된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 을의 협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분야) 부실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 방지를 위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직영점을 1개,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5월)·시행(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판촉행사 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22.1.4. 공포)</li> </ul> </li> <li>• (유통분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 수혜대상을 매장 임차인 외 ‘매장 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까지 확대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 개정(4월)·시행(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 수탁자가 유통업자에게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보장</li> </ul> </li> <li>• (대리점) 동의의결제 도입, 보복조치시 손해액의 3배액 배상 등을 내용으로 대리점법 개정(12월)</li> </ul> </li> </ul> |

|                              |                                                                                                                                                                                                                                                                                                                                                                                                                                                                                                                                                                                                                                                                                                                                                                                                                                                                                                                                                                                                                                                                                                                                                                                                                                                                                                                                                                                                                                                                                                                                                                                                                                                                                                                                                                                                                                                                                                                                                                                                                                                                                                                                                                                   |
|------------------------------|-----------------------------------------------------------------------------------------------------------------------------------------------------------------------------------------------------------------------------------------------------------------------------------------------------------------------------------------------------------------------------------------------------------------------------------------------------------------------------------------------------------------------------------------------------------------------------------------------------------------------------------------------------------------------------------------------------------------------------------------------------------------------------------------------------------------------------------------------------------------------------------------------------------------------------------------------------------------------------------------------------------------------------------------------------------------------------------------------------------------------------------------------------------------------------------------------------------------------------------------------------------------------------------------------------------------------------------------------------------------------------------------------------------------------------------------------------------------------------------------------------------------------------------------------------------------------------------------------------------------------------------------------------------------------------------------------------------------------------------------------------------------------------------------------------------------------------------------------------------------------------------------------------------------------------------------------------------------------------------------------------------------------------------------------------------------------------------------------------------------------------------------------------------------------------------|
|                              | <p>■ <b>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하여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제재수준을 과태료→과징금으로 강화(1월)하고,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와 거래소 간 시스템을 연계하여 사건의 진행단계, 처리결과 등 정보를 공유</li> </ul> </li> <li>• 현재 <b>부당이득금</b>에 대하여 형사처벌만 가능하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를 위하여 <b>과징금을 도입</b>하는 입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시장법 개정안(20.8월 윤관석안) 발의 이후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3차례 논의</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당, 관계부처, 청와대 참여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설치('19.2월)하여 출범 이후 총 9차례 회의 개최, 6개 관련 대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19.9월), ②특고지침 개정('19.9월), ③공공기관 공정경제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19.11월), ④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대책 발표('19.12월)</li> <li>⑤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20.5월), ⑥배달앱 플랫폼 경제 상생방안('20.7월)</li> </ul> </li> <li>• 하도급업체의 자생적 성장을 저해하는 전속거래 강요 및 부당 경영정보 요구 등을 금지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도급법, '18.1월,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도급법상 보호대상 기술자료 범위확대, 기술유용 등에 대한 조사개시 시효 연장(3→7년)</li> </ul> </li> <li>• 본사 보복조치 금지제도 도입·확대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제고,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3배 손해배상제 도입·확대 등을 통해 거래관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사업법 개정('18.1월), 유통업법 개정('18.10월), 하도급법 개정('18.1월), 대리점법 개정('21.12월)</li> </ul> </li> <li>• 을의 피해구제 및 협상력 강화를 통해 거래관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업법 적용대상에 복합쇼핑몰, 아울렛을 추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권 보장 등 입점상인 권익보호 강화(유통업법, '18.3월, 10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제정 및 상생협약식 개최('20.6월)</li> <li>*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해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20.6월)</li> <li>* 하도급거래 중 공급원가 상승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할 때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협의할 수 있는 자로 기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도급법, '22.1월)</li> </ul> </li> <li>• 불법·부당회계 방지를 위한 기업회계 규율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투명성·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대상 확대(주식회사 → 유한회사 추가),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근거 등 마련(외부감사법, '18.11월 시행)</li> <li>*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발표한 회계감사 실무적정성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63위('17년) → 37위('21년)로 24단계 상승</li> </ul> </li> </ul> </div> |
| <p><b>개선·보완<br/>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b>온라인 플랫폼공정화법</b>」 등 <b>관련법* 제·개정</b>이 <b>차질 없이 마무리</b>될 수 있도록 <b>입법 추진 노력 강화 필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자본시장법, 대규모유통업법 등</li> </ul> </li> <li>• <b>부당공동(지원)행위 외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필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포상금제도는 6개 법률 15개 행위유형으로 다양하나, <b>부당공동(지원)행위</b>에서 <b>주로 포상금이 지급</b>(20년 금액기준 7억5천만원, 86.4%)되고 있어 <b>실적이 미미한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b>가 필요</li> </ul> </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경영승계 차단</li> <li>■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및 부당 내부거래 근절과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강화 방지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엄정 제재, 급식·물류 등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추진 등을 통해 공정경제 기반 확대</li> <li>■ 다만,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준수 여부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총수일가의 전횡방지를 위해 개정('20.12)된 상법*</b>을 시행하여, 총수일가 경제범죄 엄중제재, 국고손실의 철저한 환수 등 공정한 시장질서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도입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li> </ul> </li> <li>• 강화된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b>총수일가 등의 경제범죄에 대해 적극 수사하는 한편, 처벌을 강화</b>(‘21년 7건 기소)</li> <li>•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소제기를 통해 <b>약 100억원 국고환수</b></li> <li>■ <b>공정거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소유·지배구조 개선 유도를 통한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방지 및 지배구조 개선 위한 <b>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 마련</b>(12월)</li> <li>• 대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b>시책 위반 행위를 엄정 제재하여 중소·독립기업의 경쟁 기반을 침해하는 부당 내부거래의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제재 건 14건(현 정부 출범 이후 제재 건은 총 43건)</li> </ul> </li> <li>• <b>공시제도의 전면 개선, 정보공개(연 10회) 내실화</b> 등을 통해 소유지배구조 개선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환출자 해소) ‘17년 282건 → ‘18년 41건 → ‘19년 14건 → ‘20년 16건 → ‘21년 6건</li> </ul> </li> </ul> </li> <li>■ <b>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적발시 엄중제재를 통해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함과 동시에 자발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법 시행(12월)으로 사익편취 규제의 <b>사각지대를 해소함</b>으로써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b>모니터링의 효과성 제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 (개정 전) 265개사 → (개정 후) 709개사</li> </ul> </li> <li>•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하여 <b>자연인 1명, 법인 2개사를 고발하고 과징금 약 2,529억원 부과</b></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단체급식, 물류, IT서비스 등 업종에서 대기업 집단의 자율적인 일감개방</b><br/>유도를 통한 <b>중소·독립기업의 경쟁기회 보장</b><br/>*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의 사내 식당이 대외 개방되는 성과 달성</li> <li>■ <b>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6월)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통해</b><br/><b>금융그룹의 건전성 확보</b></li> <li>•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b>감독체계를</b><br/><b>구축하는 등 금융감독제도 선진화로 금융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여건 조성</b><br/>* 6개 금융그룹(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7월)</li> <li>• <b>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로 대기업집단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 방지</b><br/>* 공정거래법 시행(12월)을 통해 예외적 의결권 행사 범위 축소</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등 공정경제3법 통과를 통해<br/>공정경제 관련 제도적 개혁 마무리<br/>* (상법)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도입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br/>*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지분을 요건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을 통한 총수<br/>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방지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br/>* (금융복합기업집단법)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감독체계 구축 등 금융감독제도 선진화</li> <li>• 재벌 총수일가 등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처벌 강화<br/>* 경제범죄 검찰 사건처리기준 개정·시행('18.6월)으로 조세포탈, 허위제출 등 처벌 강화</li> <li>• 형사판결 및 과징금 의결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한 국고손실 환수소송 39건 제기<br/>* 소가 합계 약 220억원으로 약 160억원을 국고로 귀속</li> <li>•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 적발 및 엄중제재<br/>* '21년 14건(총수 고발 3건)을 포함하여 현정부 출범 이후 총 43건 제재</li> <li>•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br/>*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 제재(자연인 22명, 법인 36개사 고발, 과징금 약 4,591억원 부과)<br/>* 사익편취 신고포상금('17.9월), 친족분리 취소제 도입('18.4월) 통한 효과적 적발 도모</li> </ul> </div> |
| <b>개선·보완<br/>필요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집단 소유지배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조기<br/>안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홍보 필요<br/>* 국외 계열회사 공시강화, 임원독립경영 출자요건 완화 등</li> <li>•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국고손실 환수소송」의 유기적 협력<br/>체계 구축 필요<br/>* '21년 소제기 실적은 2건에 그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수소송을 위해서는 실제<br/>소송을 수행하는 수행청과 법무부, 검찰청, 공정위 등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균형 잡힌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 구축, 공정위·지자체 간 협업으로 감시 역량 제고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공정거래조정원 내 가맹지원센터 신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으로 신속한 피해구제에 기여</li> <li>■ 다만, 효과적인 집단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노력 지속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통해 피해구제의 실효성 및 법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법 시행('21.12월)에 맞춰 시행령 전부개정, 47개 행정규칙 제·개정 추진 및 법 적용대상 기업들의 이해도·수용도 제고를 위해 소통·홍보 병행</li> <li>* [하위규정] 시행령 전부개정, 행정규칙 제·개정 완료 및 시행('21.12.30)</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 법집행 체계 개선 주요내용 &gt;</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불공정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곧바로 위법행위 중지 청구가 가능해져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가능</li> <li>▶ (자료제출의무 부과) 불공정행위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장 큰 애로인 손해발생 여부나 손해액 입증을 위한 기업자료를 폭넓게 볼 수 있게 되어 손해입증 관련 증거확보 용이</li> <li>▶ (과징금 상향조치) 법위반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상향함으로써 법 위반 억지력 제고</li> <li>▶ (형벌 정비) 기업결합 등 형사처벌이 적합하지 않은 유형에 대해 형벌규정을 폐지하되, 담합 등에 대해서는 고발지침·의무고발요청제 운영 등 형사적 집행 강화</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집행 역량 확충을 통해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법준수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의 조직·인력을 확충하여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행위, 갑을분야 및 ICT분야 불공정행위, 민수입찰담합 등 엄중 제재</li> <li>* 기업집단국, 유통정책관실, ICT전담팀 등 신설조직이 '21년에 경고 이상으로 조치한 건수는 총 102건이고, 과징금 총 5,846억원 부과('17~'21년, 총 354건, 8,263억원)</li> </ul> </li> <li>■ 분쟁조정 대상 확대 및 조정역량 확충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위에서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으로 추가('20.12월)하고, 분쟁조정 대상을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로 확대('21.4월)</li> <li>•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예산을 보강('21.12월)하였으며, 수요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로 조정제도와 가맹종합지원사업을 적극 홍보</li> <li>* [조정원 인력·예산] ('21년) 88명, 94억원 → ('22년) 98명(+10명), 109억원(+15억원)</li> <li>[조정실적] ('20년) 1,308건 성립, 1,207억원 피해구제 → ('21년) 1,156건, 1,030억원</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정위-지자체 이양업무 확대 및 협업 강화</b>를 통해 <b>중소상공인의 피해구제가 신속·편리해지고, 대규모 피해 예방도 가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사업법상 과태료업무(예상매출액 관련 등 5개 업무) 지자체에 추가 이양('21.11월)</li> <li>• 4개(서울, 인천, 경기, 부산) <b>지자체가 가맹점·대리점 분야 분쟁조정</b>을 진행함에 따라 <b>중소상공인이 지역 내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 가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년) 185건 처리, 67건 조정성립 → ('20년) 253건, 96건 → ('21년) 211건, 97건</li> </ul> </li> <li>• <b>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플랫폼 노동자 지위 개선</b>('21.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경기도의 협조를 받아 지역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약 1만 2천여명의 배달기사에 대한 갑질 피해 예방</li> </ul> </li> </ul> </li> <li>■ <b>다수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예방수단 제도화 노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b>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소방지장치 필요 등 관계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통일된 정부안 도출 노력 지속</li> </ul> </li> <li>• <b>단체소송제도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b> 국회 제출('21.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내용) ①소비자권익침해 사전예방, ②원고적격 확대, ③소송절차요건 완화</li> </ul> </li> </ul> </li> <li>■ <b>신규사업예산 확보를 통해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의 안정적 지원 가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소비자 역량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8.5억원 증액('2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내용) ①청년 소비자리더 아카데미 운영 ②소비자 교육봉사(Y&amp;S)활동 운영</li> </ul> </li> </ul> </li> </ul> <div data-bbox="347 1093 1417 1724"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집행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완수('20.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17.8~'18.1월), 공정거래법제 개선특별위원회('18.3~7월) 운영</li> </ul> </li> <li>• 대기업집단·갑을·ICT분야 조직확충 등 역량 강화를 통해 법위반 엄중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집단국, 디지털조사분석과('17년), 유통정책관, 대리점거래과, 기술유용감시팀('18년), 가맹거래조사팀, ICT전담팀('19년), 민수입찰담합조사팀('21년) 신설, ICT전담팀 분과신설확충('21년)</li> </ul> </li> <li>• 담합·보복행위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 도입('18.9월)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강화</li> <li>• 공정위-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 기반 마련('19.1월) 및 역할부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업체계 구축방안 담은 가맹분야 종합대책 발표('17.7월), 서울·인천·경기에 분쟁조정협의회 및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19.1월), 부산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20.2월)</li> </ul> </li> <li>•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하는 최초의 정부안 마련('20.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입 추진방안 마련('18.9월), 당정협의를 거쳐 '집단소송 전면 도입방안' 발표('19.9월), 기존 추진내용의 한계 등을 보완하여 「집단소송법 제정안」 입법예고('20.9월)</li> </ul> </li> </ul> </div> |
| <p><b>개선·보완<br/>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 관련 이견**해소 노력 등을 통해 관련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필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제조물책임, 담합, 금융소비자 보호 등 분야로 확대</li> <li>** 기업활동 위축, 피소부담 등에 대한 재계 우려 등으로 「집단소송법」 및 「상법」 개정 추진 지연</li> </ul> </li> <li>• 「<b>소비자단체소송</b>」 활성화를 위한 「<b>소비자기본법</b>」 개정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적 금지청구권, 원고단체 확대(소비자단체 협의체' 추가), 소송허가절차 폐지로 단체소송의 요건과 주체 정비 및 절차를 합리화('21.10월 국회제출)</li> </ul> </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li> <li>■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시민경제 모델로 정착</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추진체계 구축,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적극 추진</li> <li>■ 다만, 사회적경제의 법적토대를 조속히 마련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 노력 지속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 및 금융인프라 구축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대폭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기업 정책금융을 4년간 1.8조원 공급하고 우수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한 '성장지원특례보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실적 : ('18년) 1,937억원 → ('19년) 4,625억원 → ('20년) 5,700억원 → ('21.10월) 5,586억원</li> <li>**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대보증 한도를 1~3억원 → 5억원으로 확대</li> </ul> </li> <li>• 사회적가치 창출을 고려하는 금융평가모형을 마련*('19년, 신보)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신용정보DB 구축을 통해 우대상품 안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기관 수 : ('20.12월) 14개 → ('21.7월) 24개 → ('21.12월) 38개</li> </ul> </li> </ul> </li> <li>■ 우수인재가 유입되도록 초·중·고교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및 선도대학 운영을 지속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창업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고교 대상 학교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및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등 청년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도대학 수강생 수 : ('18년) 166명 → ('19년) 204명 → ('20년) 256명 → ('21년) 283명</li> <li>* '18~'20년 수료생(1,023명) 중 소셜벤처경연 289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160명 참여</li> </ul> </li> <li>•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및 협동조합 창업 지원사업을 확대해 창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가 창업팀: ('17년) 494개 → ('20년) 887개 / 협동조합창업팀: ('17년) 24개 → ('20년) 100개</li> </ul> </li> </ul> </li> <li>■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진출 분야·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amp;D), 사업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맞춤형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역량 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프로젝트 수 : ('18년) 46개 → ('19년) 60개 → ('20년) 60개 → ('21년) 67개</li> </ul> </li> </ul> </li> <li>■ 창업과 성장을 위한 디딤돌 제공을 위해 유통채널 진출 및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구매 확대 등 판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 온라인 통합플랫폼(e-store 36.5)의 입점 기업상품 확대 및 매출액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점기업 : ('19년) 888개소 → ('20년) 1,418개소 → ('21.11) 1,996개소</li> <li>입점상품 : ('19년) 17,540개 → ('20년) 22,435개 → ('21.11) 29,296개</li> <li>매출액(누계) : ('19년) 12.3억원 → ('20년) 31.0억원 → ('21.11) 47.0억원</li> </ul> </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847개)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액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 ('17) 9,428억원 → ('18) 10,595억원 → ('19) 12,829억원 → ('20) 16,224억원</li> <li>사회적협동조합: ('17) 935억원 → ('18) 1,132억원 → ('19) 1,616억원 → ('20) 2,656억원</li> </ul> </li> <li>■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사업 공간지원 및 지역별 허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지원센터 조성확대 및 입주기업 증가, 전국 주요 광역시도에 사회적기업 창업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현황: ('17) 3개 → ('18) 6개 → ('19) 10개 → ('20) 13개 → ('21) 15개</li> <li>입주기업: ('17) 159개 → ('18) 313개 → ('19) 500개 → ('20) 643개 → ('21) 766개</li> </ul> </li> </ul> </li> <li>■ 사회적경제기업간 협업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의 근로자 수 및 취약계층 근로자 수가 모두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상황 속 포용적일자리 창출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현황 : ('18년) 42,742명 → ('19년) 49,063명 → ('20년) 54,659명 → ('21년) 61,154명</li> <li>취약계층 고용현황(명) : ('18년) 26,086명 → ('19년) 30,073명 → ('20년) 33,123명 → ('21년) 36,204명</li> </ul> </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전문위, 사회적경제TF 등을 통해 범부처 사회적경제 정책을 마련하고, 옴부즈만 지원단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전문위(19회), 사회적경제TF(21회), 사회적경제 정책협의회(23회) 등</li> <li>*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등 4년간 사회적경제 관련 대책 28개 발표</li> <li>* '20년 4개 분야 59건의 제도개선(판매절차 간소화 등 조달시장 진입 차별 완화)</li> </ul> </li> <li>• 금융·인재·판로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취업자 수 등 사회적경제 전반의 양적 성장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 기업수 : ('17) 22,470개 → ('20) 31,724개</li> <li>기업 종사자 수 : ('17) 254,350명 → ('20) 309,061명</li> <li>* (금융지원) 임팩트 투자펀드 조성(2,042억원), 우대보증 제공, 지자체 전용기금 조성 (인재양성) 사회적경제 학습사회 구축, 선도대학 및 창업인문과정 운영 (성장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기술개발·사업화 지원('18년부터 총 233개과제 지원) (판로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우선구매 가점부여(0.2~0.4) (제도개선) 입찰가점 확대(1.7→2.0점, '17년), 수의계약 확대(2→5천만원, '18년) 등 (인 프 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6개소),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15개소) 구축</li> </ul> </li> <li>• 사회적경제를 통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정부 출범 후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연평균 약 10%, 종사자 수는 연평균 약 5%씩 증가</li> <li>* 취약계층 고용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직접 일자리 창출도 지원('20년 3,871명)</li> <li>*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사회주택 및 사회서비스 사업모델 개발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에 기여</li> </ul> </li> </ul> </div> |
| <b>개선·보완<br/>필요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기본법*」 조속 제정을 위해 입법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대 국회 폐기 후 21대 국회 재발의하여 소위 등에서 논의 중으로 기본법 제정 필요성 설명 등 입법노력 지속 필요</li> </ul> </li> <li>•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 및 공감대 확산 노력 지속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50% 미만 수준</li> <li>- 일반국민의 사회적경제 인지도 ('19년) 33.1% → ('20년) 36.1% → ('21) 44.7%</li> </ul> </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li> <li>■ 공정거래 환경 조성, 대·중소기업간 성장모델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 구축</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상한기업, 소부장 기업 육성 및 상생모델 발굴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 기여</li> <li>■ 복합쇼핑몰 영업제한과 협력이익공유제를 위한 입법화 노력 지속 추진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생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상한기업을 10개 추가 발굴(누적 35개)하여 중소기업 ESG 경영, 탄소 중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6,730억원 규모의 신규 협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 노하우 등을 비협력사, 소상공인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li> </ul> </li> <li>• 단순 협력사 지원을 벗어나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탄소 중립, 중소기업 ESG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 모델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기업) 백년가게 메뉴를 밀키트로 개발하여 온라인 판매 및 7개국 수출로 매출 향상</li> <li>(B기업) 300억원 출자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 등 혁신기업 발굴·지원</li> </ul> </li> </ul> </li> <li>■ 대·중소기업간 분업적 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부장 강소기업 46개사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보유, '20년 첫 선정된 소부장 스타트업 20개사는 대기업 등과 거래계약(총 201억원) 활발</li> <li>• '21년 전기차·이차전지 등 9건의 상생모델을 발굴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여 개발부터 판로까지 상생협력 선순환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현황(누적) : 소부장 강소기업 120개사, 소부장 스타트업 40개사, 소부장 상생모델 17건</li> </ul> </li> </ul> </li> <li>■ 생계형 적합업종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효율적인 사업영역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떡국떡·떡볶이떡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하고, 당면·보험대차서비스 업종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형 적합업종(누적, 11개) : 서점업, 자판기운영업, LPG소매업, 장류(4종), 두부, 국수, 냉면, 떡국떡·떡볶이떡</li> <li>* 상생협약(누적, 12개) : 메밀가루, 제과점, 양금류, 햄버거빵, 어묵, 화초소매, 전통떡, 도시락, 막걸리, 오프셋인쇄업, 당면, 보험대차서비스</li> </ul> </li> <li>• 적합업종 지정 및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약 60만 중소·소상공인의 사업 영역 보호 및 경쟁력 확보 기회 제공</li> </ul> </li> </ul> |

|                              |                                                                                                                                                                                                                                                                                                                                                                                                                                                                                                                                                                                                                                                                                                                                                                                                                                                                                                                                                                                                                                                                                                                                                                                                                                                                                                                                                                                                                                                                                                                                                                                                                                                                                                                                                                                                                                                                                                                                                     |
|------------------------------|-----------------------------------------------------------------------------------------------------------------------------------------------------------------------------------------------------------------------------------------------------------------------------------------------------------------------------------------------------------------------------------------------------------------------------------------------------------------------------------------------------------------------------------------------------------------------------------------------------------------------------------------------------------------------------------------------------------------------------------------------------------------------------------------------------------------------------------------------------------------------------------------------------------------------------------------------------------------------------------------------------------------------------------------------------------------------------------------------------------------------------------------------------------------------------------------------------------------------------------------------------------------------------------------------------------------------------------------------------------------------------------------------------------------------------------------------------------------------------------------------------------------------------------------------------------------------------------------------------------------------------------------------------------------------------------------------------------------------------------------------------------------------------------------------------------------------------------------------------------------------------------------------------------------------------------------------------|
|                              | <p>■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관련 제도개선으로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공정거래 조사 확대('18. 6,500개→'21. 15,000개), 공정거래 제도 개선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품대금조정 합의 성공비율 : 제도 도입 1년 만에 10.9%p 증가</li> <li>* 불공정신고센터 만족도 향상 : ('18) 80.4점 → ('19) 82.7점 → ('20) 85.5점 → ('21) 87.8점</li> </ul> </li> </ul> <p>■ 협력이익공유제를 동반성장모델로 추진하여 양극화 완화에 기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뢰 기반의 새로운 상생협력 모델을 마련하여 협력이익공유제 도입('18.11월) 이후 등록기업 158개사, 등록과제 4,34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입기업 및 과제 추이(누적) : ('18.11월~'19) 56개사, 561개 → ('21) 164개사, 4,747개</li> <li>* 수혜 기업 수, 공유금액(누적) : ('18.11월~'19) 506개사, 8억원 → ('21) 3,940개사, 1,092억원</li> </ul> </li> </ul> <p>■ 상권영향평가 강화 등을 통한 골목상권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법 시행규칙 개정('19.9월)하여 상권영향평가 분석 업종을 확대하는 등 상권영향평가의 신뢰성 강화를 통해 대규모점포 신규출점 수가 점차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점포 신규 등록 수(개) : ('16) 26 → ('17) 17 → ('18) 12 → ('19) 13 → ('20) 7 → ('21) 6</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상한기업 및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코로나19 등 위기극복 지원 분야 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주사기 등 방역용품 제조사에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으로 K-방역 구축에 기여</li> <li>* 협력이익공유제 코로나19 지원 실적(누계) : ('20) 17억원 → ('21) 1,022억원</li> </ul> </li> <li>• 사업자단체 중심으로 ①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확대('17년 14개 → '20년 70개) 하고, ②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시행('19.7월, 상생협력법을 개정하여 협동조합을 통해 협의 가능)</li> </ul> </li> <li>• 사업영역 조정 제도의 이행력 확보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의 7년 만에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법제화(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18.6월 제정),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19.1월 제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20.10월)</li> </ul> </li> </ul> </div> |
| <p><b>개선·보완<br/>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입법화 노력과 함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법 개정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본격 심의되지 못하였고, 21대 국회에서도 아직 상임위 계류 중</li> </ul> </li> <li>• 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심의 지연에 따른 소상공인·완성차 업계 간 상생방안 도출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국회·중고차 업계·완성차 업계가 참여하는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하여 수십여 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일부 합의사항 도출하였으나, 일부 항목에 대한 이견 계속</li> </ul> </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강화</li> <li>■ 전통시장을 일자리 창출 원천으로 전환하고, 상권내몰림 방지 제도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업 터전 보전</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집행(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저금리 대출)과 지역상권법 제정 등의 골목상권 보호기반 마련으로 소상공인의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li> <li>■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의 차별화된 정책 방안 마련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집행 등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안전망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례의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1,032만명에게 16.2조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희망자금 성과분석 결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이전 4주 81.1%→이후 4주 86.4%)에 기여</li> </ul> </li> <li>• 법적 근거 마련(소상공인법 개정, '21.7월) 및 전담조직 신설로 손실보상 제도화를 통한 안정적인 업무 수행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사전에 지원대상 및 보상금을 확정하여, 시행 4주('21.11.22.)만에 52.7만건, 1.5조원 지급하였으며, '21.12월말 기준 60.9만건, 1.8조원 지급</li> </ul> </li> <li>• 저신용 및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취약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1.9%) 긴급자금 대출로 긴급한 경영애로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자금 대출 지원실적('21.12월말 기준) : 19.5만건, 2조 6,202억원</li> </ul> </li> <li>• 당초 목표대비 누적 가입자 초과 달성으로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란우산공제(만명) : ('20) 192 → ('21) 220 (목표 : '22년까지 160만명 가입)</li> <li>*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실적/목표, 명) : ('20) 10,145/9,500 → ('21) 14,679/13,000</li> </ul> </li> </ul> </li> <li>■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로페이 가맹점 138.3만개(결제액 3조 6,229억원, '21.12월 기준) 확대를 통해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및 소상공인 중심의 디지털 결제수단으로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 비중 : 가맹점 138.3만개 중 129.2만개(93.4%), 결제액 3.6조원 중 2.6조원(72.6%)</li> </ul> </li> <li>• 스마트 상점 기술 도입 등 서비스·경영 혁신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매출액 증가로 위기 극복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의 40%가 매출 증가(설문조사, '21.1월)</li> </ul> </li> <li>• 제조업 뿌리인 소공인에 대한 스마트기술 보급으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등 파급 효과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공방 지원현황 : ('20) 82개 → ('21) 599개 (스마트공방 지원사업 참여 소공인의 85.9%가 매출 증가, 소공인특화지원사업 성과조사, '21.1월)</li> </ul> </li> <li>• 소상공인 3.2만개사를 TV홈쇼핑, 온라인몰, O2O 플랫폼 등 민간 온라인 채널 입점 지원('21.12월 기준)하는 가시적 성과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행세일 기간 라이브커머스 참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118개 상품 판매, 39개 완판)</li> </ul> </li> </ul> </li> </ul> |

|                          |                                                                                                                                                                                                                                                                                                                                                                                                                                                                                                                                                                                                                                                                                                                                                                                                                                                                                                                                                                                                                                                                                                                                                                                                                                                                                                                                                                                                                                                                                                                                                                                                                                                                                                                                                                                                                                                                                                                                                                                                                               |
|--------------------------|-------------------------------------------------------------------------------------------------------------------------------------------------------------------------------------------------------------------------------------------------------------------------------------------------------------------------------------------------------------------------------------------------------------------------------------------------------------------------------------------------------------------------------------------------------------------------------------------------------------------------------------------------------------------------------------------------------------------------------------------------------------------------------------------------------------------------------------------------------------------------------------------------------------------------------------------------------------------------------------------------------------------------------------------------------------------------------------------------------------------------------------------------------------------------------------------------------------------------------------------------------------------------------------------------------------------------------------------------------------------------------------------------------------------------------------------------------------------------------------------------------------------------------------------------------------------------------------------------------------------------------------------------------------------------------------------------------------------------------------------------------------------------------------------------------------------------------------------------------------------------------------------------------------------------------------------------------------------------------------------------------------------------------|
|                          | <p>■ <b>편리한 쇼핑 환경 조성을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 이용 편의 개선 및 혜택 강화 등을 통한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판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바일상품권 판매 현황(억원) : ('19) 66 → ('20) 1,479 → ('21) 3,572</li> </ul> </li> <li>• 주차장 보급 확대('17년 72.2%→'21년 80.7%), 화재방지 인프라 보급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쇼핑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 전선 정비 지원현황(누적, 곳) : ('19) 50 → ('20) 115 → ('21) 188</li> </ul> </li> </ul> <p>■ <b>제도개선 등을 통한 상점가 보호·육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상권법 제정을 통해 상인·임대인간 자율적 상권 활성화 추진시 지역 특성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21.7월)</li> <li>• 「'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자격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21.6월)하여, 선정된 상권(8개)의 활성화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독려한 결과, 전체 지자체(228개) 중 101개 지자체에서 완료</li> </ul> </li> <li>• 상권르네상스 사업으로 쇠퇴한 지역상권에 지자체·상인회 주도의 환경개선 및 활성화사업을 종합 지원하여 상권 회복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권 지원실적(개, 누적) : ('18) 3 → ('19) 12 → ('20) 20 → ('21) 28</li> </ul> </li> <li>• 자발적 임대료 감면자에게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액공제 지원실적 : 18.1만명 임차인 대상 4,734억원 임대료 인하, 임차인 1인당 평균 262만원 인하 ('21.8월 기준 국세청 국세정보 가공)</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6차례 수립·발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20.2월)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독립된 정책영역으로 규정하면서 정책기반 확충</li> <li>•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1,032만명에게 '20년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6.2조원의 재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위기 극복에 기여</li> <li>* (손실보상 제도화) 법적 근거 마련(소상공인법 개정) 및 전담조직 신설로 안정적인 업무 수행 기반 마련</li> <li>* (정책자금)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1차 56.5만건 14.8조원, 2차 22.1만건 3.5조원 지원)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생업 안정에 기여</li> </ul> </li> <li>•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상점가 보호·육성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및 비대면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li> </ul> </div> |
| <p><b>개선·보완 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 기술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하드웨어 지원, 교육 등을 병행 추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화로 인터넷에 취약하고,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 기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어려움 상존</li> </ul> </li> <li>•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력 제고를 위한 판로지원 및 기술보급 등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대상 지원정책이 단기적 효과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정책의 효과성 등을 지속 관리 필요</li> </ul> </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재산형성·노후대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상품 개발</li> <li>■ 서민·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지속가능한 금융지원 강화</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서민층 경제충격 완화 및 금융 안전망 역할 강화 노력</li> <li>■ 다만, 코로나19 비상조치에 따른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차주의 부채 상환부담 문제에 대한 질서 있는 정상화 방안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추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대출지원, 만기연장 등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민생경제 충격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 경영자금 1차(14.8조원)·2차(7.8조원), 소상공인·중소 특례보증 18.8조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54.8조원, 대출 만기연장 284.2조원</li> </ul> </li> <li>• 가계부채 원금 상환유예, 연체채권 매입 등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 시행을 통해 개인채무자의 연체 방지 및 재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 상환유예(203,845건/4조9,190억),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16,387건/1,273억),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17,891건/7,824억), 개인 연체채권 매입(6,460건/422억)</li> </ul> </li> </ul> </li> <li>■ <b>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및 안정적인 재원 마련 추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상품 출시를 통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햇살론15('21.7월), 안전망대출II('21.7월), 햇살론뱅크('21.7월), 햇살론카드('21.10월) 출시</li> <li>**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조원) : ('19년) 8.0 → ('20년) 8.9 → ('21.9월) 9.6</li> </ul> </li> <li>• 서민금융 출연대상을 시중은행으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민금융 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21.5월) 및 시행('21.10월)</li> </ul> </li> <li>■ <b>중·저신용자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잇돌대출 보증한도 2조원 추가(7.28조원 → 9.26조원) 등 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잇돌대출(억원) : ('17년) 9,566 → ('18년) 18,341 → ('19년) 20,650 → ('20년) 19,451 → ('21년) 20,010</li> </ul> </li> <li>• 인터넷 전문은행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여 3조 5천억원 중금리대출 공급, 은행권 전체 공급액(6조 6천억원)의 약 54%를 담당('21.6월 누적)</li> <li>• 부산지역 저축은행 3개사(BNK, IBK, 고려)가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중소상공인 대출 "BIG3 등대론" 출시('21.9월)</li> </ul> </li> <li>■ <b>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개선으로 국민재산 안정적 증식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ISA 제도 영구화 등 국민자산형성 역할 강화를 위한 "1단계 제도개선" 시행('21.1월)</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SA에서 투자한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의 투자이익에 대한 전면 비과세 적용(투자유인 제공) 등 "2단계 제도개선"으로서 세제 개편안 발표('21.7월)</li> <li>제도개선을 통한 가입유인 강화로 대표적인 금융자산 증식수단인 ISA의 가입자수와 가입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자수 : ('20년) 193.9만명 → ('21.11월) 314.7만명(62.3% 증가)</li> <li>** 총잔고(조원) / 1인당잔고(만원) : ('18년) 5.6 / 260 → ('19년) 6.3 / 302 → ('20년) 6.4 / 328 → ('21.11월) 12.0 / 380</li> </ul> </li> </ul> <p><b>■ 제 2차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시행으로 비수도권 대출 증가 기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 은행 및 저축은행 대상으로 지역 내 자금공급, 인프라 투자실적 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수도권 대출(조원) : ('17년) 528.3 → ('18년) 556.7 → ('19년) 588.4 → ('20년) 645.6 → ('21년) 691.6</li> </ul> </li> <li>'21년 지역재투자 평가시 각종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자체 금고선정 과정에서의 출연금 과당경쟁 완화 등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평가지표 개선 : 코로나19 금융지원 노력 반영, 은행권역 점포폐쇄 감점 신설 등</li> <li>② 평가위원회 확대 개편 : 민간위원장 선임, 행안부 정부위원(지방재정정책관) 신설</li> <li>③ 인센티브 확대 : 금고선정 반영 지자체·교육청 증가(2 → 7개)</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실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과세한도 확대(250만원 → 400만원 / '18.1월), 가입기간 3년 연장('18년 → '21년)</li> <li>**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1.1월)을 통한 ISA 제도 영구화 및 ISA 세제개편안 발표('21.7월)</li> </ul> </li> <li>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발표('18.12월) : 저신용자용 햇살론17 출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마련, 서민금융 콜센터 개편, 서민금융 재원 확보방안 등</li> <li>** 정책서민금융 확대(조원) : ('17년) 6.9 → ('18년) 7.2 → ('19년) 8.0 → ('20년) 8.9 → ('21.9월) 9.6</li> </ul> </li> <li>중·저신용자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발표('18.10월) : 사잇돌대출 공급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 카드로 민간중금리 상품 출시,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 등</li> <li>**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마련('21.4월) 및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체계 등 준비를 위한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 완료('21.10월)</li> </ul> </li> <li>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 완료 및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방안 발표('18.10월), 평가근거('19.3월) 및 매뉴얼 마련('19.6월)</li> <li>** 주요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현황 평가·공개 및 인센티브 부여('20·'21년, 2회)</li> </ul> </li> </ul> </div> |
| <p><b>개선·보완<br/>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장기화 등 코로나19 비상조치에 따른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차주의 상환부담 문제 등에 대한 질서 있는 정상화 방안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및 연착륙 지원, 취약차주 채무조정제도 개선, 가계부채 관리강화, 채안펀드·회사채 신속인수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 탄력적 운영 등</li> </ul> </li> <li>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 상시 출연제도 입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근본(상시)적인 재원구조 마련이 필요, 상시출연 필요성과 당위성 검토를 통해 금융회사 출연 상시화 입법 추진</li> </ul> </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생활 불편은 해소하고 중기·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낮추는 규제 재설계로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생명·안전·환경 규제의 혁신으로 국민 보호</li> <li>■ 선제적 규제혁신으로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기업활동 및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했으며,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해 우수사례 창출</li> <li>■ 적극행정 국민신청제(‘21.7월)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 및 추진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샌드박스,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등 신규제혁신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샌드박스) 6개 분야* 제도로운영으로 총 632건 승인**, 투자 4조8,800억원 유치, 매출 1,501억원 증가, 고용 6,355명 창출 및 안정성 입증 과제 12,506건에 대해서는 제도화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분야</li> <li>** 원거리 다중 무선 충전스탠드(과기부), 스마트 전기차 충전 콘센트(산업부),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국토부), 강원 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복지부)</li> </ul> </li> <li>•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신산업·신기술의 미래 전개양상을 예측하여 자율운항선박, 자율주행차 분야 총 61개 과제 마련(‘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주행차(‘18년), 드론(‘19년), 수소·전기차/VR·AR/로봇/AI(‘20년), 자율운항선박(‘21.10월), 자율주행차 2.0(‘21.12월)</li> </ul> </li> </ul> </li> <li>■ 핵심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활동 부담 및 국민생활 불편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산업) D·N·A, 비대면산업, 바이오·의료, 기반산업, 그린산업 등 신산업 5대 분야 핵심규제·현장애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그린산단 개념 도입, 수소충전소 입지규제 완화, DTC(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 검사 범위 확대, 다기관 임상시험 심사 통합 등</li> </ul> </li> <li>• (기업부담) 창업·입지 제한, 경쟁제한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규제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생산관리지역 입주업종 확대, 농·축·수산물 비대면 거래 활성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지역특산물 주원료의 기준범위 완화 등</li> </ul> </li> <li>• (국민생활) 행정·복지·의료·주거·문화 등 국민 일상생활 전반의 불편 해소 및 민원행정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기준 완화, 온라인 행정조사·심사 확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한 서류제출 간소화 등</li> </ul> </li> <li>• (지역현안)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규제 해소 및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보다 과도한 조례·규칙 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 재활용 허용범위 확대, 자유무역지역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 허용 등</li> </ul> </li> </ul> </li> </ul> |

|                   |                                                                                                                                                                                                                                                                                                                                                                                                                                                                                                                                                                                                                                                                                                                                                                                                                                                                                                                                                                                                                                                                                                                                                                                                                                                                                                                                                                                                                                                                                                                                                                                                                                                                                                                                   |
|-------------------|-----------------------------------------------------------------------------------------------------------------------------------------------------------------------------------------------------------------------------------------------------------------------------------------------------------------------------------------------------------------------------------------------------------------------------------------------------------------------------------------------------------------------------------------------------------------------------------------------------------------------------------------------------------------------------------------------------------------------------------------------------------------------------------------------------------------------------------------------------------------------------------------------------------------------------------------------------------------------------------------------------------------------------------------------------------------------------------------------------------------------------------------------------------------------------------------------------------------------------------------------------------------------------------------------------------------------------------------------------------------------------------------------------------------------------------------------------------------------------------------------------------------------------------------------------------------------------------------------------------------------------------------------------------------------------------------------------------------------------------|
|                   | <p>■ <b>규제철헤린지 추진으로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개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체계) '19년에 도입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b>해외보다 과도하다고 인식</b>하고 있는 규제에 대해 <b>민·관합동</b>으로 검토·개선('21.6~10월)</li> <li>• (성과) 총 15개의 건의과제 중 게임 섯다운제 폐지, 공유주택 건축규제 완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요건 개선 등 <b>9개 과제 개선·대안 마련</b></li> </ul> <p>■ <b>범정부 적극행정 확산을 통한 공무원 인식·행태변화 등 기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기본법」 <b>적극행정 명문화</b>(‘21.6월)<br/>→ 적극행정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b>적극행정위원회의 자문 및 사전컨설팅* 시 면책보장</b>, 법령의견 제시, <b>인센티브</b> 등 도입</li> <li>* 적극행정위 현안 자문 : ('19년) 42건 → ('20년) 532건 → ('21년) 468건<br/>적극행정위 사전컨설팅 : ('19년) 1,225건 → ('20년) 1,505건 → ('21년) 1,506건</li> <li>• (국민신청제)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제도활용을 요청하는 <b>적극행정 국민신청제</b> 시행('21.7월) → 제도 도입 이후 100일간 총 1,115건 신청, <b>143건 해결*</b></li> <li>*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 친환경자동차 통행료 감면 지원, 보육수당 소급지원 신청제도 개선 등</li> <li>• (인센티브) '20년부터 <b>우수직원 3,000여명</b> 선발, 50% 이상에게 특별 승진·승급, 성과급, 해외유학, 근평가점 등 <b>파격적 보상</b></li> <li>• (국정성과 기여) 코로나19 극복, 민생 등 <b>국정현안의 신속한 대응과 성과 확산</b> 기여</li> <li>* 전남도·코트라 협업 지방농수산물식품 아마존 진출, 116만달러 수출 달성('21.7월), 금융위·여신협·금결원 협업 카드포인트 현금화서비스 개시, 2,097억원 환급('21.6월) 등</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先허용-後규제 전환을 위해 규제샌드박스(총 632건 승인),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7개분야 274건 정비), 네거티브 전환(법령·자치법규·공공기관 규정 583건 전환) 등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li> <li>• 신산업 5대 분야(DNA, 비대면산업, 기반산업, 그린산업, 바이오·의료) 및 기업활동 전반의 규제를 집중 개선하고, 국민 일상생활의 불편·부담 및 지역 규제를 현장소통을 통해 개선</li> <li>• 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19.3월), 적극행정 명문화('21.6월) 등 적극행정을 최초로 제도화하고 코로나19, 민생 등 핵심 정책과제 성과창출 지원</li> </ul> </div> |
| <b>개선·보완 필요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및 관계 부처와 지속적 협의 필요</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알뜰교통카드 및 광역버스 확대 등으로 교통비 및 출퇴근 시간 절감</li> <li>■ 가계통신비 실효적 인하 및 통신시장 경쟁 촉진</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뜰교통카드 및 광역버스 확대, 저렴하고 다양한 통신 요금제 출시 등을 통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교통·통신비 부담경감에 기여</li> <li>■ 다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은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뜰교통카드 확대로 교통비 절감 및 이용자 편의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월 평균 14,172원(마일리지 9,419원, 카드할인 4,753원)을 절약하여, 대중교통비의 22.8%를 절감('20년 20.2% 대비 2.6%p ↑)</li> <li>• 사업지역이 전국 17개 광역시도(137개 시군구)로 확대 및 지역맞춤형 알뜰교통카드 도입*으로, 이용자가 29.0만명('20년 16.4만명 대비 77% ↑)으로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 연계 알뜰교통카드,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등</li> </ul> </li> </ul> </li> <li>■ 광역버스 확대를 통한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교통 불편 지역에 버스노선을 확대*(민영제 4개 노선 운행, 준공영제 24개 노선 선정) 하고, 2층 전기버스** 32대 투입 및 출퇴근시간대 135회 증차운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11월 기준 운행거리 증가분은 약 14,976km로 '20년 실적치(10,613km) 대비 141% 수준</li> <li>** 기존 광역버스 대비 좌석수 60% 확대(44석→70석)로 차내 혼잡도 및 유해물질 배출 감소</li> <li>*** 출퇴근 시간대 좌석공급량 약 19% 증대로 평균 배차간격이 증차 전 대비 25%(8분→6분) 감소</li> </ul> </li> </ul> </li> <li>■ 신속한 출퇴근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GTX건설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과 신설(2월)</li> <li>• GTX-B노선 기본계획 용역 완료 후 민자구간 RFP 작성 착수(8월), C노선 우선 협상대상자 협상 실시(6월), 서부권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11월)</li> </ul> </li> <li>■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G 도매제공 의무화(1월), 저렴·다양한 요금제 출시*, 전국 공공장소 WiFi 구축(1.5만개소) 등을 통하여 데이터 이용량 증가('17년 5GB → '21.11월 11.3GB, 2배 ↑)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당 요금인하** 및 가구당 월별 통신비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대비 30% 저렴한 무약정 온라인 요금제, 5G 중저가 요금제 및 군인 요금할인 등</li> <li>** '17년 34,849원 → '21.3분기 31,238원 / *** '17년 13.8만원 → '20년 12만원</li> </ul> </li> <li>•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데이터요금 면제(1월~),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전화기반 출입명부 이용요금 할인(72%) 및 명절 영상통화 무료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56만명이 1,249만건 발신, 총 4,190만분 이용</li> </ul> </li> </ul> </li> </ul> |

|                              |                                                                                                                                                                                                                                                                                                                                                                                                                                                                                                                                                                                                                                                                                                                                                                                                                                                                                                                                                                                                                                                                                                                                                                                                                                                                                                                                                                                                                                                                                                                                                                                                                                                                                                                                                                                                                                                                                                                                               |
|------------------------------|-----------------------------------------------------------------------------------------------------------------------------------------------------------------------------------------------------------------------------------------------------------------------------------------------------------------------------------------------------------------------------------------------------------------------------------------------------------------------------------------------------------------------------------------------------------------------------------------------------------------------------------------------------------------------------------------------------------------------------------------------------------------------------------------------------------------------------------------------------------------------------------------------------------------------------------------------------------------------------------------------------------------------------------------------------------------------------------------------------------------------------------------------------------------------------------------------------------------------------------------------------------------------------------------------------------------------------------------------------------------------------------------------------------------------------------------------------------------------------------------------------------------------------------------------------------------------------------------------------------------------------------------------------------------------------------------------------------------------------------------------------------------------------------------------------------------------------------------------------------------------------------------------------------------------------------------------|
|                              | <p>■ 통신시장 투명성 확대를 통한 이용자 후생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지원금 법정 지급한도 확대*, 공시주기 단축**,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 활성화*** 등 사업자간 단말기·서비스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 30% 이내 / ** 주 1회 → 주 2회</li> <li>*** 해지절차 간소화 방안(MMS 간편해지 추가 등) 마련을 통한 활성화 계획 수립(12월)</li> </ul> </li> <li>• 플로팅 광고* 삭제제한 행위 방지를 위한 자율점검 안내 및 신고센터 개설, 주요 앱의 무선데이터 소모량 정보를 측정·공개해 합리적 서비스 소비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텐츠 위에 떠다니며 다른 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광고</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뜰교통카드 도입을 통해 이용자 평균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22.8% 절감('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수 : ('19) 2만명 → ('20) 16만명 → ('21) → 29만명</li> <li>* 월 평균 절감액 : ('19) 12,246원(16.9%) → ('20) 12,862원(20.2%) → ('21) 14,172원(22.8%)</li> </ul> </li> <li>• 대도시권 광역교통 전담기구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신설('19.3월)</li> <li>• 광역버스 노선 확대 및 준공영제 사업 확대 추진으로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버스 20개 노선 신설, 운행거리(30km→50km)·지역(수도권→전국5개 대도시권) 등 개선</li> <li>* 광역버스 27개 노선에 준공영제 사업 추진으로 안정적인 광역버스 운행 지원</li> </ul> </li> <li>• 기존 전철망 급행 도입 및 광역급행철도 추진으로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부선 등 9개 노선 전철 급행화 완료 GTX-A노선 착공('18.12월), GTX-B노선 민자구간 RFP 작성 착수('21.8월), GTX-C노선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실시('21.6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21.11월)</li> </ul> </li> <li>• 통신비 경감대책('17.6월)에 따라 '17년 대비 '20년 2.6조원 가계통신비 추가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택약정할인,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공공WiFi 확충, 알뜰폰 활성화 등 대책마련</li> <li>* 가구당 월 통신비 지출(통계청) : ('17년) 13.8만원 → ('18년) 13.4만원 → ('20년) 12만원</li> </ul> </li> <li>• 이동통신 단말기 출고가와 자급제 단말기 가격 비교 공시('18.5월~),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 시행('20.7월), 플로팅 광고 삭제 제한 행위 집중 점검('17년~)</li> </ul> </div> |
| <p><b>개선·보완<br/>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저한 사업관리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의 적기 추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TX-C 노선, 경기 덕정~수원) 코로나19에 따른 주민공청회 일정 지연, 주민민원 등으로 노선 착공계획이 지연('21년→'22년)</li> </ul> </li> <li>• 공공와이파이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우려가 있으므로 노후장비 교체, 이용수칙 마련 등을 통한 보안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업을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화물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li> <li>■ 교통의 공공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노후 인프라 개선</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국토교통 분야에 철저한 방역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위기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디지털 물류시스템 구축 지원 등 국토교통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li> <li>■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적기 개통 추진 노력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철저한 방역 시행 및 항공·버스 등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에 대한 지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석 연휴기간에 방역 최우선의 범정부 특별교통대책(9.17~22)*을 수립, 교통시설(역사, 휴게소 등)과 교통수단(열차 등)에 철저한 방역 관리 체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교통시설 중심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체류시간 최소화 등</li> <li>** 승차권 비대면 예매, 창가측 좌석 우선 발매, 주기적 소독·환기 등</li> </ul> </li> <li>• 항공·버스** 등 교통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트래블 버블 등 국제항공노선 복원, 항공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li> <li>** 전세(2년) 및 특수버스(6개월) 차령 연장,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 벽지노선 운행 지원 등</li> </ul> </li> </ul> </li> <li>■ 국토교통 분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기술·혁신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건설 R&amp;D(2,046억원, 117개 기업 참여), 물류 핵심기술(21~27년 1,248억원 투자) 등 신기술 개발 지원, 스마트건설지원센터(36개 기업 입주) 등 새싹기업 육성 체계 구축</li> <li>• 디지털을 활용하여 도시설계 단계부터 물류 시설의 기능, 입지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물류 시스템 구축 실증지원*을 위한 추진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천(드론·로봇배송), 제주(공유서비스), 청주(온라인 도매시장 구축) 등</li> </ul> </li> <li>• 여객자동차법령 개정(4월)을 통해 택시 플랫폼사업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플랫폼 가맹사업 신규 면허(8월) 등 발급</li> </ul> </li> <li>■ 국가기반시설(SOC)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국도 2,412km 구축 완료 및 지자체 43곳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추진</li> <li>• 철도통합무선망(LTE-R) 경부고속선 등 13개선 구축 추진 및 전기설비 IoT 경부선 등 16개노선 구축 완료, 영업열차 차상검측시스템 4대 도입 추진</li> <li>• 김포·제주·김해·청주 4개 공항에 생체인식시스템 구축</li> <li>•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제어시스템 1,982개소 완료 및 소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1,080km 구축 추진</li> </ul> </li> </ul> |

## ■ 대중교통 취약지역 이동권 강화 및 택시종사자 복지 확대

-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성 강화를 위한 공공형택시 사업지역\* 및 이용자수\*\* 확대  
\* '18년 49개 시 → '21년 61개 시 / \*\* '18년 106만명 → '21년 290만명(추정)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종사자의 경영·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및 특별지원금 지원  
\* (재난지원금) 법인기사 1인당 80만원(고용부), 개인택시 1인당 40만원(중기부) 지원  
(특별지원금) 중기부 재난지원금 수령 개인택시 1인당 40만원(국토부) 지원

## ■ 도로·철도 분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이용 지원

- 졸음쉼터 14개소, 다차로 하이패스 32개소 설치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구축으로 수소차 보급 인프라 조성('21년 19기 준공, 33기 구축 중)
- 평택~오송 설계 착수, 강릉~제진·춘천~속초 착공 등 철도망 확충 추진
- 철도 중장기 건설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신규 44개, 58.8조원, 7월)

### <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

-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및 해외건설 수주 확대  
\* 업역폐지('18.12월), 적정공사비를 위한 간접비 지급 기준 개정('19.6월), 건설산업 혁신 시행방안 마련('20.7월) 및 건설법령 개정('20.12월), 상호실적 인정기준 개정('21.11월)  
\* 해외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설립('18.6월), 투자개발사업(PPP) 수주 확대 지원
-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 대구부산(52.4%↓), 천안논산(47.9%↓), 서울춘천(39.7%↓) 등 6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로 연간 2,940억원의 통행료 부담 경감  
\* 설·추석·동계올림픽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시행으로 총 3,700억원 혜택
- 노후 철도·시설개량 등으로 철도사고 사상자 및 운행장애 감소

| 철도사고 |     |        | 사상자(사망) |         |        | 운행장애 |      |        |
|------|-----|--------|---------|---------|--------|------|------|--------|
| '20  | '21 | 증감     | '20     | '21     | 증감     | '20  | '21  | 증감     |
| 58건  | 51건 | 12.1%↓ | 50명(22) | 42명(20) | 16.0%↓ | 224건 | 141건 | 37.1%↓ |

- 공공형택시 보급 지속 확대로 교통소외지역 이동권 강화  
\* ('18년) 49개시, 106만명 → ('19년) 57개시, 209만명 → ('20년) 60개시, 245만명  
→ ('21년) 61개시, 290만명 (추정)
- 일반국도 노후포장도로 정비, 노후교량 개축 등 도로 안전 강화  
\* (노후도로) '17년 1,113km / '18년 803km / '19년 796km / '20년 705km / '21년 725km 정비 완료  
\*\* (노후교량) '17년 3개소 / '18년 4개소 / '19년 6개소 / '20년 7개소 / '21년 5개소 개축 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택배업계의 물류센터 근로자 장시간·고강도 노동환경, 택배 대리점주-노조 간 갈등 등에 따른 택배 업계 작업환경 개선 지속 필요  
\*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6월, 택배비 적정화·작업시간 제한 등)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 갈등 조정 지원 필요
-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노선 적기개통 추진 필요  
\* 수색~광명, 수서~광주 노선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설계가 지연(당초 목표 '21년)되고 있어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 기간 단축방안 검토 등 사업관리에 내실을 기할 필요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 산업혁명 기반 강화, 융합서비스 확산 및 규제 개선</li> <li>■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및 인력 양성, ICT 역기능 선제적 대응</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데이터)·N(네트워크)·A(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초산업에 융합을 확산하여 디지털 대전환을 촉진하고, ICT를 활용한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 등 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노력</li> <li>■ 다만, 미래 디지털 인재양성 및 보편적 SW·AI 교육을 위해 우수한 강사진 확보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뉴딜2.0 추진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D·N·A) 강화로 디지털 대전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 댐 사업 등을 통해 소주기 활성화로 데이터 기반 혁신 창출 및 데이터 산업 성장 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학습용 데이터 191종 구축·개방으로 데이터 활용 6.7배 증가, 데이터 시장 14.3% 성장</li> </ul> </li> <li>• AI인프라 확대·경쟁력 강화 토대 마련 등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지능 바우처 지원('21년 207개 기업) 등을 통해 인공지능 공급기업 4.5배 증가 ('19년 220개 → '21년 991개)</li> </ul> </li> <li>• 5G 망 품질 향상 촉진 및 융합서비스 확산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G 품질 향상(속도: '20년 대비 17% 향상), 자율주행차 등 5대 핵심분야 시범사업 추진 및 5G 기반 혁신병원·고효율 산업단지 구축 등</li> </ul> </li> </ul> </li> <li>■ 융합 서비스 확산을 통한 혁신 창출과 국민편익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지능 기반 정밀의료 3대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건강 개선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닥터앤서 2.0) 12개 질환 대상 24개 SW개발, (P-HIS)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병원 정보시스템, (AI앰블런스) 환자 이송중 환자 정보 모니터링 및 최적 이송병원 선정 지원</li> </ul> </li> <li>• 주요 공공시설물 및 제조현장에 디지털트윈 기술 접목을 통한 안전 및 생산관리 체계화, 신시장 창출 지원</li> <li>• 민간주도 스마트시티 기반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국민편익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67억원 투자유치, 144명 신규고용 창출, 12.9억 수출계약 등</li> </ul> </li> </ul> </li> <li>■ SW 경쟁력 강화 및 AI·SW 핵심인재 양성을 통한 산업계 인력난 해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W진흥법」('20.12월 전면개정)의 현장안착을 통해 공공 SW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고성장 SW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적기발주 지원 ②분리발주 활성화 ③원격개발 활성화 ④공정한 과업변경</li> <li>** ('21년 143개 기업 지원 성과) (고용) 3,284명 (매출) 3,791억원 (특허) 1,174건 (투자) 2,505억원</li> </ul> </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협력형 인재양성 및 교육인프라 확대를 통한 AI·SW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 협력 기반의 SW 인재양성대책'('21.6월) 추진, SW중심대학(9개 추가선정), AI대학원 (2개 신설), 이노베이션아카데미 등 인프라 확대로 SW·AI인재 3만명 양성('20~'21년) 등</li> </ul> </li> <li>■ <b>사이버보안 강화·이용자보호</b> 등을 통한 <b>ICT 역기능 대응으로 디지털 안심국가·포용사회 구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보안 대응역량 강화 및 보안산업 육성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국가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정보보호 역량: ('19년) 15위 → ('21년) 4위</li> </ul> </li> <li>• 위치정보보호법 개정('21.10월)으로 동의절차, 처리방침, 파기의무 등을 강화하고, 통신분쟁조정서비스('21.1월)를 통해 전문적 해결 지원</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17.10월) 및 데이터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21.2월)</li> <li>• 세계최초 5G 상용화('19.4월)를 발판으로 '5G+전략'을 통해 5G 수출 확대, 중소·중견기업 성장 등 5G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li> <li>•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19.12월) 이후 데이터센터용 AI반도체 국내최초 개발('20.4월), 닥터앤서 등 성공사례 창출로 인공지능 글로벌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AI 준비지수 : ('19년) 26위 → ('20년) 7위로 상승 (출처: Oxford Insight)</li> </ul> </li> <li>• 데이터 댐 등 디지털뉴딜('20.7월) 및 뉴딜2.0('21.7월) 추진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디지털 대전환 촉진으로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디지털 잠재력이 세계 5위(21)로 평가(출처: 일본경제연구센터)</li> </ul> </li> <li>• 데이터기본법('21.10월), 디지털집현전법('21.6월) 제정 등 디지털 기본법제를 마련하고, 'ICT 규제 샌드박스'로 77건의 서비스(모바일 전자고지, 반반택시 등) 출시('19.1~'21.10)</li> </ul> </div> |
| <b>개선·보완<br/>필요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W·AI 인재양성 교육 및 보편적 SW·AI 교육을 위해 우수한 강사진 확보·교육 콘텐츠 개발 등 현실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li> <li>• 5G 품질·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낮은 수준이며, 5G 활용 콘텐츠도 부족한 상황임. 대국민 만족도 향상 및 융합서비스 창출 노력 강화 필요</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 경쟁력과 ICT, 서비스 등의 융합을 통해 미래형 신산업 육성</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대 신산업(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중심으로 시장 선점과 생태계 강화 총력,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지속 발굴·육성</li> <li>■ 다만,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수소트램 추진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형 친환경차 보급 110만대 돌파를 통해 자동차 생산 5대 강국 2년 연속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차) '21년 누적 23만대 돌파 → 전기차 세계 5강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차 보급(누적) : ('18년) 5.6만대 → ('19년) 9.0만대 → ('20년) 13.5만대 → ('21년) 23.1만대</li> </ul> </li> <li>• (수소차) '21년 누적 보급 1.9만대 돌파 → 수소차 보급 세계 1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소차 보급(누적) : ('18년) 890대 → ('19년) 5,100대 → ('20) 11,000대 → ('21) 19,400대</li> </ul> </li> <li>• (인프라) 친환경차 본격 전환에 대비한 충전 인프라 대폭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 50% → 80%로 상향, 인허가 특례(지자체→환경부) 도입</li> <li>* 전기 급속충전기: ('20년) 9,805기 → ('21년) 14,956기 / 수소 충전소: ('20년) 70기 → ('21년) 170기</li> </ul> </li> <li>• (수출) 내연차, 미래차 모두 수출 호조세*로, 글로벌 점유율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적('21년, 전년대비) : (내연차) 1.3%, (전기차) 28.6%, (수소차) 7.7%</li> <li>** 주요 글로벌 시장 내 국내 브랜드 점유율</li> <li>- [미국] ('20년) 8.5% → ('21년) 10.0%(1.5%p ↑) / [유럽] ('20.1~11월) 7.1% → ('21.1~11월) 8.7%(1.6%p ↑)</li> </ul> </li> </ul> </li> <li>■ 바이오기업 밀착 지원을 통해 감염병 대응 및 수출·고용 성과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지원 TF, 기업애로 해소지원센터 운영</li> <li>• (감염병 대응)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정식 품목 허가(9월, 셀트리온) 및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3상 진입(8월, SK바이오사이언스)</li> <li>• (수출) K-방역 확산, 의약품 위탁생산 확대로 수출 최고치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 역대 최초로 의약품·의료기기 수출 100억불 돌파, 165.6억불 수출 달성</li> </ul> </li> <li>• (고용) K-방역 확산, 의약품 위탁생산 확대로, 신규 일자리 크게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약·의료기기 등 제조 고용 '21.2분기(전년동기 대비) 2.6% 증가 &gt; 전체 제조업 1.1% 증가</li> </ul> </li> </ul> </li> <li>■ 시스템반도체 인프라 확대를 통해 수출 증가, 민간 투자 촉진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개발·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등 투자패키지 지원</li> <li>• (수출) 300억불 조기 달성('21.10월 누적)하며 역대 최고 수출 실적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 ('16년) 205억불 → ('19년) 257억불 → ('20년) 302.6억불 → ('21년) 397.5억불</li> </ul> </li> <li>• (투자) 세계 1위 반도체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초대형 투자* 본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사 시스템반도체 171조원 투자계획 발표('21.5월, '19년 계획대비 38조원 증가)</li> </ul> </li> <li>• (기술개발) 업계 최초 4nm 양산개시('21.12월), 세계 최초 3nm GAAFET 양산개시('22.上)</li> </ul> </li> </ul> |

|                              |                                                                                                                                                                                                                                                                                                                                                                                                                                                                                                                                                                                                                                                                                                                                                                                                                                                                                                                                                                                                                                                                                                                                                                                                                                                                                                                                                                                                                                                                                                                                                                                                                                                                                                                                                                                                                                                                                                                                                                                                                                                                                                                                                                                                                                                                                                                                                                                                                                                                                                                                                       |
|------------------------------|-------------------------------------------------------------------------------------------------------------------------------------------------------------------------------------------------------------------------------------------------------------------------------------------------------------------------------------------------------------------------------------------------------------------------------------------------------------------------------------------------------------------------------------------------------------------------------------------------------------------------------------------------------------------------------------------------------------------------------------------------------------------------------------------------------------------------------------------------------------------------------------------------------------------------------------------------------------------------------------------------------------------------------------------------------------------------------------------------------------------------------------------------------------------------------------------------------------------------------------------------------------------------------------------------------------------------------------------------------------------------------------------------------------------------------------------------------------------------------------------------------------------------------------------------------------------------------------------------------------------------------------------------------------------------------------------------------------------------------------------------------------------------------------------------------------------------------------------------------------------------------------------------------------------------------------------------------------------------------------------------------------------------------------------------------------------------------------------------------------------------------------------------------------------------------------------------------------------------------------------------------------------------------------------------------------------------------------------------------------------------------------------------------------------------------------------------------------------------------------------------------------------------------------------------------|
|                              | <p>■ 융복합·첨단기술 육성을 통해 첨단산업 기반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트윈) 전 국토를 대상, 고정밀 디지털트윈 데이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트윈 : 현실 세계의 공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것을 의미</li> <li>* 전국 일반국도 중 83%에(약 11,570km) 정밀도로지도 구축 완료(고속도로는 구축완료)</li> <li>* (항공촬영 주기) 2년→1년, (해상도) 25cm→12cm급, (3D건물) 전국 구축</li> </ul> </li> <li>• (드론)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및 실증도시 확대('20년 4개 → '21년 1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론기체 신고) ('19.12월) 10,712대 → ('20.12월) 16,158대 → ('21.10월) 30,227대</li> <li>(드론 사용사업체 수) ('19.12월) 2,672개사 → ('20.12월) 3,415개사 → ('21.10월) 4,367개사</li> </ul> </li> <li>• (우주) 국내 독자 개발 『차세대중형위성 1호』 발사 성공(3.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172개 핵심기술 및 품목 중 157개 국산화(91.3%) : 시스템 및 본체(86.3%), 탑재체(98.6%)</li> </ul> </li> <li>• (인증·표준) 新산업 인증 확보*와 함께 불필요 인증 상당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 ('17년) 21건 → ('21년) 46건, ** '21년 3개 통폐합, 30개 개선</li> </ul> </li> <li>- 세계적 대응 기준이 될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노력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바일 자가격리관리 앱의 요구사항」 등 신규작업표준안(NP) 5종 제안('21.12)</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소차 111배, 전기차 9배 이상 보급 증가 등 미래차 시대 본격 개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급실적(17년 → 21년): (수소차) 170대 → 1.9만대, (전기차) 2.5만대 → 23.1만대</li> <li>** 충전소(17년 → 21년): (수소) 10기 → 170기, (전기 급속): 3,343기 → 14,956기</li> </ul> </li> <li>• K-방역 확산 주역, 바이오헬스 역대 최고 수출액(200억불 돌파)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헬스 수출액(억불) : ('17년) 126 → ('18년) 149 → ('19년) 157 → ('20년) 217 → ('21년) 160</li> </ul> </li> <li>• 시스템반도체 수출 300억불 돌파(5대 수출품목)로 종합반도체 강국 발돋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액(억불) : ('16년) 205 → ('19년) 257 → ('20년) 302.6 → ('21년) 397.5</li> </ul> </li> <li>• 안전한 국토·시설 관리 및 신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디지털트윈 국토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D지도) 전국 도시지역(47,150km) 고해상 영상지도 구축, 1,900만동 건물 3D 입체모형 구축 완료</li> <li>* (정밀도로지도) 고속국도('20년, 100% 완료), 자율주행 시범지구(서울 등 6개) 구축 완료(일반국도 83%)</li> <li>*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주, 여수시 등 33개市 구축 완료하여, 전국 85개 市 모두 구축 완료</li> </ul> </li> <li>• 세계적 감염병 대응 기준이 될 K-방역 모델의 국제표준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전략 수립('20.6월), 민·관 전문가 협의회 구성('20.5월~)</li> <li>* (전담조직) ISO에 우리나라 주도로 팬데믹 대응 작업반(WG)을 신설('20.9월)</li> <li>* (표준제정) "유전자 증폭기반 감염병 진단기법" 관련 국제표준 1종 제정('20.12월)</li> </ul> </li> </ul> </div> |
| <p><b>개선·보완<br/>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최초 수소트램 도입 추진(울산, 20.7월~23년, 기존 도로구간 내 트램 건설)에 따른 민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및 관련제도 정비 병행하여 추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협의를 통해 무가선 트램 실증노선 및 시범사업 추진</li> </ul> </li> <li>• 첨단기술 경쟁 확산 속 전략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법적근거 신속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법사위 계류 중(예타 예외 조항 등 정부 수정안 마련)</li> </ul> </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 및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li> <li>■ 과학기술 저변확대와 과학기술 기반 국가·사회 현안해결</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 연구관리 체계를 통합·정비하고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국가현안 적극 대응</li> <li>■ 다만, 연구현장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체계에 대한 적극적 홍보·소통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부처 정책 연계 및 소재·부품·장비 R&amp;D 지원을 통한 과학기술 기반 국가현안 신속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속한 R&amp;D 지원·제도개선* 등을 통한 과학기술·경제적 성과 창출로 핵심 품목(소재·부품·장비)의 대일 수입의존도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부장 미래선도품목 R&amp;D 추진방안('21.5월): 주력산업 고도화, 미래선도품목 지정·지원</li> <li>** 핵심품목 대일 수입의존도: ('17년) 33.5% → ('19년) 28.1% → ('21년) 24.9% ('17년 대비 26% 감소)</li> </ul> </li> <li>• 범부처 정책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월)' 등과 연계한 장·단기 확보목표 중점기술 선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중립 핵심기술('21.3월/10개/단기), 탄소중립 중점기술('21.8월/39개/중장기)</li> </ul> </li> </ul> </li> <li>■ 현장중심 연구관리체계 운영을 통한 연구자 중심 연구몰입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월)등 현장중심 연구관리체계 운영을 통한 연구현장 행정부담 경감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관리서식 간소화(140개→40개), 연차별 협약·정산제도 폐지, 단순반복적 연차평가 폐지</li> <li>* 부처별 산재된 연구비·연구자정보·과제지원시스템을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으로 통합·연동</li> </ul> </li> <li>• 연구관리전문기관 정비 지속 추진* 및 예산지원 체계 개편** 등을 통한 전문성, 책임성 및 공정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체부 소관 전문기관 4개 통합,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출범('21.11월)</li> <li>** 전문기관 예산지원 : (기존) 사업단위 분산지원 → (개편) 기관단위 통합지원</li> </ul> </li> </ul> </li> <li>■ 국민소통 플랫폼을 통한 과학문화 접근성 제고 및 지역 중심 R&amp;D 혁신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문화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과정 및 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전 국민의 과학문화 접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문화거점센터 10개소('21년 6개소 증), 전문인력양성(6과정 249명), 과학문화바우처(5만명 지원)</li> </ul> </li> <li>※ NTIS(R&amp;D 정보공개), 사이언스올(과학문화콘텐츠) 등이 매경미디어그룹에서 수상하는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으로 선정('21.6월)</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문제해결형 R&amp;D를 통한 국민체감 연구성과 창출 및 성과 활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불편(생각으로 제어하는 보행보조기기), 만성질환(노인 근감소증 제어약물) 등</li> </ul> </li> <li>•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특례(액화수소 저장용기 등) 5건 지정, 규제개선'을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 확대('18년) 704개→ ('21년) 1,33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소기업의 설립요건(설립지분율) 완화, 운영요건(특구 내 본사 성실운영) 강화</li> <li>※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 수립·이행('21.4월~)</li> </ul> </li> </ul> <p>■ 과학기술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정상회담('21.5월)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강건한 한-미 기술동맹 구축, 첨단기술 분야의 상호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대한민국의 아르테미스(미국주도 달탐사) 프로그램 참여</li> <li>②바이오/6G/양자 등 공동연구 및 국제표준 공동설정</li> <li>③한-미 이공계 인력교류 대폭 확대</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기관·단체에서 측정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경쟁력 지속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과학기술경쟁력(IMD) ('17년) 8위 → ('21년) 2위</li> <li>세계혁신지수(WIPO) ('17년) 11위 → ('21년) 5위</li> <li>*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인 Nature에서 대한민국 과기정책 우수성 특집보도('20.5월)</li> </ul> </li> <li>• 소재·부품·장비 R&amp;D를 통해 대일 수입의존도 완화, 무역흑자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일 수입의존도: ('17년) 33.5% → ('21년) 24.9%</li> <li>* 무역흑자: 전산업 무역흑자 295억 달러, 소재부품장비 무역흑자 1,152억 달러('21 누계)</li> </ul> </li> <li>• 국가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정립, 범부처 협의·조정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 심의·의결 기능과 자문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18.4월)</li> <li>*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18.10월, 소부장/AI반도체 등 64개 범부처 안건 상정·의결)</li> </ul> </li> <li>• 부처별 분산된 연구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연구자 행정부담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별 R&amp;D 관리규정(286개), 연구관리시스템(59개), 서식(140개) 등 통합·정비</li> <li>* 연차별 협약·정산·평가제도 폐지, 연구부정 제재처분 검토를 위한 법정위원회 신설</li> </ul> </li> <li>•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의 고용·매출 등 대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액: ('16년) 3,831억 → ('20년) 9,494억(추정)</li> <li>고용인원: ('16년) 1,908명 → ('20년) 5,103명(추정)</li> </ul> </li> <li>• 혁신·도전적 연구개발의 범부처 추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기본법('20.12월 개정), 시행령('21.9월 개정)에서 도전적 R&amp;D 추진체계 명문화</li> </ul> </li> </ul> </div> |
| <p><b>개선·보완<br/>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대한 연구현장 인지도가 다소 부족한 편으로, 통합연구지원체계의 안정적 현장적용을 위한 인지도 개선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심여부) '관심 있음' 응답 85.4% / (인지여부) '알고 있음' 55.8%, '모름' 44.2%</li> </ul> </li> <li>• 예상치 못한 요소수 사태와 같이 해외의존도가 높은 기초산업소재 및 미중기술패권 관련한 선도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적 관심과 적절한 분배에 의한 투자 필요</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 예산 2배 확대 및 연구 자율성을 보장</li> <li>■ 청년 및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한 친화적 연구 환경 조성</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연구 생태계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 미래역량을 창출하고, 청년·여성 과학기술인의 연구 몰입 환경 구축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li> <li>■ 기초연구예산 2배 증액에 따른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연구자 연구몰입을 위한 제도 개선 지속 노력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생태계 구축을 통한 국가 과학기술 위상 강화 및 과학기술 미래역량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생태계 구축을 통해 우수 학술성과가 창출되어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 및 위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과학 학술지 네이처(Nature)의 '21년 국가별 연구성과 순위: 8위로 한단계 상승</li> <li>* 국가 전체 R&amp;D 투자 대비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약 1.9%에 불과하나, SCI 논문 점유율 44.7% 및 피인용 상위1% 논문 점유율 28.4% 차지</li> </ul> </li> <li>• 누리호 발사(10.21)를 통한 우주기술 자립화, 기술패권 대응 핵심기술(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육성전략 수립, 감염병 대응 등 과학기술 미래역량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독자개발 발사체의 첫 시험비행인 누리호 본 발사(10.21)를 통해 발사체 핵심기술 확보</li> <li>* 「양자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 수립(4.20), 「반도체 R&amp;D 생태계 및 인프라 확충방안」 발표(11.18), 미래 바이오 유망분야 투자 확대(22 신규 4개 사업 착수 및 범부처 예타사업 3개 추진)</li> <li>* 국가 거점기관인 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개소(21.7월)하여 중장기적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li> </ul> </li> <li>• 기초연구예산 2배 증액·생애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한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 주도의 자유공모형 기초예산 2배 증액 ('17년) 1.26조원 → ('21년) 2.35조원</li> <li>* 수요에 맞는 '분야별 지원체계'를 전분야 확대 적용 및 젊은연구자 생애지원체계 구축으로 세계적 과학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 마련</li> </ul> </li> </ul> </li> <li>■ 기초연구 지원 확대·자율성 확대 등 우수인력 양성 지원책 마련을 통한 연구몰입 환경 조성 및 미래 국가경쟁력 향상 뒷받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으로 미래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년)' 수립(21.2월)으로 '25년까지 AI·SW·바이오 등 혁신인재 18만명 양성</li> <li>* (4대전략) ①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 ②청년 연구자가 핵심인재로 성장하는 환경 조성 ③과학기술인의 지속 활약 기반 구축 ④인재생태계 개방성·역동성 강화</li> </ul> </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젊은 연구자 보편적 지원 확대를 통한 연구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젊은 과학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으로 39세 이하 신진연구자의 기초연구 수혜율 상승: ('16) 37.3% → ('18) 73.5% → ('20) 78.4% → ('21) 80.7%</li><li>* 신임교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생애첫연구 확대('21년 506명) 및 실적 위주 심의제도 개선(연구자 연구역량 정성적 기술)</li><li>* 안정적 생활비(Stipend) 지원·근로계약체결·유연한 학생인건비 지급 등 청년과기인의 처우와 권익 보호(Stipend 지원 실적: ('19) 6,204명, ('20) 6,644명, ('21) 6,605명)</li><li>*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에게 기업 연구과제 등 R&amp;D 연수를 제공하여 실무 역량 개발과 취업 지원('21년 박사 27명, 석사 224명)</li></ul></li><li>• W브릿지(여성과기인 성장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산·학·연 기관 매칭 등을 통한 여성과학기술인 성장 및 지속적 경력 유지 지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진로탐색, 취업 지원 등 전 생애주기 여성과기인 서비스 제공('21.3월 ~)</li><li>* 경력단절 여성과기인과 산·학·연 매칭 및 복귀 지원을 통하여 수혜자가 지속적 경력 유지함으로써 경력단절 완화(경력복귀 활성화 지원사업 수혜자: '21년 464명)</li></ul></li></ul> <div><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구자 주도 자유 공모형 '22년도 기초연구 예산을 '17년 대비 2배 증액</li><li>• 자연과학 학술지 네이처(Nature)의 '21년 국가별 연구성과 순위 상승</li></ul><table><tr><th>구 분</th><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r><tr><td>네이처 인덱스 대한민국 국가순위</td><td>9위</td><td>9위</td><td>9위</td><td>9위</td><td>8위</td></tr></table><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과기인재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제4차 과기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년)」 수립을 통해 '25년까지 혁신인재 18만명 양성 목표</li><li>• 이공계 석·박사 취업지원, 신진연구자 지원확대 등을 통한 실무역량 제고 및 취업 지원 내실화<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연수생 만족도 변화: ('18) 73점→('19년) 76.7점→('20년) 77.6점</li><li>*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취업률: ('19년) 61.0%(130/213명)→('20년) 70.1%(209/298명)</li></ul></li><li>• 산·학·연 매칭 경력복귀지원 확대를 통한 여성과기인의 경력단절 완화<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업수혜자 취업유지율(%): ('17) 68.4 → ('18) 71.2 → ('19) 72.0 → ('20) 78.9 → ('21) 79.2</li></ul></li></ul></div> | 구 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네이처 인덱스 대한민국 국가순위 | 9위 | 9위 | 9위 | 9위 | 8위 |
|-------------------|--------------------------------------------------------------------------------------------------------------------------------------------------------------------------------------------------------------------------------------------------------------------------------------------------------------------------------------------------------------------------------------------------------------------------------------------------------------------------------------------------------------------------------------------------------------------------------------------------------------------------------------------------------------------------------------------------------------------------------------------------------------------------------------------------------------------------------------------------------------------------------------------------------------------------------------------------------------------------------------------------------------------------------------------------------------------------------------------------------------------------------------------------------------------------------------------------------------------------------------------------------------------------------------------------------------------------------------------------------------------------------------------------------------------------------------------------------------------------------------------------------------------------------------------------------------------------------------------------------------------------------------------------------------------------------------------------------------------------------------------------------------------------------------------------------------------------------------------------------------|------|------|------|------|------|------|-------------------|----|----|----|----|----|
| 구 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    |    |    |    |    |
| 네이처 인덱스 대한민국 국가순위 | 9위                                                                                                                                                                                                                                                                                                                                                                                                                                                                                                                                                                                                                                                                                                                                                                                                                                                                                                                                                                                                                                                                                                                                                                                                                                                                                                                                                                                                                                                                                                                                                                                                                                                                                                                                                                                                                                                           | 9위   | 9위   | 9위   | 8위   |      |      |                   |    |    |    |    |    |
| 개선·보완<br>필요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초연구예산 2배 확대 이후 체계적인 중장기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여성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 지속적 발굴·개선 필요</li></ul>                                                                                                                                                                                                                                                                                                                                                                                                                                                                                                                                                                                                                                                                                                                                                                                                                                                                                                                                                                                                                                                                                                                                                                                                                                                                                                                                                                                                                                                                                                                                                                                                                                                                                                                        |      |      |      |      |      |      |                   |    |    |    |    |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년 20%로 대폭 확대</li> <li>■ 에너지 신산업 선도국가 도약 및 저탄소·고효율구조로 전환</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선도국가 도약 기반 마련</li> <li>■ 다만, 풍력발전보급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법령 정비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사업에 태안군과 신안군을 선정(6월)하여 풍향계측 등 사업타당성 검토 지원(20년은 전북도, 보령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허가 저촉여부, 풍향계측기 설치 등 사전 타당성 조사지원 등에 3년간 최대 45억원 지원</li> </ul> </li> <li>•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사업(R&amp;D)의 특허 등록건수 지속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mp;D 1억원당 특허등록건수 : ('18년) 0.165건 → ('19년) 0.186건 → ('20년) 0.173건 → ('21년) 0.175건</li> </ul> </li> <li>• 민간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RE100 이행 수단(녹색 프리미엄 입찰, 제3자 PPA 고시, REC거래 시범사업 등)을 마련하여 첫 시행</li> </ul> </li> <li>■ 재생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보급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경쟁시장 개편안 시행(4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체계 개편안 마련 및 시행*(7월) 등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관리 운영지침(산업부 고시 제2021-136호)</li> </ul> </li> <li>• 주민참여형 융복합 사업대상지 선정*(9월), 국민체감형 홍보**를 통한 대국민 인식제고 등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재생E 확대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117개 지자체 1,748억원 규모 선정 (전년대비 지원예산 11% 증가)</li> <li>** TV : 국내 최초 주민참여형 풍력단지 소개(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3.4))</li> <li>SNS : K-RE100 정책설명 등 유튜브영상(2건), 카드뉴스(4건), 보도자료(2건), 포스팅(1건)</li> </ul> </li> <li>•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내에 고객참여형 그린요금제 서비스*를 개시(5월)하여 에너지 절약 인식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전력세이브 및 전력량거래 요금제를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내 주민에게 제공</li> </ul> </li> </ul> </li> <li>■ 수소관련 제도 및 계획 수립을 통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시행(수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월), 수소도시법안 국회 상정*(3월) 등 수소경제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제정안은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li> </ul> </li> <li>• 수소경제 성과보고 및 비전 발표*(10월) 및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12월) 등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민관의 수소경제 협력 역량을 결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주재로 SK·현대차 등 주요 민간기업 CEO들이 참석하여 수소경제 협력 선포</li> </ul> </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소차, 연료전지 보급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장세로 최근 3년간('18~'21년) 수소차 보급규모 17배, 연료전지 발전설비가 2배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소차 국가별 보급 : 한국 16,206대, 미국 11,088대, 일본 6,347대, 독일 697대</li> <li>* 연료전지 국가별 보급 : 한국 688MW, 미국 527MW, 유럽 325MW, 일본 350MW</li> </ul> </li> <li>■ <b>바우처 지원금액 인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및 외국인 수혜대상 확대</b> 등을 통한 에너지 소외계층 에너지복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단가 상향(10.7→10.9만원), 가구원별 지급기준 확대(3인이상→4인이상), 에너지효율개선 재지원 제한기간 단축(3→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가구 증가 : ('19년) 63.3만 → ('20년) 65.4만 → ('21년) 87.8만</li> </ul> </li> </ul> </li> <li>■ <b>선제적 효율개선 및 수요관리를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효율향상 정책 적극 추진에 따라 에너지원단위* 는 지속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에너지 원단위(toe/백만원) : ('18년) 0.170 → ('19년) 0.164 → ('20년) 0.159 → ('21년) 0.160<sup>o</sup></li> </ul> </li> <li>산업부문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자금용자(683건, 9월기준), 진단비용 보조(122개), FEMS(공장에너지 관리시스템) 보급(43개) 및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73개) 등 추진</li> <li>제로에너지건축 인증건수* 대폭 증가 및 취약계층 이용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한국판뉴딜 대표과제) 총 896여건 선정·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 26건 → ('19년) 35건 → ('20년) 493건 → ('21.10월) 844건('21년 전체목표 520건)</li> </ul> </li> </ul> </li> </ul> <div data-bbox="347 1077 1417 1720"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년 보급목표(2.5GW)를 넘는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비 신규보급 추이 : ('17년) 2.1GW → ('18년) 3.4GW → ('19년) 4.4GW → ('20년) 4.8GW</li> </ul> </li> <li>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에너지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18년)+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 ('19년)+한부모·소년소녀가정 → ('20년)+외국인</li> <li>** 동절기 위주 에너지복지체계를 하절기로 확대 시행('19년)</li> </ul> </li> <li>스마트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융복합단지 지정(새만금, 광주·전남, '19.11월), 전력중개시장 개설('19.2월), 전력데이터 공유센터('19.4월) 및 전력데이터 서비스 마켓('19.8월) 구축 등</li> </ul> </li> <li>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월),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19.10월) 등 마련</li> <li>* '20년 수소차 보급대수, 신규 수소충전소 구축대수 및 연료전지 보급량 등에서 세계 1위</li> <li>* 수소경제 3대(진흥·유통·안전) 전담기관 지정 및 울산, 안산, 전주·완주 지역특성을 고려한 수소시범도시별 기본계획 수립('20년)</li> </ul> </li> </ul> </div> |
| <b>개선·보완<br/>필요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풍력발전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풍력발전보급촉진법률안*」('21.5.18. 발의) 입법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주도로 입지발굴 및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발전지구에 대한 인·허가 등</li> </ul> </li> <li>「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 지원 필요('21.3.12. 상임위 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소도시 종합계획 및 지자체 계획수립, 입지특례 및 실시계획 특례부여, 수소시범도시 및 수소도시 지원근거, 추진체계 기반 마련 등</li> </ul> </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력 산업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활성화하고, 스마트화·융복합화·서비스화를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li> <li>■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강화 및 외국인투자·유턴기업 지원</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제조업이 중심이 되어 빠른 회복을 견인하고 민·관 노력으로 수출 역사상 최고의 수출액 달성</li> <li>■ 다만,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친환경·디지털 전환 가속화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력산업 민관협력*을 통해 글로벌 선도 위치 공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운영, 친환경·스마트 선박 공동기술개발 등</li> </ul> </li> <li>• (반도체) 메모리 세계 1위* 수성 속 글로벌 매출 1위** 기업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모리반도체 시장점유율 : (전체) 56.9% → (D램) 71.1%, (낸드) 44.9%</li> <li>** 반도체기업 매출액(21.2분기) : (1위) 삼성전자(197억불), (2위) 인텔(196억불)</li> </ul> </li> <li>• (자동차) 글로벌 생산량 기준 세계 자동차 5강 국가 2년 연속 유지(21.1~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글로벌 생산(만대): ①중국(2,315), ②미국(845), ③일본(707), ④인도(381), ⑤한국(314), ⑥독일(309)</li> </ul> </li> <li>• (조선) 고부가선박 제조 기술 고도화 → 13년만의 최대 수주실적 (21.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上 수주실적(한국수주 비중) : (전체) 1,088만CGT(44%), (고부가) 723만CGT(61%)</li> </ul> </li> <li>■ 소부장 공급안정 실현을 통해 첨단 소부장 강국 도약 기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안정) 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 핵심 소부장 중심으로 공급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대 핵심품목 對日 수입의존도 : 30.9%(19년) → 24.9%(21년)로 감소</li> <li>** (불화수소) 對日수입 1/3로↓(21.12월), (불화P) 對日수입 사실상 0, (레지스트) 對日의존도 50%이상↓(21.5월)</li> </ul> </li> <li>• (산업성장) 협력·혁신 과정에서 투자·일자리 창출* 및 기업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공급기업 공동 R&amp;D → 투자 4.5천억원, 고용 3천명, 특허 1.3천개 달성</li> <li>** 소부장 상장기업 매출 15.7%↑(19년上→21년上), 으뜸기업 시가총액 201.3%↑(19.7월→21.9월)</li> </ul> </li> </ul> </li> <li>■ 수출 물류대란 총력지원*을 통해 최단기(299일) 무역 1조불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적해운사의 임시선박 투입, 수출 바우처 지원, 대기업 운반선에 중기화물 선적 등</li> </ul> </li> <li>• (주력산업) 반도체·석유화학·기계 등 역대 1~3위 수출 실적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품목별 수출액 : (반도체) 1,280억불(역대 1위), (석유화학) 551억불(역대 1위), (일반기계) 531억불(역대 2위)</li> </ul> </li> <li>• (신산업)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면서 비대면과 관련된 IT 품목 및 바이오헬스·농수산식품·화장품 등 신산업 수출이 큰 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품목별 증감 : (컴퓨터) 25.3%, (무선통신기기) 22.9%, (바이오) 16.9%, (화장품) 21.5%</li> </ul> </li> <li>• (고부가) 전기차·OLED 등 高부가 수출 확대로 수출의 질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품목별 증감 : (전기차) 51.7%, (시스템반도체) 31.3%, (OLED) 33.2%</li> </ul> </li> </ul> |

|                              |                                                                                                                                                                                                                                                                                                                                                                                                                                                                                                                                                                                                                                                                                                                                                                                                                                                                                                                                                                                                                                                                                                                                                                                                                                                                                                                                                                                                                                                                                                                                                                                                                                                                                                                                                                                                                                                                                                                                                                                                                                                                                                                                                                                                                                                                                                                                                                                                                                                                                                                                                                                 |
|------------------------------|---------------------------------------------------------------------------------------------------------------------------------------------------------------------------------------------------------------------------------------------------------------------------------------------------------------------------------------------------------------------------------------------------------------------------------------------------------------------------------------------------------------------------------------------------------------------------------------------------------------------------------------------------------------------------------------------------------------------------------------------------------------------------------------------------------------------------------------------------------------------------------------------------------------------------------------------------------------------------------------------------------------------------------------------------------------------------------------------------------------------------------------------------------------------------------------------------------------------------------------------------------------------------------------------------------------------------------------------------------------------------------------------------------------------------------------------------------------------------------------------------------------------------------------------------------------------------------------------------------------------------------------------------------------------------------------------------------------------------------------------------------------------------------------------------------------------------------------------------------------------------------------------------------------------------------------------------------------------------------------------------------------------------------------------------------------------------------------------------------------------------------------------------------------------------------------------------------------------------------------------------------------------------------------------------------------------------------------------------------------------------------------------------------------------------------------------------------------------------------------------------------------------------------------------------------------------------------|
|                              | <p>■ <b>선제적 사업재편</b>을 통해 탄소중립 등 산업 대전환기 대응 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단체와 파트너십*을 통한 수요기업 발굴, 승인기업 역대 최대 달성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기연(탄소중립), 전자진흥회(디지털전환), 자동차부품재단(車부품기업), 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산단공·서울TP(지역기업)</li> <li>** 연간 승인건수 : ('16년)15건 → ('17년)51건 → ('18년)34건 → ('19년)9건 → ('20년)57건 → <b>('21.12월)108건</b></li> </ul> </li> </ul> <p>■ <b>외투·유턴기업의 세제·재정지원을 통해 미래성장 기반 확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외투)</b> 연간 FDI(외국인직접투자)는 역대 1위인 <b>295.1억불</b> 기록(전년비 4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별 외투실적 : ('17년)229.5억불 → ('18년)269.0억불 → ('19년)233.3억불 → ('20년) 207.5억불 → ('21년)295.1억불</li> <li>- 중점유치 분야 지원강화*로, 외투실적의 질적 개선** 견인</li> <li>* (지원확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소부장 ('19.11월), 첨단산업 및 R&amp;D센터 투자('20.9월)</li> <li>** K-뉴딜, 신산업 투자 증가 : 아마존 데이터센터(2억불), 싸이티바 백신·원부자재(0.5억불) 등</li> </ul> </li> <li>• <b>(유턴)</b> 첨단·중견기업* 중심으로 양질의 국내복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社) 초경량 車부품, (K社) 포토레지스트 원료, (N社) 친환경·복합소재 신발 등</li> <li>** 연도별 : ('14~'17년) 39개 → ('18년) 9개 → ('19년) 16개 → ('20년) 21개 → <b>('21년) 26개</b></li> </ul> </li> </ul> <p>■ <b>출입국 원스톱 지원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 해외업무 여건 마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출입국지원)</b> 사증 7,867명(누계 '20.3~'21년) 및 격리면제서 발급지원 30,359명</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부흥) 조선·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강국 위상 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 세계수주 1위('20년), (메모리반도체) 세계점유율 1위 유지, (자동차) 세계 5강 2년 연속 유지</li> </ul> </li> <li>• 100대 품목 의존도 획기적 개선, 기업성장 등 소부장 자립화 기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일의존도 변화('19.1~8월 누계 → '21.1~8월 누계, HS코드 기준, 단위 %):<br/>(3대 품목) 78.3 → 72.9, (100대 품목) 31.5 → 24.8, (소부장 전체) 17.0 → 15.8</li> </ul> </li> <li>• 연간 100개 이상 사업재편 사례 창출 등 선제적 산업전환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재편 승인기업 : ('17년)51개 → ('18년)34개 → ('19년)9개 → ('20년)57개 → <b>('21.12월)108건</b></li> </ul> </li> <li>• 역대 최단기 무역 1조불, 월수출 600억불 시대 개막 등 신기록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조불 달성 시점 : (14년) 332일 (17년) 348일 (18년) 320일(역대 2위), (19년) 350일 (21년) 299일</li> </ul> </li> <li>•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에도 외투 실적 6년 연속 200억불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상반기 글로벌 FDI는 3,990억불로 전년동기(7,770억불) 대비 49% 감소</li> <li>** 외투신고액 : ('17년) 229.5억불 → ('18년) 269.0억불 → ('19년) 223.3억불 → ('20년) 207.5억불 → ('21년) 295.1억불</li> </ul> </li> </ul> </div> |
| <p><b>개선·보완<br/>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중립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친환경·디지털 전환 가속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스마트 패러다임을 반영한 고부가 미래품목(고부가선박, 수소환원제철, 바이오연료) 육성 스마트공장, 뿌리기업 디지털화 확산 등 미래형 산업구조 전환 촉진</li> </ul> </li> <li>•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등 수입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규제, 글로벌 수급동향 등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li> </ul> </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선진국 수준으로 벤처펀드 확대</li> <li>■ 우수 기술인력의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고 재도전 걸림돌 제거</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벤처 생태계의 양적, 질적 성장을 통해 ‘제2벤처붐’이 조성되어 기술창업 기업은 연간 20만개를 돌파하고, 유니콘 기업도 ‘16년에 비하여 7.5배로 급증</li> <li>■ 신산업 분야 진출에 따라 기존 산업분야 및 제도 체계와 충돌되지 않도록 상생 기반 마련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대 최대규모 벤처투자 달성 등 투자 중심의 창업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벤처투자 실적은 7조 6,802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전년대비 78.4% 증가)</li> <li>* 연도별 벤처펀드 조성액(조원, 신규) : (‘17) 4.59 → (‘18) 4.85 → (‘19) 4.24 → (‘20) 6.56 → (‘21) 9.2</li> <li>연도별 벤처투자액(조원, 신규) : (‘17) 2.38 → (‘18) 3.42 → (‘19) 4.27 → (‘20) 4.30 → (‘21) 7.7</li> <li>• 벤처·스타트업은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든든한 고용 버팀목으로 기능</li> <li>* 벤처기업 고용 현황 : (‘20.6월) 66.0만명 → (‘21.6월) 72.7만명 (+10.2%)</li> <li>벤처투자 받은 기업 고용 현황 : (‘20.6월) 2.7만명 → (‘21.6월) 3.7만명 (+36.5%)</li> <li>•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공정거래법, ‘21.12월 시행)으로 벤처투자 확대 및 회수시장 활성화 등 도모</li> </ul> </li> <li>■ 기술창업자 발굴·육성, 신산업 규제특례 등을 통한 혁신 창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3분기 기준 기술창업은 역대 최초 18만개 돌파하였으며, 청년창업은 (만39세 이하) 전년동기 대비 4.6% 증가</li> <li>* 1~10월 기술창업기업 수(개) : (‘20) 190,639 → (‘21) 198,277</li> <li>1~10월 청년창업기업 수(개) : (‘20) 405,182 → (‘21) 423,634</li> <li>• 기술창업을 저해하는 현장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기관, 스타트업이 협업하여 12개 규제 발굴·개선</li> <li>* 신산업 촉진(4건), 제조창업 규제완화(4건), 창업기업 행정부담 경감(4건)</li> <li>•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19.7) 2년 만에 일자리 1,813개 창출, 투자유치 2조 728억원, 기업이전 202개사 등 지역 신산업 혁신 성장을 견인</li> </ul> </li> <li>■ 제도개선을 통한 창업·벤처기업 성장(Scale-up)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도입(‘21.1월~)을 통한 공공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판로채널 지원</li> <li>* ‘21년 11.7조원 규모의 창업기업을 위한 공공시장 확보</li> <li>• 혁신 벤처기업 발굴을 위해 민간 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를 도입(‘21.2월) 하고, 창업·벤처기업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복수의결권 도입 추진</li> <li>* 벤처기업법 개정안 : 국회 상임위 통과(‘21.12.2)</li> </ul> </li> </ul> |

|                              |                                                                                                                                                                                                                                                                                                                                                                                                                                                                                                                                                                                                                                                                                                                                                                                                                                                                                                                                                                                                                                                                                                                                                                                                                                                                                                                                                                                                                                                                                                                                                                                                                                                                                                                                                                                                                                                            |
|------------------------------|------------------------------------------------------------------------------------------------------------------------------------------------------------------------------------------------------------------------------------------------------------------------------------------------------------------------------------------------------------------------------------------------------------------------------------------------------------------------------------------------------------------------------------------------------------------------------------------------------------------------------------------------------------------------------------------------------------------------------------------------------------------------------------------------------------------------------------------------------------------------------------------------------------------------------------------------------------------------------------------------------------------------------------------------------------------------------------------------------------------------------------------------------------------------------------------------------------------------------------------------------------------------------------------------------------------------------------------------------------------------------------------------------------------------------------------------------------------------------------------------------------------------------------------------------------------------------------------------------------------------------------------------------------------------------------------------------------------------------------------------------------------------------------------------------------------------------------------------------------|
|                              | <p>■ 재창업자 육성,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재도전 생태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금융기관 기존 연대보증 폐지 및 신규 대출·보증 연대보증 전면 면제를 통한 재도전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융자 면제실적(조원, 누적) : ('17) 2.9 → ('18) 14.9 → ('19) 30.2 → ('20) 54.5 → ('21) 85.1</li> <li>기존융자 폐지실적(조원, 누적) : ('18) 5.4 → ('19) 16.1 → ('20) 28.2 → ('21) 38.8</li> </ul> </li> <li>재도약기업(재창업, 사업전환)의 원활한 납품계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담보 이행보증 우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부-SGI서울보증 협약('21.1월) 이후, '21년말까지 1,242개사 대상 총 10,158건, 3,216억원(기업당 평균 8.2건, 2.6억원) 보증지원</li> </ul> </li> </ul> <p>■ 스케일업 친화적 정책을 통해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는 벤처생태계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유니콘 참여기업들은 약 1.2조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하고 매출도 50% 넘게 증가하면서 일자리 3,386개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0년 아키유니콘200 및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참여한 96개 기업 기준(아키 40, 예비 56)</li> </ul> </li> <li>모태펀드 정시 및 출자사업을 통해 '20~'21년 당초 조성 목표(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였던 2조원을 넘어 2.6조원 규모로 조성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대면펀드 6,802억원, 바이오펀드 1,750억원, 그린뉴딜펀드 2,019억원 등 35개 펀드</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벤처투자시장 마중물 공급으로 역대 최대규모 벤처펀드 조성 및 투자 달성</li> <li>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지원정책 및 벤처투자에 힘입어 지난 4년간 창업이 꾸준히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별 신설법인(만개, 신규) : ('17) 9.6 → ('18) 10.2 → ('19) 11.0 → ('20) 12.3 → ('21.10) 10.4</li> <li>* 연도별 신규 창업기업(만개) : ('17) 125.6 → ('18) 134.4 → ('19) 128.5 → ('20) 148.5 → ('21.10) 117.8</li> </ul> </li> <li>유니콘 기업이 '16년 대비 7.5배로 급증('16. 2개 → '21. 15개)하고, 유니콘 등극 이후에도 해외 대형투자 등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니콘기업(개, 누적) : ('16) 2 → ('17) 3 → ('18) 6 → ('19) 10 → ('20) 13 → ('21) 15</li> </ul> </li> </ul> </div> |
| <p><b>개선·보완<br/>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진출 및 융복합 기술 발전으로 기존 산업분야 및 사업·제도 체계와 갈등 해소방안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애로해소를 위한 세심한 소통 및 창업 친화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 개선 노력</li> </ul> </li> <li>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화 자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화 자금 부정수급 및 입교생 선발과정 부실 의혹 등 국감 지적에 따라 전수 조사 추진</li> </ul> </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집중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 달성</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R&amp;D·스마트공장 지원이 중소기업 기술혁신으로 이어져 매출 증대 → 투자 확대 → 고용 선순환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li> <li>■ 중소기업 R&amp;D 양적 확대에 대응한 사업 관리 강화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벤처기업 육성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 사전협의제도가 '19년 83개 사업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대상사업 약 2배 확대('21년 171개 사업)</li> <li>* 16개 부처 171개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시행, 233억원 규모의 2개 중복사업 철회</li> </ul> </li> <li>■ R&amp;D와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해 제품 혁신과 생산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대 최대규모 수출실적 달성 및 중기전용 R&amp;D 예산 2.49조원으로 확대</li> <li>* 수출실적 (억달러) : ('18) 1,052 → ('19) 1,009 → ('20) 1,007 → ('21) 1,171</li> <li>R&amp;D예산 (조원) : ('17) 1.17 → ('18) 1.54 → ('19) 1.72 → ('20) 2.31 → ('21) 2.47 → ('22) 2.49</li> <li>* R&amp;D 지원 이전 대비 매출 35.6%↑, 수출 405.7%↑, 영업이익 42.4%↑ 증가('20년 기술통계조사)</li> <li>• 스마트공장 설치기업을 '16년 3천개에서 '21년 2만4천개로 확대하였고, 구축 기업은 일자리 6.2만개 창출 및 생산성 28% 향상 성과</li> <li>* 스마트공장 (개) : ('16) 2,800 → ('18) 15,400 → ('20) 19,799 → ('21) 25,039</li> <li>* 스마트공장 구축 전후 2년간 생산성 28.5%↑, 매출액 7.4%↑, 산업재해 6.2%↓ (산업연 '20.12월)</li> </ul> </li> <li>■ 물류난 극복 및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량 화물, 비정기적 운송으로 선적공간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HMM과 협업하여 중기전용 선적공간을 마련하고, 물류바우처(추경 109억원) 긴급 지원</li> <li>• 국가대표브랜드 브랜드K 선정기업들이 '21년 상반기 수출액 5.4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57% 성장</li> </ul> </li> <li>■ 유망 중소기업의 초기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선정 글로벌 강소기업에는 수출마케팅 136억원, R&amp;D 69억원 등을 투자하였으며 전년 대비 수출액 21% 증가</li> <li>• 초기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중견기업법 개정('21.6월)</li> </ul> </li> </ul> |

|                              |                                                                                                                                                                                                                                                                                                                                                                                                                                                                                                                                                                                                                                                                                                                                                                                                                                                                                                                                                                                                                                                                                                                                                                                                                                                                                                                                                                                                                                                                                                                                                      |
|------------------------------|------------------------------------------------------------------------------------------------------------------------------------------------------------------------------------------------------------------------------------------------------------------------------------------------------------------------------------------------------------------------------------------------------------------------------------------------------------------------------------------------------------------------------------------------------------------------------------------------------------------------------------------------------------------------------------------------------------------------------------------------------------------------------------------------------------------------------------------------------------------------------------------------------------------------------------------------------------------------------------------------------------------------------------------------------------------------------------------------------------------------------------------------------------------------------------------------------------------------------------------------------------------------------------------------------------------------------------------------------------------------------------------------------------------------------------------------------------------------------------------------------------------------------------------------------|
|                              | <p>■ 지역경제 위기 등 기업 경영과정의 어려움을 극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중소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기반 마련</li> <li>• 조선업 구조조정, GM공장 폐쇄 등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여, 산업·고용 위기 지역에 대해 약 8천6백억원의 긴급자금과 함께 컨설팅, R&amp;D 등을 패키지로 지원</li> <li>• 48개 지역주력산업을 한국판 뉴딜에 맞춰 블록체인, 바이오 등 신산업으로 전면 개편하고, 2,100억원 투자</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 사상 최대 116조원 달성으로 내수절벽 완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구매액(조원) : ('17) 92.2 → ('18) 94 → ('19) 105 → ('20) 116.3</li> </ul> </li> <li>• 중소기업 약속어음 : ('17) 96.7 → ('20) 76.1조원(21.3%↓), 부도액 : ('17) 8,305 → ('20) 5,826억원(29.8%↓), 부도율 : ('17) 0.91 → ('20) 0.81%(11.0%↓)</li> <li>• 월드클래스 300개사, 글로벌강소기업 800개사 발굴·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수(누적, 개) : ('17) 164 → ('18) 415 → ('19) 634 → ('20) 834 → ('21) 1,034 → ('22 목표) 1,200</li> <li>일자리(누적, 명) : ('17) 491 → ('18) 1,058 → ('19) 2,208 → ('20) 3,625 → ('21) 4,639 → ('22 목표) 5,000</li> </ul> </li> <li>• 산업·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 지원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운영하고, 지역주력산업·지역스타기업·지역특구 통해 위기에 강한 지역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13개(누적) 지정 → 평균 고용 81.2명 증가(559.6명 → 640.8명)</li> <li>* 지역주력산업 기업 1.9만개사를 지원 → 신규일자리 10,229명, 사업화 매출액 1.3조원 창출</li> <li>* 지역스타기업 선정기업('18~20) → 일반 기업 대비 고용증가율 3배, 매출액증가율 7배</li> <li>* 지역특구 소재 8,531개 기업 → '19년 88,715명 고용 및 18조 4,188억원의 매출 발생</li> </ul> </li> </ul> </div> |
| <p><b>개선·보완<br/>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창업·성장 촉진을 위한 R&amp;D 사업 관리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부 R&amp;D 부정 사용 적발의 82.3%가 외부기관에 집중</li> <li>* ('16~'21.10월 부정사용 적발) 수사기관 37.7% 권익위 27.1% 중기부 17.2% 감사원 15.2%, 기타 2.6%</li> </ul> </li> <li>•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심의 위기대응을 위한 지역협력 거버넌스 구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중소기업의 위기 상시모니터링 및 사전대응할 수 있는 정부·지자체·지역지원기관 간 연계·협력체계 정비 및 활성화</li> </ul> </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인력양성 등 청년·우수기술인력 유입을 촉진하여 인력난 해소</li> <li>■ 성과공유 확산 등으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이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청년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촉진 및 장기재직 유도 등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li> <li>■ 그러나, 일자리 미스매칭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강화 노력 필요</li> </ul>                                                                                                                                                                                                                                                                                                                                                                                                                                                                                                                                                                                                                                                                                                                                                                                                                                                                                                                                                                                                                                                                                                                                                                                                                                                                                                                                                                                                                                                                                                                                                                                                                                                                                                                                                                                 |
| '21년도 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추가고용 대책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채용 청년 8.5만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확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7.9만개 사업장에서 46만명의 청년 추가 채용 지원('18.1월~'21.11월까지)</li> <li>('18년 128,275명, '19년 141,566명, '20년 105,584명, '21.11월 84,833명)</li> </ul> </li> <li>• '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목표인원 10만명을 조기 달성하고, 누적('16.7월~'21.12월) 50만명, 기업 12만개소를 지원하여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 및 장기근속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적가입 현황(명) : ('18) 151,789 → ('19) 250,361 → ('20) 387,587 → ('21) 507,370</li> </ul> </li> <li>• '21년말 기준 133,065명이 만기공제금을 수령하였으며, 이중 56.5%가 만기 후에도 1년이상 해당 기업에서 계속 근무</li> </ul> </li> <li>■ 산학협력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에 우수 기술인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신기술 분야 등의 산업현장 미래수요를 반영하여 중소기업 계약학과 신설('21. +5개 학과) 및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 신설 및 개편('21. +6개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학과) 인공지능(3개), 소재·부품·장비(2개) 신설 /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 신산업(6개)</li> </ul> </li> <li>• 직업계고 졸업생 대상 스마트공장 심화 교육을 제공하는 영마이스터 과정 (전문학사과정) 신규·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 전문학사 3개 과정 → ('20) 1개 과정 추가 개설 → ('21) 총 4개 과정 운영</li> </ul> </li> <li>• 스마트공장 배움터 확충, 중소기업 연수원 추가 설치 등으로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 1개(안산) → ('19) 3개(+ 전주, 창원) → ('20) 5개(+ 경산, 천안) → ('21년) 6개(+광주(구축중))</li> <li>* ('20) 안산 등 5개 연수원 → ('21.4월) 충청 추가 개원(총 6개 연수원)</li> </ul> </li> </ul> </li> <li>■ 성과공유제 확산, 근로자 복지여건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사례 발굴·홍보, 정부지원 우대(중기부 40개 사업 선정평가, 병역지정업체 선정 등 우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문화 확산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공유제 도입(개, 누적) : ('18) 10,794 → ('19) 31,171 → ('20) 51,275 → ('21) 72,222</li> </ul> </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운영,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수준 제고</li> <li>* 가입실적(기업 / 근로자, 누적) : ('19) 4,600개사 / 60,650명 → ('20) 10,245개사 / 146,180명 → ('21) 17,675개사/219,571명</li> <li>* 분양주택 추천물량(호) : ('17) 2,022 → ('18) 1,167 → ('19) 1,143 → ('20) 2,238 → ('21) 2,492</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 신설('17.8월),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을 통해 기업·근로자 부담 완화</li> <li>*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 확대(1,200→1,600만원, '17.8월~'20.12월), 3년형 신설·운영('18.6월~'20.12월)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 수준 인상</li> <li>•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제도개선 및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법인세·근로소득세 감면), 정부사업 참여시 우대 등 인센티브 확대</li> <li>* 성과공유 유형·확인절차, 지원근거 등 신설(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 '18.9월)</li> <li>• 중소기업 재교육형 계약학과* 확대, 고학력 청년실업자 대상 폴리텍 하이테크과정** 지속 확대 등 우수 기술인력 유인제도 확대</li> <li>* ('17) 49개 → ('19) 53개 → ('21) 55개 / ** ('19) 784명 → ('20) 985명 → ('21) 1,053명</li> </ul> </div> |
| <b>개선·보완<br/>필요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칭 완화를 위한 일자리 매칭 활성화 등에 지속적인 노력 필요</li> <li>•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사유 분석을 통한 불이익 방지 방안 마련 필요</li> <li>* 성희롱갑질 등 직장내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2년 재직 만기 조건이 족쇄로 작용하는 사례 등</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강화</li> <li>■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 조성</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장기화에 적극 대응하여 생계지원 강화, 필수 복지서비스 유지 등을 통해 취약계층·위기가구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li> <li>■ 다만,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활성화 노력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신속 적극적인 지원으로 취약계층 생활 안정 기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대상 한시생계지원(가구당 50만원) 및 추가지원금(인당 10만원), 위기 사유 및 재산기준 등 완화로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신속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복지지원 가구 수 : ('20년) 50만 가구 → ('21년) 68.9만 가구(37.67% ↑)</li> </ul> </li> <li>• 장애인 활동지원 등 필수서비스를 지속 유지*하여 돌봄공백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지원 : ('20.1월) 10.6만명 → ('21.12월) 12.7만명 / 양육지원 : ('20.1월) 27백명 → ('21.12월) 40백명</li> </ul> </li> <li>• 자가격리, 시설휴관 등에 대응하여 활동지원 특별급여 기준마련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지원수급자 자가격리·확진 시 24시간 지원 및 보호자 확진·격리시 지원('20.1월~),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한시 지원('21.1월~), 장애학생 학습돌봄 지원('21.5월~)</li> </ul> </li> </ul> </li> <li>■ <b>기초생활보장 및 사회보험제도 개선으로 복지 사각지대 축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비수급 빈곤층의 빈곤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월) 중증장애인 → ('21.1월) 노인·한부모 → ('21.10월) 그 외 수급권자</li> </ul> </li> <li>•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인 : 고용보험법 등 개정('20.6월) → 시행('20.12월) / '21.12월 현재, 10.7만명 가입<br/>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법 개정('20.12월)→시행('21.7월) / '21.12월 현재, 57.7만명 가입</li> </ul> </li> </ul> </li> <li>■ <b>맞춤형 소득·일자리 지원 확대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연금 월30만원 수급대상을 확대*하여 노인빈곤을 지속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월) 소득하위 20% → ('20.1월) 소득하위 40% → ('21.1월) 소득하위 70%</li> <li>** 노인빈곤율 : ('17년) 42.3%→('18년) 42.0%→('19년) 41.4%→('20년) 38.9%</li> </ul> </li> <li>• '22년 0~1세 대상 영아수당 도입*, 아동수당 대상연령 확대(7세→8세 미만)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년 영아수당 월30만원 지급, '25년까지 월50만원으로 확대(매년 5~10만원 인상)</li> </ul> </li> </ul> </li> </ul> |

|                              |                                                                                                                                                                                                                                                                                                                                                                                                                                                                                                                                                                                                                                                                                                                                                                                                                                                                                                                                                                                                                                                                                                                                                                                                                                                                                                                                                                                                                                                                                                                                                                                                                                                                                                                                                                                                                                                                                                                                                                                                                                                                                                                                                                                                                                                                                                                                                                                                                                            |
|------------------------------|--------------------------------------------------------------------------------------------------------------------------------------------------------------------------------------------------------------------------------------------------------------------------------------------------------------------------------------------------------------------------------------------------------------------------------------------------------------------------------------------------------------------------------------------------------------------------------------------------------------------------------------------------------------------------------------------------------------------------------------------------------------------------------------------------------------------------------------------------------------------------------------------------------------------------------------------------------------------------------------------------------------------------------------------------------------------------------------------------------------------------------------------------------------------------------------------------------------------------------------------------------------------------------------------------------------------------------------------------------------------------------------------------------------------------------------------------------------------------------------------------------------------------------------------------------------------------------------------------------------------------------------------------------------------------------------------------------------------------------------------------------------------------------------------------------------------------------------------------------------------------------------------------------------------------------------------------------------------------------------------------------------------------------------------------------------------------------------------------------------------------------------------------------------------------------------------------------------------------------------------------------------------------------------------------------------------------------------------------------------------------------------------------------------------------------------------|
|                              | <p>■ <b>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강화 및 자립생활 기반 확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장애인연금 인상</b>(月 25→30만원) <b>대상 확대*</b>로 장애인 생계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1년) 전체</li> </ul> </li> <li>• 장애인 <b>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b>하고 개별 필요도 조사를 통해 <b>맞춤형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균 급여시간 : ('19.7월) 113.8시간 → ('21.6월) 133.8시간</li> <li>** 장애인 기능제한 정도에 비례한 급여 제공, 경증장애인 2,860명에 대해서도 지원('21.6월)</li> </ul> </li> <li>• <b>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b>하고 거점병원 지정 등 <b>의료인프라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증장애아 돌봄 지원 확대(연 720→840시간, 4천명→8천명), △65세 이후에도 활동 지원 서비스가 가능토록 개선('21.1월 시행), △최중증장애인 1인 서비스 도입</li> <li>**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 추가 지정('20년 8개 → '21년 10개)</li> </ul> </li> <li>• <b>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선정·지정*</b>,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 사업 추진, <b>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정**</b> 등 장애인 건강보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선정·건립 : 병원 2개소, 센터 8개소('21년 +4개소) 선정 후 단계적 건립 추진중('21년~) / 기존 병원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21년/ 병원2·센터1)</li> <li>** 장애친화 검진기관 3개소, 장애친화 산부인과 8개소 지정</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align="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비수급 빈곤층 점진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10월) 주거급여 → ('20.1월~'21.10월) 생계급여</li> <li>** 수급자 수 : ('18년) 174만명→('19년) 188만명→('20년) 213만명→('21.11월) 235만명</li> </ul> </li> <li>• 아동수당 도입('18.9월, 월 10만원) 및 지급대상 확대*로 양육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월) 소득하위 90%→전체, ('19.9월) 만6세미만→만7세미만</li> </ul> </li> <li>• 기초연금(소득하위 70% 대상) 단계적 인상*으로 노인빈곤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전) 월 20만원→('18.9월) 월 25만원→('19.4월) 월 30만원(소득하위 20%)→('20.1월) 월 30만원(소득하위 40%)→('21.1월) 월 30만원(소득하위 70%, 전체)</li> <li>** 노인빈곤율(65세이상) : ('17년) 42.3%→('18년) 42.0%→('19년) 41.4%→('20년) 38.9%</li> </ul> </li> <li>•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 및 장애등급제 폐지('19.7월) 등 자립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전) 월 20만원→('18.9월) 월 25만원→('19.4월) 월 30만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20.1월) 월 30만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1.1월) 전체</li> </ul> </li> <li>•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료 지원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기준 확대('18.8월) △저소득근로자·농어업인 지원기준 확대('20.1월) △예술인('20.12월)·특수형태근로종사자('21.7월) 고용보험 적용</li> </ul> </li> </ul> </div> |
| <p><b>개선·보완<br/>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시행하여 사업 활성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서비스 확대 현황('21.12월/'22년 목표) : (주간) 6.2천명/17천명 (방과후) 6천명/22천명</li> </ul> </li> <li>•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0월)에 따라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요구 증가 예상, 저소득층 의료이용 사각지대 해소방안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부대의견)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 수립 시까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등 검토</li> </ul> </li> </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제목표                    | <div>■ 적정수준의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div> <div>■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div>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평                      | <div>■ 노인 소득 강화 및 노인 환자 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여건 조성에 기여</div> <div>■ 다만, 노인복지시설 내 학대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 필요</div>                                                                                                                                                                                                                                                                                                                                                                                                                                                                                                                                                                                                                                                                                                                                                                                                                                                                                                                                                                                                                                                                                                                                                                                                                                                                                                                                                                                                                                                                                                         |         |          |          |          |       |       |            |      |         |         |          |          |        |   |   |    |    |    |                         |        |        |          |          |          |
| '21년도<br>주요성과           | <div>■ 기초연금 인상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로 노후소득 보장강화</div> <div><div>• 기초연금,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수급대상 선정기준액을 전년 대비 12.4% 상향*하여 노인빈곤 완화에 기여**</div><div>* ('20년) 단독가구 148만원(부부 236.8만원) → ('21년) 단독가구 169만원(부부 270.4만원)</div><div>** 노인빈곤율(65세이상) : ('17년) 42.3% → ('18년) 42.0% → ('19년) 41.4% → ('20년) 38.9%</div><div>•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 완화('20년) 및 저소득 사업장 근로자 및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확대*('21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div><div>* 사업장근로자 지원(두루누리) 기준 : ('20년) 월 215만원 미만 → ('21년) 월 220만원 미만<br/>농어업인 지원기준 : ('20년) 월 97만원 이하 → ('21년) 월 100만원 이하</div><div>** 사업장가입자 비율 : ('17년) 61.7% → ('19년) 63.7% → ('21년) 65.2%</div></div> <div>■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로 치매환자·가족 부담 경감</div> <div><div>•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맞춤형 관리**</div><div>* 치매안심센터 검진 치매진단자 수 (누적) : ('20년) 16.4만명 → ('21년) 20만명</div><div>** 치매환자관리율 : ('20년) 53.4% → ('21년) 58.2% (약 50만명/ 전체 치매환자 86만명<sup>추정치</sup>)</div><div>• 취약지를 중심으로 치매안심센터 분소 및 치매전문병동, 치매전담형 노인 요양시설 등 확충</div></div> <table><tr><td>구 분</td><td>2017년</td><td>2018년</td><td>2019년</td><td>2020년</td><td>2021년</td></tr><tr><td>치매안심센터(분소)</td><td>4(3)</td><td>161(35)</td><td>256(90)</td><td>256(145)</td><td>256(204)</td></tr><tr><td>치매전문병동</td><td>-</td><td>5</td><td>43</td><td>50</td><td>65</td></tr><tr><td>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br/>(치매전담실)</td><td>43(53)</td><td>75(96)</td><td>175(220)</td><td>228(288)</td><td>283(370)</td></tr></table> <div><div>• 건강보험·장기요양 제도 개선('17~)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의 의료·요양 부담 완화*</div><div>* △ 중증치매환자 치매의료비 1인당 평균 약 72만원 인하('17년 126만원→'21년 54만원)</div><div>△ 경증 치매환자 대상 인지지원등급 신설('21년, 2.2만명 혜택)</div><div>△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폭 확대('21년, 36만명 혜택)</div></div>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치매안심센터(분소) | 4(3) | 161(35) | 256(90) | 256(145) | 256(204) | 치매전문병동 | - | 5 | 43 | 50 | 65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br>(치매전담실) | 43(53) | 75(96) | 175(220) | 228(288) | 283(370) |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      |         |         |          |          |        |   |   |    |    |    |                         |        |        |          |          |          |
| 치매안심센터(분소)              | 4(3)                                                                                                                                                                                                                                                                                                                                                                                                                                                                                                                                                                                                                                                                                                                                                                                                                                                                                                                                                                                                                                                                                                                                                                                                                                                                                                                                                                                                                                                                                                                                                                                                                                | 161(35) | 256(90)  | 256(145) | 256(204) |       |       |            |      |         |         |          |          |        |   |   |    |    |    |                         |        |        |          |          |          |
| 치매전문병동                  | -                                                                                                                                                                                                                                                                                                                                                                                                                                                                                                                                                                                                                                                                                                                                                                                                                                                                                                                                                                                                                                                                                                                                                                                                                                                                                                                                                                                                                                                                                                                                                                                                                                   | 5       | 43       | 50       | 65       |       |       |            |      |         |         |          |          |        |   |   |    |    |    |                         |        |        |          |          |          |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br>(치매전담실) | 43(53)                                                                                                                                                                                                                                                                                                                                                                                                                                                                                                                                                                                                                                                                                                                                                                                                                                                                                                                                                                                                                                                                                                                                                                                                                                                                                                                                                                                                                                                                                                                                                                                                                              | 75(96)  | 175(220) | 228(288) | 283(370)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b>노인일자리 확대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간 노인일자리 82만개를 창출*하여 노인일자리 목표 조기달성 ('22년까지 80만개)<br/>* ('17년) 47만개 → ('18년) 51만개 → ('19년) 64만개 → ('20년) 74만개 → ('21년) 82만개</li> <li>• 베이붐세대 전문성 및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b>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b><br/>*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 ('19년) 20천명(신규)→('20년) 37천명→('21년) 55천명</li> </ul> <p>■ <b>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 및 16개 지자체 시범사업** 추진<br/>*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의원입법(2건) 지원, 지자체·유관기관 등 설명회 및 포럼 개최 등<br/>** 돌봄대상 총 19,958명에 대해 1인당 평균 3.6건의 재가서비스를 통합 제공('19.6월~'21.6월)</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20→30만원, 589만명 혜택)<br/>* (종전) 월 20만원→('18.9월) 월 25만원→('19.4월) 월 30만원(소득하위 20%)→('20.1월) 월 30만원(소득하위 40%)→('21.1월) 월 30만원(소득하위 70%, 전체)</li> <li>• 전국 256개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확충 완료('19년) 등 치매관리 인프라 구축 및 치매의료비 부담경감('17~'18년)<br/>* △중증치매환자 치매의료비 90%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17.10월) △고비용 치매검사 건강보험 적용('17.10월) △경증치매환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지지원등급 신설('18.1월)</li> <li>•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로 노인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br/>* ('17년) 47만개→('18년) 51만개→('19년) 64만개→('20년) 74만개→('21년) 82만개</li> <li>•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18.11월), 지역별·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모형 개발·검증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19.6월~, 16개 지자체)<br/>*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등 17개 사업 시행 중</li> </ul> </div> |
| <p><b>개선·보완<br/>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내 학대사례가 증가 추세*로 시설특성 상 치매노인이 많고 신체적·방임 학대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b>맞춤형 대책 마련 필요</b><br/>* 생활시설 내 학대건수 : ('16년) 238건→('19년) 486건→('20년) 521건</li> <li>•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부실관리 논란, 평가·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필요</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 경감</li> <li>■ 건강증진사업 확대로 계층·지역별 격차 완화 및 건강수명 연장</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강화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로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li> <li>■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국민 수용성 제고 노력 지속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역할강화로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b>코로나19 백신접종 접종비용 건강보험 한시지원</b>(‘21.2월~)</li> <li>•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대응하여 <b>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b>(‘21.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비율 :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 소득수준에 따라 50%~80% 차등</li> <li>* △지원금액 : 최대 2천만원 → 최대 3천만원</li> </ul> </li> <li>• <b>코로나19 PCR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b>로 진단검사 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용 선별검사(‘21.2.8월) △단독검사(‘21.2월) △신속항원검사-혈액투석 환자(‘21.5월)</li> </ul> </li> <li>•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b>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적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집단(‘20.1월~)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20.5월~) △한방·재활병원(‘21.3월~)</li> </ul> </li> <li>•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b>재택치료 전용 생활치료센터 지원</b>(‘21.10월~)</li> <li>• 영화업 등 코로나 위기 업종 건강보험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공연업(‘20.3월~), 항공기 취급업(‘20.4월~), 영화업·노선버스·유원시설 등(‘21.4월~)</li> </ul> </li> </ul> </li> <li>■ <b>차질없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가계 의료비 부담 완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흉부·심장 초음파 등 건강보험 적용확대로 환자부담 1/2~1/4 수준으로 경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흉부 초음파(유방·흉벽·흉막·늑골 등, ‘21.4월) △심장 초음파(‘21.9월) △두경부 초음파(‘21.12월 추진, ‘22.2월 시행)</li> </ul> </li> <li>• <b>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b>로 간병부담 완화 및 입원서비스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상 : (‘20년) 5.7만개→(‘21년) 6.4만개 / 인력 : (‘20년) 4.3만명→(‘21년) 4.8만명</li> </ul> </li> <li>•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b>치과, 한방 분야의 보장성 확대 추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21.5월~‘24.4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20.11월~‘23.10월)</li> </ul> </li> <li>• <b>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연계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b>(‘21.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개정 후 복지부-금융위 공동시행령 마련 예정</li> </ul> </li> </ul> </li> <li>■ <b>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30) 발표(‘2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지역별, 소득별 건강형평성 지표를 반영, 건강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정책 개입 강화</li> </ul> </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b>영유아 초기(생후14~35일) 국가건강검진 신설</b> ('21.1월)</li> <li>• <b>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 확대*</b> 및 예방접종 사전예약제 도입 ('21.10월)<br/>* ('18년) 생후 6개월~<b>만12세</b> → ('21년) 생후 6개월~<b>만13세</b></li> </ul> <p>■ <b>정신건강증진체계 및 자살예방 인프라 강화로 국민 정신건강 회복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 ('21.1월)</li> <li>• <b>정신건강복지센터 지속 확충*</b>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b>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b>」 단계적 확대**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인프라 강화<br/>* 전신건강복지센터(광역·기초) : ('17년) 243개소→('21년) 260개소<br/>**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 ('19년) 1개 시·도→('20년) 7개 시·도→('21년) 12개 시·도</li> <li>• 「<b>정신건강복지법</b>」 개정('20.12월) 및 5개 권역별 <b>트라우마센터 확충</b>('21.6월)을 통해 <b>재난 심리지원 체계 구축</b>, 코로나19의 영향 분석·회복 방안 모색<br/>* 재난발생 시 권역별(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트라우마센터 중심의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li> <li>• 「<b>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b>」 출범(4월), <b>인력확충*</b> 등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br/>* 지자체 자살예방 전담공무원 확대 : ('19년) 173명→('21년) 306명<br/>지역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 ('21년 신규) 260명 / 자살예방 상담전화 : ('20년) 26명→('21년) 57명</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약 12.1조원 가계의료비 부담경감('17.9월~'20년)<br/>* 건강보험 보장률 : ('16년) 62.6%→('17년) 62.7%→('18년) 63.8%→('19년) 64.2%</li> <li>• 「<b>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b>」 제정·시행('18.7월), 소득하위 50%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18.1월) 등 취약계층 부담 경감<br/>* 지원금액 : ('18년) 210억원→('19년) 259억원→('20년) 341억원→('21년) 446억원</li> <li>• <b>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도입*</b>, <b>독감 예방접종 대상 확대**</b> 등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br/>* ^(<b>영유아</b>) 생후 14~35일 검진 실시('21.1월) ^(<b>아동</b>)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21.5월~) ^(<b>성인</b>)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19년~)<br/>** 독감 예방접종 대상 : ('18년) 만12세 이하→('19년) 임신부 추가→('21년) 만13세 이하, 임신부</li> <li>•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18.4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20.12월) 및 전국 5개권역 트라우마센터 확충('21.6월)으로 체계적인 재난 심리지원 기반 마련</li> </ul> </div> |
| <b>개선·보완<br/>필요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수용성,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b>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노력 지속 필요</b></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지역사회 의료체계 강화와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li> <li>■ 실효성 있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으로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b>방역·의료역량을 강화</b>하고 신속한 <b>백신 접종</b>을 추진하는 등 환자발생 및 경제피해 최소화에 기여하였고 필수 의료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li> <li>■ 다만, 코로나19 장기화 및 신종 감염병 발생에도 대응 가능하도록 <b>지속가능한 의료체계 확보</b>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코로나19 방역·의료역량을 강화하여 환자발생 및 경제피해 최소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정부 백신도입T/F를 운영('21.4월~)하여 <b>코로나19 백신을 적극 도입·확보*</b>하고 신속한 접종을 추진하여 <b>예방접종률 83.0% 달성</b>('21.12.31. 2차접종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 국제협력 등을 통해 총 1억 9,604만 회분(전 국민 1.9배 접종가능) 도입 확정</li> </ul> </li> <li>• 일 최대 PCR 검사역량을 확대('20.3월 2만건→'21.12월 75만건)하고 <b>역학조사관 확충*</b> 및 <b>ICT활용 역학조사·검역 효율화**</b>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 중앙 25명, 지방 55명 → ('21년) 중앙 119명, 지방 395명</li> <li>** 신용카드사용 정보 연계('21.5월) 및 전자출입명부 활용('21.9월) 등 추적조사 고도화(소요시간 12시간→5분)</li> </ul> </li> <li>• 생활치료센터 도입('20.3월~) 등을 통해 <b>중증도에 따른 병상을 구분·확보*</b>하고 <b>비대면진료 제도화**</b>('20.12월~), <b>재택치료 병행</b> 추진('21.10월) 등 의료대응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상현황('21.12.31.기준) : 총 38,155개, 생활치료센터(20,414)-감염병전담병원(14,744)-중증·중증환자 치료병상(2,997) / ** 위기경보 '심각' 시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감염병예방법 개정, '20.12월)</li> </ul> </li> </ul> </li> <li>■ <b>신종감염병 발생 대비 지속가능한 공중보건위기 대응체계 확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전단계를 지원하여 <b>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b>('21.9월) 및 EU승인('21.11월), <b>백신 임상3상 진입</b>('21.8월)</li> <li>• <b>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추진*</b> 등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적정성 검토중('26년말 완공 목표) / (권역) 호남충청영남권 설계중('24년 개원 목표), 경북권 지정('21.7월)</li> </ul> </li> <li>• <b>감염병특별위원회 신설</b>('21.9월), <b>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b>('20.9월) 및 「국가 감염병 R&amp;D 중장기 계획」 수립('21.10월) 등 감염병 R&amp;D거버넌스 강화</li> </ul> </li> <li>■ <b>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등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 및 의료공공성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21~'25)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5년까지 <b>지역공공병원 20개소*</b> 확충 및 <b>필수의료센터 70개 운영</b> 등 <b>4.7조원 규모 투자 발표</b>('21.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공공병원 확충계획 : 신축 3개소(~25년), 이전·신축 6개소('24~'25년), 증축 11개소('22~'24년)</li> </ul> </li> <li>• <b>책임의료기관 지정·지원 근거 마련</b>('21.8월, 「공공보건의료법」 개정), 및 추가 지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의료기관 수 : ('20년) 권역 12개소, 지역 29개소 → ('21년) 권역 15개소(+3), 지역 35개소(+7)</li> </ul> </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b>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기능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외상센터·간호인력 10개소·818명('17년) → 15개소·1,267명('21년) △권역심뇌혈관센터 13개소('17년) → 14개소('20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17년) → 5개소('21년)</li> </ul> </li> <li>■ <b>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등 지역사회 기반 의료체계 강화</b></li> <li>• <b>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b>, <b>진료정보교류 활성화**</b> 등을 통해 중증질환 중심으로 대형병원 진료를 유도하여 상급종합병원 쏠림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급종합·종합·전문병원 참여기관 : ('20년) 184개소 → ('21년) 230개소</li> <li>** 인증 EMR(진료정보) 사용기관 : ('20년) 41개소 → ('21년) 3,262개소,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 수: ('20년) 6,477개소 → ('21년) 7,002개소</li> </ul> </li> <li>• <b>동네의원 중심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시범사업」*</b> 지속 추진('19.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9개 지역, 3,754개 의원 선정 / 환자 458,225명 등록·관리 중('21.12월 기준)</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시범사업('17년), 중증질환 중심 수가 개편('20년),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19년~) 등 지역사회 기반 의료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9개 지역, 3,781개 의원 선정 / 환자 458,225명 등록·관리 중('21.12월 기준)</li> </ul> </li> <li>•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마련('18.10월), 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기능강화로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외상센터 10개소('17년) → 15개소('21년) △권역심뇌혈관센터 13개소('17년) → 14개소('20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17년) → 5개소('21년)</li> </ul> </li> <li>• 국가관리 희귀질환 및 필수 의약품 지정 확대*, 환자안전법 개정('20.1월),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정('20.7월) 등 의료공공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희귀질환 : ('18년) 926개→('21년) 1,123개 △필수의약품 : ('17년) 211개→('21년) 506개</li> </ul> </li> <li>• 권역 질병대응센터 설치('20년 5개소), 17개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14~'20년), 중앙·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5개소) 등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 중앙·권역 1개소(호남)→('20년) 권역 2개소(충청·영남)→('21년) 권역 1개소(경북)</li> </ul> </li> </ul> </div> |
| <b>개선·보완<br/>필요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장기화 및 대규모 확진자 발생에도 대응 가능하도록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확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증병상 가동률 : ('21.10.31.) 45.1% → ('21.11.30.) 78.8% → ('21.12.31.) 63.6%</li> </ul> </li> <li>• 국내 백신·치료제 생산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 강화 필요</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 공적임대주택 확대 공급 및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OECD 평균 수준인 약 8%(169만호) 확보 및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li> <li>■ 다만,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맞추어 공적임대주택의 질적 향상 노력 지속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국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임대주택 56.3만호(준공 기준, '18~'21)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7.5만호(부지확보 기준, '18~'21) 등 총 73.8만호 공급하여 '주거복지로드맵' 계획 초과 달성</li> <li>• 공공임대 재고율 10위권 수준으로 상위권에 안착('21년, OECD 통계)</li> </ul> </li> <li>■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공임대 주택의 품질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셜믹스 및 수요자 편의 강화를 위하여 통합임대* 도입(4월 기준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선도단지 6곳(부천역곡, 시흥하중, 성남낙생, 의정부우정, 의왕청계, 고양장항) 사업승인(12월)</li> </ul> </li> <li>• 직주근접 수요에 맞는 우수입지 확보, 평형확대 및 마감재 등 개선, 주거서비스 결합 등으로 입주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li> </ul> </li> <li>■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대상 약 1.5만가구에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특히 고령화*에 대응하여 돌봄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별로 무장애 특화시설을 갖추고, 저층에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공급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고령자복지주택 5곳 552호 준공 및 15곳 1,182호 선정(~'21.12)</li> </ul> </li> <li>•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현실화로 '21년 127만가구, 16.1만원 지원, '22년 지원대상 추가 확대 계획('21년 중위 45%이하 → '22년 중위 46%이하)</li> <li>•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을 지속 확대하여 취약계층 주거환경 직접 개선('20년 5.5천호 → '21년 6천호)</li> </ul> </li> <li>■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임대차 제도안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거주를 유도하는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통한 임차인 주거권 강화* 및 분쟁완화 등 제도안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갱신요구권 사용 53.2%, 5% 이내 계약 75.2%(6~12월, 임대차 신고자료 분석)</li> <li>**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6곳 확대 설치(12곳 → 18곳), 분쟁조정사례집 발간(12월)</li> </ul> </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대차 신고제 시행(6월)을 통한 임대차 시장정보 확보*와 신고정보 시범 공개**(11월)로 임대차 시장투명성 강화 및 임차인 협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차 신고건수: (6월) 68,353건 → (8월) 119,418건 → (12월) 134,028건</li> <li>** 서울시 신고주택 정보(갱신요구권 사용여부, 계약기간 등) 시범공개(11.30)</li> </ul> </li> </ul> <p>■ 투기근절 및 부동산 부패 척결을 위한 대책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처벌 대상 확대 및 수위 강화(「내법」·「공공주택법특별법」 개정, 4월)</li> <li>부동산거래 조사·분석을 총괄하는 전담 정규조직 신설(4월) 및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등 조사결과 발표(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등기 거래 2,420건, 자전거래·허위신고 등 법령위반 69건 적발</li> </ul> </li> <li>주관적 보상평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익사업 보상액 산정의 기초 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토지보상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 및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고시) 제정(11월)</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서민 주거 안정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복지로드맵('17.11월)을 발표하고 공공임대주택 56.3만호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7.5만호 공급('18~'21년)</li> </ul> </li> <li>저소득층 및 고령자 등 주거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월)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 확대('17년 81만가구→'21년 127만가구) 및 지원금액 상향('17년 11.7만원→'21년 16.1만원)</li> <li>* 어르신 맞춤서비스를 갖춘 고령자복지주택 등 4.3만호 공급('18~'21년)</li> <li>* 지속적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노력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17년 이후 지속 감소('17년 5.9%→'20년 4.6%)</li> </ul> </li> <li>사회통합형 주택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20.7월) 및 임대차신고제 시행('21.6월)</li> </ul> </li> </ul> </div> |
| 개선·보완<br>필요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임대주택 양적 성과를 넘어서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맞춰 다양한 평형, 주거서비스 결합 등 질적 개선 노력 필요</li> <li>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수요와 실제 인지도 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주거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수급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월세 보조금 지원(34.2%)인 반면, 해당 가구의 29.4%만이 주거안정 월세대출 프로그램을 인지함('20년 주거실태조사)</li> </ul> </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혼부부 대상 <b>육아특화 맞춤형 임대주택</b> 및 <b>신혼희망타운</b> 공급, 청년의 학업·창업을 지원하는 <b>청년특화주택</b> 공급 등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노력</li> <li>■ 다만, 정책효과 제고를 위하여 신혼부부, 청년의 수요에 부합하는 <b>공적임대주택</b> 지속공급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신혼부부에 저렴한 임대·분양 주택공급으로 주거사다리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 교육 등 특화시설을 확충한 <b>신혼특화주택</b> 등 맞춤형 임대주택* 16만호('18~'21), <b>신혼희망타운**</b> 1.7만호 공급('21년, 사전청약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조성된 임대주택 3곳(2,026호) 최초 입주</li> <li>** '18년 선도지구로 입주자를 모집 한 2곳 최초 입주 개시(8월 평택, 9월 위례)</li> </ul> </li> <li>• 공공자가주택 도입(2.4대책 발표, 9월 법령 개정완료), 공공분양 청약기회 확대를 위한 소득요건 완화* 등을 통하여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혼희망타운) 도시근로자 130%(맞벌이 140%)으로 10%p 상향 (신혼 특별공급) 일부(30%) 물량은 월평균소득 100→130%(맞벌이 140%)까지 확대</li> </ul> </li> </ul> </li> <li>■ <b>신혼부부·청년 대상 금융지원 강화를 통해 주거부담 경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혼·청년 전용 주택 구입·전세 대출상품 운영*('21년, 14.8만건, 13.3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혼부부 전용) 4.5만건, 5.8조원 / (청년 전용) 10.3만건, 7.5조원</li> </ul> </li> <li>•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일반→신혼부부전용 대환)을 도입하고('21.9월), 중소기업청년 보증금대출 및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수혜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고졸취업자 지원을 위해 만19세 이상 → 만19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로 변경 (보증부월세) 소득기준 등 대출조건 완화, 월세 20만원까지 무이자대출 도입 등</li> </ul> </li> </ul> </li> <li>■ <b>학업·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공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료가 시세의 50% 이하의 매입·전세임대 확대, 일자리연계형, 기숙사형 등 청년의 학업·창업을 지원하는 <b>공적임대주택</b> 24.4만실('18~'21년) 공급</li> <li>• 국·공립대 기숙사 등을 신규 확충하여 약 6천명이 추가 입주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기숙사 수용인원 현황(누적): ('20년) 46,664명 → ('21년) 53,282명</li> </ul> </li> <li>• 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청약기능에 우대금리, 비과세 혜택을 추가제공*하는 <b>청년우대형 청약통장</b> 55.5만가구 혜택('18.7월~'2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청년/(우대금리) 최대 3.3%(연 6백만원까지 적용, 5천만원 한도) / (비과세) 연 6백만원까지의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5백만원 한도)</li> </ul> </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21년, 연평균 16.9만원), 청년월세('22년, 월 최대 20만원) 신규도입으로 청년들의 월세 부담 직접적으로 완화</li> <li>• 관계부처 합동 청년 기본·시행계획 마련(3월) 후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점에서 청년 전담 지원을 위한 청년정책과 설치(9월) 등 청년 정책 기반 마련</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복지로드맵('17.11월)」, 「신혼·청년 주거지원 방안('18.7월)」, 「로드맵 2.0('20.3월)」을 통해 맞춤형 공급 기반을 마련</li> <li>* 신혼부부 국민·행복 특화단지(국공립어린이집 등 육아·교육시설 설치 및 신혼 50~80% 우선공급) 등 공공임대주택을 16만호 공급('18~'21년)하여 신혼부부 주거수준 지속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혼부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8년 4.0% → '19년 3.9% → '20년 1.95%</li> <li>· (신혼부부 1인당 주거면적) '18년 23.5㎡ → '19년 24.6㎡ → '20년 26.9㎡</li> </ul> </li> <li>* 신혼부부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주택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을 연장(8년→10년)하여 장기적·안정적 주거환경 제공('17.12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2배 확대(15%→30%) 등</li> <li>· 공공임대 및 신혼희망타운의 신혼부부 자격요건에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으로 확대('20.9월), 분양가 6억원 이상의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20.9월) 등</li> </ul> </li> </ul> </li> <li>• 신혼부부 대상 금융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한도, 금리우대 혜택이 있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신설('18.1월)</li> <li>* 신혼가구 대상 확대('19.7월, 혼인기간 5년→7년 이내, '20.9월, 결혼 7년이내→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23.8만 가구에 27.1조원 지원('18~'21년)</li> </ul> </li> <li>•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일자리연계형·기숙사형·역세권형 등 공적임대주택을 24.4만실 공급('18~'21년)하여 청년층의 집 걱정을 줄이고 주거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8년 9.4% → '19년 9.0% → '20년 7.5%</li> <li>· (청년 1인당 주거면적) '18년 27.3㎡ → '19년 27.9㎡ → '20년 30.9㎡</li> </ul> </li> </ul> </li> </ul> </div> |
| <b>개선·보완<br/>필요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혼희망타운 미달 발생, 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적용에 대한 고지 부실 논란 관련 대응책 마련 필요</li> <li>•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최초로 독립 주거를 형성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강화 필요</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양육 친화적, 가족 다양성 포용하는 사회시스템으로 전환</li> <li>■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장기화에 적극 대응하여 중단없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양육 사회적 책임 강화 및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li> <li>■ 다만, 출산율 지속 감소 추세에 적극 대응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제공 우선원칙 하에 코로나19 선제검사, 돌봄시설 종사자 백신 우선 접종, 비대면 돌봄 프로그램 개발 등 선제적인 예방관리 강화</li> <li>• 돌봄시설 긴급돌봄 지원을 위한 신속한 대체인력 투입 및 선제적 규제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어린이집) 겸직하용, 보조(연장)·대체교사 추가 채용(약 1만명) △ (초등) 한시 인력 신속배치(4,580명)</li> <li>△ (마을돌봄) '22년 다함께돌봄센터 1일 4시간 연장운영 시범사업 추진(30개소, 182백만원)</li> </ul> </li> </ul> </li> <li>■ 돌봄·양육 부담 완화로 안정적인 육아환경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아수당* 및 첫만남이용권 도입**,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만7세→만8세) 등 영아기 집중투자를 위한 제도정비 및 예산확보('22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택적 가정양육수당을 보편적 영아수당으로 변경 '22년 30만원에서 '25년 5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li> <li>** 산발적인 지방 출산지원금을 보편적 수당으로 편입하여 바우처 200만원 일시 지급</li> </ul> </li> <li>•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여 공공보육이용률은 35.3%로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공공보육이용률) : ('17년) 373개(23.6%) → ('18년) 574개(26.0%) → ('19년) 654개(28.5%) → ('20년) 574개(32.1%) → ('21년) 515개(35.3%)</li> </ul> </li> <li>•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지역아동센터 내실화**로 초등돌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년까지 1,373개소 목표 : ('19년) 173개소 → ('20년) 424개소 → ('21년) 694개소</li> <li>** △지역아동센터 법인전환 시범사업('20.1월~'21.8월) △노후센터 리모델링 지원 등</li> </ul> </li> </ul> </li> <li>■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고 신혼부부 주거불안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임우울증상담센터 확충*,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및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센터 지원** 등 분만취약지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 4개소(중앙 및 인천·대구·전남) → ('20년) 5개소(+1, 경기도) → ('21년) 6개소(+1, 경북)</li> <li>** 분만취약지 산부인과(49개소),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19개소), 신생아 집중 치료지역센터(50개소), 중앙모자의료센터(1개소) 등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li> </ul> </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신혼특화주택 등 맞춤형 임대주택 16만호</b>(‘18~’21년), <b>신혼희망타운 1.7만호</b> 공급(‘21년 사전청약 포함), <b>신혼부부 주택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 4.5만건</b> 지원</li> </ul> <p>■ <b>아동학대 근절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지원 강화로 위기아동 보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 <b>아동학대 전담공무원 747명을 배치</b>하여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b>지자체에서 직접 수행</b>하고 <b>즉각분리제도 도입 및 인프라 확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대피해아동쉼터(‘20년 76개소 → ‘21년 105개소), 일시보호시설(‘20년 10개소 → ‘21년 17개소), 위기아동 보호가정(‘21.3월 신설, 200가정)</li> </ul> </li> <li>• 분리 후 치료를 위한 <b>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b>, 17개 시·도 거점 <b>아동 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 전문인력 배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 122개 시군구 285개소 지정(‘20.12월~’21.12월)</li> </ul> </li> <li>• 시군구별 「<b>사례결정위원회</b>」(‘21.6월 출범)를 통해 보호조치결정-양육상황점검-보호종결 및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b>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b></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수당 도입(‘18.9월) 이후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아동수당을 지급(‘19.9월)하는 등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li> <li>•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사 확충**,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도입 등 보육의 국가책임 강화 및 보육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보육 이용률이 24.9%(‘17.3월)에서 35.3%(‘21.3월)로 4년간 42% 상승</li> <li>* 국공립 어린이집 수 : (‘17년) 3,157개소 → (‘21년) 5,437개소(↑ 72%)</li> <li>** 보조·연장보육교사: (‘20년) 5.2만명 → (‘21년) 6.1만명 / 대체교사: (‘20년) 3,436명 → (‘21년) 4,136명</li> </ul> </li> <li>•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6개소), 난임치료·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17년), 14.7만호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18~’21년) 등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li> <li>•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19.5월), 「아동권리보장원」 출범(‘19.7월), ‘즉각분리제도’ 도입(‘21.3월), 시군구별 「사례결정위원회」 출범(‘21.6월) 등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li> <li>•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17~’19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및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19년) 등 부모 지원 확대</li> </ul> </div> |
| <b>개선·보완<br/>필요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합계출산율(‘21.3분기)은 역대 최저인 0.82명 기록, 저출산 정책 책임성 및 효용성 강화 필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계출산율 : (‘18년) 0.98명 → (‘19년) 0.92명 → (‘20년) 0.84명 → (‘21.1분기) 0.88명 → (‘21.2분기) 0.82명 → (‘21.3분기) 0.82명 / OECD 평균 1.61명(‘19년)</li> </ul> </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리과정 지원예산 등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li> <li>■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실질적 기회 제공</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 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을 지속 확충하여 학부모의 돌봄 접근성을 완화하였고,</li> <li>■ 국가장학금 확대로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완성하고 완전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함에 따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li> <li>■ 다만, 「온종일돌봄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어,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조정 및 신속한 법제정을 통해 온종일 돌봄체계 제도마련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유치원 지속 확충 및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로 유아 교육의 국가책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유치원 총 1,030학급 확충, '21년 목표치(500학급) 대비 2배 이상 달성하여 유치원 유아의 40%이상 입학 가능한 여건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2.6%의 학부모가 국공립 확충에 따른 국공립 입학 접근성 제고를 체감한다고 응답<br/>&lt;(기간) '21.7.20~7.24, (대상) 전국 국공립유치원 8,705개 원 중 840개 원(9.6%)의 학부모(4,413명 응답)·교원(1,031명 응답)&gt;</li> </ul> </li> <li>• '20년에 이어 '21년에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단가를 2만원 인상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년) 20만원 → ('13년~'19년) 22만원 → ('20년) 24만원 → ('21년) 26만원</li> </ul> </li> <li>• 사립 교직원의 합리적인 급여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수당에 관한 지침」을 제정('21.9)</li> <li>•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지속 운영('20~)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수렴(50건 개선)을 통한 사용자들의 수용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학부모 85% 이상이 '유치원 공공성·투명성이 개선되었다'고 응답<br/>&lt;(기간) '21.7.20~7.24, (대상) 전국 국공립유치원 8,705개 원 중 840개 원(9.6%)의 학부모(4,413명 응답)·교원(1,031명 응답)&gt;</li> </ul> </li> </ul> </li> <li>■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 마련으로 학교 내 돌봄 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21.8.4.)하여 돌봄시간 확대(17시→19시), 행정업무 추진조직 개선 등 학교 내 돌봄 질 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노조, 시도교육청,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의견수렴 및 대면회의('21.6.9~17.)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li> </ul> </li> <li>• 정부24의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를 통하여 돌봄서비스를 시간대별·돌봄사업별로 신청, 선정될 수 있도록 기능 개선('21.7)</li> </ul> </li> <li>■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하여 초·중·고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교 1·2·3학년 학생 124만명이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교 무상교육 지원 : ('19년) 44만명 → ('20년) 88만명 → ('21년) 124만명</li> </ul> </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b>초·고·중·고</b>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증액교부금 예산(9,431억 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상교육 예산 현황 : ('19.2학기) 3,856억원 → ('20년) 13,882억원 → ('21년) 19,855억원</li> </ul> </li> <li>■ <b>대학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완화를 통해 보편적 고등교육 기회 확대</b></li> <li>• '22년 <b>국가장학금 예산</b>을 '21년 대비 약 6,621억원 증액한 <b>4조 6,567억원</b>으로 대폭 확대, <b>실질적 반값 등록금</b>을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 ('21년) 3조 9,946억원 → ('22년) 4조 6,567억원(6,621억원 ↑)</li> </ul> </li> <li>•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21.6.8)으로 <b>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b> 대상을 <b>대학원생까지 확대</b>하고, <b>성적기준 폐지</b> 등 대출제도 전면 개선</li> <li>• <b>국정과제 조기 달성</b>('22년, 수용인원 5만명)을 통한 <b>대학기숙사 수용인원 확충</b>으로 대학생 주거부담 완화 및 주거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 22,718명 → ('18년) 29,166명 → ('19년) 36,612명 → ('20년) 46,664명 → ('21) 53,632명</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사립유치원에서 'K-에듀파인'을 도입·활용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유치원3법' 등 개정을 통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3법 :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li> </ul> </li> <li>• 초·중·고등학교 돌봄 확대, 학교돌봄터 운영 등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긴급 돌봄 운영을 통한 코로나19 시기 돌봄 공백 최소화</li> <li>• 고·중·고·대 무상교육 완성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초·중·고 교육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중·고 학생 124만명이 1인당 연간 160만원(총 1조9,855억원)의 학비 경감</li> </ul> </li> <li>• 대학 장학금 확대, 입학금 인하로 반값등록금 수혜대상을 확대하였고, 적극적인 대학 기숙사 확충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값등록금 수혜비율 : ('17년) 24.3% → ('18년) 30.6% → ('19년) 31.5% → ('20년) 32.1% → ('21년) 32.2%</li> </ul> </li> </ul> </div> |
| <b>개선·보완<br/>필요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온종일돌봄법</b>」 제정('20.6.10발의)이 <b>지연</b>되고 있어,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조정 및 신속한 법제정을 통해 <b>온종일 돌봄체계 제도마련 필요</b></li> <li>• <b>국공립 유치원 취원율(40% 목표) 제고</b>를 위해 방과 후 과정 확대 및 통학 버스 운영 등 <b>노력 필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 ('19년) 28.5 → ('20년) 29.8 → ('21년) 31.0</li> </ul> </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의 성장 지원</li> <li>■ 수업 혁신을 선도하는 혁신학교·자유학기제 확대, 대입전형 간소화 등을 통해 교실에서 시작되는 공교육 혁신 도모</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학습 결손 회복을 지원하였고,</li> <li>■ 고교학점제 도입추진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수립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의 전환 기반 마련</li> <li>■ 고교체제 개편에 따른 사회갈등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결손을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학생 개인의 학습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학력보장법」 제정('21.9)으로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학력보장법」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 수립, ② 기초학력 진단검사, ③ 학습지원대상자 선정, ④ 학습지원교육, ⑤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li> </ul> </li> </ul> </li> <li>• 기초학력 전담지원을 위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설치·운영('21.3~)</li> <li>•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①교실(1수업 2교사제 선도학교)-②학교(두드림학교)-③지역(학습종합클리닉)」을 연계하는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운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20년) 75교→('21년) 92교 ②('20년) 4,801교→('21년) 5,193개교 ③('20년) 130개소→('21년) 142개소</li> </ul> </li> <li>• 기초학력 보충지도·상담 등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튜터 (4,000명, 튜터 1인당 학생 4명) 배치</li> <li>•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21.7)하여 교육결손 회복 및 기초학력 제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학습 결손 회복을 위해 '22년까지 국고·특별교부금 약 8,000억 원 및 시도 교육청 지방비 집중 투입</li> </ul> </li> <li>• 교육회복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 단위 교육회복 지원('21.9~)</li> </ul> </li> <li>■ 고교체제 개편 및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로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지원금을 확대(3년간 10억원 → 2년간 15억원) 하고,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계획을 수립('21.12)하여 자발적 전환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지역 3개 자사고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21.5~8)하여 '22년부터 일반고로 전환 예정</li> </ul> </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b>(‘21.2)과 <b>‘22~’24년 단계적 이행계획</b>(‘21.8) 수립</li> <li>• <b>고교학점제 근거</b>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 완료(‘21.9)</li> <li>• ‘21년 전체 고교의 과반 이상(61.5%)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운영<br/>* (‘18년)105교 → (‘19년)354교 → (‘20년)732교 → (‘21년)1,457교(전체 고교의 61.5%)</li> <li>■ <b>학생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으로 자기주도적 진로 및 학업 설계 기반 마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b>「2022 개정 교육과정」 마련</b><br/>* ①고등학교 과목구조 개편 ②공동교육과정 운영 ③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 ④온오프라인 연계수업 활성화</li> <li>• ‘민주학교’를 확대 운영하여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br/>* (‘20년) 217교 → (‘21년) 278교 / 민주학교 운영 기간이 길수록 학생 참여 확대</li> </ul> </li> <li>■ <b>교원 양성체제 전환을 통한 미래사회에 적합한 교원양성 체제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 교원의 원격수업,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미래교육 역량 제고를 위해 모든 교대, 국립 사범대에 <b>미래교육센터 설치 완료</b>(~’21.11)<br/>* (‘20년) 교대 4개, 사범대 6개 설치 → (‘21년) 교대 12개, 사범대 16개 설치 완료</li> <li>•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21.5~)하고, <b>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b>* 마련(‘21.12.)<br/>* ①교육실습 학기제, ②다교과 역량 함량을 위한 ‘융합전공’, ③임용시험 경쟁률 적정화</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느 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교체제를 개편하였고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마련(‘21.9)</li> <li>• 「기초학력보장법」 제정(‘21.9)으로 국가·시도교육청·학교의 기초학력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였고, 1수업 2교사제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18. 신규 42교 → ‘21. 92교)</li> <li>• 교원양성체제 혁신, 교장공모제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18.3), 교원 행정업무 부담 경감 등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li> <li>• 혁신교육 문화 확산, 수업·평가 방식 개선,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운영, 진로탐색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공교육 혁신 도모</li> </ul> </div> |
| <b>개선·보완<br/>필요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고교체제 개편에 따른 사회갈등 최소화</b>를 위해 적극 대응 필요<br/>* ①자사고(10개교), 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 1심 교육청 패소<br/>②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 청구(‘20.5.)</li> <li>• <b>고교학점제 도입 안착</b>을 위한 <b>철저한 사전준비</b> 필요<br/>*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생·학부모 혼란, 교원 개개인이 맡아야 할 과목 증가와 미이수 지도 도입으로 교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제기</li> </ul>                                                                                                                                                                                                                                                                                                                                                                                                                                                                                                                                                                                                                                                                                                                                                                                                                                                                                                                                                                                                                                                                                                                                                                                                                                                               |

|                |                                                                                                                                                                                                                                                                                                                                                                                                                                                                                                                                                                                                                                                                                                                                                                                                                                                                                                                                                                                                                                                                                                                                                                                                                                                                                                                                                                                                                           |                    |                    |                    |                    |         |         |                |                    |                    |                    |                    |                    |
|----------------|---------------------------------------------------------------------------------------------------------------------------------------------------------------------------------------------------------------------------------------------------------------------------------------------------------------------------------------------------------------------------------------------------------------------------------------------------------------------------------------------------------------------------------------------------------------------------------------------------------------------------------------------------------------------------------------------------------------------------------------------------------------------------------------------------------------------------------------------------------------------------------------------------------------------------------------------------------------------------------------------------------------------------------------------------------------------------------------------------------------------------------------------------------------------------------------------------------------------------------------------------------------------------------------------------------------------------------------------------------------------------------------------------------------------------|--------------------|--------------------|--------------------|--------------------|---------|---------|----------------|--------------------|--------------------|--------------------|--------------------|--------------------|
| 과제목표           | <div>■ 사회적 배려 대상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div> <div>■ 학력·학별 차별 관행 철폐 및 고졸 취업 지원 확대</div>                                                                                                                                                                                                                                                                                                                                                                                                                                                                                                                                                                                                                                                                                                                                                                                                                                                                                                                                                                                                                                                                                                                                                                                                                                                                                                                                   |                    |                    |                    |                    |         |         |                |                    |                    |                    |                    |                    |
| 총평             | <div>■ 「고등교육법」과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고등교육의 문턱을 낮췄고,</div> <div>■ 장애인,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등에 지속적 교육지원으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div> <div>■ 다만, 직업계고 졸업생의 미취업 인원이 적지 않음에 따라 고졸 취업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div>                                                                                                                                                                                                                                                                                                                                                                                                                                                                                                                                                                                                                                                                                                                                                                                                                                                                                                                                                                                                                                                                                                                                                                                                         |                    |                    |                    |                    |         |         |                |                    |                    |                    |                    |                    |
| '21년도<br>주요성과  | <div>■ 고등교육 관련 제도개선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학입학 지원 강화</div> <div><div>• 「고등교육법」 개정('21.8)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 선발하도록 '사회통합전형' 법제화, 선발규모 확충</div><div>&lt;'19~'23학년도 고른기회특별전형 모집인원 현황&gt;</div><table><tr><td>구분</td><td>2019학년도</td><td>2020학년도</td><td>2021학년도</td><td>2022학년도</td><td>2023학년도</td></tr><tr><td>합계<br/>(정원외 포함)</td><td>43,371명<br/>(12.4%)</td><td>46,327명<br/>(13.3%)</td><td>47,606명<br/>(13.7%)</td><td>53,546명<br/>(15.5%)</td><td>55,279명<br/>(15.8%)</td></tr></table></div> <div><div>• 「지방대육성법」 개정('21.2)으로 의·약·간호계열 학과 및 전문대학원이 지역 고교·지역대학 졸업자와 지역 저소득층을 일정비율 선발토록 의무화</div><div>* (의·약계열) 40% / (간호계열) 30% / (의전원) 20% / (법전원) 15%</div></div> <div><div>•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을 지속 추진('21년 241.3억원)하고 성인 학습자 전담과정(전공, 정원 등) 규모를 꾸준히 확대</div><div>* ('20년) 30교 108개 전공, 3,738명 정원 → ('21년) 30교 113개 전공, 3,911명 정원</div></div> <div>■ 고졸 취업자 지원확대로 공공·민간 양질의 고졸 일자리 창출</div> <div><div>• 「지방공무원법」을 개정('21.5)하여 기술직렬에 한정하던 지방직 9급 고졸 채용 대상을 행정직까지 확대</div><div>• 국가직·지방직 9급 공무원 선발 인원을 전년 대비 118명 증가</div><div>* 국가직('20년 244명 → '21년 316명), 지방직('20년 333명 → '21년 379명) 채용인원 확대</div><div>•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고졸채용 실적을 정량평가로 반영('21.3)</div><div>• '직업계고 취업지원 정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발표('21.7)하여 취업 활성화 도모</div><div>* ① 자격 취득비용 지원(2.4만명, 인당 50만원), 미취업 졸업생 교내실습 보조강사 채용(580명)</div><div>② 고졸자 주 취업 연령대(만18~23세) 채용 시 25%를 지원(1인당 900만원, 9만명)</div><div>③ '고졸 전용 취업 지원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여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현</div></div> | 구분                 | 2019학년도            | 2020학년도            | 2021학년도            | 2022학년도 | 2023학년도 | 합계<br>(정원외 포함) | 43,371명<br>(12.4%) | 46,327명<br>(13.3%) | 47,606명<br>(13.7%) | 53,546명<br>(15.5%) | 55,279명<br>(15.8%) |
| 구분             | 2019학년도                                                                                                                                                                                                                                                                                                                                                                                                                                                                                                                                                                                                                                                                                                                                                                                                                                                                                                                                                                                                                                                                                                                                                                                                                                                                                                                                                                                                                   | 2020학년도            | 2021학년도            | 2022학년도            | 2023학년도            |         |         |                |                    |                    |                    |                    |                    |
| 합계<br>(정원외 포함) | 43,371명<br>(12.4%)                                                                                                                                                                                                                                                                                                                                                                                                                                                                                                                                                                                                                                                                                                                                                                                                                                                                                                                                                                                                                                                                                                                                                                                                                                                                                                                                                                                                        | 46,327명<br>(13.3%) | 47,606명<br>(13.7%) | 53,546명<br>(15.5%) | 55,279명<br>(15.8%) |         |         |                |                    |                    |                    |                    |                    |

|                              |                                                                                                                                                                                                                                                                                                                                                                                                                                                                                                                                                                                                                                                                                                                                                                                                                                                                                                                                                                                                                                                                                                                                                                                                                                                                                                                                                                                                                                                                                                                                                                                                                                                                                                                                                                                                                                                                |
|------------------------------|----------------------------------------------------------------------------------------------------------------------------------------------------------------------------------------------------------------------------------------------------------------------------------------------------------------------------------------------------------------------------------------------------------------------------------------------------------------------------------------------------------------------------------------------------------------------------------------------------------------------------------------------------------------------------------------------------------------------------------------------------------------------------------------------------------------------------------------------------------------------------------------------------------------------------------------------------------------------------------------------------------------------------------------------------------------------------------------------------------------------------------------------------------------------------------------------------------------------------------------------------------------------------------------------------------------------------------------------------------------------------------------------------------------------------------------------------------------------------------------------------------------------------------------------------------------------------------------------------------------------------------------------------------------------------------------------------------------------------------------------------------------------------------------------------------------------------------------------------------------|
|                              | <p>■ 지속적인 사회취약계층 교육지원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수학교 신설 및 특수학급 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비율 감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밀학급 비율 : ('20년) 11.7% → ('21년) 10.7% / 정원확보율 : ('20년) 79.3% → ('21년) 82.4%</li> </ul> </li> <li>지역 중심의 장애인 역량 계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15개를 추가 선정·운영('21.3.~ / 총 20개)</li> <li>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학급 확대 운영 목표를 상회하여 달성(목표 385학급, 실제 408학급 운영)</li> <li>긴급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탈북학생 대상 '돌봄지원팀' 구성·운영('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유관기관·의료기관·탈북민 네트워크 등의 전문가로 구성(4~7명), 문제해결을 위한 심층적인 협의 및 맞춤형 지원, 사후 관리</li> </ul> </li> <li>학업중단 예방 노력을 지속한 결과 '20학년도('20.3~'21.2) 학업중단 학생 수 감소 및 학업중단 숙려제 복귀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중단 학생 : ('19학년도) 52,261명 → ('20학년도) 32,027명</li> <li>학업중단 숙려제 복귀율 : ('19학년도) 76.6% → ('20학년도) 83.5%</li> </ul> </li> </ul> <p>■ 입시 및 채용에서의 블라인드 평가 확대로 학력·학벌 관행 철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시 블라인드 평가를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사업 미참여 대학에는 블라인드 처리 시스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블라인드 체커' 개발 및 희망대학에 활용지원 : ('20년) 43개교 → ('21년) 47개교</li> </ul> </li> <li>모든 공공기관(338개) 및 지방공기업(151개)에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도입하고 민간기업 확산 분위기 조성</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취약계층의 대입 기회 확대를 위해 고른기회특별전형 규모 확충('18학년도 11.4% → '23학년도 15.8%)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특별전형 선발비율 확대(5% → 7%)</li> <li>특수학급을 신·증설하여 과밀학급 비율감소('18년 14% → '21년 10.7%) 및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 제고('18년 71.9% → '21년 82.4%)</li> <li>고졸 취업 확대를 위하여 직업계고 졸업자 9급 공무원 채용('18~'21년 총 2,195명)을 확대하고 공공기관(고졸채용 목표제 도입)·민간기업의 고졸채용 유도</li> <li>'22학년도 대입 개편방안('18.8) 및 대입공정성 강화방안('19.11)을 추진하여 고교정보 블라인드를 실시('20~)함에 따라 대입 공정성 제고</li> </ul> </div> |
| <p><b>개선·보완<br/>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계고 취업률이 향상('20년 50.7% → '21년 55.4%)되었으나, 미취업 인원이 18,211명(23.1%)으로 나타남에 따라 고졸 취업 지속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점국립대·지역강소대학 집중 육성 등 대학의 공공성·경쟁력 강화</li> <li>■ 국가 직업교육 책임 강화 및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21개, 11조 2,124억원)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율적 혁신을 유도하여 공공성 제고</li> <li>■ 또한, 직업계고 학점제, 마이스터대 등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평생학습과 직업교육의 질 향상</li> <li>■ 다만, 사립 전문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영형 전문대 육성 사업 예산이 미확보되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지자체 연계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학혁신을 주도하는 대학지원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학·지역혁신기관 등이 연계·협력하여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지역별 인재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혁신플랫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 1,080억원, 3개 플랫폼 → ('21년) 1,710억원, 4개 플랫폼 → ('22년) 2,440억원, 6개 플랫폼</li> </ul> </li> <li>• '21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21.3)을 통해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 역량 강화 지원 ('21년, 1,500억원 38개 국립대 지원)</li> <li>• 공공성·회계 투명성 등이 강화된 사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학혁신 지원사업」 신규추진('21년 53억원, 5개 사학재단)</li> </ul> </li> <li>■ 자율혁신 촉진 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대학의 '21년 QS(세계대학랭킹) 평가 결과 300위권 대학 수가 증가하였으며 전반적 순위도 상승(평균 12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려대 : ('19년) 83위 → ('21년) 77위, 포항공대 : ('19년) 86위 → ('21년) 69위</li> <li>연세대 : ('19년) 107위 → ('21년) 85위, 성균관대 : ('19년) 100위 → ('21년) 88위</li> </ul> </li> <li>• 「고등교육법」 개정('21.9)을 통해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업 체계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수립, ②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신설·변경에 대한 교육부 협의·조정 권한, ③고등교육재정위원회 운영</li> </ul> </li> </ul> </li> <li>■ 직업계고 학점제 실시 및 전문대학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통한 직업교육 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계고 학점제 추진계획'을 발표('21.3)하고, 전체 직업계고(518교)를 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 마이스터고 1학년 → ('22년) 특성화고 1학년 → ('24년) 직업계고 전 학년</li> </ul> </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별 전략·특화 산업의 인재양성을 위해 '시도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이 협력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신설('21.3, 5개 지구)</li> <li>'<b>학습중심 현장실습</b>'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무사가 점검하여 안전성·실습 여건 등이 확인된 '<b>선도기업</b>'을 <b>지속 발굴</b>('21년 24,170개)</li> <li>안전한 현장실습 정착을 위한 학교·산업체 대상 현장실습 지도·점검 실시(10~11월) 및 '<b>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b>' 마련(12.23.)</li> <li>「고등교육법」을 개정('21.3)하여 <b>전문대학이 전문기술석사과정을</b>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직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b>마이스터대 시범운영</b>('21.5~ 5개교)</li> </ul> <p>■ <b>새로운 콘텐츠 제공 및 플랫폼 구축으로 전국민 평생학습 확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MOOC에 전 국민 대상 <b>해외 석학 마스터 클래스</b> 신설(200여 개)<br/>* 수강신청 : ('20년) 52만1천건 → ('21년) 56만7천건 / 만족도 : ('20년) 85.4 → ('21년) 87.4</li> <li>비대면 형태의 평생학습·훈련 콘텐츠를 종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신규 플랫폼인 '<b>온국민평생배움터</b>' 구축 추진<br/>* ('21년) ISP 수립 → ('22~'23년) 플랫폼 구축 → ('24년~) 온국민평생배움터 서비스 시작</li> <li><b>평생교육 지원대상 확대</b>(저소득층 → 전 국민)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21.6) 및 학습비 지원 확대('20년 35만원 → '21년 최대 70만원)</li> </ul> <p>■ <b>산학연계 여건 조성 및 교육 확산을 통해 산학협력 활성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확대('20년 195개 → '21년 271개)</li> <li>창업지원시설, 주거 및 문화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한 '<b>캠퍼스 혁신 파크</b>' 조성 확산('20년 3개교 → '21년 5개교)</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연계하여 거점 국립대를 집중육성(지역혁신 플랫폼 사업)하고 사학혁신을 주도하는 대학을 지원하여 공영형 사립대 육성</li> <li>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특수목적 재정지원 → 일반 재정지원)하고 순수 기초연구 예산 확대('17년 3,875억원 → '21년 5,577억원)</li> <li>'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18.7)'을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확대('17년 1,842억원 → '21년 2,911억원)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li> <li>대학·공공기관·지자체가 연계된 산학협력 클러스터(도시첨단산업단지,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하고 사회맞춤형 학과(LINC+)·계약학과 확대로 현장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li> </ul> </div> |
| <b>개선·보완<br/>필요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영형 전문대 육성을 위한 예산(총 92억원)이 미확보(기재부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부적격)됨에 따라 비 재정사업을 통한 <b>공영형 전문대 육성방안 마련 필요</b></li> <li>직업계고 현장실습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b>개선방안 이행 및 점검에 지속적 노력 필요</b><br/>* ('17.11월) 제주 생수공장 실습생 사망, ('21.10월) 여수 요트장 실습생 사망</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조기 발견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li> <li>■ 국제교류, 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참여 활성화</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진입 비율이 제고되고, 위기청소년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여 사각지대 해소</li> <li>■ 다만,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치유서비스 확대 운영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학력취득 및 사회진입 성과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20년 38.5% → '21년 41.4%)이 목표치(38.7%) 초과 달성, 특히 전년대비 검정고시 합격, 대학진학 등 학력취득 성과 크게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정고시 합격인원('20년 10,858명 → '21년 11,366명), 대학진학 인원('20년 1,506명 → '21년 2,166명)</li> </ul> </li> <li>• 「학교밖청소년법」개정('21.9)으로 의무교육단계(초·중) <b>학업중단 청소년</b>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도 <b>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b>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각지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전 동의 절차를 사후 동의도 가능토록 변경하여 지원센터로 연계</li> </ul> </li> </ul> </li> <li>■ 위기청소년 지원 공공인프라·서비스 확대를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청소년 복지 향상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21.9)으로 지자체 <b>청소년안전망팀 확충</b>('20년 9개소 → '21년 14개소) 및 설치 근거 마련</li> <li>•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위기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b>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b>」 대책 발표(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② 자살·자해 예방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확대, ③ 가정 밖 청소년 경제·주거 등 지원 강화, ④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진로 지원 강화</li> </ul> </li> <li>• 청소년안전망 서비스 지원 전·후 위기변화도 및 청소년동반자 이용 청소년의 도움수혜 정도가 지속 상승하여 위기 수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안전망 서비스효과성 : ('16) 20.1% → ('18) 20.5% → ('21) 21.0%</li> <li>청소년동반자 도움정도 : ('16) 90.2점 → ('18) 90.4점 → ('21) 90.7점</li> </ul> </li> </ul> </li> <li>■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전·후 맞춤형 자립지원을 통한 가정 밖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수당 신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건설임대주택까지 확대하는 등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여건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립지원수당 : 쉼터 입소 기간이 2년인 청소년에게 매월 30만원, 최대 36개월 지원</li> </ul> </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립지원 모바일 앱 개발('21.12)로 가정 밖 청소년 One-stop 자립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 직업, 자기보호, 자기계발, 일상생활관리 등 9개 영역에 대한 지원서비스 정보제공</li> </ul> </li> <li>■ <b>청소년 보호 기반 강화로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랜덤채팅앱에 대한 대응 및 온라인상 청소년 유해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b>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노출 차단 노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운영('21.6월 ~, 200명)을 통해 유해콘텐츠 49만여건 적발 및 사업자 자율규제 등 요청(조치완료 12만 건)</li> </ul> </li> <li>•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위험정도별 상담·검사·치료 지원 및 기숙형 치유캠프 운영으로 <b>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집단상담 42,761명, 치료 783명, 부모교육 7,055명 실시</li> </ul> </li> <li>• 근로현장 도우미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b>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근로현장 도우미 상담 : ('19년) 50,009건 → ('20년) 71,004건 → ('21년) 107,908건</li> </ul> </li> </ul> </li> </ul> <div data-bbox="344 936 1417 1541"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사회적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확대('17년 202개소 → '21년 220개소), 건강검진 확진검사('18년) 및 무상급식 도입('20년), 청소년 생활기록부 도입('20년)</li> </ul> </li> <li>•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체계 공공성('21년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14개 설치)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확대하여 서비스 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상담복지센터('17년 224개소 → '21년 238개소), 1:1 방문상담 청소년동반자('17년 1,146명 → '21년 1,354명), 청소년쉼터('17년 123개소 → '21년 134개소)</li> </ul> </li> <li>•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확충 등 사회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치유서비스 지원율 : ('17년) 21.2% → ('21년) 22.1%</li> </ul> </li> </ul> </div> |
| <b>개선·보완<br/>필요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저연령화와 디지털 미디어 이용환경의 변화에 따른 과의존 증가 대응을 위해 치유서비스 확대 필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치유서비스 지원율 : 22.1% (50,599명/228,891명)</li> </ul> </li> <li>•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과 교육부의 관련 정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b>여성가족부-교육부 간 협업 강화 필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18년 조사결과)를 보면 학업중단 사유가 가장 높은 것이 '학교다니는게 의미 없어서'(39.4%)로 나타남</li> </ul> </li> </ul>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li><li>■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수-학습활동 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li></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및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지속적 교사 확충으로 OECD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li><li>■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 교육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 검토 필요</li></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으로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추진계획 수립·발표 ('21.2)<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업대상) 40년 경과 학교 중 2,835동 우선 투자 ('21~'25)<br/>(총사업비) 18.5조원 [(국비)5.5조원(30%) + (지방비)13.0조원(70%)]<br/>(주요내용) 노후학교를 디지털+그린 융합형 뉴딜 방식으로 개축·리모델링</li></ul></li><li>• '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484개교 선정하여 사전기획 및 사용자 참여설계 추진</li></ul></li><li>■ 지속적 수업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학교 구현<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교부금 규모 확대<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7년) 2조 1,500억원 → ('19년) 3조 5,300억원 → ('21년) 3조 → ('22년) 4조 9,000억원</li></ul></li></ul></li></ul>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계획</th><th colspan="6">실적</th><th rowspan="2">해소율<br/>개선율</th></tr><tr><th>'17</th><th>'18</th><th>'19</th><th>'20</th><th>'21</th><th>합계</th></tr><tr><td>석면제거 (천㎡)</td><td>20,308</td><td>5,674</td><td>4,667</td><td>2,829</td><td>3,532</td><td>2,171</td><td>18,873</td><td>92.9</td></tr><tr><td>내진보강 (동)</td><td>11,309</td><td>862</td><td>2,848</td><td>3,777</td><td>2,657</td><td>1,141</td><td>11,285</td><td>99.8</td></tr><tr><td>화장실 개선 (만㎡)</td><td>64.9</td><td>0</td><td>13.8</td><td>20.8</td><td>13.6</td><td>12.7</td><td>60.9</td><td>93.8</td></tr><tr><td>냉난방기교체 (만실)</td><td>18.5</td><td>0</td><td>4.0</td><td>4.9</td><td>4.3</td><td>3.3</td><td>16.5</td><td>89.2</td></tr><tr><td>LED전등교체 (천실)</td><td>338</td><td>0</td><td>74</td><td>133</td><td>67</td><td>88</td><td>363</td><td>107.1</td></tr></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능정보(SW·AI) 및 융합 교육 강화를 통해 미래사회 대비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ul style="list-style-type: none"><li>• AI 과목을 신설하고, AI 선도학교 및 AI 중심고를 확대하여 학교장이 인공 지능 과목을 개설하는 등 우수사례 확산<ul style="list-style-type: none"><li>* AI 선도학교 : ('20년) 247교 → ('21년) 566교 / AI 중심고 : ('20년) 34교 → ('21년) 51교</li></ul></li><li>•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 선도학교(300교) 및 교사연구회(250팀)를 운영하여 학교 교육과정 내 우수 모델 개발·확산</li><li>• AI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한 AI교육 핵심 교원 1만명 양성('20, 7,663명 → '21, 1만명)</li></ul></li></ul> | 구분    | 계획    | 실적    |       |       |        |       |  | 해소율<br>개선율 | '17        | '18 | '19 | '20 | '21 | 합계 | 석면제거 (천㎡) | 20,308 | 5,674 | 4,667 | 2,829 | 3,532 | 2,171 | 18,873 | 92.9 | 내진보강 (동) | 11,309 | 862 | 2,848 | 3,777 | 2,657 | 1,141 | 11,285 | 99.8 | 화장실 개선 (만㎡) | 64.9 | 0 | 13.8 | 20.8 | 13.6 | 12.7 | 60.9 | 93.8 | 냉난방기교체 (만실) | 18.5 | 0 | 4.0 | 4.9 | 4.3 | 3.3 | 16.5 | 89.2 | LED전등교체 (천실) | 338 | 0 | 74 | 133 | 67 | 88 | 363 | 107.1 |
| 구분            | 계획                                                                                                                                                                                                                                                                                                                                                                                                                                                                                                                                                                                                                                                                                                                                                                                                                                                                                                                                                                                                                                                                                                                                                                                                                                                                                                                                                                                                                                                                                                                                                                                                                                                                                                                                                                                                                                                                                                                                                                                                                                                                                                                                        |       |       | 실적    |       |       |        |       |  |            | 해소율<br>개선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 '18   | '19   | '20   | '21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석면제거 (천㎡)     | 20,308                                                                                                                                                                                                                                                                                                                                                                                                                                                                                                                                                                                                                                                                                                                                                                                                                                                                                                                                                                                                                                                                                                                                                                                                                                                                                                                                                                                                                                                                                                                                                                                                                                                                                                                                                                                                                                                                                                                                                                                                                                                                                                                                    | 5,674 | 4,667 | 2,829 | 3,532 | 2,171 | 18,873 | 9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진보강 (동)      | 11,309                                                                                                                                                                                                                                                                                                                                                                                                                                                                                                                                                                                                                                                                                                                                                                                                                                                                                                                                                                                                                                                                                                                                                                                                                                                                                                                                                                                                                                                                                                                                                                                                                                                                                                                                                                                                                                                                                                                                                                                                                                                                                                                                    | 862   | 2,848 | 3,777 | 2,657 | 1,141 | 11,285 | 99.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장실 개선 (만㎡)   | 64.9                                                                                                                                                                                                                                                                                                                                                                                                                                                                                                                                                                                                                                                                                                                                                                                                                                                                                                                                                                                                                                                                                                                                                                                                                                                                                                                                                                                                                                                                                                                                                                                                                                                                                                                                                                                                                                                                                                                                                                                                                                                                                                                                      | 0     | 13.8  | 20.8  | 13.6  | 12.7  | 60.9   | 93.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냉난방기교체 (만실)   | 18.5                                                                                                                                                                                                                                                                                                                                                                                                                                                                                                                                                                                                                                                                                                                                                                                                                                                                                                                                                                                                                                                                                                                                                                                                                                                                                                                                                                                                                                                                                                                                                                                                                                                                                                                                                                                                                                                                                                                                                                                                                                                                                                                                      | 0     | 4.0   | 4.9   | 4.3   | 3.3   | 16.5   | 89.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ED전등교체 (천실)  | 338                                                                                                                                                                                                                                                                                                                                                                                                                                                                                                                                                                                                                                                                                                                                                                                                                                                                                                                                                                                                                                                                                                                                                                                                                                                                                                                                                                                                                                                                                                                                                                                                                                                                                                                                                                                                                                                                                                                                                                                                                                                                                                                                       | 0     | 74    | 133   | 67    | 88    | 363    | 107.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b>지속적 교사 확충을 통한 OECD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 및 새로운 교육정책</b>(고교학점제, 기초학력향상 등) <b>추진 인력보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교학점제, 기초학력향상 등 <b>새로운 교육정책에 따른 수요</b>를 고려하여 '22년 교과 <b>교원 정원 확보</b>(과밀해소 1,254명, 고교학점제 452명, 기초학력향상 550명)</li> <li>초등 교사 1인당 학생 수 지표가 <b>지속적으로 향상</b> 되었으며, <b>중등교사는 OECD 보다 개선된 수준 유지</b></li> </ul> <p>* (초등)'20년 16.3명→'21년 16.1명('19년 OECD 14.6명)/(중등)'20년 12.0명→'21년 12.1명('19년 OECD 13.1명)</p> <p>■ <b>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마련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을 제정('21.9)하여 질 높은 원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li> </ul> <p>* 주요내용 : ①원격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br/>②원격교육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역할 정립<br/>③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용 콘텐츠 공동 활용을 위해 'K-에듀 통합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 수립('21.6) 및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수립('21.7)</li> <li>탄력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21학년도 원격수업운영 기준' 마련('21.1)</li> <li>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기가급 무선망 공급('20년 7.9만실 → '21년 31.2만실) 및 39개 국립대학의 클라우드 전환을 확대하고 고속 전산망 구축</li> </ul> <p>* 클라우드전환 : ('20년)71개 → ('21년)100개 / 고속 전산망 노후화율 : ('20년)24.3% → ('21년)22%</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중등 SW교육을 내실화하고 선도 핵심교원 육성('21년까지 10,388명), STEAM 연구·선도학교(300교)와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40교) 운영 확대</li> <li>중장기 교원 수급 관리, 유아·특수·보건·영양 등 교사 충원을 통한 선진국 수준(교사 1인당 학생수 OECD 수준 도달)의 교육환경 조성</li> <li>국가차원의 학교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낡은 학교(노후시설 개선도 '18년 33.8% → '21년 96.6%)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으로 조성</li> <li>노후 학교시설 개축·리모델링을 통해 교수학습 혁신과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구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 추진('21~'25년까지, 2,835동)</li> </ul> </div> |
| <p><b>개선·보완<br/>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 <b>교육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b>할 수 있도록 <b>중장기 계획 검토</b> 필요</li> <li>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생의 공사 중 안전 및 학습권 보장 등에 대해 사전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업추진 필요</li> </ul> <p>* 일부 교육청에서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과의 소통 부족으로 갈등 발생</p>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사고, 승강기 사고, 지진, 화재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생명 보호 강화 추진</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가안전대진단 등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교통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국민생명 보호</li> <li>■ 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안전 위협요소를 발굴·제거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안전 개선활동 및 범정부 안전점검 활동으로 안전복지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신문고 활성화 및 테마별 집중신고 등을 통한 생활안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안전신고 494만여건(일평균 13,537건)으로 397만여건(80.4%) 개선조치(~12월), 코로나19 신고 개통('20.7월) 이후 28만여 건 신고, 과태료·고발 등 21만여 건 행정조치(~'21.12월)</li> </ul> </li> <li>•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정부합동 안전점검 및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명절 고속도로 휴게소(1월), 숙박시설·기숙학원(3월), 지역축제·문화재 시설(4~6월) 등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안전점검 실시, '21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8월~11월, 노후·고위험 시설 23천여 개소)</li> </ul> </li> </ul> </li> <li>■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자 안전 최우선으로 '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수립(3월) 및 연중 교통안전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발생·사상자 지속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도심부 속도 하향, 보행안전 기본계획 수립,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 등 / 교통사고 잦은 곳(375개소), 어린이·노인 보호구역(863개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39개소) 등</li> </ul> </li> <li>• 전국 도시부 도로에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4월), 100일 이후 추진 효과 분석 결과, 제도 적용 지역 내 사망자수 대폭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사고 사망자 수 : ('20년)317명 → ('21년)277명, 12.6% 감소</li> <li>보행자 사망자 수 : ('20년)167명 → ('21년)139명, 16.7% 감소</li> </ul> </li> </ul> </li> <li>■ 국민안전 위협요소에 대한 사전 점검 활동을 적극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적인 사고예방 활동으로 승강기 설치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인명 피해율은 감소 추세(승강기 1만대 당 인명피해율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5~6월), 집중호우·태풍 피해 승강기 특별점검(9월), 승강기 안전 이용 공익광고(6·9월, KBS 1·2TV) 등 추진</li> </ul> </li> <li>• 산재의 과반을 차지하는 건설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업 특성에 맞게 안전 제도를 규정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안 발의('21.6월, 김교흥의원), 국토위 공청회 실시(9월), 법안심사 중</li> </ul> </li> </ul> </li> <li>■ 지진 관련 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진 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최소 지진관측소 자료 활용(8개소→4개소), 다중분석기법 도입 등으로 지진조기경보 통보시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진 관측 후 조기경보 발표시간 : ('17년)15~25초 → ('18년)7~25초 → ('21년)5~10초</li> </ul> </li> <li>• '20년 기존 공공시설물 33종 193,075개소 중 135,623개소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여 전체 내진율 70.2% 달성(전년도 실적 67.2%)</li> </ul> </li> </ul> |

|                          |                                                                                                                                                                                                                                                                                                                                                                                                                                                                                                                                                                                                                                                                                                                                                                                                                                                                                                                                                                                                                                                                                                                                                                                                                                                                                                                                                                                                                                                                                                                                                                                                                                                                                                                                                                                                                                                                                                                                                                                                                                                                                                                                                                                                                                                                                                                                                                                                                                                                                                                                                                                                                                                            |
|--------------------------|------------------------------------------------------------------------------------------------------------------------------------------------------------------------------------------------------------------------------------------------------------------------------------------------------------------------------------------------------------------------------------------------------------------------------------------------------------------------------------------------------------------------------------------------------------------------------------------------------------------------------------------------------------------------------------------------------------------------------------------------------------------------------------------------------------------------------------------------------------------------------------------------------------------------------------------------------------------------------------------------------------------------------------------------------------------------------------------------------------------------------------------------------------------------------------------------------------------------------------------------------------------------------------------------------------------------------------------------------------------------------------------------------------------------------------------------------------------------------------------------------------------------------------------------------------------------------------------------------------------------------------------------------------------------------------------------------------------------------------------------------------------------------------------------------------------------------------------------------------------------------------------------------------------------------------------------------------------------------------------------------------------------------------------------------------------------------------------------------------------------------------------------------------------------------------------------------------------------------------------------------------------------------------------------------------------------------------------------------------------------------------------------------------------------------------------------------------------------------------------------------------------------------------------------------------------------------------------------------------------------------------------------------------|
|                          | <p>■ <b>선제적 화재 예방 및 대형화재 대비·대응 체계 마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총 133만 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시·도 예산과 복권기금 활용('20년 132억→'21년 188억) 및 대국민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년)80% / 107만 가구 → ('20년)88% / 118만 가구 → ('21년)90% / 120만 가구</li> </ul> </li> <li>• 국가 긴급구조훈련을 통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중심의 통합지휘체계 확립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협업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규정' 개정(5월), 국가 긴급구조훈련 통합회의(9월)</li> </ul> </li> </ul> <p>■ <b>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 제공 추진으로 국민생명 보호에 기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기상서비스 개선으로 효율적 방재대응 및 국민안전 사고 예방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항안전 지원을 위한 웹기반 전국 공항 낙뢰 알람 정보 제공(2월) △항공운항지원 기상서비스(<a href="https://global.amo.go.kr">https://global.amo.go.kr</a>) △공항 반경 5km, 8km, 16km내 낙뢰 발생 정보(팝업) 및 알람 서비스 제공 △날씨 알리미 앱 기상정보 알림서비스 확대 시행(5월) : (기존)특보, 지진, 폭우 등 위험기상 → (확대)폭염·한파 영향예보, 자외선지수 등</li> </ul> </li> <li>• 공공기관-민간기업 협력형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를 통한 기상기후 빅데이터 활용으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창업 발굴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 산사태 예측기술 개발·개선, (민간기업) 날씨에 따른 소비패턴 분석 등</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약자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 및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16.10월), 장애인('17.9월), 외국인·다문화가족('17.12월), 어린이('18.5월)</li> <li>** 안전취약계층 지원근거 마련, 노인보호구역 지정확대, 장애인 유형별 재난대응 안내서 제작 등</li> </ul> </li> <li>• 「어린이안전법」 시행('20.11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제도 조기 정착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안전교육 의무화 홍보 및 지원사업 실시, 교육 전문기관 신규지정(100여개소) 등</li> </ul> </li> <li>• 불법주정차 및 코로나19 안전신고 등 국민의 안전신고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200만건 → ('19년)358만건 → ('20년)429만건 → ('21년)494만건</li> </ul> </li> <li>• 범정부 합동 교통안전종합대책 추진 등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수* 지속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4,185명 → ('18년)3,781명 → ('19년)3,349명 → ('20년)3,081명 → ('21년)2,900명</li> </ul> </li> <li>•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18.3월) 및 승강기 안전인증제 도입('19.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 부품 확대,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제한 등 안전관리 기준 강화</li> </ul> </li> <li>•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 단축* 및 공공시설물 내진율 확보('20년기준 7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측 후, ('17년)15 ~ 25초 → ('18년)7 ~ 25초 → ('21년)5 ~ 10초</li> </ul> </li> <li>• 화재안전특별조사('18~'19년) 및 화재안전정보조사('20년~)를 통한 건축물 화재안전정보 DB 구축 추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21년기준 90.5%)</li> <li>• 단기예보 개선을 통해 1시간 단위로 최대 5일까지 상세 날씨정보 제공('21년)</li> </ul> </div> |
| <p><b>개선·보완 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안전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거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합동 안전점검 지속적 실시, 집단밀집 등 방역 취약지역 상시점검 및 민간전문가 참여확대 등</li> </ul> </li> </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제목표          | <div>■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정립과 소방·해경 등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통합적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div> <div>■ 재난에 대한 사전 예·경보 시스템 구축 및 사후 조사·치료 강화</di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평            | <div>■ 코로나19, 화재·해상안전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 조치하고,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 등 선진 재난 예·경보 체계 확립에 노력</div> <div>■ 다만, 기존 재난문자·재난방송 시스템을 차세대 통합재난문자 시스템으로 차질없이 전환할 필요</di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년도<br>주요성과 | <div>■ 규정 개정 추진을 통해 범정부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확립</div> <div>• 「중대본 운영규정」 개정 추진 등 범정부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해 노력</div> <div>* 공동차장제 운영시 편성기준, 운영부처, 비상단계 및 비상근무 규정,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 반영 등 「중대본 운영규정」개정 추진 중('21.9월~'22년 상반기, 현재 법제처 협의 중)</div> <div>&lt; 공동차장제 &gt;</div> <table><tr><td>구 분</td><td>자연재난</td><td>사회재난</td><td>해외재난</td><td>방사능재난</td></tr><tr><td>法상 차장</td><td>행안부장관</td><td>행안부장관</td><td>외교부장관</td><td>원안위위원장</td></tr><tr><td>국무총리 지명</td><td>중앙행정기관의 장</td><td>중앙행정기관의 장</td><td>중앙행정기관의 장</td><td>중앙행정기관의 장</td></tr></table> <div>■ 소방청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소방 현장대응 역량 강화</div> <div>• '21년 9월 기준 시·도 정원조례에 소방공무원 정원 3,679명 반영하여 소방 1인당 담당인구·면적 적정화, 3교대 근무인원 보강 등 근무여건 개선 등</div> <div>* '21년 계획인원 3,717명 대비 99% 반영(자율증원 76명 포함 / 경기도 65명, 창원시 11명)</div> <div>&lt;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현황 &gt;</div> <table><tr><td>구분</td><td>담당인구</td><td>담당면적</td><td>3교대 근무인원</td></tr><tr><td>2020년</td><td>859명</td><td>1.67km²</td><td>47,830명</td></tr><tr><td>2021년</td><td>807명 (6.1% 감소)</td><td>1.57km² (6.0% 감소)</td><td>50,984명 (6.6% 증가)</td></tr></table> <div>• 현장중심의 전문 교육훈련시설 확충을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신종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필요성 확인</div> <div>* 타당성 조사 용역기간 : '21.3월~7월</div> <div>■ 제도개선을 통해 해경 역할재정립 및 해양주권수호 역량 강화</div> <div>• 국민과 함께하는 조직 진단(항공·형사·경비분야)을 통해 분야별 국민 제안 사항(총 14건)을 발굴하고, 국민을 위한 현장인력 증원* 등 체계** 구축</div> <div>* '22년 소요정원으로 현장부서의 근무체계 개선을 위한 교대인력 등 현장인력 378명 증원</div> <div>** 수사구조개혁(수사 독립·책임성 확보) 및 국제정보국 신설(해양안보전담기관 도약) 등 조직 개편 추진</div> | 구 분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해외재난 | 방사능재난 | 法상 차장 | 행안부장관 | 행안부장관 | 외교부장관 | 원안위위원장 | 국무총리 지명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중앙행정기관의 장 | 구분 | 담당인구 | 담당면적 | 3교대 근무인원 | 2020년 | 859명 | 1.67km² | 47,830명 | 2021년 | 807명 (6.1% 감소) | 1.57km² (6.0% 감소) | 50,984명 (6.6% 증가) |
| 구 분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해외재난              | 방사능재난     |      |       |       |       |       |       |        |         |           |           |           |           |    |      |      |          |       |      |         |         |       |                |                   |                   |
| 法상 차장         | 행안부장관                                                                                                                                                                                                                                                                                                                                                                                                                                                                                                                                                                                                                                                                                                                                                                                                                                                                                                                                                                                                                                                                                                                                                                                                                                                                                                                                                                                                                                                | 행안부장관             | 외교부장관             | 원안위위원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무총리 지명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중앙행정기관의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담당인구                                                                                                                                                                                                                                                                                                                                                                                                                                                                                                                                                                                                                                                                                                                                                                                                                                                                                                                                                                                                                                                                                                                                                                                                                                                                                                                                                                                                                                                 | 담당면적              | 3교대 근무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년         | 859명                                                                                                                                                                                                                                                                                                                                                                                                                                                                                                                                                                                                                                                                                                                                                                                                                                                                                                                                                                                                                                                                                                                                                                                                                                                                                                                                                                                                                                                 | 1.67km²           | 47,830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1년         | 807명 (6.1% 감소)                                                                                                                                                                                                                                                                                                                                                                                                                                                                                                                                                                                                                                                                                                                                                                                                                                                                                                                                                                                                                                                                                                                                                                                                                                                                                                                                                                                                                                       | 1.57km² (6.0% 감소) | 50,984명 (6.6% 증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법 제정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선진 재난 예·경보 체계 확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 및 운영·사용 절차 등을 위한 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안위 소위(4.20), 전체회의 의결(4.26), 법사위(5.20), 본회의 의결(5.21) /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기본계획(5년), 시행계획(매년), 활용계획(매년) 등 수립·시행, 전기통신설비 사용 및 공동 이용,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의무화 등</li> <li>** 관계부처 협의(9.15~25), 입법예고(9.24~11.2), 법제처 심사(11월) /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고시(3.9),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고시(3.31),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공포(12.7) 및 시행완료(12.9)</li> </ul> </li> <li>•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차세대 통합재난문자시스템으로 전환 추진(~'22.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수립('21.7월) → 연계·점검(9~10월) → 사용자 교육·전환('21.11~'22.12월) / 사용자 편의성(시스템별 로그인 → 단일 로그인) 및 안정성 개선을 위하여 노후화된 재난문자(CBS, DMB), 재난방송(DITS) 시스템을 「차세대 통합재난문자시스템」으로 이관 추진중('21.10월 KT 네트워크 대규모 장애 발생 관련으로, 이동통신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 필요)</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정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대본 공동차장제* 최초 도입('20.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시 중대본부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여 일원화된 지휘·지원·협업 체계 구축</li> </ul> </li> <li>• 재난 종료 전 사전 피해조사 및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선포기간 24일 단축) 및 인명·주택 및 주 생계 지원항목 재난지원금 제공체계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재난지역선포('17~'20년) : 자연재난 9건(호우태풍8, 지진1), 사회재난 2건(산불1, 감염병1)</li> <li>** (인명) 사망10→20백만원 등 / (주택) 전파13→16백만원, 반파6.5→8백만원, 침수1→2백만원, 농·어·임·소금생산업 시설피해에 대한 227개 항목 기준단가 현실화, 간접지원 확대(15종→30종)</li> </ul> </li> <li>• 소방청 독립 및 소방인력 충원으로 현장대응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청 독립('17.7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20.4월), 현장부족인력 2만명 보강(~'22년)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소방공무원법 등 6개 법률 제·개정('19.11월) / (前) 시도 단위 광역대응체계 → (後) 국가단위 총력대응체계(시도 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li> </ul> </li> <li>• 현장중심 조직 개편과 대응역량 강화로 어업질서 확립 및 해양주권 수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에서의 경찰·오염방제 등 전담기관으로 해양경찰청 독립('17.7월) / 불법조업 강력 단속을 통한 어업질서 확립 및 해양주권 수호 / 서해5도특별경비단 신설('17년), 외국어선 불법행위 등 강력단속, 중국정부 자정노력 강화</li> </ul> </li> </ul> </div> |
| <p><b>개선·보완<br/>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적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노후화된 재난문자·재난방송 시스템을 차세대 통합재난문자시스템으로 신속 전환 필요</li> <li>• 코로나19 장기화 등 재난위험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12.9) 이후 재난안전통신망을 효과적·체계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한 기본계획 마련 등 후속 조치 필요</li> </ul>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철저한 위해성 평가, DB 구축, 정보공개·공유 등 선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심사회 실현</li><li>■ 전 주기(생산에서 소비)에 걸친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고, 생활환경 및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먹거리 복지 구현</li><li>■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고병원성 야생동물 매개 질병 대응역량 강화</li></ul>                                                                                                                                                                                                                                                                                                                                                                                                                                                                                                                                                                                                                                                                                                                                                                                                                                                                                                                                                                                                                                                                                                                                                                                                                                                                                                                                                                                                                                                                                                                                                                                                                                                                                                                                                                                                                                  |       |        |                                         |     |       |        |     |      |      |                                         |      |    |       |        |                                    |      |                                                                                   |  |  |  |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코로나19 속에서도 식품 안전관리의 지속 추진, 「인체적용제품 위해성 평가법」 제정과 주요 유해물질 통합위해성 평가 조기 완료의 성과 창출</li><li>■ 다만,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지정 지속 확대 및 층간소음 기준 등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 필요</li></ul>                                                                                                                                                                                                                                                                                                                                                                                                                                                                                                                                                                                                                                                                                                                                                                                                                                                                                                                                                                                                                                                                                                                                                                                                                                                                                                                                                                                                                                                                                                                                                                                                                                                                                                                                                                                                                                                                                          |       |        |                                         |     |       |        |     |      |      |                                         |      |    |       |        |                                    |      |                                                                                   |  |  |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코로나19·해외직구 등 상황별 안전 강화 및 빅데이터 기반 안전사고 예방<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코로나19 상황 속 다중이용시설 집중방역으로 영업장 내 방역 노력<table><tr><th>구분</th><th>총 개소</th><th>점검 개소</th><th>점검률</th><th>주요 조치</th></tr><tr><td>음식점·카페</td><td>86만</td><td>298만</td><td>347%</td><td>행정지도 1,066, 집합금지 289, 과태료 1,300, 고발 230</td></tr><tr><td>유흥시설</td><td>4만</td><td>82.6만</td><td>2,065%</td><td>행정지도 62, 집합금지 127, 과태료 351, 고발 422</td></tr><tr><td>특별점검</td><td colspan="4">설 68,854개소, 봄철 8,359개소, 휴가철 13,303개소, 추석 69,177개소, 가을철 8,543개소, 핼러윈데이 28,309개소 점검</td></tr></table></li><li>* 점검기간: '21.1.1.~'21.12.31.</li><li>• 해외직구식품 대상 직접 구매·검사 확대(국내 반입 사전 차단)<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1년에는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20년 1.6천 건 → '21년 3천 건)</li></ul></li><li>• 수입김치 HACCP 인증제 도입* 및 수출국 정부와의 업무협약(한-중 MOU, '21.9월)을 통한 안전한 수입김치 제조환경 기반 조성<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1년 수입김치 물량 1, 2위 업소 포함 5개소(중국 산둥성 소재) HACCP 인증 완료</li></ul></li><li>•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활용한 식·의약 위해동향 분석 및 안전사고 예방<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주요 플랫폼: ▲해안(행안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문체부)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시스템(권익위) ▲데이터랩(네이버) ▲썸트렌드(다음소프트) 등</li><li>⇒ 이슈 발굴·적발: 프로틴바(5.6. 660개 제품 점검), 온라인 중고거래(7.2. 과대광고 138건 적발) 등</li></ul></li></ul></li><li>■ 어린이용품 안전·층간소음 등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불편 완화<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어린이용품·공간 관리로 유해인자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 건강 보호<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위해 어린이용품 대상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약 2,000개) ▲키즈카페 등 활동공간 내 환경유해인자 기준 강화(납 기준 강화(600→90mg/kg), 프탈레이트류 기준 신설(7종, 0.1%))</li></ul></li><li>• 층간소음 측정 및 피해 조정 등 적극적 대응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품질 개선<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통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20년 69일 → '21년 53일) ▲관리주체 자가측정('21.4월 10건 → 12월 121건) ▲현장측정 시간예약제('21.5월 7건 → 12월 105건)</li></ul></li><li>• 빗공해 관련 민원다발·빛방사 허용기준 초과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대상 확대 및 빗공해 저감 노력<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서울('15.7월), 광주('16.9월), 인천('17.12월), 경기('18.7월), 부산('20.7월), 대구('21.1월), 대전('21.6월), 경남('21.12월), 울산('21.12월), 충북(청주시 흥덕구)('21.12월)</li></ul></li></ul></li></ul> | 구분    | 총 개소   | 점검 개소                                   | 점검률 | 주요 조치 | 음식점·카페 | 86만 | 298만 | 347% | 행정지도 1,066, 집합금지 289, 과태료 1,300, 고발 230 | 유흥시설 | 4만 | 82.6만 | 2,065% | 행정지도 62, 집합금지 127, 과태료 351, 고발 422 | 특별점검 | 설 68,854개소, 봄철 8,359개소, 휴가철 13,303개소, 추석 69,177개소, 가을철 8,543개소, 핼러윈데이 28,309개소 점검 |  |  |  |
| 구분            | 총 개소                                                                                                                                                                                                                                                                                                                                                                                                                                                                                                                                                                                                                                                                                                                                                                                                                                                                                                                                                                                                                                                                                                                                                                                                                                                                                                                                                                                                                                                                                                                                                                                                                                                                                                                                                                                                                                                                                                                                                                                                                                                                                    | 점검 개소 | 점검률    | 주요 조치                                   |     |       |        |     |      |      |                                         |      |    |       |        |                                    |      |                                                                                   |  |  |  |
| 음식점·카페        | 86만                                                                                                                                                                                                                                                                                                                                                                                                                                                                                                                                                                                                                                                                                                                                                                                                                                                                                                                                                                                                                                                                                                                                                                                                                                                                                                                                                                                                                                                                                                                                                                                                                                                                                                                                                                                                                                                                                                                                                                                                                                                                                     | 298만  | 347%   | 행정지도 1,066, 집합금지 289, 과태료 1,300, 고발 230 |     |       |        |     |      |      |                                         |      |    |       |        |                                    |      |                                                                                   |  |  |  |
| 유흥시설          | 4만                                                                                                                                                                                                                                                                                                                                                                                                                                                                                                                                                                                                                                                                                                                                                                                                                                                                                                                                                                                                                                                                                                                                                                                                                                                                                                                                                                                                                                                                                                                                                                                                                                                                                                                                                                                                                                                                                                                                                                                                                                                                                      | 82.6만 | 2,065% | 행정지도 62, 집합금지 127, 과태료 351, 고발 422      |     |       |        |     |      |      |                                         |      |    |       |        |                                    |      |                                                                                   |  |  |  |
| 특별점검          | 설 68,854개소, 봄철 8,359개소, 휴가철 13,303개소, 추석 69,177개소, 가을철 8,543개소, 핼러윈데이 28,309개소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b>화학물질·제품 안전관리를 통한 피해구제 및 사고예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b>를 위한 다각도 지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제급여: 특별유족조위금(0.4억→1억) 상향, 장해급여(최대 1.7억원) 신설 등<br/>▲취약계층 신청서류 발급대행('21년 591건) ▲법률지원 및 건강·심리상담('21년 248건)</li> </ul> </li> <li>• 시장에 유통되는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및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확대로 화학물질·제품 관련 정보 접근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대: ('17년) 791종 → ('19년) 1,694종 → ('21년) 2,328종</li> <li>**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20년) 1,417개 → ('21년) 1,508개</li> </ul> </li> <li>• 「인체적용제품 유해성평가법」을 제정('21.7월)하고, 식품·화장품 등 다소비 제품에 포함되는 <b>유해물질 60종 대상 통합유해성평가를 조기 완료</b>(당초 계획 '22년까지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유해성평가: 다양한 제품의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위해성을 파악하고 주요 노출원의 제품을 파악하여,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는 위해 우려 제품군을 특정 가능</li> <li>** ('20년) 비스페놀류 등 14종 → ('21년) 중금속 등 33종 → ('22년) 과불화화합물 등 13종 공개(예정)</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전향적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반 마련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17.8월)<br/>특별구제계정(기업분담금('17~'20, 1,250억원), 정부출연금('19~'21, 225억원)), 조성</li> <li>** 인정질환 : ('16년) 1개(구제급여: 폐질환) → ('19년) 8개(구제급여: 폐질환, 태아피해, 천식, 독성간염, 아동간질성폐질환, 특별구제계정: 폐질환, 성안아동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천식) → ('20년 7월) 107개(+기관지염 상기도질환군) → ('20년 9월) 질환 구분없이 포괄적 인정</li> <li>*** 피해 인정자 수 : ('16년) 258명 → ('19년) 2,793명 → ('21.12월) 4,274명<br/>피해 지원금액 : ('16년) 41억원 → ('19년) 506억원 → ('21.12월) 1,121억원</li> </ul> </li> <li>• <b>유통 중인 화학물질 관리 강화 및 공산품 안전관리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및 유해성정보 공개 : ('16년) 258종 → ('19년) 1,694종 → ('21년) 2,328종</li> <li>** 공산품 유통 단속 적발 건수: ('17년) 1,813건 → ('19년) 3,145건 → ('21.12월) 7,542건</li> </ul> </li> <li>• <b>생산에서 소비까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및 공공급식 안전·영양 관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농산물에 미등록 농약은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 시행('19.1월)</li> <li>**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 시행('19.2월), 농장위치·사육환경·산란일자 등 확인 가능한 스마트 판독서비스 기능 구축('19.11월)</li> <li>*** 소규모 급식시설 위생·영양 관리 지원율: ('17년) 59% → ('19년) 75% → ('21.11월) 99%</li> </ul> </li> </ul> </div> |
| <p><b>개선·보완<br/>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b>음식점 위생등급제 적극적 확대</b> 추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소비 확대 및 개별 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에도 불구하고, '21년(단년도, 11월 기준) 신청(18,985개소) 대비 지정(12,463개소) 비율이 65.6%로, 지정률 제고를 위한 절차 간소화, 기술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 필요</li> </ul> </li> <li>• <b>충간소음 관리기준 및 절차의 합리적 조정·개선</b>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실질적 불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충간소음 기준('14.6월 제정, 주간 43dB(A)) 및 관련 처리 절차(전화상담·현장진단 등)의 현실화 및 실효성 제고</li> <li>** 충간소음 현장 측정 기준 초과율('14년~'21.12월): 8.1%(초과 187건/측정 2,307건)</li> <li>*** 충간소음(바닥충격음) 차단기준 등 주택건설기준 관련 소관 부처(국토부) 협의 추진 필요</li> </ul> </li> </ul>                                                                                                                                                                                                                                                                                                                                                                                                                                                                                                                                                                                                                                                                                                                                                                                                                                                                                                                                                                                                                                                                                                                                                                                                                                                                                                                                                                                                                                                                                                                                                                                                      |

| 과제목표          | ■ 미세먼지 발생량을 임기 내 30% 감축하고 민감계층 적극 보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평            |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으로 미세먼지 농도 저감에 기여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무공해차 확대 및 수송·발전 분야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성과 창출<br>■ 다만, 무공해차 확대 관련 제도(보조금·인프라 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필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년도<br>주요성과 |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지속적 추진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br>• 제1차('19.12월~'20.3월), 제2차('20.12월~'21.3월)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미세먼지 국민 체감도 개선* 및 제3차('21.12월~'22.3월) 계절관리제 이행동력** 확보<br>* 제2차 계절관리제 효과: 지난 3년 동기간 대비 ▲평균농도(29→24μg/m³, 17%↓), ▲좋은 일수(15μg/m³ 이하, 20→34일, 70%↑), ▲나쁨 일수(35μg/m³ 초과, 33→18일, 45%↓) 개선<br>** 제3차 계절관리제 준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모의 단속 실시(8.23~9.3, 10.18~29, 11.1~30) ▲초미세먼지 심층진단 대상지역(충북·전북) 선정 및 맞춤형 대책 추진<br>• '국민이 참여하는 계절관리제'로 정책 소통·수용성 제고 및 협업 강화<br>* (소통)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7.12.~7.30., 196건접수), 환경청·지자체·산업계·전문가 간담회(동남권·중부권·남부권·수도권 등 4회)<br>* (협업) ▲민간부문 무공해차 전환 선언(환경부·렌트·리스업, 물류·운수업) ▲수소충전소 범부처 TF 구성·운영(환경부·국토부·지자체 등)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 측정(환경부·민간드론희회 등)<br>■ 미세먼지 핵심배출원 관리 강화로 오염물질 배출 저감 도모<br>• (수송)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및 배기가스 5등급 차량 감축 등<br><table><tr><th>차량</th><th>'20년(12월말) 보급대수</th><th>'21년(12월말) 보급대수</th><th>증가율(%)</th></tr><tr><td>계</td><td>52,556대</td><td>108,959대</td><td>107.3%</td></tr><tr><td>전기차</td><td>46,713대</td><td>100,427대</td><td>115.0%</td></tr><tr><td>수소차</td><td>5,843대</td><td>8,532대</td><td>46.0%</td></tr></table><br>* 충전기 보급(누적): 전기('20년) 6.4만기 → ('21년) 10.7만기, 수소('20년) 70기 → ('21.12월) 170기 설치<br>* 5등급 차량 감축 실적: ('18.12월) 235만대 → ('21.12월) 95만대(△140만대 감소)<br>• (발전)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3월) 석탄발전 감축 및 석탄발전소 점진적 폐지<br><table><tr><th>시기</th><th>가동정지</th><th>상한제약</th></tr><tr><td>'20.12~'21.2월</td><td>9~17기</td><td>최대 47기</td></tr><tr><td>'21.3월</td><td>19~28기</td><td>최대 37기</td></tr><tr><td>'21.12~'22.2월</td><td>8~16기</td><td>최대 46기</td></tr></table><br>* 특히 제2차 계절관리제('20.12월~'21.3월) 시 석탄발전 9~28기 가동정지, 최대 47기 상한제약 추진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 전년 동기 대비 1,950톤 감축<br>* 석탄발전소 폐지: 삼천포 1, 2호기('21.4월), 호남 1, 2호기('21.12월)<br>• (산업)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 오염물질총량제 운영 및 첨단감시체계 확대<br>* 관리대상 사업장 1,203개소(11,116개 배출구) 배출량을 할당량 대비 51~61%로 관리('21.11월) (오염물질별 할당량 대비 배출량 비율: 질소산화물 61%, 황산화물 51.3%, 먼지 54.8%)<br>* 드론 등 장비로 사업장 불법행위 적발('20.12월~'21.3월, 735건 점검, 행정처분 113건, 고발 13건) | 차량              | '20년(12월말) 보급대수 | '21년(12월말) 보급대수 | 증가율(%) | 계 | 52,556대 | 108,959대 | 107.3% | 전기차 | 46,713대 | 100,427대 | 115.0% | 수소차 | 5,843대 | 8,532대 | 46.0% | 시기 | 가동정지 | 상한제약 | '20.12~'21.2월 | 9~17기 | 최대 47기 | '21.3월 | 19~28기 | 최대 37기 | '21.12~'22.2월 | 8~16기 | 최대 46기 |
| 차량            | '20년(12월말) 보급대수                                                                                                                                                                                                                                                                                                                                                                                                                                                                                                                                                                                                                                                                                                                                                                                                                                                                                                                                                                                                                                                                                                                                                                                                                                                                                                                                                                                                                                                                                                                                                                                                                                                                                                                                                                                                                                                                                                                 | '21년(12월말) 보급대수 | 증가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52,556대                                                                                                                                                                                                                                                                                                                                                                                                                                                                                                                                                                                                                                                                                                                                                                                                                                                                                                                                                                                                                                                                                                                                                                                                                                                                                                                                                                                                                                                                                                                                                                                                                                                                                                                                                                                                                                                                                                                         | 108,959대        | 107.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차           | 46,713대                                                                                                                                                                                                                                                                                                                                                                                                                                                                                                                                                                                                                                                                                                                                                                                                                                                                                                                                                                                                                                                                                                                                                                                                                                                                                                                                                                                                                                                                                                                                                                                                                                                                                                                                                                                                                                                                                                                         | 100,427대        | 11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소차           | 5,843대                                                                                                                                                                                                                                                                                                                                                                                                                                                                                                                                                                                                                                                                                                                                                                                                                                                                                                                                                                                                                                                                                                                                                                                                                                                                                                                                                                                                                                                                                                                                                                                                                                                                                                                                                                                                                                                                                                                          | 8,532대          | 4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기            | 가동정지                                                                                                                                                                                                                                                                                                                                                                                                                                                                                                                                                                                                                                                                                                                                                                                                                                                                                                                                                                                                                                                                                                                                                                                                                                                                                                                                                                                                                                                                                                                                                                                                                                                                                                                                                                                                                                                                                                                            | 상한제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2~'21.2월 | 9~17기                                                                                                                                                                                                                                                                                                                                                                                                                                                                                                                                                                                                                                                                                                                                                                                                                                                                                                                                                                                                                                                                                                                                                                                                                                                                                                                                                                                                                                                                                                                                                                                                                                                                                                                                                                                                                                                                                                                           | 최대 47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3월        | 19~28기                                                                                                                                                                                                                                                                                                                                                                                                                                                                                                                                                                                                                                                                                                                                                                                                                                                                                                                                                                                                                                                                                                                                                                                                                                                                                                                                                                                                                                                                                                                                                                                                                                                                                                                                                                                                                                                                                                                          | 최대 37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12~'22.2월 | 8~16기                                                                                                                                                                                                                                                                                                                                                                                                                                                                                                                                                                                                                                                                                                                                                                                                                                                                                                                                                                                                                                                                                                                                                                                                                                                                                                                                                                                                                                                                                                                                                                                                                                                                                                                                                                                                                                                                                                                           | 최대 46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세먼지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대책 추진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구역 내 미세먼지 관리 등 지원사업\*\* 추진

\* 주변에 사업장·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원이 많은 동시에 어린이집·학교·병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21.12월 기준 누적 45개소 지정)

\*\* 공기차단막, 사물인터넷(IoT) 미세먼지 측정 기기, 미세먼지 신호등 등

-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부처별 대책 수립

| 부처    | 주요 내용                                                                      |
|-------|----------------------------------------------------------------------------|
| 환경부   | ·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 매뉴얼' 개정(옥외작업자 대책 추가 등)                                   |
| 보건복지부 | · 저소득층 246만 명 대상 보건용 마스크 보급(약 1.2억 매)<br>· 취약계층 이용시설 7,760개소 대상 공기청정기 지원 등 |
| 고용노동부 | · 옥외작업자 19만 명 마스크 380만 매 보급, 미세먼지 취약사업장 지도 점검                              |
| 교육부   | · 전국 27만 교실에 공기정화시설 지원, 학교현장 미세먼지 대응 체계 지속 점검                              |

### <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

- '사회재난'인 미세먼지를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기반 수립
  - \* 미세먼지 관련 8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학교보건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 관리권역법, 액화석유가스법,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법, 항만대기질법) 제·개정
  -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17.2월 수도권→'19.2월 전국 확대)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최초 시행('19.12월~'20.3월) 후 2차('20.12월~'21.3월), 3차('21.12월~'22.3월) 지속 시행
  - \* 미세먼지(PM<sub>2.5</sub>) 환경 기준을 선진국(미국, 일본) 수준으로 강화('18.3월) : 일 평균 50 $\mu\text{g}/\text{m}^3$  → 35 $\mu\text{g}/\text{m}^3$ , 연평균 25 $\mu\text{g}/\text{m}^3$  → 15 $\mu\text{g}/\text{m}^3$
  - \* 실내 미세먼지(PM<sub>2.5</sub>) 기준 신설·강화('18.3월) : △어린이집·의료기관 등 민간계층 이용시설 기준 강화(70 $\mu\text{g}/\text{m}^3$ →35 $\mu\text{g}/\text{m}^3$ ),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기준 신설(35 $\mu\text{g}/\text{m}^3$  이하)
- 범국가적 미세먼지 총력 대응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점진적 감소 및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목표('20년까지 74%) 조기 달성
  - \*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 ('16년) 26 $\mu\text{g}/\text{m}^3$  → ('18년) 23 $\mu\text{g}/\text{m}^3$  → ('20년) 19 $\mu\text{g}/\text{m}^3$  → ('21년) 18 $\mu\text{g}/\text{m}^3$
  - \*\* 초미세먼지 예보정확도 : ('18년) 72% → ('19년) 79% → ('20년) 81% → ('21년) 78%
  - \*\*\* ▲ 한·중 대기질 예보정보 실시간 공유('19.11월~) ▲ 국제 대기질 공동조사('20~'25) ▲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발사('20.2월) 등을 통한 예보 정확도 제고
- 미세먼지 저감 공동 대응의 장 마련을 위한 한·중·일 등 협력 강화
  - \* 한·중·일 간 '미세먼지 상호영향에 대한 보고서' 최초 공개('19.11월)로 국가간 미세먼지 영향 공식 확인
  - \*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 등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 환경협력센터 개소('18.6월)
  - \* 정책·기술교류 이행계획 마련 등 한·중 맑은하늘(청천:晴天)계획 MOU('19.11월) 체결
  - \* '고농도 미세먼지 예상 시 한·중 고위급 핫라인 운영 합의('21.3월, 한·중 환경장관 영상회의)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무공해차 보급을 위해 예산 증액 등 노력\* 중이나, **전기차 충전 사업의 민간참여 활성화 및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등 후속 대책\*\*\* 필요
  - \*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 ('21년) 11,226억원 → ('22년) 19,352억원
  - \*\* 수소 승용차 등 차종 다양성 확보 및 보급연계, AS 품질 강화 등 기업 경영전략과 정부의 수소차 보급활성화 대책 간 정책검토 필요
  - \*\*\* 무공해차 보조금(대중형 무공해차 모델지원으로 가격인하 유도), 충전인프라(적재적소 설치, 충전기관리), 서비스(결제·정보 제공 등 민간 연계), 국비 예산 집행 저조 등 제도 개선 검토
-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관리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부착 의무화\* 관련 이해관계자(중소기업중앙회)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한 조속한 추진 필요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고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국토 환경 조성</li> <li>■ 4대강 재자연화와 통합 물관리로 이·치수가 조화되는 하천 조성</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보호지역 지속확대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생태건강성 달성</li> <li>■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확정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낙동강 취수원 문제 해결의 초석 마련 및 동물보호·관리 제도기반 확충</li> <li>■ 다만,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의 원활한 이행 및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지연 해소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국토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생태 건강성 달성을 위해 보호지역 지속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 생물다양성 협약(CBD Aichi Target 11) 권고 보호 면적: 육상의 17% 이상</li> <li>** 국가보호지역 : ('16년) 11,232km<sup>2</sup>(국토면적의 11.2%) → ('21년) 17,194km<sup>2</sup>(17.15%)<br/>( '16년 보호지역 지정된 침실습지 내 생물다양성 증진 성과('16년 665종 → '21년 803종))</li> </ul> </li> <li>• 누구나* 어디서나** 장벽 없이 누릴 수 있는 고품질 생태자원·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공원 무장애(Barrier-Free) 탐방시설 확대: ('16년) 탐방로 30개소, 야영지 65개소<br/>→ ('21년) 탐방로 59개소, 야영지 153개소</li> <li>**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21년 8개소), 도심 건물옥상 생태복원 사업('21년 4개소) 추진</li> </ul> </li> <li>• 국가 수준의 '환경-국토 계획' 통합관리 추진전략('19.12월)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부처 협업 및 역량 강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통합관리 이행협의체 계획 수립·운영('21.3월~), 계획수립 지자체 대상 컨설팅('21.4월~), 환경-국토계획 통합관리 업무매뉴얼 설명회('21.6월~)</li> </ul> </li> </ul> </li> <li>■ 현장 중심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년 이상 지속된 '낙동강 취수원' 문제에 대응하는 통합 물관리방안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낙동강유역청 의결('21.6.24.) 및 기본계획 수립 등 '22년 예산 확보('21.12)</li> </ul> </li> <li>• 지역주민 대피 선행시간 확보를 위한 홍수특보·정보제공 지점 확대 운영('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수특보지점(개소) : ('20년) 66 → ('21년) 75, 홍수정보지점(개소) : ('20년) 409 → ('21년) 534</li> </ul> </li> <li>• 지방·광역상수도 연계관리를 통한 수돗물 안전관리체계 획기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8개 전체 광역상수도·161개 지방상수도의 물공급 전 과정 스마트(ICT·AI) 상수도 관리체계(취수원 수질 감시→정수장 자동소독→공급과정 관리→스마트 계량기) 구축 추진('20~'23)</li> </ul> </li> <li>•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및 한강·낙동강 취수시설 개선 등 현안 추진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최종의결('21.1월, 국가물관리위) : 보 처리방안 후속조치(물이용, 지역 문화행사, 자연성회복 등) 세부실행계획 연구('21.4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에 반영</li> <li>** 한강·낙동강 보 개방의 선결문제인 한강·낙동강 취·양수장 시설개선방안 유역물관리위 의결('21.2월) 및 한강수계취수시설 개선 업무협약식('21.10월) 개최</li> </ul> </li> </ul> </li> </ul> |

|                              |                                                                                                                                                                                                                                                                                                                                                                                                                                                                                                                                                                                                                                                                                                                                                                                                                                                                                                                                                                                                                                                                                                                                                                                                                                                                                                                                                                                                                                                                                                                                                                                                                                                                                                                                                                                                                                                                                                                                                                                                                                                                       |
|------------------------------|-----------------------------------------------------------------------------------------------------------------------------------------------------------------------------------------------------------------------------------------------------------------------------------------------------------------------------------------------------------------------------------------------------------------------------------------------------------------------------------------------------------------------------------------------------------------------------------------------------------------------------------------------------------------------------------------------------------------------------------------------------------------------------------------------------------------------------------------------------------------------------------------------------------------------------------------------------------------------------------------------------------------------------------------------------------------------------------------------------------------------------------------------------------------------------------------------------------------------------------------------------------------------------------------------------------------------------------------------------------------------------------------------------------------------------------------------------------------------------------------------------------------------------------------------------------------------------------------------------------------------------------------------------------------------------------------------------------------------------------------------------------------------------------------------------------------------------------------------------------------------------------------------------------------------------------------------------------------------------------------------------------------------------------------------------------------------|
|                              | <p>■ 동물 보호·관리의 제도적 기반 확충(농식품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양이 등록 시범사업 확대*, 자진신고·집중단속 등으로 등록 마릿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 지자체: ('19년) 33개 → ('20년) 82개 → ('21년) 146개</li> <li>** '21년 반려견 신규 등록 마릿수는 41.7만마리로 '20년(23.5만마리)의 1.8배 수준</li> </ul> </li> <li>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 확충 및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보호·복지 예산(백만원) : ('19년) 4,109 → ('20년) 4,566 → ('21년) 5,277 → ('22년) 11,020 (동물보호·복지 교육·홍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등)</li> <li>* 직영 동물보호센터 현황(개소, 누적) : ('17년) 33 → ('19년) 39 → ('21년) 52<br/>직영센터 설치 지원 예산(백만원) : ('19년) 2,280 → ('21년) 3,526 → ('22년) 4,693</li> </ul> </li> <li>「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수립('21.9월)으로 반려동물 유기 최소화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내용: ▲동물등록 의무지역 확대 ▲반려동물 입양 교육콘텐츠 제공 및 인센티브 지원<br/>▲지자체가 계약 주체인 '시민안전보험'에 '유기견 물림 사고' 항목 추가 등</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위한 통합 물관리 조직·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 : 물관리기능 환경부로 일원화('18.6월), 국가물관리위원회('19.8월) 및 유역별 물관리 위원회('19.9월) 출범, 하천관리 일원화('20.12월), '낙동강 하구통합운영센터' 개설·운영('21.3.22.)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신설('21.6.8.)</li> <li>* 제도 : 「물관리기본법」 제정('19.6월), 「지하수법」 개정('21.1월),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21.3월)</li> </ul> </li> <li>훼손가치만큼 자연환경을 복원·복구하여 균형 잡힌 국토관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법의 지속적 개정 : 주민의견 재수렴, 거짓평가서 반려·재평가 도입('17년),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 공개 의무화('18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 확대('19년) 등</li> <li>*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1.1월, 4월) 및 생태계보전부담금 규정 개정('21.12월): 개발사업자가 훼손되는 자연환경만큼 복원·복구하도록 하는 자연자원 총량 보전 개념의 본격 도입 및 훼손지 생태가치를 차등 반영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방식 도입</li> </ul> </li> <li>사람과 동물의 안전·복지 제고를 통한 '함께 사는 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한 동물 소유자 관리의무 강화(▲반려동물 소유자 책임강화('18년) ▲맹견소유자 관리·교육 의무 규정('19년) ▲동물학대 범위 확대('19년) 등)</li> <li>* 반려동물 등록 수(누적, 마리) : ('16년) 107만 → ('19년) 211.4만 → ('21년) 276.3만</li> </ul> </li> </ul> </div> |
| <p><b>개선·보완<br/>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의 초석인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적극적 관리·추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동강유역특 의결('21.6.24)에도 영향지역 주민, 일부 시민사회의 이견 상존</li> </ul> </li> <li>계획 대비 지연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21.6월 통과가 예상되었던 「환경영향평가법」(기후변화 영향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규정)이 「탄소중립기본법」과 함께 논의하기로 국회에서 결정된 바,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21.9월)되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법」의 신속한 개정 필요</li> </ul> </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원전제로 시대로 이행</li> <li>■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적 개편 및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전환을 위한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분산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li> <li>■ 다만,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수용성 확보를 위해 대국민 홍보 강화 및 모니터링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전환 정책(원전의 단계적감축)을 통해 원전산업 인프라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덕 신규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 및 비용보전의 법적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영덕 예정구역 지정철회 의결('21.3월) 후 관보 고시('21.4월)</li> <li>*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21.6월) 및 하위고시 제정('21.12월)을 통해 전력기금을 통한 비용보전의 법적근거 마련 및 이행계획(대상, 범위, 규모, 절차 등) 수립</li> </ul> </li> <li>• 보완 대책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 지원, 원전 수출 및 안전 R&amp;D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 신규 편성 및 추진('21~), 미래원전수출시장 대응 및 원전산업 생태계 경쟁력 유지를 위한 혁신형 SMR 개발 추진('21.10 예타심의 대상 선정)</li> <li>* 가동원전 안전성향상 핵심기술 개발사업 추진('21.6월 예타 통과, '22~'29 총사업비 6,424억원)</li> </ul> </li> <li>• 향후 원전 해체 수요 확대와 해외 원전해체 시장 성장에 대비하여 원전해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기반 구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리 1호기 해체안허가 신청('21.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21.7월) 등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안허가 추진</li> <li>* 원전해체기술개발사업 예타 재신청('21.9월) 및 예타심의 대상 선정('21.10월)</li> </ul> </li> <li>•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대정부 권고안 발표('21.3월) 및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후핵연료 관리 관련 특별법 제정,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 등 권고</li> </ul> </li> </ul> </li> <li>■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원전 안전성·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21.6월)하여 정보공개 대상·주체를 확대하고 지역소통창구인 원자력안전협의회의의 법적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공개 주체, 대상, 공개방법, 공청회, 원자력안전협의회의 근거 등 규정</li> </ul> </li> <li>• 원전 안전관리업무 외주 금지 이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외주업체 의견 청취('21.4.9-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안위, 산업부, 한수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li> </ul> </li> <li>• 일반국민, 관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제3차('22~'26) 원자력안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의를 통해 종합계획의 비전, 정책방향, 주요 전략과제를 마련하고 국민제안서 전달식('21.6월), 국민참여단 보고회('21.10월) 개최</li> </ul> </li> </ul> </li> </ul> |

|                              |                                                                                                                                                                                                                                                                                                                                                                                                                                                                                                                                                                                                                                                                                                                                                                                                                                                                                                                                                                                                                                                                                                                                                                                                                                                                                                                                                                                                                                                                                                                                                                                                                                                                                                                                                                                                                                                                                                                                                                                                                                                                                                                                                                                                                                                                                                                                                                                                                                                                                                                                                       |
|------------------------------|-------------------------------------------------------------------------------------------------------------------------------------------------------------------------------------------------------------------------------------------------------------------------------------------------------------------------------------------------------------------------------------------------------------------------------------------------------------------------------------------------------------------------------------------------------------------------------------------------------------------------------------------------------------------------------------------------------------------------------------------------------------------------------------------------------------------------------------------------------------------------------------------------------------------------------------------------------------------------------------------------------------------------------------------------------------------------------------------------------------------------------------------------------------------------------------------------------------------------------------------------------------------------------------------------------------------------------------------------------------------------------------------------------------------------------------------------------------------------------------------------------------------------------------------------------------------------------------------------------------------------------------------------------------------------------------------------------------------------------------------------------------------------------------------------------------------------------------------------------------------------------------------------------------------------------------------------------------------------------------------------------------------------------------------------------------------------------------------------------------------------------------------------------------------------------------------------------------------------------------------------------------------------------------------------------------------------------------------------------------------------------------------------------------------------------------------------------------------------------------------------------------------------------------------------------|
|                              | <p>■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전력사용 유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상황, 원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운영('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1~3분기) 경제상황 등 고려 -3원/kWh로 조정, (4분기) 연료비 상승 등 고려 0원/kWh로 조정</li> </ul> </li> <li>제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 부하 패턴 변동을 반영하여, 제주지역의 계절별·시간별 전기요금체계 개편('21.6월) 및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21.9월)</li> <li>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지역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21.3월)」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수립·발표('21.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통 능력 강화, 시장·제도 조성 방안 등을 포함</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전환 정책 방향 확정 및 후속조치의 충실한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전환로드맵('17.10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원전 정책 방향을 확정하고, 전력수급계획('17.12월, '20.12월), 에너지기본계획('19.6월) 등 법정계획에 반영하여 구체화</li> <li>* 삼척('19.5월)·영덕('21.4월) 신규원전 건설 중단, 월성1호기('19.12) 조기폐쇄·영구정지</li> <li>*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21.6월)으로 적법·정당 지출 비용의 보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li> </ul> </li> <li>원전 해체 산업역량 확충을 위한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리1호기 해체 신청('21.5월) 및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19.4월) 발표</li> <li>* 법인 설립('20.8월), 원전해체기술개발 예타 신청('21.9월) 등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추진</li> </ul> </li> <li>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위원회 발족('19.5월)</li> <li>* 재검토위 권고안 발표 및 정부 전달('21.4월)</li> </ul> </li> <li>원전 안전 규제의 독립성·중립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안위 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화하고 '청렴의무'를 명시하는「원안위법」개정('19.8월)</li> <li>* 원자력 진흥-규제 분리의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및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총리→대통령)을 변경하는「원안위법」개정 추진('21.6.23, 상임위 소위 의결)</li> </ul> </li> <li>원전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및 국민과의 소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주지진('16.9월) 원인단층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21년), 미소지진 관측망 200개소 설치, 가동원전의 핵심설비(안전정지유지계통)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0.2g → 0.3g)</li> <li>*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21.6월)하여 정보공개 대상·주체를 확대하고 지역소통창구인 원자력안전협의회의의 법적 근거 마련</li> </ul> </li> <li>원가 변동요인 반영 등 에너지가격 체계의 합리적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소비세법 개정('18.12월)을 통해 유연탄 개별 소비세율 인상</li> <li>*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도입('20.12월) 및 요금체계 개편 의견수렴 지속</li> </ul> </li> <li>지역의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 및 지원체계 전면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산형 전원 보급전망을 제8차('17.12월), 제9차('20.12월)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고, 중장기 로드맵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수립·발표('21.6월)</li> </ul> </li> </ul> </div> |
| <p><b>개선·보완<br/>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요금체계 변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홍보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가등락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연동제('20.12월 개편)에 대한 성공적 정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강화, 사회적·경제적 영향 모니터링·방안 마련</li> </ul> </li> <li>원전 안전관리 업무의 외주금지 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원자력안전관리 강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외주금지 이행방안 조속히 마련</li> </ul> </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상당한 수준 감축 실현</li> <li>■ 기후변화 리스크를 예측·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사회 구현</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중립·녹색전환·자원순환 등 주요 과제의 근거법령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가 감축목표(NDC) 상향 국제사회 발표 등 성과 창출</li> <li>■ 다만, 미래지향적 자원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도,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 등의 적극적 추진 필요</li> </ul>                                                                                                                                                                                                                                                                                                                                                                                                                                                                                                                                                                                                                                                                                                                                                                                                                                                                                                                                                                                                                                                                                                                                                                                                                                                                                                                                                                                                                                                                                                                                                                                                                                                                                                                                                                                                                                                                                                                                                                                                                                                                                                                                                                                                                                                                                                                                          |
| '21년도 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탄소중립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1.9.24.)으로 '2050 탄소중립' 법제화</li> <li>•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21.10.27)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이정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NDC 상향('18년 比 <math>\Delta 26.3\% \rightarrow \Delta 40\%</math>) 국제사회 발표('21.11월)</li> </ul> </li> <li>•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국제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정상회의('21.4월), P4G 회의('21.5월), 주요경제국포럼('21.9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총회('21.11월) 등</li> </ul> </li> <li>• 배출권거래제 확대*,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 및 제3자 참여***를 통한 시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출권 유상할당 규모: ('15년~'17년, 1기) 0%(전량 무상할당) <math>\rightarrow</math> ('18년~'20년, 2기) 유상할당 대상업체 할당량의 3% <math>\rightarrow</math> ('21년~'25년, 3기) 유상할당 대상업체 할당량의 10%</li> <li>** (기존) 산업은행, 기업은행 <math>\rightarrow</math> (추가, '21.5)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SK증권</li> <li>*** 배출권거래제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21.10월)으로 증권사 20개사 시장 참여('21.12월)</li> </ul> </li> <li>• 온실가스 배출 기준('18년 727.0백만톤) 확정 이후, '19년 701.4백만톤(<math>\Delta 3.5\%</math>), '20년 648.6백만톤(<math>\Delta 7.5\%</math>)으로 2년째 배출량 감소세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목표'('07년~'09년 평균 배출량 대비 <math>\Delta 30\%</math> 감축)를 조기 달성(기준(531만톤) 대비 161만톤 감축, <math>\Delta 30.3\%</math>)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li> </ul> </li> </ul> </li> <li>■ 녹색산업 제도적 기반과 성과 창출을 통한 녹색경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산업 지원을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제정('21.6월), 녹색금융 기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등 사업의 전과정 지원 및 거점단지 조성의 근거 마련</li> <li>** 녹색채권 가이드라인('20.1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구축('21.12)을 통해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 투자자의 신뢰 확보 등</li> </ul> </li> <li>• 그린뉴딜* 지원 및 해외수출 확대로 녹색산업 성과**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그린도시('20년 추경 신규 10억원 <math>\rightarrow</math> '21년 526억원) ▲중소환경기업 지원('20년 877억원 <math>\rightarrow</math> '21년 989억원)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20년 2,000억원 <math>\rightarrow</math> '21년 4,000억원)</li> <li>** (매출액) ('17년) 99.7조원 <math>\rightarrow</math> ('19년) 100.6조원 <math>\rightarrow</math> ('20년) 101.5조원<br/>(고용) ('16년) 118천명 <math>\rightarrow</math> ('21년) 174천명(8.08%, 21개 산업 중 성장률 1위)</li> </ul> </li> <li>• 녹색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하천수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강홍수통제소('21.4.30. 9억원), 한강물환경연구소('21.6.30. 6.2억원)</li> </ul> </li> </ul> </li> </ul> |

|                              |                                                                                                                                                                                                                                                                                                                                                                                                                                                                                                                                                                                                                                                                                                                                                                                                                                                                                                                                                                                                                                                                                                                                                                                                                                                                                                                                                                                                                                                                                                                                                                                                                                                                                                                                                                                                                                                                                                                                                                                                                                                                                                                                                                                                                                                                                                                                                                                                                                                                                                                                                                                                                                                                                                                                                                                                                                           |
|------------------------------|-------------------------------------------------------------------------------------------------------------------------------------------------------------------------------------------------------------------------------------------------------------------------------------------------------------------------------------------------------------------------------------------------------------------------------------------------------------------------------------------------------------------------------------------------------------------------------------------------------------------------------------------------------------------------------------------------------------------------------------------------------------------------------------------------------------------------------------------------------------------------------------------------------------------------------------------------------------------------------------------------------------------------------------------------------------------------------------------------------------------------------------------------------------------------------------------------------------------------------------------------------------------------------------------------------------------------------------------------------------------------------------------------------------------------------------------------------------------------------------------------------------------------------------------------------------------------------------------------------------------------------------------------------------------------------------------------------------------------------------------------------------------------------------------------------------------------------------------------------------------------------------------------------------------------------------------------------------------------------------------------------------------------------------------------------------------------------------------------------------------------------------------------------------------------------------------------------------------------------------------------------------------------------------------------------------------------------------------------------------------------------------------------------------------------------------------------------------------------------------------------------------------------------------------------------------------------------------------------------------------------------------------------------------------------------------------------------------------------------------------------------------------------------------------------------------------------------------------|
|                              | <p>■ 공공중심·일상속 자원의 선순환으로 순환경제 사회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중심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감시·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제정('20.6월), 「순환경제촉진법」·「유기성폐자원법」 발의('21.6월)</li> <li>** 전수조사·확인('19.2월)된 불법폐기물 120.3만톤 중 행정소송 등으로 처리지연된 물량 3.9만톤을 제외한 116.4만톤 처리 완료('21.12월 기준)</li> </ul> </li> <li>• “30년부터 폐기물 수입 원칙적 금지”를 위한 제도·조직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 수입 금지·제한 확대 계획 수립('21.2월),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운영('21.4월)</li> </ul> </li> <li>• 재포장 금지제도*,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등 일상 속 폐기물 발생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시행('21.1월) 후 사례별 가이드라인 배포('21.4월, 6월, 비닐 포장 → 락지 포장 등)</li> <li>** 공동주택('21년) → 단독주택 확대('22년), 선별 품질 등급별 지원금 차등화(5개 등급)</li> </ul> </li> <li>• 생활 속 탈 플라스틱 캠페인 '고고 챌린지'('21.1월~), 환경부 장관 등 8,619건 참여</li> <li>• 재생원료 공공비축시설 확충*,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설치를 통한 시장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 비축시설 : '20년 1개소 → '21년 4개소 → '22년 6개소 → '23년 8개소</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온실가스 감축 확대를 통한 정책 의지 표명* 및 범지구적 탄소중립 논의 동참**으로 국제사회 내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 의지 표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18.7월) “30년 예상온실가스배출량 대비 △37%” 중 국내 감축비중 확대(25.7%p→32.5%p)</li> <li>② ('20.12월) 2030 NDC(국가감축목표) UN 제출('17년 대비 △24.4% 감축)</li> <li>③ ('21.10월) 2050 탄소중립 중간목표로 2030 NDC 추가 상향('18년 대비 △40% 감축) 등</li> </ol> </li> <li>** 국제적 탄소중립 논의 동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18년) 국가간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상호인정을 위한 국제인정기구 가입(IAF)</li> <li>② ('19.9월)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저탄소 사회 조기전환, '녹색기후기금 공여확대 등 약속</li> <li>③ ('21년) 제2차 P4G(녹색성장 및 국제목표 2030 동참) 정상회의 서울 개최</li> <li>④ ('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하여 2030 NDC 상향안, 국제 메탄서약 가입 발표</li> </ol> </li> </ul> </li> <li>• 신기후체제에 걸맞는, 사회 전반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1년~'25년, 233개 과제)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사회)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 산업계 취약업종 적응전략 수립지원('21년 누적 102개소), 공공기관 자발적 적응대책 수립 지원('21년 누적 36개 기관)</li> <li>(국제) 「UN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최초 개최('19년), 글로벌적응위원회(GCA) 가입('20년) 등</li> </ul> </li> <li>• 지속가능한 녹색경제*와 자원순환체계**를 위한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산업 혁신전략('19.12월)을 반영한 '한국판 그린뉴딜' 발표('20.7월)<br/>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지원 : ('20년) 20개사 → ('21년) 16개사<br/>스마트생태공장 전환 지원 : ('20년) 11개소, 101억원 → ('21년) 30개소, 303억원</li> <li>** 주요 대책: ('18.5월) 재활용폐기물 관리대책, ('19.12월) 음료·생수 유색페트병 사용금지, ('20.6월) 수입 폐플라스틱 제한, ('20.9월)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20.12월)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 ('21.2월~)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확대 및 보증금제 시행 준비</li> </ul> </li> </ul> </div> |
| <p><b>개선·보완<br/>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상황 속 배달음식 등 쓰레기 급증에 대응, 1회용품 보증금제 및 다회용기 사용 관련 제도 활성화 및 사업 적극 추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용 컵 보증금제) 「자원재활용법」 개정('20.6.9),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등 법·제도적 기반을 통해 '매장 수 100개 이상인 카페·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사업자' 등 대상 도입 추진('22.6월 시행)</li> <li>** (다회용기 활성화) ▲음식배달·장식식당·영화관 등 다회용기 구매·세척 비용 국비 지원 확대 ('21년 0.4억원→'22년 12.4억원) ▲1회용 컵 없는 청정 제주 시범사업('21.7.6~)</li> </ul> </li> <li>•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25년 예정) 관련 상황 모니터링 및 지자체 (서울·경기·인천) 협의 등을 통한 대책 마련 필요</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li> <li>■ 연안여객 준공영제 확립과 현대화, 기항지 시설 확충·개선 추진</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분쟁·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및 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해양사고 예방·대응 강화</li> <li>■ 다만, 어촌뉴딜300 사업준공('24년) 이후 중·장기적 관리운영 방안 마련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속세력 확충, 한·중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감소 및 수산자원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감소, 특히 동해를 경유하여 북한으로 이동하는 중국어선** (북한수역에서 불법조업 추정)도 대폭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어선 단속건수: ('19년) 195건 → ('20년) 35건 → ('21년) 108건</li> <li>중국어선 입어규모 축소: ('19년) 1,450척 → ('20년) 1,400척 → ('21) 1,350척</li> <li>** 동해 북한수역 최대 잔류척수(추정): ('20년) 855척 → ('21년) 314척</li> </ul> </li> <li>• 한·중 협력을 통한 중국어선 단속 강화, 동해 경유 북한수역 조업 중국어선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오징어 어획량*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징어 어획량: ('20.7~10월) 16,322톤 → ('21.7~10월) 36,193톤</li> </ul> </li> </ul> </li> <li>■ 독도·이어도가 우리 영토라는 과학적 근거 축적 등을 통해 해양주권 수호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리학·생태학 연구 등을 통해 독도·이어도가 우리 영토임을 규명하는 국제학술 논문(SCI급)을 연평균 30건('18년~'21년, 120건) 발표</li> <li>• 독도 실시간 영상 제공 서비스(독도종합정보시스템) 개시('21.8월)로 국민적 관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종합정보시스템 방문자수: (제공이전) 180명 → (제공이후) 1,500명</li> </ul> </li> <li>• 국제해도 신표준(S-130) 개발 프로젝트팀 참여*로 '동해' 표기 확산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명) 중국, (3명) 한국, (1명) 일본·북한·미국·영국·벨기에·브라질·싱가포르·인도·이란·터키</li> </ul> </li> </ul> </li> <li>■ 해상교통 인프라 확충 및 도서민의 소득·의료복지 개선 등 도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해양영토 가치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촌뉴딜300 준공으로 만재도('21.4월)는 입도시간 절반 이상 단축(5시간 40분 → 2시간 10분), 강화 후포항('21.9월)은 방문객 증가, 상권 활성화* 등 가시적 성과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근 상인 인터뷰 결과 매출액 40% 증가 체감</li> </ul> </li> <li>• 도서어가 대상 직불금 지급단가*를 상향하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수혜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불금 지급단가: ('20년) 70만원 → ('21년) 75만원</li> <li>** 의료서비스 수혜자: ('20년) 755명 → ('21년) 850명</li> </ul> </li> </ul> </li> </ul> |

|                              |                                                                                                                                                                                                                                                                                                                                                                                                                                                                                                                                                                                                                                                                                                                                                                                                                                                                                                                                                                                                                                                                                                                                                                                                                                                                                                                                                                                                                                                                                                                                                                                                                                                                                                                                                                                                                                                                                                                                                              |
|------------------------------|--------------------------------------------------------------------------------------------------------------------------------------------------------------------------------------------------------------------------------------------------------------------------------------------------------------------------------------------------------------------------------------------------------------------------------------------------------------------------------------------------------------------------------------------------------------------------------------------------------------------------------------------------------------------------------------------------------------------------------------------------------------------------------------------------------------------------------------------------------------------------------------------------------------------------------------------------------------------------------------------------------------------------------------------------------------------------------------------------------------------------------------------------------------------------------------------------------------------------------------------------------------------------------------------------------------------------------------------------------------------------------------------------------------------------------------------------------------------------------------------------------------------------------------------------------------------------------------------------------------------------------------------------------------------------------------------------------------------------------------------------------------------------------------------------------------------------------------------------------------------------------------------------------------------------------------------------------------|
|                              | <p>■ 디지털·스마트기술 활용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대응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돌·좌초위험 안내, 최신 전자해도 제공 등 세계 최초 바다 내비게이션(e-Nav) 서비스 시행('21.1.) 등을 통해 해양사고 감소('20.12월 3,156건 → '21.12월 2,662건)</li> <li>앱·누리집·SMS 등으로 전국 주요 해수욕장 9개소에 대한 이안류 정보를 제공하여 이안류로 인한 인명 구조자 수 감소('13~'16년: 891명 → '17~'21년: 110명)</li> </ul> <p>■ 안전하고 편안한 여객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서민의 이동권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안선박 현대화 지원('16년~)을 통한 노후여객선(선령 20년 초과) 비율 감소로 여객선 안전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여객선 비율: ('20년) 20% → ('21년) 17.1%</li> </ul> </li> <li>승선 시 신분확인용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 모바일 승선권을 활용한 승선시간 단축 등 여객편의를 증진하고, 도서민 운임지원 확대(미취학 아동 무료승선)</li> </ul> <p>■ 국제수준의 극지연구 성과 창출 등을 통해 우리나라 위상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극지연구소 연구('남극의 비대칭적 기후변화 메커니즘 규명') 결과가 2년 연속 국가 R&amp;D 우수성과 100선(에너지·환경 분야)에 선정</li> <li>남극연구과학위원회, 인도양참치위원회, 북태평양소하성어족위원회 등 국제기구의장 배출로 해양수산 분야 리더국가로 성장</li> </ul> <div data-bbox="347 1081 1418 1671"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등 해양주권 수호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어선 입어규모 : ('17년) 1,540척 → ('18년) 1,500척 → ('19년) 1,450척 → ('20년) 1,400척 → ('21년) 1,350척 → ('22년) 1,300척</li> <li>*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건수 : ('17년) 278건 → ('19년) 195건 → ('21년) 108건</li> </ul> </li> <li>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도서지역 어가의 안정적 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어가당) : ('17년) 55만원 → ('19년) 65만원 → ('21년) 75만원</li> <li>*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수혜자 : ('17년) 383명 → ('19년) 618명 → ('21년) 850명</li> </ul> </li> <li>디지털 기반으로 해양안전 강화 및 경제영토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사고건수 : ('20.12월) 3,156건 → ('21.12월) 2,662건 (15.7% ↓)</li> <li>* 이안류로 인한 인명구조자수 : ('13~'16년) 891건 → ('17~'21년) 110명 (88% ↓)</li> <li>* 원양어업 조업쿼터 확보량 : ('18년) 4만75백톤 → ('20년) 4만91백톤 → ('21년) 6만23백톤</li> </ul> </li> </ul> </div> |
| <p><b>개선·보완<br/>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별 지자체주민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사업성과의 편차가 발생하므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완료 후 중장기 관리대책 추진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기관이 지역주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사업내용 내실화 추진</li> </ul> </li> <li>해양 운항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해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의 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8월 기준 해수부 보급계획 수량 5,950대 대비 51% 수준인 3,076대 탑재</li> </ul> </li> </ul>                                                                                                                                                                                                                                                                                                                                                                                                                                                                                                                                                                                                                                                                                                                                                                                                                                                                                                                                                                                                                                                                                                                                                                                                                                                                                                                                                                                                                                                                                                                |

|            |                                                                                                                                                                                                                                                                                                                                                                                                                                                                                                                                                                                                                                                                                                                                                                                                                                                                                                                                                                                                                                                                                                                                                                                                                                                                                                                                                                                                                                                                                                                                                                |                                                                                                                  |                                                                     |                                                 |                                                                                                                                                    |            |             |      |                                                                                 |                                                                                                                  |                                                                     |                                                 |                                                                                                                                                    |
|------------|----------------------------------------------------------------------------------------------------------------------------------------------------------------------------------------------------------------------------------------------------------------------------------------------------------------------------------------------------------------------------------------------------------------------------------------------------------------------------------------------------------------------------------------------------------------------------------------------------------------------------------------------------------------------------------------------------------------------------------------------------------------------------------------------------------------------------------------------------------------------------------------------------------------------------------------------------------------------------------------------------------------------------------------------------------------------------------------------------------------------------------------------------------------------------------------------------------------------------------------------------------------------------------------------------------------------------------------------------------------------------------------------------------------------------------------------------------------------------------------------------------------------------------------------------------------|------------------------------------------------------------------------------------------------------------------|---------------------------------------------------------------------|-------------------------------------------------|----------------------------------------------------------------------------------------------------------------------------------------------------|------------|-------------|------|---------------------------------------------------------------------------------|------------------------------------------------------------------------------------------------------------------|---------------------------------------------------------------------|-------------------------------------------------|----------------------------------------------------------------------------------------------------------------------------------------------------|
| 과제목표       | <div>■ 노동기본권 신장 및 취약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div> <div>■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근로자 권익 구제 강화</div>                                                                                                                                                                                                                                                                                                                                                                                                                                                                                                                                                                                                                                                                                                                                                                                                                                                                                                                                                                                                                                                                                                                                                                                                                                                                                                                                                                                                                                        |                                                                                                                  |                                                                     |                                                 |                                                                                                                                                    |            |             |      |                                                                                 |                                                                                                                  |                                                                     |                                                 |                                                                                                                                                    |
| 총평         | <div>■ 노동 3법 개정(‘20.12월) 및 ILO 핵심협약 비준(‘21.4월)을 통해 노동권이 국제 수준으로 신장되고, 한-EU FTA 노동조항 분쟁 해소에 기여</div> <div>■ 다만,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근로자 대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 도입·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div>                                                                                                                                                                                                                                                                                                                                                                                                                                                                                                                                                                                                                                                                                                                                                                                                                                                                                                                                                                                                                                                                                                                                                                                                                                                                                                                                                                          |                                                                                                                  |                                                                     |                                                 |                                                                                                                                                    |            |             |      |                                                                                 |                                                                                                                  |                                                                     |                                                 |                                                                                                                                                    |
| ‘21년도 주요성과 | <div>■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기본권이 국제 수준으로 신장</div> <div><div>•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21.2.26) 및 협약 비준(‘21.4.20), 한-EU FTA 노동분쟁해결 절차가 종료(‘21.1월)되어 국가신인도 제고에 기여</div><div><div>* 제29호 : 강제노동금지(병역법 개정완료)</div><div>제87호 :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노조3법 개정완료)</div><div>제98호 :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노조3법 개정완료)</div></div><div>• 병역법을 개정(‘21.3월)하여 ‘강제노동’ 쟁점을 해소함으로써 노동 3법(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20.12.9)에 이어 노동기본권을 국제 수준으로 보장</div><div><div>* 주요내용 : 사회복무요원 복무 형태에 선택권을 부여(현역으로 자원입대 가능)</div></div></div> <div>■ 경사노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 시스템 내실화 및 경험 축적</div> <div><div>• ‘21년 다양한 의제·업종·계층별 위원회 및 연구회*를 가동(22개)하고,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여 논의 내실화</div><table><tr><td>구 분</td><td>의제별<br/> (4개)</td><td>업종별<br/> (5개)</td><td>계층별<br/> (4개)</td><td>특별<br/> (2개)</td><td>연구회<br/> (7개)</td></tr><tr><td>위원회명</td><td><div>· 사회안전망개선</div><div>· 노사관계개선</div><div>· 양극화해소</div><div>· 산업안전보건</div></td><td><div>· 관광산업</div><div>· 어선원고용</div><div>· 환경개선</div><div>· 플랫폼산업</div><div>· 공공기관</div><div>· 공무원노사관계</div></td><td><div>· 여성</div><div>· 청년</div><div>· 비정규직</div><div>· 소상공인</div></td><td><div>· 코로나19 위기 극복</div><div>· 근로시간면제 심의</div></td><td><div>· 국·공립대노사관계</div><div>· 지역사회적대화</div><div>· 기후변화</div><div>· 단체교섭개선</div><div>· 고령사회대응</div><div>· 자영업자고용보험</div><div>· 고용노동교육활성화</div></td></tr></table><div>• 경사노위 가동결과, 6개 합의문*을 최종의결(‘21.2월)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극복 노사정 협약(‘20년 7월)」 이행상황도 지속 점검하여 실효성 제고</div><div><div>* 6개 합의문 : ①관광산업 생태계 유지 및 고②배달종사자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div><div>③사람 중심 스마트공장 실현, ④근로자대표제도 개선,</div><div>⑤지속가능한 버스산업 발전, ⑥지속가능한 공공기관 발전</div></div></div> | 구 분                                                                                                              | 의제별<br>(4개)                                                         | 업종별<br>(5개)                                     | 계층별<br>(4개)                                                                                                                                        | 특별<br>(2개) | 연구회<br>(7개) | 위원회명 | <div>· 사회안전망개선</div> <div>· 노사관계개선</div> <div>· 양극화해소</div> <div>· 산업안전보건</div> | <div>· 관광산업</div> <div>· 어선원고용</div> <div>· 환경개선</div> <div>· 플랫폼산업</div> <div>· 공공기관</div> <div>· 공무원노사관계</div> | <div>· 여성</div> <div>· 청년</div> <div>· 비정규직</div> <div>· 소상공인</div> | <div>· 코로나19 위기 극복</div> <div>· 근로시간면제 심의</div> | <div>· 국·공립대노사관계</div> <div>· 지역사회적대화</div> <div>· 기후변화</div> <div>· 단체교섭개선</div> <div>· 고령사회대응</div> <div>· 자영업자고용보험</div> <div>· 고용노동교육활성화</div> |
| 구 분        | 의제별<br>(4개)                                                                                                                                                                                                                                                                                                                                                                                                                                                                                                                                                                                                                                                                                                                                                                                                                                                                                                                                                                                                                                                                                                                                                                                                                                                                                                                                                                                                                                                                                                                                                    | 업종별<br>(5개)                                                                                                      | 계층별<br>(4개)                                                         | 특별<br>(2개)                                      | 연구회<br>(7개)                                                                                                                                        |            |             |      |                                                                                 |                                                                                                                  |                                                                     |                                                 |                                                                                                                                                    |
| 위원회명       | <div>· 사회안전망개선</div> <div>· 노사관계개선</div> <div>· 양극화해소</div> <div>· 산업안전보건</div>                                                                                                                                                                                                                                                                                                                                                                                                                                                                                                                                                                                                                                                                                                                                                                                                                                                                                                                                                                                                                                                                                                                                                                                                                                                                                                                                                                                                                                                                                | <div>· 관광산업</div> <div>· 어선원고용</div> <div>· 환경개선</div> <div>· 플랫폼산업</div> <div>· 공공기관</div> <div>· 공무원노사관계</div> | <div>· 여성</div> <div>· 청년</div> <div>· 비정규직</div> <div>· 소상공인</div> | <div>· 코로나19 위기 극복</div> <div>· 근로시간면제 심의</div> | <div>· 국·공립대노사관계</div> <div>· 지역사회적대화</div> <div>· 기후변화</div> <div>· 단체교섭개선</div> <div>· 고령사회대응</div> <div>· 자영업자고용보험</div> <div>· 고용노동교육활성화</div> |            |             |      |                                                                                 |                                                                                                                  |                                                                     |                                                 |                                                                                                                                                    |

## ■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대표제도」 개선 노력 지속

- 노사 이견이 첨예한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 관련 사회적 대화('18.7월~)를 통한 경사노위 합의 도출('20.10.16) 및 노사정 만장일치로 본회의 의결('21.2.19)

\* 합의내용: 근로자대표의 대표성·민주성 및 이해대변 기능 보완을 위해 근로자대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 활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기 3년 보장 등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 마련('21.2월, 노사정 합의 → '22.1.11, 국회 통과) 및 공공기관 「근로자대표 이사회 참관제도」 시범운영(134개 기관) 추진

\*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선임

## ■ 대지급금(舊 체당금) 지급 확대 등 체불근로자 권익 구제 강화

- 체불근로자 생계지원 강화 등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정부개정안 국회 통과('21.3월, '21.10월 시행) 및 대지급금 수령기간 대폭 단축(약 7개월 → 2개월)

\* 주요내용: 재직자 대지급금 신설, 간이대지급금(舊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21.11월)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분쟁 발생 소지 감소 및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기간 단축 노력\*으로 대국민서비스 품질 향상

\* 신고사건 평균 처리일수(일): ('17년) 47 → ('18년) 51 → ('19년) 47 → ('20년) 44 → ('21년) 42

- 임금 체불은 감소하고 체불 청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체불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이 체불 해결 및 긴급한 생계 지원에 중요한 역할 담당

| 구 분                      | '19년                          | '20년                          | '21년                          |
|--------------------------|-------------------------------|-------------------------------|-------------------------------|
| 전체 체불인원<br>(대지급금 지급 근로자) | 344,977명<br>(100,185명, 29.0%) | 294,312명<br>(110,177명, 37.4%) | 247,005명<br>(106,922명, 43.3%) |
| 전체 체불액<br>(대지급금 지급액)     | 1조7,217억원<br>(4,599억원, 26.7%) | 1조5,830억원<br>(5,797억원, 36.6%) | 1조3,504억원<br>(5,466억원, 40.5%) |

### <정부 출범('17.5월~) 이후 핵심성과>

- 사회적 대화 복원과 함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격 출범('18.11월)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20.7월) 등 노·사·정 합의 도출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17.6월), 양대지침 폐기('17.9월) 등 문재인 정부 노동분야 핵심 국정과제 조기 이행

- ILO 핵심협약 비준완료('21.4.20) 및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20.12월)

- '18학년도부터 중·고등 1학년 사회 교과서에 노동권 내용을 반영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본격 실시하고, 전문기관도 출범(20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만장일치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합의('21.2월) 이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국회 환노위 계류중)을 위한 입법 지원 노력 강화 필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제목표                             | <div>■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 종합적 해소 추진</div> <div>■ 외주근로자, 감정노동자 등 보호 강화</di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평                               | <div>■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 취약노동자 보호 및 최저임금 안착 등 다각도로 노력하여 차별이 감소하고 임금격차가 완화</div> <div>■ 다만, 끼임·추락 등 재래형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제도보완 필요</di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년도<br>주요성과                    | <div>■ 비정규직 보호 노력으로 차별 감소 및 노동시장 이중성 완화 추세</div> <div>• 비정규직 차별시정, 근로조건 개선 노력 및 고용형태공시제 운영 등을 통해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등 지표가 개선추세</div> <div>* '20년 대비 사회보험 가입률(%): 국민연금(37.8 → 38.4), 건강보험(49.0 → 50.3), 고용보험(46.1 → 52.6)</div> <table><tr><td>구 분</td><td>'17년</td><td>'18년</td><td>'19년</td><td>'20년</td><td>'21년</td></tr><tr><td>비정규직 근로자 현황</td><td>191.7만명</td><td>193.0만명</td><td>186.9만명</td><td>192.3만명</td><td>188.5만명</td></tr><tr><td>비정규직 근로자 비율</td><td>40.3%</td><td>39.7%</td><td>38.5%</td><td>38.4%</td><td>37.9%</td></tr><tr><td>비정규직 vs 정규직<br/>시간당 임금비율</td><td>69.3%</td><td>68.3%</td><td>69.7%</td><td>72.4%</td><td>-<br/>(‘22.5월<br/>발표예정)</td></tr><tr><td>중소기업 비정규직 vs<br/>대기업 정규직 시간당 임금비율</td><td>40.3%</td><td>41.8%</td><td>42.7%</td><td>44.5%</td><td>-<br/>(‘22.5월<br/>발표예정)</td></tr></table> <div>* (출처)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및 비율은 고용형태공시제,<br/>비정규직-정규직 시간당 임금비율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div> <div>• 열악한 근무여건 및 현행 노동법 테두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택배기사, 필수노동자 및 플랫폼종사자를 위한 보호대책 이행 지속 및 법률 제정 노력</div> <div>* ❶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 대책(1차 '20.10.6, 2차 '20.12.14 관계부처 합동)</div> <div>❷ 플랫폼종사자 보호 대책('20.12.21, 관계부처 합동)</div> <div>❸ 필수업무종사자 보호법 제정 완료('21.5월 제정, '21.11월 시행)</div> <div>■ 최저임금 현장안착을 지원하여 임금 분배구조 개선에 기여</div> <div>•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확산 노력 등으로 저임금근로자 비중, 임금 5분위 배율 등 주요 분배지표가 개선되고, 생활임금제 도입 지자체도 증가 추세</div> <div>* 최저임금 위반 신고건수: ('19년) 2,336건 → ('20년) 2,293건 → ('21.12월) 1,852건</div> <div>* 생활임금제 도입 지자체: 조례제정·시행 116개(광역시 15, 기초 90) / 전체 243개(광역시 17, 기초 226)</div> <table><tr><td>구 분</td><td>'17년</td><td>'18년</td><td>'19년</td><td>'20년</td></tr><tr><td>저임금 근로자 비율</td><td>22.3%</td><td>19.0%</td><td>17.0%</td><td>16.0%</td></tr><tr><td>임금 5분위 배율</td><td>5.06</td><td>4.67</td><td>4.50</td><td>4.35</td></tr></table> <div>• 소규모 취약사업장에 안내·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최저임금 현장안착 노력 계속</div> <div>*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현황: ('18년) 264만명, 65만개소 → ('19년) 344만명, 83만개소 → ('20년) 360만명, 83만개소 → ('21년) 322만명, 76만개소</div> | 구 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 191.7만명 | 193.0만명 | 186.9만명 | 192.3만명 | 188.5만명 |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 40.3% | 39.7% | 38.5% | 38.4% | 37.9% | 비정규직 vs 정규직<br>시간당 임금비율 | 69.3% | 68.3% | 69.7% | 72.4% | -<br>(‘22.5월<br>발표예정) | 중소기업 비정규직 vs<br>대기업 정규직 시간당 임금비율 | 40.3% | 41.8% | 42.7% | 44.5% | -<br>(‘22.5월<br>발표예정) | 구 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저임금 근로자 비율 | 22.3% | 19.0% | 17.0% | 16.0% | 임금 5분위 배율 | 5.06 | 4.67 | 4.50 | 4.35 |
| 구 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 191.7만명                                                                                                                                                                                                                                                                                                                                                                                                                                                                                                                                                                                                                                                                                                                                                                                                                                                                                                                                                                                                                                                                                                                                                                                                                                                                                                                                                                                                                                                                                                                                                                                                                                                                                                                                                                                                                                                                                                                                                                       | 193.0만명 | 186.9만명 | 192.3만명 | 188.5만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 40.3%                                                                                                                                                                                                                                                                                                                                                                                                                                                                                                                                                                                                                                                                                                                                                                                                                                                                                                                                                                                                                                                                                                                                                                                                                                                                                                                                                                                                                                                                                                                                                                                                                                                                                                                                                                                                                                                                                                                                                                         | 39.7%   | 38.5%   | 38.4%   | 37.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정규직 vs 정규직<br>시간당 임금비율          | 69.3%                                                                                                                                                                                                                                                                                                                                                                                                                                                                                                                                                                                                                                                                                                                                                                                                                                                                                                                                                                                                                                                                                                                                                                                                                                                                                                                                                                                                                                                                                                                                                                                                                                                                                                                                                                                                                                                                                                                                                                         | 68.3%   | 69.7%   | 72.4%   | -<br>(‘22.5월<br>발표예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소기업 비정규직 vs<br>대기업 정규직 시간당 임금비율 | 40.3%                                                                                                                                                                                                                                                                                                                                                                                                                                                                                                                                                                                                                                                                                                                                                                                                                                                                                                                                                                                                                                                                                                                                                                                                                                                                                                                                                                                                                                                                                                                                                                                                                                                                                                                                                                                                                                                                                                                                                                         | 41.8%   | 42.7%   | 44.5%   | -<br>(‘22.5월<br>발표예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임금 근로자 비율                       | 22.3%                                                                                                                                                                                                                                                                                                                                                                                                                                                                                                                                                                                                                                                                                                                                                                                                                                                                                                                                                                                                                                                                                                                                                                                                                                                                                                                                                                                                                                                                                                                                                                                                                                                                                                                                                                                                                                                                                                                                                                         | 19.0%   | 17.0%   | 1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금 5분위 배율                        | 5.06                                                                                                                                                                                                                                                                                                                                                                                                                                                                                                                                                                                                                                                                                                                                                                                                                                                                                                                                                                                                                                                                                                                                                                                                                                                                                                                                                                                                                                                                                                                                                                                                                                                                                                                                                                                                                                                                                                                                                                          | 4.67    | 4.50    | 4.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민·관의 노력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 추세를 견인

-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민간의 자율 노력 및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등으로 **산재 사망사고자 수 및 만인율이 감소 추세**

\* 산재사망사고자 수: ('13년) 1,090명, 0.71‰ → ('15년) 955명, 0.53‰ → ('17년) 964명, 0.52‰  
→ ('19년) 855명, 0.46‰ → ('20년) 882명, 0.46‰ → ('21년) 828명, 0.43‰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월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2.1월 시행) 등

\* (안전시설 구축지원) 위험기계교체 등 클린사업장 조성<'20년 1,683억원, '21년 4,490억원>, 이중 가스감지기 등 화재예방 지원<'20년 700억원, '21~'25년 매년 140억원>

\* 건설사업장 본사 감독 실시: 14개사(현장지도·감독 사상 최초 실시)

- 산재보험 적용·가입대상을 확대하여 특고종사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실적용률 제고를 위해 제도를 개선**(산재보험법 및 보험료 징수법 개정완료)

\* ❶ 적용직종 확대경과: (~'18.12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9개 직종 → ('19.1월) 전체 건설기계조종사(27개 직종) → ('20.7월) 화물차주, 방문서비스 종사자

❷ 적용직종 추가확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6.6만명, '21.7.1~)

유통배송기사, 택배기사, 특정화물차주(11.8만명, '22.7.1~)

❸ 적용률 제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육아·질병 휴직, 사업주 휴업 등으로 제한  
고위험 직종 특고종사자 산재보험료 50% 경감

자진신고시 보험료 소급징수를 면제하여 사업주의 가입을 독려

### <정부 출범('17.5월~) 이후 핵심성과>

- 최저임금 합리적 결정 및 현장안착을 지원하여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감소하고, 임금격차 완화되는 등 소득불평등 개선에 기여

\* 최저임금(원): ('18년) 7,530 → ('19년) 8,350 → ('20년) 8,590 → ('21년) 8,720 → ('22년) 9,160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5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18.12월) 등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실적: ('18년) 264만명, 65만개 사업장, 2.5조원  
( '19년) 344만명, 83만개 사업장, 2.8조원  
( '20년) 355만명, 82만개 사업장, 2.6조원  
( '21년) 322만명, 76만개 사업장, 1.0조원

#### <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조 >

| 연도   | '20.3분기 | '21.3분기 |
|------|---------|---------|
| 전체소득 | 437.7만원 | 472.9만원 |
| 근로소득 | 430.8만원 | 466.6만원 |
| 사업소득 | 85.3만원  | 88.5만원  |
| 재산소득 | 3.1만원   | 2.4만원   |

#### < 임금분배지표 >

| 연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
| 저임금근로자 비중 | 22.3% | 19.0% | 17.0% | 16.0% |
| OECD      | 14.0% | 13.8% | 13.9% | -     |
| 임금 5분위 배율 | 5.06  | 4.67  | 4.50  | 4.35  |

- 비정규직 감축 로드맵\* 마련('17.10월) 및 차별 없는 노동환경 개선\*\* 노력

\* 비정규직 남용방지, 차별시정제도 개편, 비정규직 노동조건 보장 등

\*\* 비정규직 차별, 불법파견 등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1년 미만 근속자 연차휴가 제도 개선(근로기준법 개정, '18.5월) 및 감정노동자 건강 보호(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8.4월)

-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1,745명 정규직 전환 완료(~'21.6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산재사망사고 만인율(‰)이 개선 추세이나,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중이므로 지속적인 예방노력 필요

\* 추락, 끼임 사고 비율(%): ('17) 48.5 → ('18) 50.3 → ('19) 53.0 → ('20) 48.3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 및 비양육자에 대한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고</li> <li>■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을 가족 다양성, 보편적 지원, 성평등 관점으로 전환</li> <li>■ 양육비 이행 제재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양육비 채무금액 요건 조정 검토 및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강화 방안 마련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및 자립·생활도움·주거 지원 강화로 한부모·조손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신규 지원(월 10만원) 및 청년 한부모(만 25~34세) 대상 추가아동양육비(월 5~10만원) 신규 지급('21.5월~)</li> <li>* 아동양육비 지원 : ('19년) 13만 3천명 → ('20년) 13만 6천명 → ('21년) 18만 8천명</li> <li>•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월 25만원)하고, 손자녀 학습·정서 및 생활도움 지원 등 서비스 제공</li> <li>* 통합사례관리 270가구, 학습·정서지원 5,013건, 생활도움지원 262건('21년)</li> <li>•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공동 생활가정형 임대 주택을 확충하여 한부모 가족의 주거안정 도모</li> <li>*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 → (완화) 중위소득 100% 이하, '21년 신규 33호 공급(누적 222호)</li> </ul> </li> <li>■ 양육비 고충 해소를 위해 양육비 이행 강화로 한부모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 대한 맞춤형 종합 서비스 지원(합의, 소송, 감치 등)으로 양육비 지급이행률 지속 증가</li> <li>* 이행률 증가 : ('19년) 35.6% → ('20년) 36.1% → ('21년) 38.3%</li> <li>• 양육비 채무자 대상 지급의무 불이행시 제재 조치 강화를 통한 양육비 이행 독려</li> <li>* (접수) 명단공개(11명), 출국금지(24명)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32명) → (조치) 출국금지(9명), 운전면허 정지처분(4명), 명단공개(2명)</li> <li>•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을 완화(중위소득 60% → 75%)하여 한부모 자녀의 생존권 보호에 기여</li> <li>*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15.3~'21.12)으로 816가구, 1,415명 아동 대상 총 1,122백만원 지원</li> </ul> </li> </ul> |

|                       |                                                                                                                                                                                                                                                                                                                                                                                                                                                                                                                                                                                                                                                                                                                                                                                                                                                                                                                                                                                                                                                                                                                                                                                                                                                                                                                                                                                                                                                                                                                                                                                                                                                                                                                                                                                                                                                                   |
|-----------------------|-------------------------------------------------------------------------------------------------------------------------------------------------------------------------------------------------------------------------------------------------------------------------------------------------------------------------------------------------------------------------------------------------------------------------------------------------------------------------------------------------------------------------------------------------------------------------------------------------------------------------------------------------------------------------------------------------------------------------------------------------------------------------------------------------------------------------------------------------------------------------------------------------------------------------------------------------------------------------------------------------------------------------------------------------------------------------------------------------------------------------------------------------------------------------------------------------------------------------------------------------------------------------------------------------------------------------------------------------------------------------------------------------------------------------------------------------------------------------------------------------------------------------------------------------------------------------------------------------------------------------------------------------------------------------------------------------------------------------------------------------------------------------------------------------------------------------------------------------------------------|
|                       | <p>■ <b>다문화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결혼이민자 종합 지원 체계</b>로 초기 정착을 돕고, 다양한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취업·자립 달성, 사례관리 맞춤형 서비스로 위기상황 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립지원패키지 운영기관 및 이용인원 : ('20년) 196개소 30,816명 → ('21년) 203개소 32,208명</li> </ul> </li> <li>• <b>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사업</b>으로 미래설계, 사회성 발달 등의 기회 제공, 민관협력을 통해 학업 동기 부여, 진로·진학 지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기관 및 이용인원 : ('20년) 196개소 107,431명 → ('21년) 203개소 146,938명</li> </ul> </li> <li>• <b>다문화가족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b>을 적극 홍보하고, 중대본 등과 협업하여 각종 방역지침을 다국어 통·번역 서비스로 신속하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자 통화 등 코로나19 관련 기관 협력(다누리콜) : 76,421건('21년)</li> </ul> </li> </ul> <p>■ <b>취약·위기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가족정책 추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1~'25)」을 수립(부처합동, '21.4.27)함으로써 가족다양성·보편적 지원, 성평등의 관점으로 <b>가족정책 패러다임 전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②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③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 ④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li> </ul> </li> <li>•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가족과 사고·재난을 당한 위기가족 등에게 실질적인 생활도움 및 상담 등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도움지원 3,227건, 자원연계 51,931건, 긴급 위기가정지원 983가정 등('21년)</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대상 확대,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및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강화</li> <li>•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강화조치를 마련(양육비이행법 개정, '21.7)하였고 면접교섭서비스 위탁수행기관 확대(11개소) 등 국가의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li> <li>• 결혼이민자의 정착과 자립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취업·언어·교육·문화 등 종합지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립지원패키지:('17년) 101개소→('21년) 203개소/자녀성장지원: ('17년) 107개소 → ('21년) 203개소</li> </ul> </li> </ul> </div> |
| <b>개선·보완<br/>필요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비 이행 제재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양육비 채무금액 요건(현재 5천만원) 조정 검토 및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양육비 지원강화 방안 마련 필요</li> </ul>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민관협치 등을 통해 성평등 문화 정착</li><li>■ 젠더폭력 방지 국가책임 강화</li></ul>                                                                                                                                                                                                                                                                                                                                                                                                                                                                                                                                                                                                                                                                                                                                                                                                                                                                                                                                                                                                                                                                                                                                                                                                                                                                                                                                                                                                                                                                                                            |                       |                       |      |      |                  |                       |                       |                       |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고위공무원 여성 목표비율 등 12개 분야 목표를 3년 연속 달성함에 따라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을 제고하였으며,</li><li>■ 「스토킹처벌법」 제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li><li>■ 다만, 법제도 정비에 따른 제도의 정착을 위해 후속 조치 추진 등 지속적 노력 필요</li></ul>                                                                                                                                                                                                                                                                                                                                                                                                                                                                                                                                                                                                                                                                                                                                                                                                                                                                                                                                                                                                                                                                                                                                                                                                                                                                                                                                                                                           |                       |                       |      |      |                  |                       |                       |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의사결정 직위에 여성 진출 확대 및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산<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18~'22)」 '21년 하반기 점검 결과(9월), 3년 연속('19~'21) 12개 전 분야 목표 달성, 4개 분야는 '22년 목표까지 초과달성<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중앙부처 본부과장급 여성비율 : ('17년) 14.8% → ('19년) 20.8% → ('21년) 24.0%</li><li>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여성비율 : ('17년) 13.9% → ('19년) 17.8% → ('21년) 23.8%</li><li>공공기관 임원 여성비율 : ('17년) 11.8% → ('19년) 21.1% → ('21년) 22.4%</li></ul></li><li>• 상장법인 성별 임원 현황을 발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20.8월) 등의 노력으로, 자산총액 2조 이상 기업의 여성등기임원 선임 대폭 상승</li></ul></li></ul> <table><tr><th>구분</th><th>'19년</th><th>'20년</th><th>'21년</th></tr><tr><td>여성 등기임원 선임 기업 비율</td><td>19.0%<br/>(142개 중 27개)</td><td>30.6%<br/>(147개 중 45개)</td><td>55.9%<br/>(152개 중 85개)</td></tr></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및 예방 등 촘촘한 대응 체계 구축으로 젠더폭력 근절 노력 강화<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인신매매방지법」과 「스토킹처벌법」을 제정('21.4)하여 다양한 젠더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스톱킹 일평균 신고현황('21, 경찰청) :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24건 → (시행 후 1개월) 102건</li></ul></li><li>• 「청소년성보호법」 개정('21.3)으로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신설 및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특례 마련</li><li>•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강화하여 삭제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범죄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월평균 지원건수 : ('18년) 4,240건 → ('21년) 15,673건(3.7배 이상 증가)</li></ul></li><li>•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21.8)으로 2차 가해 양정기준 마련, 기관별 2차 피해 방지 지침 마련 등을 통해 대응 체계화<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대상 기관(약 485개) 중 약 88%(427개) 지침 마련 ('21.10월 기준)</li></ul></li></ul></li></ul> | 구분                    | '19년                  | '20년 | '21년 | 여성 등기임원 선임 기업 비율 | 19.0%<br>(142개 중 27개) | 30.6%<br>(147개 중 45개) | 55.9%<br>(152개 중 85개) |
| 구분               | '19년                                                                                                                                                                                                                                                                                                                                                                                                                                                                                                                                                                                                                                                                                                                                                                                                                                                                                                                                                                                                                                                                                                                                                                                                                                                                                                                                                                                                                                                                                                                                                                                                                           | '20년                  | '21년                  |      |      |                  |                       |                       |                       |
| 여성 등기임원 선임 기업 비율 | 19.0%<br>(142개 중 27개)                                                                                                                                                                                                                                                                                                                                                                                                                                                                                                                                                                                                                                                                                                                                                                                                                                                                                                                                                                                                                                                                                                                                                                                                                                                                                                                                                                                                                                                                                                                                                                                                          | 30.6%<br>(147개 중 45개) | 55.9%<br>(152개 중 85개)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응급키트 지원을 확대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성폭력 초기 대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비 지원 : ('17년) 11,720명 → ('19년) 12,725명 → ('21년) 13,164명</li> <li>응급키트 배포량 : ('17년) 4,025세트 → ('21년) 4,353세트</li> </ul> </li> <li>■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 및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에 성평등 관점 적극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8개 부처 /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검찰청, 경찰청) 운영으로 성평등 관점의 정책 개선 및 성희롱·성폭력 문제 대응</li> <li>성별영향평가를 통한 법·제도 개선으로 성평등 정책 체감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개선 이행율 : ('17년) 40.9% → ('20년) 44.7% (3.8%p ↑)</li> </ul> </li> <li>직급별·생애주기별(신임 - 승진 - 관리자) 성인지교육 지원체계 마련으로 공무원의 지속적·체계적 성인지 정책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신규자(5·7급), 과장 후보자, 고위직 등 기본 교육과정 편성</li> </ul> </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문화·복지·고용 등 영역별 성차별·폭력 근절을 위해 양성평등 정책담당관(전담부서) 설치(8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대검찰청, 경찰청</li> </ul> </li> <li>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및 민간부문으로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공무원 본부과장급, 지방과장급, 공공기관 임원 등 12개 지표에서 3년('19~'21)연속 목표 달성</li> </ul> </li> <li>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18.12), 인신매매방지법 및 스토킹처벌법 제정('21.4) 등을 통한 젠더폭력 방지정책 추진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범('19),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20)</li> </ul> </li> <li>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출범('18.8월) 및 「위안부피해자법」 개정('17.11)을 통한 기림의 날(8.14) 정부 기념식 지정으로 피해자 명예회복 추진</li> </ul> </div> |
| 개선·보완<br>필요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성보호법」개정('21.3월)과 「스토킹처벌법」제정('21.4월) 등 법제도 정비에 따른 제도의 정착을 위해 후속조치 추진 등 지속적 노력 필요</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문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 확보</li> <li>■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강화</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상황에서도 적합한 비대면 콘텐츠 등 문화향유 기반 조성을 통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li> <li>■ 다만, 문화영향평가 확산 및 실효성 확보 노력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상황에 적합한 비대면 문화향유 환경조성을 통해 국민의 코로나 우울 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상황에도 문화예술교육, 길위의 인문학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323만명이 참여*하는 등 국민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프로그램 수혜자 ('20년) 283만명 → ('21년) 323만명, 전년 대비 14.1% 증가</li> </ul> </li> <li>• 비대면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예술처방전*', 비대면 문화콘텐츠 제작 확대**, 박물관·미술관 등 온라인 전시행사(241만명 관람) 등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문화환경 조성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개 시도 20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예술치유 키트(5종) 및 미술·음악 등 예술치유 키트(5종) 및 비대면 예술치유 프로그램 제공(2,160여명 수혜)</li> <li>** ▲비대면 콘텐츠 통합홍보 '집콕 문화생활' 25.9만명 방문, ▲온라인 공연 중계 40건, 9만명 시청, ▲OTT 특화콘텐츠 제작(다큐 98편 등), ▲지능형 공립 박물관·미술관 구축(65개소), 국립 박물관·미술관 온라인 전시 콘텐츠 개발(875건 지원)</li> </ul> </li> </ul> </li> <li>■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노력을 통한 지역문화 균형발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도시(1·2·3차 포함 18곳)* 지정 및 조성(국비 274억원)을 통해 지역 쇠퇴 문제를 문화로 해소하고 지역 성장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문화도시 7개소 지정('19.12월), 제2차 문화도시 5개소 지정('21.1월), 제3차 문화도시 6개소 지정('21.12월)</li> </ul> </li> <li>•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369명)·배치(79명), 역량강화 등 지역문화인력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역에 기반한 문화인력 활동 생태계 구축</li> </ul> </li> <li>■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생활문화시설 확충,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 제작 등 일상 속 문화향유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계층이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금 인상 및 수혜 인원 확대*로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1인당, 연간), 수혜인원 : ('20년) 9만원, 175만명 → ('21년) 10만원, 197만명</li> </ul> </li> <li>• 공공도서관, 공립박물관,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문화시설 확충(3,083개소), 문화동호회 활성화*, 일상 문화활동 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생활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동호회: ('17년) 1,450개 → ('21년) 2,550여개</li> <li>** 문화매개인력 9,821명 배치: 예술강사 9,313명, 인문학동가 129명, 병영독서강사 300명, 지역문화기획가 79명</li> </ul> </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궁궐 프로그램 운영, 조선왕릉문화제 확대 등 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를 강화*</b>하여 국민의 <b>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b></li> <li>* 궁중문화축전 44개(온라인 159만회 조회 / 오프라인 8만명 관람), 궁궐 체험 16개, 조선왕릉문화제(온라인 26편 136,587회 조회 / 오프라인·비대면 17개 17,331명)</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시설 확충 등 일상 속 문화향유 여건을 확대*하여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19년 81.8%로 상승</li> <li>*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16년) 78.3% → ('19년) 81.8% (3.5%p 증가)<br/>문화시설 확충: ('17년) 2,656개 → ('21년) 3,083개<br/>( '17년) 공공도서관 1,010개, 박물관 853개, 미술관 229개, 문예회관 등 564개<br/>( '21년) 공공도서관 1,172개, 박물관 900개, 미술관 271개, 생활문화센터 등 740개)</li> <li>• 코로나에 대응한 비대면 문화환경 조성*으로 문화를 통한 일상회복 지원</li> <li>* 비대면 홍보: '집콕 문화생활' 25.9만명 방문<br/>온라인 공연 중계: 9만명 시청<br/>문화예술프로그램 수혜: ('20년) 283만명 → ('21년) 323만명, 전년 대비 14.1% 증가</li> <li>•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증액* 및 수혜인원 확대**로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여건 개선에 기여</li> <li>* 지원금: ('17년) 6만원 → ('18년) 7만원 → ('19년) 8만원 → ('20년) 9만원 → ('21년) 10만원<br/>** 수혜인원 ('17년) 152만명 → ('18년) 159만명 → ('19년) 163만명 → ('20년) 175만명 → ('21년) 197만명</li> <li>• 문화도시 지정 및 조성*,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간 균형발전 및 문화다양성 확보로 지역간 문화격차의 점진적 해소***에 기여</li> <li>* 문화도시: 제1차 문화도시 지정(7개소, '19.12), 제2차 문화도시 지정(5개소, '21.1), 제3차 문화도시 6개소 지정('21.12월)</li> <li>** 지역 전문인력 양성: ('17년) 180명 → ('21년) 369명 / 배차: ('17년) 35명 → ('21년) 79명</li> <li>*** 문화예술관람률 대도시-읍면지역 격차: ('16년)15.5% → ('19년)12.7%</li> </ul> </div> |
| <b>개선·보완<br/>필요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문화영향평가 확산 및 실효성 확보 노력 필요</b></li> <li>- 「문화기본법」 개정* 노력과 함께 현재 문체부가 주도하는 문화영향평가 제도가 지자체로 확산될 필요**</li> <li>* 대규모 예산사업 등 평가대상 구체화, 자료제출 요구 등 실효성 강화, 전담·평가기관 전문화 등 개정안 발의('20.12월) 및 법안 소위 상정('21.6월)</li> <li>** 문화영향평가 46건 중 75%(35건) 문체부 주관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해당(문화영향평가 운영실태와 서울시 실행방안, 서울연구원, '21.6월)</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가 지위 및 권익 보장을 위한 법 제정,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토대 마련 및 마음 놓고 창작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에 기여</li> <li>■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20.12월) 1년이 경과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요건·신청절차 홍보 및 미가입자 가입독려 지속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21.9월)*으로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토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내용)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금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및 '예술인보호관' 등 예술인 권리구제를 위한 조사 및 심의의결기구 설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정 권고·명령 및 재정지원 중단·배제 통보 등</li> </ul> </li> <li>• 미술품 재판매권 도입, 미술 창작유통 등 산업화 지원을 위한 「미술진흥법」 제정안* ('21.7.14. 발의) 입법지원을 통해 예술인 권리보장과 불공정 행위 방지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내용) 창작·유통·향유 등 생태계 지원, 소비자 보호 및 표준계약서, 미술품 유통업·감정업 신고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미술진흥기구 마련(국립미술진흥원 등)</li> </ul> </li> <li>■ 예술인 고용보험(가입자 10만명) 및 복지사업 확대(수혜자 2.6만명) 등을 통해 예술인의 실질적 복지향상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인 고용보험 안착을 위한 타부처·민간 등 적극적 협의*를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20.12월) 1년여 만에 106,652명 가입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부, 방송사 등 협의(6~9월, 총 5회), 웹툰 어시스턴트·연예 예술인 등 사업주 명확화, 노무법인 신고대행 등 가입편의 제공 및 홍보 결과, '21년 목표(50%) 초과 달성</li> </ul> </li> <li>• 코로나로 인한 예술인의 피해에 적극 대응하여 창작준비금 확대*, 생활안정자금 용자** 등을 통해 예술인의 경제적 안정에 실질적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작준비금: ('20년) 461억원, 15,260명 → ('21년) 694억원, 24,000명(전년대비 50.5% 증)</li> <li>**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용자: 198억원, 2,418명 지원('21.12월말 기준)</li> <li>*** 예술인 복지사업 수혜자: '21년 26,418명(목표 19,300명 대비 137% 달성)</li> </ul> </li> <li>• 공연예술 분야 등 표준계약서 제·개정, 전자계약 지원, 상담* 및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서면계약 체결률 대폭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면계약 상담: ('20년) 214건 → ('21년) 546건 / 전자계약 체결: ('21년) 196업체 지원</li> <li>** 계약교육 참여 예술인: ('18년)1,864명 → ('19년)2,888명 → ('20년)8,182명 → ('21년)18,797명</li> <li>*** 서면계약 체결률: ('18년) 37.3% → ('21년) 48.7%</li> </ul> </li> </ul> </li> <li>■ 지원기관 자율성 보장, 문예기금 음부즈만 제도 강화 등을 통해 민주적인 문화예술 행정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 채택(3.10)으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 재확인을 통해 기관의 자율성 보장</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음부즈맨제도 강화*를 통해 심의 공정성 지수 지속 상승** 등 투명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부즈맨 제도 전년대비 신청건수 3.8배로 대폭 증가: ('20년), 22건 → ('21년) 83건</li> <li>** 문예기금 심의공정성 지수(%): ('19년) 66.1% → ('20년) 67.0% → ('21년) 67.3%</li> </ul> </li> <li>• 현장소통위원회 개최(26회), 온라인 공론장 신설('21.8월)* 등 정기적인 예술 현장 의견수렴 및 소통창구 확대 등을 통한 민주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르코 온라인 공론장: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21.8월~12월, 10편)</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21.9월)*,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20.12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고용안정 및 복지 강화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내용)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등 금지, ▲ 예술인 권리구제를 위한 조사 및 심의·의결기구 설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정 권고·명령 등</li> <li>**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20.5.20),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20.12월) 1년여 만에 106,652명 가입</li> <li>*** (생활안정자금 융자): ('19.6월 시범실시) 1,497명(80억원) → ('20년) 3,486명(180억원) → ('21년) 2,420명(198억원)</li> </ul> </li> <li>• 창작준비금 확대*, 연습공간 지원** 및 전시공간 조성 등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여건 개선 및 창작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작준비금: ('17년) 4014명→('18년) 4501명→('19년) 5500명→('20년) 15,260명→('21년) 24,000명</li> <li>** 공연예술연습공간: 20개소 조성 완료 및 연차별 운영비 지원 12개소('21년 기준)</li> </ul> </li> <li>•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서면계약 조사·시정명령권 신설('20.6월), 신고창구** 및 교육 확대*** 등 문화예술계의 서면 계약문화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계약서) 미술 11종('19.3), 공연예술('21.6월), 공예('21.7월) 분야 제·개정</li> <li>** (신고창구) ('17년) 6개 → ('18년) 9개 → ('19년) 12개 → ('20년) 17개 → ('21년) 19개소</li> <li>*** (계약교육) ('18년) 1,864명 → ('19년) 2,888명 → ('20년) 8,182명 → ('21년) 18,797명</li> <li>**** (서면계약 체결률) ('15년) 25.5% → ('18년) 37.3% → ('21년) 48.7%</li> </ul> </li> </ul> </div> |
| 개선·보완<br>필요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20.12월)후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적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신청절차 등 사전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독려 지속 필요</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콘텐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지원을 통해 유망 콘텐츠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 보호노력, 한류확산으로 저작권 무역수지 최대 흑자 달성, 화장품·농수산물식품 등 연관산업 동반성장 견인</li> <li>■ 다만, 한류확산에 따른 문화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 강화 노력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의 공익성 제고, 저작권 보호로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계 자정활동 지원*, 자율심의 참여 확대('21, 1,230개사, 전년 比 4.8% 증가) 등을 통해 언론의 공익성·신뢰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선언('20.1.), 감염병 보도준칙('20.4.), 언론윤리헌장('21.1.) 등 제정</li> </ul> </li> <li>• 콘텐츠 제작·유통 등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법 개정* 및 국제공조** 등 저작권 보호 노력을 통해 최대 저작권 수지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1.5.)을 통해 영화 분야 성폭력 예방조치 의무화. 근로환경 개선</li> <li>** (국제공조) 저작권보호 국제공조 체계 구축을 위한 문체부-인터폴-경찰청 양해각서 체결('21.4.), 국제 공조수사 추진('21~'26, 총 36억원 규모)</li> <li>*** (저작권 수지) '21년 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 19.6억 달러 달성('20 하반기 比 125% 상승), '21년 세계지식재산기구 '글로벌혁신지수' 5위 달성(전년 比 5단계 상승, 아시아 1위)</li> </ul> </li> </ul> </li> <li>■ 한류 확산을 통한 소프트파워 성장 및 연관산업 동반성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텐츠 수출을 위한 수출플랫폼* 등 인프라 지원, 온라인 콘텐츠 수출마켓** 운영 등을 통해 한류 콘텐츠 해외 진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해외기업 간 상시 비즈매칭을 위한 '온라인 B2B 마켓플레이스' 구축 등을 통해 수출정보 2,140건, K-콘텐츠 정보 3,277건, 기업 정보 1,779건, 콘텐츠 수출상담 602건</li> <li>** 국내 콘텐츠 기업과 해외 바이어 기업간 화상 수출 상담회('21.6.23, 국내 47개사 및 해외 바이어 6개국 81개사가 참가)를 통해 비즈매칭 214건, 38백만달러 수출상담액 달성</li> </ul> </li> <li>• 범정부 한류 연관산업 공동 홍보마케팅 행사인 'K-박람회*'를 통해 K-브랜드 (문화, 식품, 미용 등)를 집중 홍보하여 연관산업 동반성장 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성과) 국내기업 498개사 및 해외기업 432개사 참여, 화상수출상담 1,508건</li> </ul> </li> <li>• 범부처 협력으로 한류 및 연관산업 (화장품, 농수산물식품 등) 해외진출 협력, '21년 수출 역대 최고치 기록* 및 지속 성장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품) ('16) 41.9억달러 → ('21) 91.9억달러 / (농수산물식품) ('16) 77.0억달러 → ('21) 102.4억달러</li> </ul> </li> </ul> </li> <li>■ 정책금융 확대, 융합콘텐츠 육성 등을 통한 콘텐츠산업 성장 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의 오징어게임 육성을 위한 '방송OTT·영상콘텐츠 펀드' 신설('21년, 303억원), 정책금융 확대('17년~'21년, 연평균 3,884억원) 등을 통한 기업 육성 성공사례 창출* 등 국내 콘텐츠 산업의 급격한 성장 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공사례) 영화 특수효과(VFX) 제작사인 A기업은 모태펀드에서 20억원 지분투자를 받은 이후 세계적 수준의 회사로 성장('21.11. 코스닥 시가총액 1조 2,464억원)</li> <li>** (콘텐츠 산업) 최근 5년간('16~'20) 연평균 성장률 매출 4.4%(전체산업 평균 1.3%의 3.4배), 수출 15.9%(전체산업 평균 0.9%의 17.7배) 달성</li> </ul> </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3년간('21~'23) 콘텐츠 시장에 1조원 공급, 효율적 펀드 운용으로 정부출자금 규모의 2.17배* 투자견인</b><br/> * 문화계정('06~'21 누적): 정부출자 1조 2,505억원, 총 투자 2조 7,246억원</li> <li>• <b>신기술(AR 등) 기반 실감콘텐츠 제작 지원* 및 비대면 공연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등을 통해 첨단기술 기반 융합콘텐츠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b><br/> * (뉴콘텐츠 육성) 실감콘텐츠 제작지원(12개), 뉴콘텐츠 신생기업 육성을 위한 입주시설 확대 추진(17개사 → 40개사)<br/> ** (디지털 역량강화) 온라인 케이팝 공연장 조성('21.11월), 비대면 공연 제작 지원('21.6월~, 47건), 한류 콘텐츠 온라인 전시관 구축('21.12월)<br/> *** (기업맞춤형 기술개발) 콘텐츠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R&amp;D 지원('21, 23건, 64억원), 우수 성공사례 창출(세계 최초 인공지능 가창합성 기술 활용, 故김현식(조희수 128만), 거북이(905만) 등 공연 제작 및 약 40억원 투자유치)<br/> **** (인재육성)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17개 기관, 440명/멘토 221명 매칭, 35개 사업화 지원), 문화기술 전문인력 양성(37개 프로젝트, 193명) 콘텐츠원캠퍼스(22개 프로젝트, 1,130명)</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범정부 한류협력위원회 발족('20.2월),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20.7월)을 통한 신한류 확산 및 연관산업 수출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b><br/> * 한류 콘텐츠 다양화, 한류로 연관산업 견인, 지속가능한 한류 확산 토대 형성<br/> ** 한류 연관산업으로 화장품, 농식품 등 '20년 수출 역대 최고치 기록</li> <li>• <b>문화콘텐츠 정책금융 확대, 융합 콘텐츠 집중 육성, 한류 및 연관산업 동반진출 지원으로 콘텐츠산업* 및 연관산업 동반성장** 견인</b><br/> * 국내 콘텐츠산업은 최근 5년간('16~'20) 급성장<br/> (연평균 매출 증가율) 4.4%(전체산업 평균 1.3%의 3.4배)<br/> (연평균 수출 증가율) 15.9%(전체산업 평균 0.9%의 17.7배)<br/> ** 화장품·농수산식품 수출 역대 최고기록<br/> (화장품 수출) ('16년) 41.9억달러 → ('21년) 91.9억달러<br/> (농수산식품 수출) ('16년) 77.0억달러 → ('21년) 102.4억달러</li> <li>• <b>저작권 보호노력과 한류확산으로 저작권 무역수지 최대 흑자('21.上, 19.6억달러) 달성 및 '글로벌혁신지수' 5위 달성(전년 比 5단계 상승, 아시아 1위)</b></li> <li>• <b>세종학당 운영 확대*, 쌍방향 문화교류 지속 등 지속가능한 신한류 진흥 노력으로 '20년 한류 동호인 수 1억명 달성** 등 한류 저변 확산 기여</b><br/> * 세종학당 개소 수: ('17년) 54개국 171개소 → ('21년) 82개국 234개소<br/> 세종학당 수강생 수: ('17년) 56,202명 → ('21년) 81,195명<br/> ** 해외 한류 동호인 수 : ('16년) 5,838만명 → ('17년) 7,312만명 → ('20년) 10,478만명</li> </ul> </div> |
| <b>개선·보완<br/>필요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한류확산에 따른 문화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 강화 필요</b><br/> -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및 불법유통에 대응하여, 국제 공조 수사 등 협력 강화, 불법 콘텐츠 신속 삭제* 등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br/> *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무소 불법콘텐츠 삭제현황) '19~'21년 삭제요청 70만건, 삭제완료 36만건(51%)</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국민 맞춤형 미디어교육 실시 및 시청자의 방송 참여 확대</li> <li>■ 대·중소기업 상생환경 조성, 지역방송 활성화 등 미디어시장 선순환 생태계 구축</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 지원</li> <li>■ 온라인 플랫폼 규제 합리화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인앱결제 강제금지를 위한 실효적 집행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금지, 방송광고·협찬제도 개선 및 유료방송 불균형 규제 정비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해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제화*를 통해 국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 및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앱마켓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1.9월)</li> <li>→ (美 뉴욕타임즈·日 니혼게이샤 등) 우리 입법 사례가 세계적인 시금석이 될 것이라 보도</li> </ul> </li> <li>•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및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작 자원 확충을 위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광고·협찬 제도개선*을 통한 비대칭 규제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법 시행령 개정('21.4월) 및 협찬고지·가상광고 형식규제 완화('21.9월)</li> </ul> </li> <li>•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 확대로 중소기업인 등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법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안(전혜숙 의원 발의) 입법을 지원</li> <li>→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문제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규율 체계 기반 마련</li> <li>방통위와 공정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간 온라인 플랫폼 법제(안) 조정 완료</li> </ul> </li> <li>• OTT 특화, 신기술 융합형 등 우수콘텐츠 제작 지원*, 1인 미디어 활성화** 등 콘텐츠 육성 지원을 통한 미디어 산업 성장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텐츠 제작 지원 ('20년) 199억원 → ('21년) 219억원 / 제작편수: ('20년) 159편 → ('21년) 169편</li> <li>** 1인 미디어 지원: 우수창작자 발굴, 1인 미디어 콤플렉스('21.8월 개소) 등 인프라 지원</li> <li>1인 미디어 창작그룹 지원확대: ('18년) 40팀 → ('19년) 63팀 → ('20년) 153팀 → ('21년) 253팀</li> </ul> </li> </ul> </li> <li>■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과 미디어 교육 확대, 지역 시청자미디어 센터 확충 등으로 전 국민 미디어 소통역량과 복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국민 미디어 교육 지원*, 미디어 교육시설 확대** 등 미디어 활용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전 국민 미디어 소통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디어교육 인원 증가: ('19년) 20.6만명 → ('20년) 40.1만명 → ('21년) 41만명</li> <li>** 미디어센터 ('20년) 8개 → ('21년) 10개 → ('22년) 12개 / 미디어 나눔버스 ('20년) 204회 → ('21년) 256회</li> </ul> </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 방지*</b>, <b>불법 스팸 감축활동</b>, <b>인터넷상 청소년 보호 조치**</b> 등을 통해 <b>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모니터링 인력증원(18 → 30명), 필터링 점검(주1회 → 상시), 유포자 수사의뢰(수시)</li> <li>** 청소년 보호조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유해매체물 표시와 광고금지 모니터링 대상 확대(주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22개 → 모든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대상 사업자 135개), 청소년 유해매체물 광고 적발 및 삭제·접속차단 추진(총 13개 사업자 4,484건), 기술적 차단수단 등 청소년 보호 정책 마련</li> </ul> </li> <li>• <b>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b>(1.5만대), <b>장애인방송</b>(자막·수어·화면해설) 지원을 통해 <b>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제고</b></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불공정행위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제한('21.9월)하여, 국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 및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앱마켓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li> <li>• 유아부터 노인까지 맞춤형 미디어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하여 국민이 미디어를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미디어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주요 교육프로그램: 유아(놀이형 교육), 청소년(초중고 미디어교육 및 진로체험), 성인(미디어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상설교육), 노인(찾아가는 미디어 교육)</li> <li>▲ 미디어교육 인원: ('19년) 20.6만명 → ('20년) 40.1만명 → ('21년) 41만명</li> </ul> </li> <li>• 학교 미디어교육* 및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운영 확대로 미디어를 통한 올바른 소통문화 확산 및 소외지역의 미디어 체험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미디어 교육: ('17년) 299개교 → ('18년) 333개교 → ('19년) 362개교 → ('20년) 407개교</li> <li>** 미디어나눔버스 운영 : ('17년) 50회 → ('18년) 100회 → ('19년) 140회 → ('20년) 204회 → ('21년) 256회</li> </ul> </li> <li>•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마련('20.4월), '디지털성범죄물 방지' 관계법 개정·시행('20.12월)*,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조치** 등을 통해 인터넷 불법영상물의 유통방지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부터 이용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내용) ▲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접속차단 의무 부과, ▲ 수사기관 등 요청시 방심위 긴급심의 절차 마련, ▲ 전자·서면심의 근거 마련('18년), ▲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강화('20년)</li> <li>** (청소년 보호책임자 제도 확대) ('18년) 39개→('19년)63개→('20년)97개→('21년) 135개 사업자 (스마트폰 앱 기능개선) 다크웹 차단기능 도입('21년) (사이버안심존 SW 보급확대) ('18년)1,100개교→('19년)1,503개교→('20년)1,843개교→('21년)2,155개교</li> </ul> </li> </ul> </div> |
| <b>개선·보완<br/>필요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지속 발전 도모 및 이용자 편익제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입법 신속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통위·과기정통부·공정위·개인정보위 등과의 조정을 거친 수정 대안이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므로 신속한 입법지원 필요</li> </ul> </li> <li>• <b>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실효적 집행 필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정비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격 집행 필요</li> <li>*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 마련('21.11월), 의견수렴 및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확정 추진('22.3월)</li> </ul> </li> </ul>                                                                                                                                                                                                                                                                                                                                                                                                                                                                                                                                                                                                                                                                                                                                                                                                                                                                                                                                                                                                                                                                                                                                                                                                                                                                                                                                                                                                                                                                                                                                     |

|                          |                                                                                                                                                                                                                                                                                                                                                                                                                                                                                                                                                                                                                                                                                                                                                                                                                                                                                                                                                                                                                                                                                                                                                                                                                                                                                                                                                                                                                                                                                                                                                                                                                                                                                                                   |                  |                 |                 |                 |      |      |                          |       |       |       |       |   |                         |                  |                  |                 |                 |                 |
|--------------------------|-------------------------------------------------------------------------------------------------------------------------------------------------------------------------------------------------------------------------------------------------------------------------------------------------------------------------------------------------------------------------------------------------------------------------------------------------------------------------------------------------------------------------------------------------------------------------------------------------------------------------------------------------------------------------------------------------------------------------------------------------------------------------------------------------------------------------------------------------------------------------------------------------------------------------------------------------------------------------------------------------------------------------------------------------------------------------------------------------------------------------------------------------------------------------------------------------------------------------------------------------------------------------------------------------------------------------------------------------------------------------------------------------------------------------------------------------------------------------------------------------------------------------------------------------------------------------------------------------------------------------------------------------------------------------------------------------------------------|------------------|-----------------|-----------------|-----------------|------|------|--------------------------|-------|-------|-------|-------|---|-------------------------|------------------|------------------|-----------------|-----------------|-----------------|
| 과제목표                     | <div>■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근로시간 단축 추진</div> <div>■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육아휴직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확산</div>                                                                                                                                                                                                                                                                                                                                                                                                                                                                                                                                                                                                                                                                                                                                                                                                                                                                                                                                                                                                                                                                                                                                                                                                                                                                                                                                                                                                                                                                                                                                                                                                                           |                  |                 |                 |                 |      |      |                          |       |       |       |       |   |                         |                  |                  |                 |                 |                 |
| 총평                       | <div>■ 장시간 근로 개선을 지원하고 가족돌봄 제도를 정비하는 등 일·생활 균형과 ‘휴식 있는 삶’을 위해 다양한 대책 추진</div> <div>■ 주52시간제 전면시행(‘21.7월~)에 따라 연간 근로시간이 감소중이나, 소규모 사업장 등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제도안착 지원 필요</div>                                                                                                                                                                                                                                                                                                                                                                                                                                                                                                                                                                                                                                                                                                                                                                                                                                                                                                                                                                                                                                                                                                                                                                                                                                                                                                                                                                                                                                                                                                                                               |                  |                 |                 |                 |      |      |                          |       |       |       |       |   |                         |                  |                  |                 |                 |                 |
| ‘21년도<br>주요성과            | <div>■ 주52시간제 제도도입 3년만에 5인이상 쉼 사업장에 적용 완료</div> <div>* 도입경과 : (‘18.7월) 300인 이상 → (‘20.1월) 50 ~ 299인 → (‘21.7월) 5 ~ 49인</div> <table><tr><td>구 분</td><td>‘17년</td><td>‘18년</td><td>‘19년</td><td>‘20년</td><td>‘21년</td></tr><tr><td>임금근로자(상용5인이상)<br/>연간 근로시간</td><td>2,014</td><td>1,986</td><td>1,978</td><td>1,952</td><td>-</td></tr><tr><td>주52시간 초과<br/>임금근로자수 및 비율</td><td>300만명<br/>(15.1%)</td><td>239만명<br/>(11.9%)</td><td>198만명<br/>(9.7%)</td><td>160만명<br/>(7.9%)</td><td>141만명<br/>(6.8%)</td></tr></table> <div>•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노동관서에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을 설치하여 무료컨설팅 실시 및 관련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종합지원체계 구축</div> <div>* 컨설팅 실적 : (‘19년) 5,269개사 → (‘20년) 4,096개사 → (‘21년) 5,456개사</div> <div>• 주52시간을 준수하면서 근로유연성을 확보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근로자 휴식보장 등 보호 장치를 마련</div> <div>* (주요내용) ❶ 탄력근로제 : 단위기간 신설(2주, 3개월이내 → 3~6개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div> <div>❷ 선택근로제 : 연구개발 업무의 정산기간 확대(1 → 3개월), 11시간 연속휴식</div> <div>❸ 특별연장근로 : 활용기간 확대(90 → 150일/1년),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의무화</div> <div>■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 보장수단을 확대하고, 민간 확산 노력</div> <div>• 공휴일법 제정(‘21.7.7) 및 대체공휴일 확대*,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확대** 등 일하면서 쉴 수 있는 기회 확대</div> <div>* 대체공휴일 : (기존) 설, 추석, 어린이날 → (확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div> <div>**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시기 : (‘20.1월) 공공기관, 300인이상 → (‘21.1월) 30~299인 → (‘22.1월) 5~29인</div> <div>•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생활 균형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모범적으로 이행한 경우 재정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지속 추진</div> <div>* 우수기업 선정 : (‘19년) 45개사 → (‘20년) 100개사 → (‘21년) 100개사</div> <div>* 인센티브 : 정기 근로감독 면제, 정부지원사업 참여 우대, 대출금리 우대, 홍보 및 포상 등</div> <div>•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을 지속 발굴하고, 인센티브도 지속 확대</div> <div>* 인증기업·기관 : (‘18년) 3,328개사 → (‘19년) 3,833개사 → (‘20년) 4,340개사 → (‘21년) 4,918개사</div> <div>* 지원 인센티브 : (‘17년) 143개 → (‘19년) 211개 → (‘21년) 229개</div> | 구 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임금근로자(상용5인이상)<br>연간 근로시간 | 2,014 | 1,986 | 1,978 | 1,952 | - | 주52시간 초과<br>임금근로자수 및 비율 | 300만명<br>(15.1%) | 239만명<br>(11.9%) | 198만명<br>(9.7%) | 160만명<br>(7.9%) | 141만명<br>(6.8%) |
| 구 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      |                          |       |       |       |       |   |                         |                  |                  |                 |                 |                 |
| 임금근로자(상용5인이상)<br>연간 근로시간 | 2,014                                                                                                                                                                                                                                                                                                                                                                                                                                                                                                                                                                                                                                                                                                                                                                                                                                                                                                                                                                                                                                                                                                                                                                                                                                                                                                                                                                                                                                                                                                                                                                                                                                                                                                             | 1,986            | 1,978           | 1,952           | -               |      |      |                          |       |       |       |       |   |                         |                  |                  |                 |                 |                 |
| 주52시간 초과<br>임금근로자수 및 비율  | 300만명<br>(15.1%)                                                                                                                                                                                                                                                                                                                                                                                                                                                                                                                                                                                                                                                                                                                                                                                                                                                                                                                                                                                                                                                                                                                                                                                                                                                                                                                                                                                                                                                                                                                                                                                                                                                                                                  | 239만명<br>(11.9%) | 198만명<br>(9.7%) | 160만명<br>(7.9%) | 141만명<br>(6.8%) |      |      |                          |       |       |       |       |   |                         |                  |                  |                 |                 |                 |

## ■ 육아·돌봄 지원 확대 등으로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

- 임신기 중 육아휴직제도 도입·시행('21.11월) 및 육아지원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가족돌봄제도 확충\*\* 등을 통해 **육아와 돌봄에 따른 제도적·경제적 부담 완화**

\* (육아제도 개선) ① 육아휴직급여 인상 : 통상임금의 80~100%

②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확대: 만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첫 3개월간 월200만원 지급

③ 육아휴직 분할 사용 허용 : 1회 → 2회

④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만8세(초등2년) 이하 자녀 대상, 1년간 주 15~35시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월 통상임금의 100~80% 지급

\* (돌봄제도 확충) ① 돌봄비용 지원 : ('20년) 139,662명, 529억원 → ('21년) 26,875명, 91억원

② 공동 직장어린이집 확대(누계) : ('19년) 108개소 → ('20년) 120개소 → ('21년) 125개소

③ 상생형 직장어린이집(누계) : ('19년) 58개소 → ('20년) 68개소 → ('21년) 73개소

- 육아휴직 지원강화 등을 통해 **육아휴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와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 구 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
| 전체 육아휴직자 | 90,110명            | 99,198명            | 105,165명           | 112,040명           | 110,555명           |
| 중소기업 근로자 | 42,788명<br>(47.5%) | 48,954명<br>(49.3%) | 53,929명<br>(51.3%) | 59,885명<br>(53.4%) | 58,573명<br>(53.0%) |
| 남성 육아휴직자 | 12,042명<br>(13.4%) | 17,665명<br>(17.8%) | 22,297명<br>(21.2%) | 27,423명<br>(24.5%) | 29,041명<br>(26.3%) |

- 근로시간단축,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새로운 일하는 방식의 도입을 통해 일·가정 양립형 고용문화 확산에 기여

\* 근로시간단축지원금 : ('19년) 5,993명 → ('20년) 20,837명 → ('21년) 30,706명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 ('19년) 6,824명 → ('20년) 30,088명 → ('21년) 39,194명

### <정부 출범('17.5월~) 이후 핵심성과>

#### • 주52시간제 단계적 시행

\* 시행시기 : ('18.7월) 300인 이상 → ('20.1월) 50 ~ 299인 → ('21.7월) 5 ~ 49인

\*\* 임금근로자(상용 5인 이상) 연간근로시간

: ('17년) 2,014시간 → ('18년) 1,986시간 → ('19년) 1,978시간 → ('20년) 1,952시간

\*\*\*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사회문화환경분야> 1위 '근로시간단축법' ('20.5.24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국민 1만 5,880명 설문 참여 결과)

\*\*\*\* 주52시간을 초과한 임금근로자의 비중 감소('17년 15.1% → '21년 6.8%),  
1주당 평균 여가시간 16.7% 증가('16년 3.6시간 → '20년 4.2시간 / 국민여가활동조사)

#### •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 경감\* 및 노동자의 휴식 있는 삶 보장\*\*

\*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근로시간 단축제도 최초 도입('20.1.1.시행)

\*\* ① 육아휴직제도 개선(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 분할사용)

②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유급 3→10일) 및 급여 신설(중소기업 근로자 5일분 지원)

③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확대(최대 1→2년) 및 가족돌봄휴가제도 도입 및 비용지원

④ 대체공휴일 확대(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52시간제」 전면 시행('21.7월~)이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 필요

- 가족친화인증 기업이 모범적인 기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인증시기 조정 (현행 연1회→분기) 등 제도개선 및 홍보 강화 필요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향유 환경 조성</li> <li>■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태권도 문화콘텐츠화</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스포츠 3법(스포츠 기본법, 스포츠 클럽법, 체육인 복지법) 제정</b> 등을 통해 국민 모두를 위한 <b>스포츠로 정책 전환</b>, 체육인 복지증진 기반 마련</li> <li>■ 다만, 근절되지 않는 체육계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스포츠윤리센터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스포츠 3법 제정 완료로 국민 모두를 위한 스포츠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초석 마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포츠 기본법(국민의 스포츠권 규정) △스포츠 클럽법(국민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체육인 복지법(체육인 전체의 복지 증진) 기여 전망</li> </ul> </li> <li>■ <b>특기자 선발방식 개편, 학습여건 마련</b> 등을 통한 <b>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기위주 전형에서 성적 출결 등 <b>학교생활을 균형있게 평가하도록 특기자 선발방식*</b>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입) 대회 입상실적, 실기 위주 → 교과성적, 출결 등 학교생활을 균형 있게 평가 (대입) 교과 성적, 출결, 경기실적, 실기고사 등 다양한 전형요소를 균형있게 반영</li> </ul> </li> <li>• 수업결손 보충 등을 위한 e-school 운영을 통한 <b>최저 학력 미도달 학생 비율 지속 감소*</b> 등 <b>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 내 스포츠 인권 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 비율: ('19년) 14.5% → ('20년) 14.2% → ('21년) 10.5%</li> <li>**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21.2.24) 마련<br/>(주요내용)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 등 피해자 중심 처리, ▲학폭 가해선수 국대 선발 제한 등 제재 강화, ▲체육특기자 경기력 평가지표 개발 등 성적 지상주의 문화 개선</li> </ul> </li> </ul> </li> <li>■ <b>코로나19 상황에서 민간 실내체육업계 고용안정 지원 및 재정지원 확대로 일자리 창출 성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21.4월~)과 '고용지원 플러스' 사업 추진 ('21.9월~)으로, <b>10,213개 업체 대상 12,417명 고용 지원</b></li> <li>• 스포츠산업 융자 및 상환유예 확대(1,407→1,567억원), 스포츠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b>재정지원 확대</b>(79.5→1,582.5억원) 등 <b>스포츠 업계의 코로나 회복 지원</b></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정 논의 10년만에 「스포츠 기본법」 등 스포츠 3법* 제정을 통해 국민 모두를 위한 스포츠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포츠 기본법) 누구나 차별없이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인 '스포츠권' 법제화('21.8월)<br/>(스포츠 클럽법) 스포츠클럽 등록제 도입, 지정스포츠클럽 등 스포츠클럽 활성화('21.6월)<br/>(체육인 복지법) 체육인 정의 명확화, 체육인 복지사업 법적 근거 마련 등('21.8월)</li> </ul> </li> </ul> </div>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체육 시설 등 인프라 확충*,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체육 활동지원,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생활체육 지원을 통한 전 국민 참여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체육센터 건립: ('17년) 227개소 → ('21년) 608개소<br/>공공스포츠클럽 육성: ('17년) 55개소 → ('21년) 229개소</li> <li>** 스포츠클럽법 제정('21.6월), 공공 스포츠클럽 지원확대('19년 98개 → '21년 229개)</li> </ul> </li> <li>•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18.8월) 마련,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및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확대** 등을 통한 취약계층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청소년) ('17년) 41천명 → ('21년) 70천명 / (장애인) ('19년) 2,310명 → ('21년) 6,184명</li> <li>**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17년) 1개소 → ('21년) 10개소</li> </ul> </li> <li>•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적 개최, 대한체육회 회장의 IOC 위원 선출,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강원 유치 등 국제 체육계 국가위상 제고</li> <li>• 스포츠윤리센터* 설립('20.8월) 및 조사권 등 기능강화('21.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를 통한 스포츠 분야 인권 및 공정성 강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분야 비리 단속·조사, 피해자 지원, 교육·홍보 등을 위한 독립 전담기구</li> </ul> </li> </ul> |
| 개선·보완<br>필요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및 역할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운영('20.8월~) 중이나, 신속한 사건 처리 및 기관 인지도 제고 등 노력 지속 필요</li> <li>* 대한항공 탁구팀 괴롭힘 사건('21.6월) 등 인권침해 사건 지속 발생에도 사건 처리율은 누적기준 52.1%('20~'21년 누적 접수건수 472건, 처리건수 246건)</li> </ul> </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이 자유롭게 휴가를 쓰고 내외국인이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융복합·고부가 관광산업을 육성</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을 기반으로 한 안전한 국내 관광 활성화 및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편리한 관광여건 조성</li> <li>■ 다만, 포스트 코로나 관광 활성화에 대비한 인프라 점검 및 관광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지원강화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한 관광여건 조성,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으로 관광업계의 코로나19 피해회복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총 1조 4,230억원(735억원 증액)을 투입하여 금융·재정지원, 고용지원, 방역 및 시장활성화 등 관광업계 코로나19 회복 지원</li> <li>• '안전여행으로 되찾는 소중한 일상,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 방안*'을 발표('21.11.12.)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춘 안전한 여행 및 관광업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내용) 관광업계 피해 회복 지원, 안전한 국내관광 활성화, 방한관광 단계적 재개,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발굴·육성, 지역관광 인프라 혁신, 스마트 관광 생태계 조성 등</li> </ul> </li> <li>• 5개 관광거점도시(부산, 강릉, 전주, 목포, 안동) 육성, 주민 사업체인 관광두레 확대(126→216개), 지역 특화 여행상품 개발* 등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및 특색있는 지역관광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마여행10선) 지역여행 상품 기획·운영('21.3.1.~12.31. 173종 39,690명 이용), 랜선여행·집콕여행꾸러미 개발·운영('21.4.1.~12.31. 15종 2,011명 이용)</li> </ul> </li> <li>• 국제관광시장 회복준비 TF 5회 운영('21.3월~6월) 및 「여행안전권역 추진 방안」* 발표('21.6.9), 해외광고** 등을 통해 안전한 방한관광 재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안전권역 시행(한-사이판 7.28), ▲여행안전권역 및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을 통해 격리 없는 자유여행 재개(한-싱가포르 11.15. 시행)</li> <li>** '서산 머드맥스' 등 지역 관광지 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 시리즈 해외 확산(화제성 광고 13편 7억 조회수)</li> </ul> </li> </ul> </li> <li>■ 근로자 휴가 지원 확대, 무장애 관광지 조성 등을 통해 자유롭게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토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안전조치 사항을 반영*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운영**으로 쉼표가 있는 삶 구현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대면 여행상품 할인 프로모션(캠핑/차박용품) 등 코로나 시대 안전한 여행 상품 마련</li> <li>** (참여) '21년 8.6만명 / (기업 부담 완화) 중소기업 근로자의 기업 부담금 지원(30개 기관 협업, 640개 협력사, 6,300명 추가 참여 지원)</li> </ul> </li> <li>• 장애인, 고령자 등이 이동의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열린 관광지 20개소 추가 조성('21년 기준 누적 92개소) 및 UNWTO 우수사례 선정('21.5월)</li> </ul> </li> <li>■ 코로나19 장기화, 뉴노멀 시대로의 변화에 맞춰 비대면 상품 개발, 스마트 관광도시 등 관광산업의 혁신을 통한 질적 경쟁력 강화</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관광객 맞춤형 상품개발(117개), 비대면 온라인 상품개발(8건)을 통해 외래객 대상 판매(1,375건), 품질인증 업소 운영(492개) 등 관광 경쟁력 확보</li> <li>• 스마트 관광도시 확대(1→3개소), 수요자 맞춤형 관광특화 분석서비스(한국관광데이터랩) 제공*, 관광분야 혁신적 벤처기업 발굴(180개)**, 메타버스 활용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21.11월) 등을 통한 관광산업 혁신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관광데이터랩)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누적 이용자수 16만명, 다운로드 5.5만회 달성/ 민간기업 1,703개, 지자체·공공기관 544개, 학술연구기관 192개 가입('21.12월)</li> <li>** 혁신적 관광벤처기업 발굴 지원: ('20년) 150개 → ('21년) 180개</li> </ul> </li> <li>• 메타버스 활용 관광기업지원센터를 구축('21.11월)하여 메타버스 협업 플랫폼 가상공간을 이용한 관광 기업간 네트워킹 등 관광기업 지원</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업계 코로나19 회복 지원을 위해 '21년 총 1조 4,230억원을 투입하여 금융·재정지원, 고용지원, 방역 및 시장활성화 등 지원</li> <li>• 국가관광전략회의 신설·개최*('17.12월~'21.11월, 6회)를 통한 범부처 관광진흥 추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진흥기본계획, 지역관광활성화 방안,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 방안</li> </ul> </li> <li>• '19년 세계경제포럼(WEF) 관광경쟁력평가 결과 역대 최고 순위(16위)*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년) 32위 → ('13년) 25위 → ('15년) 29위 → ('17년) 19위 → ('19년) 16위</li> </ul> </li> <li>• 방한 외래 관광시장 다변화,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 등을 통해 3대 전략 시장(非중국 중화권, 일본, 아시아·중동)을 포함한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래 관광객 수(만명) : (전체) ('17년) 1,334 → ('18년) 1,535 → ('19년) 1,750<br/>(3대 전략시장) ('17년) 667 → ('18년) 788 → ('19년) 864</li> </ul> </li> </ul> </div> |
| <p><b>개선·보완<br/>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 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한 지원강화 필요</li> <li>-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내 관광 숙박업체 휴폐업, 광역 관광개발사업 집행 부진* 등 국내 관광기반 약화가 우려되므로 관광산업 인프라 현황 점검을 통한 지원 강화 등 관광 재개에 대한 대비 및 신속한 정상화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 실집행율 39.4%로 저조(예산현액 2,301억 중 집행액 907억) 및 관광객수 감소: 서부내륙권 ('20년) 26,292명 → ('21년) 13,174명, 충청유교문화권 ('20년) 31,334명 → ('21년) 19,473명</li> </ul> </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지방 간 정례 협의체 신설,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등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확보, 주민조례발안·주민소환·주민투표 등 주민 직접참여제도 활성화</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 제·개정을 통한 중앙·지방의 소통과 협력 및 지방권한 확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주민 중심 생활 자치 기반 마련</li> <li>■ 다만,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지방일괄 이양법 제정 및 주민소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을 통한 중앙·지방의 소통·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7.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 효과 제고</li> </ul> </li> <li>•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제정안 마련(~'21.9월), 입법예고(10.26~12.6) 및 법제처 사전심사(10.26~12.9) 추진, 제정·공포('2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 및 제1회 협력회의 운영('22.1.13)</li> </ul> </li> <li>• 시·도지사 간담회(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11회) 등 중앙·지방 소통창구 운영</li> </ul> </li> <li>■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 실질적·전면적 자치분권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12월)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전부개정*, 부수법안 제·개정** 등 관련 후속 조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예고(8.27~10.6) → 법제처 심사(9~11월) → 차관회의(12.9)·국무회의(12.14) 의결 → 공포(12.16)</li> <li>**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7.13),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10.8), 「주민조례발안법」 제정(10.19), 「지방분권법」 개정안 법안소위 계류 중(11.30)</li> </ul> </li> <li>•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 및 조례 위임·개정사항 가이드라인 마련('21.9월), 지방의정 연수기관 설립 계획 수립(7월), BP경진대회 개최(10월) 등 추진</li> <li>• 청렴성 확보 등을 위한 의원정책개발비 운영현황 조사('21.1~3월) 및 활성화 방안 마련(5월),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 점검(1~3월) 등 추진</li> </ul> </li> <li>■ 중앙권한의 획기적 이양 등을 통한 지방권한 확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시행('21.1월, 400개 사무) 및 신규이양사무(87개) 관련 1,549억 원 비용 지원(균형발전특별회계)</li> <li>•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13개 부처 36개 법률 261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정안 초안 마련 및 입법예고(8.6~9.15) → 재입법예고(10.8~10.14) → 부처별 일괄법 형식으로 국회 제출('22.1.25)</li> </ul> </li> <li>• 자치분권 사전협의제('19.7월~'21.12월)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4,211건 검토, 지방자치권 침해요인 98건 개선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수용률 91.8%, 법령 반영률 90.3%(법령공포 기준)</li> </ul> </li> <li>•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희망 지자체 간담회 및 제도 설명회 개최(8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성</li> </ul> </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21.4월),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개소(7월) 및 지역맞춤형 지원반 등을 통해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지사 연석회의'와 연계해 보고회 개최 및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발표(10.14)</li> </ul> </li> <li>■ 주민 중심 생활 자치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10.19) 및 참고 조례안** 마련(10월), 관련 홍보·교육*** 실시 등 주민직접참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청구, 청구 연령 하향 조정(19세→18세), 청구권자 서명 인원 수 요건을 인구 규모별로 세분화·완화 등</li> <li>** 서명 주민수, 청구 서식, 열람 장소, 공표 방법, 업무협조 등 규정</li> <li>*** 대국민 홍보용 리플렛 제작·배포(6월) 및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실시(1,267명 완료)</li> </ul> </li> <li>• 「주민투표법」 개정('22.1.6, 행안위 의결) 및 「주민소환법」 개정('21.5.12,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가이드북' 제작·배포 및 자치단체 담당자 워크숍 개최(9월)</li> </ul> </li> </ul> </li> <li>■ 주민자치 및 마을자치 활성화를 통한 풀뿌리 주민자치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확대*를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 및 해결하는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 95개 → ('19년) 408개 → ('20년) 626개 → ('21년) 1,013개</li> </ul> </li> <li>• 주민 중심의 읍면동 서비스 혁신을 위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연계 및 주민 자치형 공공서비스 확대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연계·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383만 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제공 442만 건</li> </ul> </li> <li>• 자치단체의 주민자치 정책역량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로 직접 찾아가는 주민자치 컨설팅 실시(25개 지자체, 98회)</li> <li>•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추진, 지역공동체 포럼 개최(9월), 지역 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공유 포럼 개최(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과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통합 법안</li> </ul> </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 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 &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기능, 개최 및 소집 주체, 실효성 확보 및 의무, 실무 지원 등 규정</li> </ul> </li> <li>•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을 32년 만에 전부개정('20.12월)</li> </ul> </li> <li>• 사무 이양의 일괄 법제화 추진 16년 만에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의 장애(상임위 소관주의, 단일법률 심사 관례) 극복</li> </ul> </li> <li>• 중앙의 법령 제·개정시 지방자치권 침해를 검토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운영('19.7월~)</li> </ul> </div> |
| 개선·보완<br>필요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개정 추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22.1.25. 제출), 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 개정안('21.5.12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li> </ul> </li> <li>• 주민자치 역량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주민자치 컨설팅 지속 활성화 필요</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 전 분야에 걸친 재원확충 및 「고향사랑 기부금법」(21.10월) 제정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li> <li>■ 다만, 지역사랑 상품권의 부정유통 단속 및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보완대책 마련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 합의, 지방재정 전 분야에 걸친 재원 및 지방재정 확충 등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간 세입구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 최종 합의(7.28. 민주당 재정분권 특위 전체회의), 국민 납세부담 증가 없이 연 5.3조원 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구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21%→'22년 23.7%→'23년 25.3%) : 지방세수 연 4.1조원 확충</li> <li>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10년간 10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 연 1조원</li> <li>자치단체 대응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율 인상 : 연 0.2조원</li> <li>** 지방소비세 확충과 연계, 2.3조원 규모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에 단계적 이양</li> </ul> </li> <li>• 2단계 재정분권 시행을 위한 6개 법* 개정 추진, 행안위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1.11.11, 본회의 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세종시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li> </ul> </li> <li>•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추진* 및 지방세 감면** 합리적 정비(목표 : 15%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과세대상별 관계부처(산업부) 실무협의, 당정회의(6월~11월), 자치단체 의견수렴</li> <li>**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 ('17년)14.3% → ('18년)13.9% → ('19년)13.3% → ('20년)12.8% → ('21년 잠정)12.7%</li> </ul> </li> <li>• 납세자 편의 개선방안*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로 신고가능토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지방세를 연계하여 한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연계, 합동 신고센터·콜센터 운영 등</li> </ul> </li> </ul> </li> <li>■ '22년도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추진으로 지역 재정 불균형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 반영,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외국인 수요 강화, 특별지방자치단체 수요 신설, 낙후지역·인구감소지역 수요 반영 등</li> </ul> </li> <li>•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12.31)</li> </ul> </li> <li>■ 지방세·세외수입 체납률 감소를 위해 법령개정 및 징수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가상자산 압류를 위한 이전요구, 매각 등 처분규정 강화, 공매통지서 송달에 대한 발신주의 도입, (세외수입)전자송달 서비스 확대 근거 마련 등</li> <li>**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21.12.9), 「지방세징수법」 국회 계류 중('21.10월~)</li> </ul> </li> <li>•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징수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 체납률: ('17년)4.7% → ('18년)4.1% → ('19년)3.7% → ('20년)3.1%→('21.12월)3.2%</li> </ul> </li> </ul> </li> </ul> |

|                          |                                                                                                                                                                                                                                                                                                                                                                                                                                                                                                                                                                                                                                                                                                                                                                                                                                                                                                                                                                                                                                                                                                                                                                                                                                                                                                                                                                                                                                                                                                                                                                                                                                                                                                                                                                                                                                                                                                                                                                                                                                                                                                                                                                                                                                                                                                                                                              |
|--------------------------|--------------------------------------------------------------------------------------------------------------------------------------------------------------------------------------------------------------------------------------------------------------------------------------------------------------------------------------------------------------------------------------------------------------------------------------------------------------------------------------------------------------------------------------------------------------------------------------------------------------------------------------------------------------------------------------------------------------------------------------------------------------------------------------------------------------------------------------------------------------------------------------------------------------------------------------------------------------------------------------------------------------------------------------------------------------------------------------------------------------------------------------------------------------------------------------------------------------------------------------------------------------------------------------------------------------------------------------------------------------------------------------------------------------------------------------------------------------------------------------------------------------------------------------------------------------------------------------------------------------------------------------------------------------------------------------------------------------------------------------------------------------------------------------------------------------------------------------------------------------------------------------------------------------------------------------------------------------------------------------------------------------------------------------------------------------------------------------------------------------------------------------------------------------------------------------------------------------------------------------------------------------------------------------------------------------------------------------------------------------|
|                          | <p>■ <b>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플랫폼 모델 개발 등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맞는 제도 확산 추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의 사업 제안,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 정보의 실시간 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주민참여예산 플랫폼 구성·설계(12월)</li> </ul> </li> <li>• 지역특성에 맞는 제도 운영을 위한 컨설팅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 4회 / 16개 지자체 → ('21년) 13회 / 51개 지자체</li> </ul> </li> </ul> <p>■ <b>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한 제안·사업숙성·집행점검 등 중앙정부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확대 추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제안과 더불어 '찾아가는 국민제안'을 통해 국민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사업숙성 토론 및 집행현장 점검 등 다양한 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li> <li>• '22년 국민참여예산, 전년대비 8개 사업, 261억 증가(2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63개 사업, 1,168억원 → ('22년) 71개, 1,429억원</li> </ul> </li> </ul> <p>■ <b>「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국회 등 심층 논의를 통한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10.19.)을 통해 건전한 지역사회 기부문화 정착, 지역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li> <li>• 기부자에게 세액공제(10만원까지는 소득세액 전액, 10만원~500만원까지는 16.5%) 및 지역특산물(기부금액의 30% 내) 등을 제공</li> </ul> <p>■ <b>지역일자리 사업 및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적극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일자리사업 15.8만명 참여(12월말 기준, 목표인원 4.4만명 대비 초과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근로 10.2만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3.2만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1.3만명, △지역방역일자리 1.1만명</li> </ul> </li> <li>• 자치단체 상품권 발행지원 23.6조원('21년 기준, 지원규모 20.2조원 대비 116.8%),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재정분권 완료*(~'20년), 2단계 재정분권 추진**('21년)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전환 등을 통한 지방재정 구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연간 8.5조원의 지방세수 확충), '20년 3.6조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 일반사업으로 전환, 지역상생기금 규모 확대 및 소방안전교부세율 25%p 인상 등</li> <li>**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지방세수 연간 4.1조원 확충), 낙후지역을 위한 10년간 10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율 인상(연간 0.2조원)</li> </ul> </li> <li>•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21.10.19)으로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 및 지방재정 확충 기반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기대</li> <li>•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로 체납률 지속적 감소, 재정건전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 체납률 : ('17년)4.7% → ('18년)4.1% → ('19년)3.7% → ('20년)3.1%</li> <li>지방세외수입 체납률 : ('17년)20.2% → ('18년)15.1% → ('19년)13% → ('20년)13.4%</li> </ul> </li> </ul> </div> |
| <p><b>개선·보완 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랑 상품권의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원천적 근절을 위한 보완대책**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속실적('21년) :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77건), 제한업종 가맹점등록(14건), 결제거부(5건), 기타 16건 등 총 112건으로 판매규모 19.1조원('21.10월말 기준)대비 미미</li> <li>**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정, 부정행위시 부정이용자·가맹점 등 양벌규정 도입 등</li> </ul> </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사학비리 근절 등 교육의 민주성·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부 개편 등 교육 거버넌스 개편</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제정 및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교육 거버넌스의 혁신과 사학 혁신을 위한 기반 마련</li> <li>■ 다만, 사학 관련 제도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교육현장에서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교육관계자가 민주적으로 참여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제정 및 공포 완료 ('21.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교육위원회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적지위)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 (인사·예산 독립)</li> <li>(위원구성) 위원장 1명(장관급, 상임), 상임위원 2명(차관급) 포함 21명</li> <li>(위원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li> <li>(소관사무)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수립, 교육정책 국민의견 수렴·조정</li> </ul> </li> </ul> </li> <li>• '22.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안정적 출범 준비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준비단 발족('21.9월)</li> <li>• 교육부 기능 개편을 통한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발굴된 유·초·중등 권한 배분 우선 정비 대상 과제 131개 중 125개(95.4%) 정비 완료</li> </ul> </li> <li>■ 사학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학혁신 추진방안」('19.12)에 포함된 후속 입법과제 총 23개에 대한 발의 완료 및 그중 19개 과제가 포함된 4개 법률 개정 완료 ('20년 3건, '21년 16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개정 완료과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교원지위법 (1건)&gt; : 소청결정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li> <li>&lt;사립학교법 (16건)&gt; : 회계투명성 제고 2건, 법인 책무성 강화 2건, 공공성 확대 8건, 사립교원 권리보호 4건</li> <li>&lt;공직자윤리법 (1건)&gt;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에 사립학교 포함</li> <li>&lt;공익신고자보호법 (1건)&gt; :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사립학교법 포함</li> </ul> </li> </ul> </li> <li>• 개교 이래 감사를 받지 않은 16개 대규모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년) 2개교 → ('20년) 7개교 → ('21년) 7개교</li> </ul> </li> <li>• 6천명 미만 중소규모 대학(94개)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22~'26년) 방안 마련('21.월7)</li> <li>•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학교 운영의 투명성·책무성 강화</li> </ul> </li> </ul> |

|                              |                                                                                                                                                                                                                                                                                                                                                                                                                                                                                                                                                                                                                                                                                                                                                                                                                                                                                                                                                                                                                                                                                                                                                                                                                                                                                                                                          |
|------------------------------|------------------------------------------------------------------------------------------------------------------------------------------------------------------------------------------------------------------------------------------------------------------------------------------------------------------------------------------------------------------------------------------------------------------------------------------------------------------------------------------------------------------------------------------------------------------------------------------------------------------------------------------------------------------------------------------------------------------------------------------------------------------------------------------------------------------------------------------------------------------------------------------------------------------------------------------------------------------------------------------------------------------------------------------------------------------------------------------------------------------------------------------------------------------------------------------------------------------------------------------------------------------------------------------------------------------------------------------|
|                              | <p>■ 다양한 역사교과서 보급 및 자유발행제 적용 인정도서 등 확대로 교사와 학생의 교과서 선택권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정 역사교과서 총 16종을 중·고등학교에 보급('21.3.)하여 <b>역사교육의 다양성 확보</b> ('20년 14종 보급 / '21년 2종 추가 보급)</li> <li>중국·일본 교과서의 한국 관련 <b>역사 왜곡</b> 기술에 대한 <b>시정 요구</b> 및 주변국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시정 요구 성명서 발표('21.3.30.)</li> </ul> </li> <li>자율규제 방식으로 완화된 심사절차에 따라 교과용 도서 자유발행제 적용 인정도서 승인('21.8월 기준, 100종)</li> <li><b>정부부처와 교과연구회의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협업 교과서 개발·보급</b> 지속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년) 15종 → ('20년) 35종(누적) → ('21년) 61종(누적)<br/>과기정통부, 국방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보건처, 관세청, 통계청, 문화재청, 특허청</li> </ul> </li> <li>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 수업에 적용하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대폭 확대 ('20년 405교 → '21년 836교)</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교육관계자가 민주적으로 참여하여 안정성·일관성있는 교육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기반 마련 ('21.7)</li> <li>교사와 학생의 교과서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17.5)하고, 검정 역사교과서 보급('21.3 16종)과 함께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li> <li>대학이 특성에 따라 총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개별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대학의 민주주의 강화('17.8)</li> <li>사학의 비리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4개 법률 개정)으로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및 대국민 신뢰 회복</li> </ul> </div> |
| <p><b>개선·보완<br/>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사학관련 제도 변화</b> *가 교육현장에서의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b>충분한 사전 준비 필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장관의 외부 감사인 지정, 기금운용회의 교원·직원·재학생 참여, 법인 임원의 결격 사유 시 당연퇴직, 임시이사 선임 요건 명확화, 교원채용 시 교육감 위탁 등 19개</li> </ul> </li> <li>교과서 자율화·다양화를 위해 인정도서 편찬·발행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b>이양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b>(권인숙 의원 '20.12.16.)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도별 교과서 개발 역량 차이에 따른 지역별 편차 발생 우려로 <b>개정 지연됨</b>에 따라 이견조정을 통한 신속한 입법 추진 필요</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안부·과기정통부를 세종시로 이전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육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분권·자치모델 완성</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세종)·기능(제주) 이전 등 도시 특성에 맞는 분권·자치모델 완성 노력으로 지역균형발전 선도</li> <li>■ 다만, 제주도의 자치분권 정책에 대한 주민 정책추진 체감 만족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재정분야 강화 등 지속적인 지역발전 노력으로 지방분권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 도시 성장기반 및 자족기능 확충, 국비 지원* 및 자치행정 기반 강화 등으로 매년 인구 증가**, 전국 17개 시도 중 시민 만족도 1위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비 : ('19년)6,695만원 → ('20년)8,357만원 → ('21년)9,822만원 → ('22년)11,829만원</li> <li>** 인구 : ('13년)12.5만명 → ('17년)28.4만명 → ('19년)34.6만명 → ('21.12.31)37.7만명</li> </ul> </li> <li>• (제주) 특별자치도 지정 후 전국대비 높은 인구 증가율 및 관광객 증가*, 지방재정의 자율성 부여**, 고도의 자치권 보장으로 자치분권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 ('06년)56만명 → ('20년)67.5만명 / 관광객 : ('06년)531만명 → ('19년)1,529만명</li> <li>** 지방세 ('06년)4,337억원 → ('20년)1조 6,018억원 / 제주관광진흥기금('06.7월 제주자치도 출범) : ('07년)41억원 → ('20년)211억원(5.1배 증가)</li> </ul> </li> </ul> </li> <li>■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행정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부(7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5월) 세종 추가 이전 및 신청사 건립*, 행정 효율성 제고 노력으로 세종중심 행정문화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률 58%('21.12월말 기준), '22.8월 준공</li> </ul> </li> <li>•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10.14.)으로 입법부·행정부 분리에 따른 비효율* 감소 및 국정운영 효율성 증진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행정기관 분리로 '16~'18년 3년간 관외출장비 917억원, 출장 횟수 87만회 등 발생</li> </ul> </li> </ul> </li> <li>■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로 안착토록 충청권과 상생·광역 발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도시 계획권을 충청 광역계획권으로 확대(4월, 9개 시·군 3,597km<sup>2</sup> → 확대 22개 시·군 12,193km<sup>2</sup>)하고, 광역 교통망 확충(광역도로·철도, BRT) 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도로 : 행복도시~공주2구간(3.12km), 행복도시~부강역(2.34km) 2개 노선 개통</li> <li>광역철도 :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등 제4차 철도망계획 선도사업 선정('21.8월)</li> </ul> </li> <li>• 정부·충청권 4개 시도 공동 광역도시계획(안) 마련(10월), 4개 시도 자체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전략 수립(12월) 등 충청권 광역 상생방안 논의</li> </ul> </li> </ul> |

|                              |                                                                                                                                                                                                                                                                                                                                                                                                                                                                                                                                                                                                                                                                                                                                                                                                                                                                                                                                                                                                                                                                                                                                                                                                                                                                          |
|------------------------------|--------------------------------------------------------------------------------------------------------------------------------------------------------------------------------------------------------------------------------------------------------------------------------------------------------------------------------------------------------------------------------------------------------------------------------------------------------------------------------------------------------------------------------------------------------------------------------------------------------------------------------------------------------------------------------------------------------------------------------------------------------------------------------------------------------------------------------------------------------------------------------------------------------------------------------------------------------------------------------------------------------------------------------------------------------------------------------------------------------------------------------------------------------------------------------------------------------------------------------------------------------------------------|
|                              | <p>■ 제주형 자치분권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차례 제도개선('06~'20년, 4,660건)에 이어 그간 미흡한 주민자치 기능, 지역상생 발전 및 청정과 공존(미래가치) 등을 보완하여, 제도 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경과 : '20년 발굴한 제도개선안(56건)을 제주지원위 심의('21.3월)를 거쳐 39건으로 확정, 입법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36건 국회 제출('21.11월)</li> </ul> </li> <li>'20년 제주도 성과평가 및 활용계획* 수립('20.12월), '제주도 출범 15주년 제주도민 인식조사('21.5월)' 등 점검·환류를 통한 자치분권 모델 완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협약위·감사위 전문성 강화, 지방세 조정 효율성 제고, 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전략 마련, 전기차 인프라 확산 등 교통정책 개선, 폐기물, 악취 등 환경 분야 안전관리 강화 등</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종)행안부*('19.2월)·과기정통부('19.8월) 세종시 이전,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 추진**('18~'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도시법」 개정('18.1월, 제16조 이전제외기관에서 행안부 삭제) → 이전계획 변경 고시('18.3월)</li> <li>** 신청사 건립입지 선정('18.4~6월) → 설계공모 추진 및 설계('18.6~'19.12월) → 공사 발주('20.1월)</li> </ul> </li> <li>(제주)중앙행정권한 이양·특례 등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19.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 자치기능 확대·보완 및 도민참여 확대(건축·아동복지심의·지방보육정책 위원회 설치) 등</li> </ul> </li> </ul> </div> |
| <p><b>개선·보완<br/>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형 자치분권 관련 제도개선 등 지속적 정책추진에도 주민 체감 만족도는 저조하므로 주민만족도 제고 방안 지속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한이양 평가: 부족함 60.0% &gt; 충분함 29.3% / 자치역량 수준: 낮음(50.1%) &gt; 높음(36.6%)</li> </ul> </li> <li>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과 관련하여, 건립 규모 등 추가 결정이 요구되는 후속 추진과제에 대해서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지원 필요</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를 재정립하여 지역의 특화발전과 자립적 성장을 지원</li> <li>■ 혁신도시·산업단지·세종시·새만금 등 지역 성장거점 중심으로 혁신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혁신생태계 구축</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투자촉진 보조금교부(1,923억원), 스마트그린산단 추가선정(3곳), 생활 SOC 확충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도모 촉진</li> <li>■ 다만,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거점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기업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 등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이 주도가 되는 균형발전 지원체계 구축 및 거버넌스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주도로 기획·제출한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지역균형 뉴딜 세부지원 방안」 마련('21.1월) 및 관련법 개정('21.12월)</li> <li>• 지방에 대규모 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수립('21.10월) 및 초광역 협력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 산중위 의결('21.12월)</li> <li>• 시·군·구 단위의 지역혁신협의회(기존 시도 단위)의 지역혁신활동을 지원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혁신 주체와 활동을 결집하는 등 자발적 성장기반 확충</li> </ul> </li> <li>■ 선제적 정부지원을 통해 흔들림 없는 지역산업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및 지역 산업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2년 연장('21.5월) 및 「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법」 제정('21.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경제 침체를 진행단계에 따라 위기 前·中·後로 세분화하고, 지원 수단 체계화</li> </ul> </li> <li>• 산단환경 개선사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 투자를 직접 유치하고, 신규 지역 일자리 창출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투자촉진 : 민간투자 1조 7,203억원, 신규고용 3,399명('21.1~10월)</li> <li>** 상생형 지역일자리 : 민간투자 약 2,000억원, 신규고용 약 800명('21.1~10월)</li> </ul> </li> <li>• 69개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923억원 교부하여, 민간투자 약 1조 7000억원, 지역일자리 3,399개 창출 유도('21.10. 기준)</li> </ul> </li> <li>■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국가 제조업의 근간인 산단 재도약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스마트그린산단 3개 지정* 및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출범('21.2월), 산업단지의 스마트·그린화를 위한 핵심사업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년) 반월시화, 창원, 인천, 구미 → ('20년) 대구, 광주, 여수 → ('21년) 울산미포, 명지녹산, 군산</li> <li>** ('20년) 25개 사업, 785억원 → ('21년) 혁신데이터센터, 스마트에너지플랫폼 등 38개 사업, 1,236억원</li> </ul> </li> <li>• 농공단지 지원사업 발굴을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발표('21.7월)</li> <li>• 대학 내 유휴부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캠퍼스혁신파크 선도 사업 대상지 2개소 추가(경북대, 전남대)</li> </ul> </li> </ul> |

|               |                                                                                                                                                                                                                                                                                                                                                                                                                                                                                                                                                                                                                                                                                                                                                                                                                                                                                                                                                                                                                                                                                                                                                                                                                  |
|---------------|------------------------------------------------------------------------------------------------------------------------------------------------------------------------------------------------------------------------------------------------------------------------------------------------------------------------------------------------------------------------------------------------------------------------------------------------------------------------------------------------------------------------------------------------------------------------------------------------------------------------------------------------------------------------------------------------------------------------------------------------------------------------------------------------------------------------------------------------------------------------------------------------------------------------------------------------------------------------------------------------------------------------------------------------------------------------------------------------------------------------------------------------------------------------------------------------------------------|
|               | <p>■ <b>정주환경 개선, 기업생태계 활성화</b>를 통해 세종시·혁신도시·새만금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시의 경우 중기부 이전('21.7월),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21.10월), 신청사 건립 추진 등을 통해 행정 중심의 도시기능 강화</li> <li>•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문화·보육시설 확대 등을 통해 혁신도시 내 정주민구 수, 입주 기업 수 등 주요 지표 지속적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주민구: ('20년) 22.4만명 → ('21.6월) 22.9만명, 입주기업: ('20년) 1,663개 → ('21.9월) 1,949개</li> </ul> </li> <li>• 「2단계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 재정비('21.2) 및 새만금 지역 교통 여건 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도로 건설('23. 8월 준공), 새만금-전주 고속도로('24.12월 개통), 내부 간선도로·인입철도(예타 조사중), 신공항(기본계획 수립 완료 예정, '21.12월)</li> </ul> </li> <li>• 혁신클러스터 내 중핵기업 유치 및 신규고용 창출을 통해 기업생태계 활성화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11월 기준) 중핵기업 32개 투자유치, 172명 신규 고용 창출, 83억원 사업화 매출 달성</li> </ul> </li> </ul> <p>■ <b>생활 SOC 확충</b>을 통해 이용자 편의 만족도 제고로 삶의 질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도 생활 SOC 투자시설 확충*을 통해 인구 1인당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간 편차 감소,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시설확충 실적) 공공도서관 49개, 생활문화센터 84개, 체육센터 57개 등</li> <li>** (이동거리 감소) 체육관 13.7%( '18년4.3km→'21년3.6km), 도서관 4%( '18년4.1km→'21년3.9km)</li> </ul> </li> </ul> |
|               |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원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본격 도입, 지역의 자율적인 예산편성, 재정사업기획 영역 확대</li> </ul> </li> <li>•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19.1월)에 따라 총 175조원을 투입('18~'22년) 하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3개 사업, 24조원 규모 예타면제) 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상용차산업 혁신성장(R&amp;D) 등 23개 프로젝트</li> </ul> </li> <li>• 행안부과기부중기부 세종 이전 등으로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기능 강화</li> <li>• 공공기관 이전계획 상 총 153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완료('19.12년)</li> <li>•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SOC 중장기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가활력, 생애돌봄, 안전·안심 등 3대 분야에 3년간('20~'22년) 국비 30조원 투입</li> </ul> </li> <li>• 광주글로벌모터스 1호차 생산 등 상생형 일자리 성과 가시화, 지역별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고용: (광역협력권사업) ('17~'20년)4,962명, (혁신클러스터) ('18~'20년)649명, (지역특화산업) ('17~'20년)8,962명, (상생형일자리) ('21.11월 기준)1,305명</li> </ul> </li> </ul>                                                                                                                                                                      |
| 개선·보완<br>필요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도시 정책이 정주민구, 입주기업, 지역인재 채용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업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 등 필요</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적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을 공공중심으로 지원</li> <li>■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생뉴딜 사업(~21년, 488곳 선정)을 통해 주택공급과 생활 SOC를 확충하고, 밀착사업 관리로 성과 조기화 기반 마련</li> <li>■ 다만,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종료사업(~21년, 13개소)에 대한 면밀한 성과 분석을 통한 정책 환류 등이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생뉴딜 신규사업 선정 및 밀착관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지확보 등 사전준비가 철저하고 계획의 완성도가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총 87곳의 신규 사업지를 선정하고, 특별공모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형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험건축물(안전등급 D-E) 정비사업을 추진(예: 진주 영남 백화점 정비사업, 청도 노후 버스터미널 정비사업, 여주 시민회관 정비사업 등)</li> </ul> </li> <li>• 도시재생뉴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도형 리츠에서 탈피, 민간·지자체·기금 협업을 통한 리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민간참여 촉진 및 사업활력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안 '오룡경기장 철거부지 일대'를 대상으로 민간 사업자 공모를 진행, 서류 및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완료(8월)</li> </ul> </li> <li>• '신호등 관리체계'(양호, 주의, 부진)를 통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간단위 집행점검과 지자체 국장급 합동점검회의 등을 통해 부진사업 밀착관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진사업 비율 : 23.7%(20.6월) → 17.4%(20.12월) → 13.4%(21.11월)</li> </ul> </li> <li>• 주민 만족도가 높은 생활 SOC 등 도시재생 세부사업 324개, 복합기능 거점 시설인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 22개 준공</li> </ul> </li> <li>■ 지역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주도 도시재생 추진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전문가·공무원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와 참여기반을 조성하고 향후 사업을 이끌어갈 융·복합 전문인력(석·박사) 본격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12월 총 12,887명(주민 12,001명, 전문가 790명, 공무원 96명) 교육, 석·박사 227명 교육</li> </ul> </li> <li>• 지역 주도 교육 지원계획 마련(3월), 온라인 교육 강화로 비대면 교육 수요에 대응(6월), 표준교재 발간(8월) 등 도시재생 교육 인프라 강화</li> <li>• 예비사회적기업 지정(10월, 24개), 마을관리협동조합 인가(12월, 85개)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기반 강화</li> </ul> </li> <li>■ 주거 취약계층에 녹색건축물 우선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준공 예정인 국민·영구 등 임대주택 21,000세대를 옥상 태양광 설치 지구로 선정(3월)하여 태양광 설치 추진</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임대주택 공용 전기요금 절감을 통한 저소득층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만 세대 옥상 태양광 설치로 매년 에너지 비용 5.4억원 절감, 온실가스 1693.3톤 저감 기대</li> </ul> </li> <li>■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 內 기존 노후 주택 및 호텔·상가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 청년과 고령자 등 다양한 주거 취약계층 지원(매입임대 6,748호 건축허가 등)</li> <li>•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위주로 현재까지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78개 사업지(8,513호)를 선정하여 추진 중</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총 488곳 선정하여 지원 중('17~'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 수 : ('17년) 68곳 → ('18년) 100곳 → ('19년) 116곳 → ('20년) 117곳 → ('21년) 87곳</li> </ul> </li> <li>• 지역·주민주도형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지역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생지원센터/근무인원(가계) : ('17년) 93곳/451명 → ('21년) 499곳/1,797명</li> <li>* 도시재생대학 : ('17년) 33곳 → ('21년) 206곳</li> <li>*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누계) : ('18년) 6,196명 → ('19년) 16,787명 → ('21년) 34,544명</li> </ul> </li> <li>• 재생효과 확산을 위한 민간 참여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1년, 3년간 총 625억원(기금 500억원, 민간 125억원)으로 3개의 모태펀드 조성</li> <li>* 씨앗융자, 노후산단융자 등 기금상품을 다양화하여 총 3조 2,699억원 지원</li> </ul> </li> <li>•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주택정비 및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신규주택 3.3만호 공급, 집수리 등으로 노후 주택 1.4만호 개량</li> </ul> </li> </ul> </div> |
| <b>개선·보완<br/>필요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연차별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나 종료사업('20년 4개소, '21년 9개소)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는 미완료한 상황으로, 향후 종료사업에 대한 성과를 면밀히 파악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li> <li>•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비를 토대로 타 부문의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나, 공기업·민간투자 등의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참여 확대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 말까지 전체 집행액 11조5,758억원 중 민간은 1조2,871억원(11.1%), 공기업 투자는 2,652억원(2.3%) 수준임</li> </ul> </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운 선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해외 물류망 확장</li> <li>■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 등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동반 성장</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05만TEU 확보 등 강화된 해운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출입물류를 지원하여 물류난 해소에 기여</li> <li>■ 다만, 글로벌 해상물류 적체해소를 위한 수출물류 지원 지속 추진 및 비상상황 대비 국가필수선박 규모 확대 추진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해운재건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의 해운경쟁력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 해운매출액(40조원),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105만TEU, 신조 포함), 지배선대(9,338만DWT) 등 주요 정량지표가 개선되어 한진사태 이전 수준 회복 전망</li> <li>• 주요 수출항로인 미주유럽항로의 국적선사 점유율이 '16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주항로 점유율(%) : ('16.8월) 11.4 → ('16.12월) 3.9 → ('20.8월) 8.5 → ('21.8월) 8.4</li> <li>** 유럽항로 점유율(%) : ('16.8월) 8.8 → ('16.12월) 2.6 → ('20.8월) 3.6 → ('21.8월) 7.2</li> </ul> </li> <li>• 국적 대표 원양선사가 매 분기 최대 규모의 영업실적을 기록하면서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 개선으로 경영정상화 가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 원양선사 영업이익(억원) : ('17년) △4,068 → ('20년) 9,808 → ('21.3분기) 46,790</li> <li>** 대표 원양선사 부채비율(%) : ('19년) 556 → ('20년) 455 → ('21.9월) 99.9</li> </ul> </li> </ul> </li> <li>■ 임시선박 투입 등 수출입물류 지원을 통해 물류난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만TEU급 신조 컨테이너선(8척)을 조기 투입('21.3~6월)하고, 임시선박 총 95척을 투입*하여 21만TEU 수송('20.8~21.12월), 미주 물동량 증가분의 80%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선박 투입 : (미주) 70척/185,345TEU, (유럽) 4척/9,586TEU, (동남아) 21척/16,044TEU</li> </ul> </li> <li>• 중소기업에 주당 1,300TEU의 전용 선적공간을 배정하여, 총 496개사의 1.5만TEU* 수송('20.11월~), 장기운송계약으로 95개사에 1,782TEU지원('21.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주(75회), 유럽(22회), 동남아(17회) 등 총 114회/15,375TEU 제공(~'21.12월)</li> </ul> </li> <li>• 컨테이너박스 7.4만대를 공급('21.3월~10월)하고, 부산항 신·북항에 화물보관을 위한 컨테이너 장치장 신속 공급(21.7월~, 9,550TEU) 및 지속 확대 추진</li> </ul> </li> <li>■ 해운·조선 상생구조 공고화 등을 통해 8년만에 최대 수주량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조선산업은 '21년 1,744만CGT(전세계 발주량의 37.1%)를 수주, '13년(1,845만CGT) 이후 8년만에 최대실적을 달성하며 재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부가선박은 전세계 발주의 65%, 대형LNG운반선은 89% 수주</li> </ul> </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선박*·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추진을 통해 세계시장 선점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선박)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사업(R&amp;D) 예타 통과('21.6월) 등</li> <li>**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구축('21.10월~), 시험선 건조('21.12월 진수) 등</li> </ul> </li> <li>• 국내 선박발주('18년~'21.10월) 총 274척(203억달러) 중 국내 조선사가 208척(167억달러) 수주(금액 기준 82%)</li> <li>• 친환경선박 25척* 신조 발주 지원 및 정책금융 신조지원 프로그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외항) 13척, 보조사업(내항, 신설) 3척, 관공선 9척</li> <li>** 신조지원 프로그램(15억달러), 그린오션 펀드(6억달러)</li> </ul> </li> </ul> <p>■ <b>자동화항만 등 스마트 물류체계 도입으로 항만의 효율성·안전성을 높이고,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물류 네트워크 확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4개 선석)' 구축사업 예타 통과('21.11월) 및 생산성이 50%이상 향상된 고생산성 항만자동화 하역기술* 시제품 제작('2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SS(Overhead Shuttle System): 이송 및 보관·적재가 일체화된 구조물 형태의 하역시스템</li> </ul> </li> <li>•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 수립('21.4월)으로 인프라 구축 로드맵* 마련, 스마트 물류센터 2개소(인천항, 부산항) 구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해운물류거점별 스마트 물류기술 실증 및 확대, ▲디지털 기반 해운물류 데이터 경제 확산, ▲법·제도, 전문인력 등 스마트 인프라 구축 추진</li> </ul> </li> <li>• 해외 물류투자 지원('18년~'21년, 47건)으로 14개 해외법인 설립 및 3개 물류거점* 확보, 13개국 항만개발 지원('18~'21년)으로 23건(40억달러)의 항만공사 수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호치민('19년 택배 터미널), 중국 상해('19년 물류센터), 말레이시아 포트클랑('20년 '컨테이너기지)</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및 해운산업 회복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18.1월), 해양진흥공사 출범('18.7월)으로 해운 재건 기반 마련</li> <li>* 해운매출액 : ('15년) 39조원 → ('16년) 29조원 → ('20년) 36조원 → ('21년, 예상) 40조원</li> <li>* 원양선복량 : ('15년) 105만TEU → ('16년) 46만TEU → ('20년) 78만TEU → ('21년) 105만TEU</li> <li>* 지배선대 : ('16년) 8,586만DWT → ('17년) 7,994만DWT → ('20년) 8,856만DWT → ('21년, 예상) 9,338만DWT</li> </ul> </li> <li>• 동북아 물류중심 입지 공고화 등 항만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항 '20년 물동량 2,181만 TEU 달성, 세계 2위 환적항만 입지 유지</li> <li>* 광양항은 세계 11번째로 年 물동량 3억톤 돌파('18년)</li> </ul> </li> <li>• 조선산업 재도약 및 조선 밀집지역 경제회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부처 합동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18.11) 및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19.4) 수립으로 미래 경쟁력 강화 지원(중소조선·기자재 업체 금융지원 등)</li> </ul> </li> </ul> </div> |
| <b>개선·보완<br/>필요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해상물류 적체해소를 위한 임시선박 투입 등 수출물류 지원 지속 추진 필요</li> <li>• 해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외항선에 대한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사업이 '22년 일몰 예정으로, 재정당국과 협의 등을 통해 지속추진 필요</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의료 등 농산어촌 생활 인프라 확충</li> <li>■ 농산어촌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국민 휴식공간 조성</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원 택시 등 농촌형 교통서비스 확대, 생활 인프라 개선 및 주거환경 정비 등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li> <li>■ 농업인·농촌기업 생산 제품 등의 비대면 유통플랫폼 판매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및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li> <li>■ 다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농촌관광 활성화 노력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 SOC시설 확충, 빈집정비 등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읍면 중심의 생활공공서비스 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SOC 구축(누계) : ('17년) 67개 → ('20년) 1,311개 → ('21년) 1,672개</li> </ul> </li> <li>•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빈집 및 노후·불량주택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비·철거된 공간은 공동주차장, 마을광장, 텃밭 등 지역주민들을 위해 활용</li> <li>* 농촌빈집정비(누계) : ('20년) 16만 7,319동 → ('21년) 17만 5,073 (7,754동 ↑)</li> <li>* 노후·불량주택정비(누계) : ('20년) 8만 9,447동 → ('21년) 9만 3,801 (4,354동 ↑)</li> </ul> </li> </ul> </li> <li>■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로 농촌 삶의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 취약 지역에 100원 택시, 소형버스 등 맞춤형 농촌 교통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 지자체 수 : ('17년) 18개 시군 → ('20년) 82개 군 → ('21년) 82개 군</li> <li>* 이용자 수 : ('17년) 29만명 → ('20년) 482만명 → ('21년) 550만명</li> <li>※ 뉴욕타임즈('21.9.12.) : “한국의 100원 택시는 농촌의 교통혁명이자 신의 선물”이라고 극찬</li> </ul> </li> <li>• 공동아이돌봄센터, 농번기 아이돌봄방 확대 농촌 보육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20년) 54개소 → ('21년) 97개소</li> <li>* 농번기아이돌봄방 : ('20년) 23개소 → ('21년) 76개소</li> </ul> </li> <li>• 농촌 고령농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보험료 월 최대지원액 인상: ('15~'18년) 40,950원 → ('19~'20년) 43,650원 → ('21년) 45,000원</li> <li>* 농지연금 월 지급금 상향('18년: 90만원 → '21년: 95만원) 및 가입연령 확대(만65세→만60세), 우대상품(저소득장기영농인 대상) 도입 등 '농지연금 활성화방안' 마련('21.8월)</li> <li>* 여성농업인 영농여건개선교육 운영 확대('20년: 26백명→'21년: 69백명), 농촌지역 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해 전문강사 양성('21년 40명)</li> </ul> </li> </ul> </li> <li>■ 농촌융복합 산업 지원 확대, 사회적 경제 기반조성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대면 경제 확대에 대응하여 온라인 판로 확대 및 다양한 채널 활용 판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 콘텐츠 제작(108개소), 우체국 상설판매관 운영('21년: 671개소/ 6430백만원), 네이버 2시 팔도유람 라이브 커머스(24개소/ 101백만원)</li> </ul> </li> <li>• 영농지원 바우처, 농촌관광경영체 자금지원 등 농촌관광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감소 체험휴양마을 235개소에 영농지원 바우처 100만원씩 지원</li> </ul> </li> </ul> </li> </ul> |

|               |                                                                                                                                                                                                                                                                                                                                                                                                                                                                                                                                                                                                                                                                                                                                                                                                                                                                                                                                                                                                                                                                                                                                                                                                                                                                                                                                                                                                                                                                                                                                                                                                                                                                                                                                                                                                                                                                                                                                                                                                                                                                                                                                                                                                                                                                                                                                                                                                                                                                                                                                                                                                                                                                               |
|---------------|-------------------------------------------------------------------------------------------------------------------------------------------------------------------------------------------------------------------------------------------------------------------------------------------------------------------------------------------------------------------------------------------------------------------------------------------------------------------------------------------------------------------------------------------------------------------------------------------------------------------------------------------------------------------------------------------------------------------------------------------------------------------------------------------------------------------------------------------------------------------------------------------------------------------------------------------------------------------------------------------------------------------------------------------------------------------------------------------------------------------------------------------------------------------------------------------------------------------------------------------------------------------------------------------------------------------------------------------------------------------------------------------------------------------------------------------------------------------------------------------------------------------------------------------------------------------------------------------------------------------------------------------------------------------------------------------------------------------------------------------------------------------------------------------------------------------------------------------------------------------------------------------------------------------------------------------------------------------------------------------------------------------------------------------------------------------------------------------------------------------------------------------------------------------------------------------------------------------------------------------------------------------------------------------------------------------------------------------------------------------------------------------------------------------------------------------------------------------------------------------------------------------------------------------------------------------------------------------------------------------------------------------------------------------------------|
|               | <p>* 농촌관광경영체 정책자금 운영 자금 금리인하(2.5%→1.5, 1%p ↓), 시설자금 상환 유예(금년 상환기간 도래자금 상환기간 1년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농장 지원 확대, 공동체단위 사회적 농업(2개소) 시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농장 : ('20년) 30개소 → ('21년) 60개소</li> <li>* (완주, 익산) 코디네이터가 사회적농장간 협업, 농장 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사회적 농업 홍보 등 추진하고 5개 농가 결합하여 사회적 농업 활동</li> </ul> </li> </ul> <p>■ 숲의 가치 증진, 임업소득 안정 및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복원 제도 기반 마련을 통한 산림생태계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복원 관련 지침 제정('20년), 도서지역 산림복원 계획 수립('21.6월)</li> <li>* 3대 핵심 생태축(백두대간 2ha, DMZ일원 36ha, 도서지역 등 48ha)중심 산림복원</li> </ul> </li> <li>• 임업직접지불제 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 소득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 관련 법률 제정('21.11월) 및 시행('22.10월)</li> </ul> </li> <li>• 국민의 쉼터로서의 여가공간 제공, 맞춤형 산림 서비스 제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휴양림 조성(누계) : ('19년) 175개소 → ('20년) 181개소 → ('21년) 186개소</li> <li>* 사회복지시설 나눔숲(누계) : ('19년) 832개소 → ('20년) 913개소 → ('21년) 977개소</li> </ul> </li> <li>• 코로나19 대응인력 등에게 숲치유 프로그램 제공 및 재난심리치료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숲치유 프로그램 12,087명 지원(대응인력 2,024명 포함)<br/>→ 대응인력 효과검증 분석결과 정서안정점수 9.3점 향상(참여전 65.39→참여후 74.69)</li> <li>* 다부처 협업(행안·복지부 등)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내방객에 반려식물 보급(2,000명)</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align="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SOC 확충, 빈집 정비 등을 통한 농촌지역 정주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빈집정비(누계) : ('19년) 15만 9,333동 → ('20년) 16만 7,319동 → ('21년) 17만 5,073동</li> </ul> </li> <li>• 농촌형 교통모델(100원 택시, 소형버스 등) 도입, 국민·농지연금 등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 지자체 수 : ('17년) 18개 시군 → ('18년) 76개 군 → ('19) 81개 군 → ('20) 82개 군 → ('21) 82개 군</li> <li>* 연금보험료 월 최대지원액 인상: ('15~'18년) 40,950원 → ('19~'20년) 43,650원 → ('21년) 45,000원</li> <li>* 농지연금 가입 건수(누계) : ('17년) 8,631건 → ('18년) 11,283건 → ('19년) 14,492건 → ('20년) 17,098건 → ('21년) 19,178건</li> </ul> </li> <li>•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확대 및 사회적농업 기반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사업자: ('17년) 1,397명→('18년) 1,524명 → ('19년) 1,624명 → ('20년) 1,909명 → ('21년) 2,034명</li> <li>* 사회적 농장 : ('18년) 9개소 → ('19년) 18개소 → ('20년) 30개소 → ('21년) 60개소</li> </ul> </li> <li>• 산림자원 활용 일자리·소득 창출 지원 및 사회적약자 복지서비스 접근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확대 : 나무의사('18년), 목재교육전문가('20년) 제도 도입</li> <li>* 재해보험 가입률 : ('17년) 15.9% → ('21년) 42.1% / 임가소득 : ('17년) 3,459만원 → ('21년) 3,711만원</li> <li>* 소외계층 산림복지바우처 확대 : ('17년) 1만 5000명 → ('21년) 4만 4000명</li> </ul> </li> </ul> </div> |
| 개선·보완<br>필요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반적인 여행 자제, 농촌관광 방문객 감소에 따른 농촌관광 활성화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관광 방문객 수 : ('19년) 1,307만명 → ('20년) 656만명 → ('21년) 731만명</li> </ul> </li> <li>• 귀산촌 인구증가를 위한 노력에도 귀산촌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산촌인구추이) ('16년) 69,900 → ('17년) 66,251 → ('19년) 57,478 → ('20년) 59,294</li> </ul> </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 수급균형 달성 및 쌀값 안정,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 보전 및 복구 지원, 직접지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개편</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 등 주요 농산물의 수급안정, 공익직불제 추진, 재해보장 강화 등 정책적 추진으로 농가소득 역대 최고 기록 달성</li> <li>■ 다만, 쌀 가공 소비시장 확대, 선택직불제 단계적 확대 추진, 농산물 온라인 거래 확대 등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 수급안정, 쌀 소비 촉진 등을 통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수급안정제도('20.7월 시행)를 바탕으로 수급대책 마련 등 쌀 수급 안정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확기쌀값(10~12월 20kg 기준):('18년) 4만 8,392원 → ('20년) 5만 4,121원 → ('21년) 5만 3,535원</li> <li>** 쌀소득(소득률, 10a당):('17년) 54만 1천원(55.6%) → ('18년) 68만 3천원(58.0%) → ('20년) 73만 2천원(60.2%)</li> </ul> </li> <li>• 쌀식습관 형성 및 쌀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쌀 소비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가공식품 수출액:('20년) 1억 3,805만\$ → ('21년) 1억 6,306만\$ (전년 대비 18.1% ↑)</li> </ul> </li> <li>•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단가 인상 등* 비축농지 매입 확대**로 식량 자급기반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입단가) 2.8 ~ 10.5만원/㎡ → 2.8 ~ 13.0만원/㎡, (지원한도) 1ha → 2ha</li> <li>** 농지 매입면적:('17년) 703ha → ('19년) 1,165ha → ('21년) 1,569ha('17년 대비 123.2% ↑)</li> </ul> </li> </ul> </li> <li>■ 공익직불제 안정적 안착, 농업환경 보전 활동 등 공익적 가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중소농 소득안정 및 논·밭 형평성 제고, 시스템을 활용한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점검으로 철저한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ha 이하 농업인(농가) 수령액 비중:('19년) 10.6% → ('20년) 22.3% → ('21년) 24.3%</li> <li>밭 수령액 비중:('19년) 16.2% → ('20년) 27.7% → ('21년) 28.1%</li> </ul> </li> <li>• 농업환경 보전 활동 이행을 통해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인식 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 생물다양성 증진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 홍성군 사례: 하천·저수지 청소, 영농폐기물 공동 수거 및 분리배출(약 16톤)</li> </ul> </li> </ul> </li> <li>■ 재해 피해농가의 신속한 영농복귀 및 농가경영안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파·이상저온·태풍 등 15차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91,653ha 피해 발생에 대하여 8만 9천 농가에게 재해복구비 1,835억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단가 현실화율(실거래가 대비비율):('19년) 72% → ('20년) 73% → ('21년) 83%</li> <li>** 신규항목/전년도 전체항목:('19년) 10개/160개 → ('20년) 5개/170개 → ('21년) 2개/174개</li> </ul> </li> <li>• 농작물재해보험 高보장 상품(자기부담비율 10·15%형 상품 등) 가입요건 완화*, 국가-민간 재보험사 간 적절한 위험분산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부담비율 10% 가입요건:('20년) 3년연속가입+3년간 누적손해율 50%미만 → ('21년) 100%미만</li> </ul> </li> <li>• 농작업 안전보험 가입대상 범위 확대*, 사망보험금 연장특약을 추가 부담없이 '22년부터 확대 적용('21.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 근무 중인 농업인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 범위 확대</li> </ul> </li> </ul> </li> </ul> |

|                              |                                                                                                                                                                                                                                                                                                                                                                                                                                                                                                                                                                                                                                                                                                                                                                                                                                                                                                                                                                                                                                                                                                                                                                                                                                                                                                                                                                                                                                                                                                                                                                                                                                                                                                                                                                                                                                                                                                                                                                                                                                                                                                                                                                                                                                                                                                                                                                                                                                                                                                                                                                                                                 |
|------------------------------|-----------------------------------------------------------------------------------------------------------------------------------------------------------------------------------------------------------------------------------------------------------------------------------------------------------------------------------------------------------------------------------------------------------------------------------------------------------------------------------------------------------------------------------------------------------------------------------------------------------------------------------------------------------------------------------------------------------------------------------------------------------------------------------------------------------------------------------------------------------------------------------------------------------------------------------------------------------------------------------------------------------------------------------------------------------------------------------------------------------------------------------------------------------------------------------------------------------------------------------------------------------------------------------------------------------------------------------------------------------------------------------------------------------------------------------------------------------------------------------------------------------------------------------------------------------------------------------------------------------------------------------------------------------------------------------------------------------------------------------------------------------------------------------------------------------------------------------------------------------------------------------------------------------------------------------------------------------------------------------------------------------------------------------------------------------------------------------------------------------------------------------------------------------------------------------------------------------------------------------------------------------------------------------------------------------------------------------------------------------------------------------------------------------------------------------------------------------------------------------------------------------------------------------------------------------------------------------------------------------------|
|                              | <p>■ <b>자율적 수급조절체계 정착, 유통경로 다양화 등으로 농산물 수급·유통 개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소가격안정제 물량('20년: 생산량의 15%→'21년: 16%) 및 의무자조금 단체 확대('20년: 21개→'21년: 23개), 농업관측에 민간의 아이디어*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된 실측데이터 민간 개방('20.5월), 수급 예측모형 경진대회('21.1월~6월) 등</li> </ul> </li> <li>• 농산물 거래·수급정보 제공*, 축산물 온라인경매 시스템 구축 등 온라인 거래 활성화,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20년: 554개소 → '21년: 80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매시장 마늘 거래코드 세분화('21.5월), 온라인거래소 거래정보 공개('21.6월)</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 등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 공익직불제 추진, 재해보장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역대 최고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소득) '10년: 3,212만원 → '15년: 3,722만원 → '20년: 4,503만원('10년 대비 40.2%↑)</li> </ul> </li> <li>• 쌀 등 주요 농산물의 수급안정 등 가격 급등락 방지, 농가 소득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 생산조정제('18년~'20년)로 사전적 수급조절, 쌀 가공식품 등 수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확기쌀값(10~12월, 20kg기준) : ('17년) 3만 8,303원 → ('18년) 4만 8,392원 → ('19년) 4만 7,491원 → ('20년) 5만 4,121원 → ('21년) 5만 3,535원</li> <li>** 쌀 가공식품 수출액 : ('17년) 7,203만\$ → ('18년) 8,931만\$ → ('19년) 1억 859만\$ → ('20년) 1억 3,805만\$ → ('21년) 1억 6,306만\$</li> </ul> </li> <li>-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품목 및 물량* 확대 및 의무자조금** 지원 확대, 농업관측을 전화 설문조사에서 실측조사(5대 채소 중심)로 전환('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 ('16년) 2개 → ('21년) 6개 / 물량 ('16년) 5% → ('18년) 10% → ('20년) 15% → ('21년) 16%</li> <li>** 의무자조금: ('15년) 8개 → ('18년) 17개 → ('20년) 21개 → ('21년) 23개</li> </ul> </li> </ul> </li> <li>• 쌀·대농 중심의 직불제를 개편한 공익직불제를 본격 시행('20년~)하여 중소농가 소득 안정 및 공익적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직불제 도입성과 : 0.5ha 이하 경작자 수령액 비중('19년: 10.6% → '21년: 24.3%), 밭 수령액 비중('19년: 16.2% → '21년: 28.1%) 증가</li> </ul> </li> <li>•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 재해보험 확대 등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 피해농가의 신속한 영농복귀를 위해 농약대·대파대(재파종 비용) 등 지원단가 현실화* 및 재해복구비 지원항목에 품목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단가 현실화율 : ('17년) 60% 수준 → ('18년) 66% → ('19년) 72% → ('20년) 73% → ('21년) 83%</li> <li>** 재해복구비 지원항목 신규/인상 수(전체항목 중) : ('17년) 17개/12개(159개) → ('18년) -/20개(160개) → ('19년) 10개/25개(170개) → ('20년) 5개/16개(174개) → ('21년) 2개/123개(176개)</li> </ul> </li> <li>-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17년: 69개 → '20년: 83개)와 농가 보험료 부담 완화 등으로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18년) 33.1% → ('19년) 38.9% → ('20년) 45.2% → ('21년) 49.5%</li> </ul> </li> </ul> </li> </ul> </div> |
| <p><b>개선·보완<br/>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기후·환경문제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선택직불제(경관직불제, 친환경직불제 등) 확대 필요</li> <li>• 기상악화 및 가축질병 발생 등에 대응하여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 친화적이고 스마트한 농식품산업 확산 및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li> <li>■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어업회의소 등 협치·참여 행정 확산</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농 육성, 환경친화적 농업·스마트 농업 확산 등으로 지속 가능한 농산업 기반을 조성</li> <li>■ 농축산물 안전관리, 식품·외식 산업 육성을 통해 먹거리 공급 안정성 확보</li> <li>■ 다만, 농어업회의소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 등 노력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등을 통한 농업창업 활성화로 미래 핵심 농업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농 영농정착을 위한 자금농자기술교육 등 지원으로 소득안정 및 영농정착률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청년층의 농업 진출확대를 위해 청년농을 선발('21년: 1,800명 선발, 누적 6,600명), 정착지원금(최장3년 월최대 100만원) 및 농자자금기술교육 등 종합지원</li> </ul> </li> </ul> </li> <li>■ '준비된' 귀농·귀촌 지원으로 미래세대 일자리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신설('21년 3월~),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을 지역 정보 및 소통형 콘텐츠 중심으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 장기간(최장 6개월)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 제공(주거 및 연수 프로그램, 연수비(월 30만원) 지원)</li> <li>* 농림어업취업자 수: ('18년) 134만명 → ('19년) 139만명 → ('20년) 144만명 → ('21년) 146만명</li> </ul> </li> </ul> </li> <li>■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기반 마련 및 예방중심의 방역체계 구축으로 가축전염병 피해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깨끗한 축산농장을 확대('20년 누적 3,629호 → '21년 5,242호)하고 축산악취지역 (30개소)을 집중관리하여 축산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깨끗한 축산농장 국정과제 목표('22년까지 5천호) 105% 초과 달성</li> <li>* 암모니아(NH3) 수치 50%감소(4월 16ppm→10월 8ppm) 및 주민 66.3%가 악취개선 체감</li> </ul> </li> <li>• 질병관리등급제 도입('21.7월)을 통해 방역 수준이 우수한 농가에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 인센티브(선택권)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의 방역시설·관리 수준 및 최근 AI 발생 이력 등을 바탕으로 등급을 부여</li> </ul> </li> </ul> </li> <li>■ 스마트 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팜 혁신밸리 1차 지역 완공, 시범온실 조성으로 K-스마트팜 수출거점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원예 6,485ha(누적, 전년대비 8.4%↑), 축사 4,743호(누적, 전년대비 37.0%↑)</li> <li>* 신북방(카자흐스탄 '21.10.28 준공), 신남방(베트남) 지역 현지에 K-스마트팜 시범온실을 조성</li> </ul> </li> </ul> </li> <li>■ 농식품 R&amp;D 투자 강화 및 농기자재, 곤충산업 등 전후방 유망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대 중점 연구분야 투자 강화로 농식품 기술 수준 향상, 농기자재 수출 MOU 체결, 해외 인증 획득 등 시장 개척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 R&amp;D 투자 10억원당 SCI 논문, 등록특허 건수는 국가 평균 대비 2.5배 높은 수준</li> <li>* (주)누보(비료) - 멕시코 수출 MOU 체결(3만톤, 150억 규모), (농약) UAE ROHS 인증, (사료) 호주 GMP 인증, (농기계) 한-EU CE 인증</li> </ul> </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려동물 등록 활성화, 동물보호법 개정 등을 통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21.7.19~'21.9.30, 17만 9,193마리 신규 등록, 전년 동기대비 3.6배)</li> <li>* 동물보호법령 개정('21.2월) :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동물판매업자의 판매 전 사전 등록 의무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2년/2,000만원→3년/3,000만원) 등</li> </ul> </li> <li>■ 지역 푸드플랜 수립 확산, 농식품 바우처 지원 등으로 건강하고 품질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li> <li>지역 푸드플랜 수립으로 안정적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농식품 바우처 지급으로 취약계층 먹거리 공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푸드플랜 추진 지자체 : ('19년) 49개소 → ('20년) 67개소 → ('21년) 111개소</li> <li>* 농식품 바우처 발급 가구 수 2만 9,550가구(총 164억원), 지원 후 식생활 만족도(2.81→3.31)</li> </ul> </li> <li>■ 물류 애로 해소, 비대면 마케팅 강화 등 다각적인 수출지원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농식품 수출 지속 확대</li> <li>딸기 수출 전용 항공기(싱가포르, '20.12월~'21.4월), 농식품 전용 선적공간 확보(미주노선, '21.7~12월) 등을 통해 수출업체 물류난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액 : ('17년) 68.3억\$ → ('18년) 69.3억\$ → ('19년) 70.3억\$ → ('20년) 75.6억\$ → ('21년) 85.4억\$</li> </ul> </li> <li>비대면 유통망(온라인 쇼핑몰, O2O 매장 등) 개척, 중국 티몰(T-mall)에 '한국식품관' 운영</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 농어촌 취업자수 증가를 통한 농업·농촌 성장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세 미만 귀농가구수 : ('17년) 1,325농가 → ('18년) 1,356농가 → ('19년) 1,209농가 → ('20년) 1,362농가</li> <li>* 농림어업취업자수 : ('17년) 128만명 → ('18년) 134만명 → ('19년) 139만명 → ('20년) 144만명 → ('21년) 146만명</li> </ul> </li> <li>농업환경 개선 및 가축 전염병 선제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깨끗한 축산농장(누계) : ('17년) 1,029호 → ('18년) 1,815호 → ('19년) 2,607호 → ('20년) 3,629호 → ('21년) 5,242호</li> <li>* 질병관리등급제 도입('21.7월)을 통해 우수한 농가에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 인센티브(선택권)부여</li> </ul> </li> <li>4차 산업혁명 기술 등을 접목한 농산업 기술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 조성), 스마트 온실 6,485ha, 스마트 축사 4,743호 보급( 누적)</li> </ul> </li> <li>과일간식, 농약관리 등 품질 좋은 먹거리공급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류 애로 해소, 온라인 마케팅 강화 등 다각적인 수출 지원을 통해 농식품 수출 확대 - ('17년) 68.3억\$ → ('18년) 69.3억\$ → ('19년) 70.3억\$ → ('20년) 75.6억\$ → ('21년) 85.4억\$</li> <li>*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연간 24만명), 농식품바우처 시범 추진('20.4월~)</li> </ul> </li> </ul> </div> |
| 개선·보완<br>필요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를 위해 공청회, 국회 설명, 농어민단체 협력, 공감대 형성 등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원 발의안과 별도로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정부안 마련 후 국회 상임위 소위 계류 중</li> </ul> </li> <li>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해 주기 위한 농지매입 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매입단가를 반영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상보다 실 매입가가 높아 매입계획 대비 '18년 58.4%, '19년 67.7%, '20년 62.9%에 그침</li> </ul> </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생태계 기반 수산정책 실현</li> <li>■ 해양공간통합관리 및 해양환경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 강화</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비쿠폰 발행 및 맞춤형 수출지원 등으로 역대 최고 수산물 수출액 경신,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을 위한 신속한 대책 발표, 원산지 조사 강화로 국민불안 불식</li> <li>■ 다만, 인구이동 및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어촌소멸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 추진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비쿠폰 발행 등 수산물의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현지 맞춤형 수출 지원 등으로 역대 최고 수출액 경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수산대전” 개최, 주요 소비부진 품목 대상 20% 할인쿠폰 발행,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으로 2,618억원의 수산물 국내 소비 촉진</li> <li>• 코로나19로 변화된 온라인 중심 소비트렌드에 대응한 현지 맞춤형 수출 지원 등 적극적인 해외시장 발굴로 역대 최고 수출액 경신</li> <li>* 수산물 수출액: ('17년) 23.3억달러 → ('18년) 23.8억달러 → ('19년) 25.1억달러 → ('20년) 23.1억달러 → ('21년) 28.2억달러</li> </ul> </li> <li>■ <b>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을 위한 신속한 대책 발표,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확대, 원산지 조사 강화로 국민불안 해소 노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방침 발표('21.4.3) 즉시 해양수산 대응책을 발표하여 국민적 우려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li> <li>•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횟수를 전년대비 32회(32.7%) 확대*하고, 해양방사능 검사장비 확충 등 선제적으로 일본 원전 오염수 감시체계 지속 강화</li> <li>* 해양방사성물질 모니터링: ('19년) 32개소 64회 → ('20년) 39개소 98회 → ('21년) 39개소 130회</li> <li>•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을 10대 중점품목*으로 지정('21.1월)하여 집중 관리하고, 총 12,538개소 대상 원산지 표시위반 조사** 실시</li> <li>* 가리비, 멍게, 참돔, 방어, 명태, 뱀장어, 참조기, 미꾸라지, 주꾸미, 대게</li> <li>** 점검('21.4~5월) 결과 165개소의 위반사항 적발(미표시 123개소, 거짓표시 42개소)</li> </ul> </li> <li>■ <b>어업관리시스템 혁신, 수산자원회복 지원 등으로 근해·연안 어업이익 상승, TAC적용어종 생산액 증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연근해 생산량 증가에 따라 근해·연안어업의 어선당 어업이익은 '17년 대비 각각 23%, 39% 증가*, TAC 적용어종의 생산액은 14% 증가**</li> <li>* 근해어업 어선당 어업이익: ('17년) 307,025천원 → ('20년) 379,803천원(23% ↑)<br/>연안어업 어선당 어업이익: ('17년) 34,544천원 → ('20년) 47,944천원(39% ↑)</li> <li>** TAC 적용어종의 생산액: ('17년) 1조 1,142억원 → ('20년) 1조 2,721억원(14% ↑)</li> <li>• 어구실명제 및 보증금제 도입 등 전주기 어구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수산업법 전부개정('21.12월) 실시, 바다숲(2.7만ha) 조성으로 연안생태계 건강성 지속 회복</li> </ul> </li> </ul> |

|                              |                                                                                                                                                                                                                                                                                                                                                                                                                                                                                                                                                                                                                                                                                                                                                                                                                                                                                                                                                                                                                                                                                                                                                                                                                                                                                                                                                                                                                                                                                                                                                                                                                                                                                                                                                                                                                                                                                                                                                                                                                                                                                                                                                                                                                                                                                                                                                                                                                                                                 |
|------------------------------|-----------------------------------------------------------------------------------------------------------------------------------------------------------------------------------------------------------------------------------------------------------------------------------------------------------------------------------------------------------------------------------------------------------------------------------------------------------------------------------------------------------------------------------------------------------------------------------------------------------------------------------------------------------------------------------------------------------------------------------------------------------------------------------------------------------------------------------------------------------------------------------------------------------------------------------------------------------------------------------------------------------------------------------------------------------------------------------------------------------------------------------------------------------------------------------------------------------------------------------------------------------------------------------------------------------------------------------------------------------------------------------------------------------------------------------------------------------------------------------------------------------------------------------------------------------------------------------------------------------------------------------------------------------------------------------------------------------------------------------------------------------------------------------------------------------------------------------------------------------------------------------------------------------------------------------------------------------------------------------------------------------------------------------------------------------------------------------------------------------------------------------------------------------------------------------------------------------------------------------------------------------------------------------------------------------------------------------------------------------------------------------------------------------------------------------------------------------------|
|                              | <p>■ 「수산부산물법」 제정으로 굴 패각 등 폐기물 자원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부산물법」 제정('21.7월)으로 연안에 장기 방치된 굴 패각 등을 재활용하여 제철소 소결제, 연안정화제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법적기반 마련</li> <li>• 패각폐기물의 재활용으로 패각친환경처리비(연 135억) 절감 및 석회광석 대체로 온실가스, 오.폐수, 경관훼손 등 사회적 문제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굴 패각(92만톤)을 탈황소재 등 활용시 CO<sub>2</sub> 약 41만톤 감축</li> <li>* 굴 패각(92만톤)을 제철소 소결제로 활용시 약 414억원 부가가치 창출</li> </ul> </li> </ul> <p>■ 해양공간의 '선(先)계획 후(後)이용' 체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전(全)해역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및 지역별 공간관리체계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범위를 해상경계로 인식하여 발생한 갈등을 11개 시도 협약체결('21.6) 등으로 전해역(44만km<sup>2</sup>)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공간관리계획(안) 수립 면적: ('20) 7만km<sup>2</sup> → ('21) 44만km<sup>2</sup> (529% ↑)</li> </ul> </li> <li>• 동해안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인천, 경기 등 4개 권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을 확정 고시하여 해양공간 통합관리 본격화</li> </ul> <p>■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해양생태계 건강성 회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갯벌'이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한 가치가 인정**되어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21.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갯벌(20.3만ha): 서천, 고창, 신안, 보성별교.순천 / ** 총 770여종의 해양생물 서식</li> </ul> </li> <li>• 화성 매항리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21.7월)하고, 포항 호미곶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21.12월)</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 생산량 및 수출규모 확대, 어가소득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허가당 생산량 : ('98년) 128톤 → ('05년) 168톤 → ('19년) 178톤 → ('20년) 189톤</li> <li>* 수산물 수출액: ('17년) 23.3억달러 → ('18년) 23.8억달러 → ('19년) 25.1억달러 → ('20년) 23.1억달러 → ('21년) 28.2억달러</li> <li>* 어가소득 : ('17년) 4,902만원 → ('18년) 5,184만원 → ('19년) 4,842만원 → ('20년) 5,319만원</li> </ul> </li> <li>• 일본 원전오염수 방출 대응 등을 위한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방사성물질 모니터링 : ('19년) 32개소 64회 → ('20년) 39개소 98회 → ('21년) 39개소 130회</li> <li>* 수산물 안전성 검사 건수 : ('17년) 12,500건 → ('20년) 14,500건 → ('21년) 15,000건</li> <li>* HACCP 등록 양식장 : ('17년) 155개소 → ('18년) 194개소 → ('19년) 237개소 → ('20년) 284개소 → ('21) 354개소</li> </ul> </li> <li>•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평균 폐어구 수거량 : ('10~'16년) 1,376톤 → ('17~'20년) 2,329톤 → ('21.11) 3,453톤</li> <li>* 해양보호구역 지정면적 : ('17년) 507km<sup>2</sup> → ('19년) 1,780km<sup>2</sup> → ('21년) 1,798km<sup>2</sup></li> </ul> </li> </ul> </div> |
| <p><b>개선·보완<br/>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이동 및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어촌소멸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 추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가인구 : ('19년) 11.4만명 → ('20년) 9.7만명 / 고령화('20년기준) : 전국 15.7% 어촌 36.2%</li> </ul> </li> <li>•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 위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해보험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통한 가입률 제고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보험 가입률(%): ('17년) 42.1 → ('18년) 44.3 → ('19년) 39.1 → ('20년) 28.0% → ('21년) 29.7%</li> </ul> </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적정수준의 국방예산 확보</li> <li>■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핵·WMD 대응체계' 임기 내 조기 구축 추진 및 전담조직 설치 검토</li> <li>■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 WMD 대응전력 적기 전력화, 군 사이버조직 개편 등의 국방력 강화 노력으로 전방위적 안보위협에 대비</li> <li>■ 다만,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군 사이버안보 협력 체계화 방안 마련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 국방예산 편성 및 집행 효율화로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선진 병영문화 구현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WMD 대응, 비전통적 위협(재난·테러) 대비,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22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약 54.6조원 편성</li> <li>* ('17년) 40.3조 → ('18년) 43.2조 → ('19년) 46.7조 → ('20년) 50.2조 → ('21년) 52.8조 → ('22년) 54.6조</li> <li>• '21년 6개 분야 22개 국방재정개혁과제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약 1,466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 달성</li> <li>* △전군 유사/중복 정보체계 통폐합(34억원), △스마트 탄약고 구축(290억원), △예비군 훈련시 전자탄창 활용(167억원),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추진(550억원) 등</li> </ul> </li> <li>■ '핵·WMD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北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F-35A) 전력화, SLBM 탑재 중형잠수함 및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2 초도전력화 완료 등 전방위적 위협 대비를 위한 전력 강화</li> <li>• KF-21 시제기 출고 등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국내연구개발 성과* 가시화</li> <li>* △KF-21 시제기 출고('21.4월),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 성공('21.7월),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의 항공기 분리시험 및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21.9월) 등</li> <li>•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의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신설*, 합동군사우주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국방우주력 발전 추진</li> <li>* 「우주개발진흥법」 개정('21.11.11. 시행)</li> <li>• '22~'26년 국방중기예산 수립 시, 핵·WMD 위협 대응 전력에 약 30.8조원(방위력개선비의 28.9%)을 최우선 편성하여 안정적인 전력화 추진 여건 보장</li> </ul> </li> <li>■ 군 사이버조직 보강, 실전훈련 확대 등으로 사이버 안보태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작전사, 각군 작전센터 등을 보강하고 사이버 전문직위*를 추가 선정('21.5월), 해병 사이버 작전센터를 사령부 직할로 개편('21.1월)하여 작전 지휘관계 일원화</li> <li>* 사이버 전문직위 : ('20년) 약 1,300직위 → ('21년) 약 1,500직위</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이버 정예인력 양성을 위한 <b>전군 사이버 모의훈련 실시</b>(‘21.4월, 10월) 및 실전적 훈련이 가능한 <b>사이버 공방훈련장 구축·운영</b>(‘21.5월)</li> <li><b>락실드21</b>(‘21.4월), <b>사이버넷*</b>(‘21.11월) 등 <b>국제 사이버 훈련에 최초로 참가</b>하여 최신 사이버 공격대응 기술 습득 및 사이버 안보협력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8개(네덜란드, 일본 등) 참가국 중 네덜란드에 이어 2위를 차지</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년에 최초로 국방예산 50조원 돌파, 차질 없는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을 위해 ‘22년 국방예산은 54.6조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 40.3조 → (‘18년) 43.2조 → (‘19년) 46.7조 → (‘20년) 50.2조 → (‘21년) 52.8조 → (‘22년) 54.6조</li> </ul> </li> <li>F-35A 스텔스 전투기 및 글로벌호크 전력화 완료, SLBM 탑재 중형잠수함 초도전력화, KF-21 시제기 출고 등 핵·WMD 위협 대응능력 강화</li> <li>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신설(‘18.1월, 국방부 대북정책관실)</li> <li>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19.4월)하여 사이버 안보의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제시</li> <li>사이버작전사령부를 합동부대로 개편(‘19.2월)하는 등 합참 중심의 사이버 작전 수행체계를 정립하고 작전 지휘관계의 일원화 추진</li> <li>민·관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정보보호 R&amp;D 투자*, 인재양성 등으로 ‘21년 국제정보보호지수(GCI) 조사대상 194개국 중 4위 달성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기부 정보보호 R&amp;D 예산 : (‘17년) 546억 → (‘21년) 747억</li> </ul> </li> </ul> </div> |
| <b>개선·보완<br/>필요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군 협력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정보공유체계(NCTI) 운영 등 일부 분야에서 민관협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초연결시대에 진화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이버보안 전반에 걸친 체계적 협력체계 마련 필요</li> </ul> </li> <li>미사일 등 북한의 계속된 위협*과 군 경계태세**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역내 방어시스템 및 경계태세 강화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21.9.28.), SLBM 발사(‘21.10.19.) 등, ** 동부전선 철책월복(‘21.2.16.)</li> </ul> </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인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 및 전환계획 발전</li> <li>■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연합방위체제 구축 및 추진</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계획 발전, 공동연구 추진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 공동 노력 지속</li> <li>■ 다만, 전작권 조기 전환 목표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적기 시행을 위한 노력 강화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간 전환계획 발전을 통해 전작권 전환의 추동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COTP)' 부록을 발전시켜 6개 부록에 2성급 서명 완료('21.9월)</li> <li>•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능력들의 최신화를 위해 'COTP 능력 공동연구 지침'을 수립('21.3월)하고, 능력 정의 재정립 등 한미 공동연구 지속 추진</li> <li>• 전략·정책적 대미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내 전작권 전환 TF를 설치 ('20.12월)하고, 국방부·합참·연합사가 참여하는 동맹현안 협의체* 운영('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한미군 훈련여건 보장, 성주기지 상시 지상접근권 보장 등 총 10여개의 한미 동맹현안 관리</li> </ul> </li> </ul> </li> <li>■ 한미 연합검증 준비, 핵·미사일 방어능력 확보 등으로 전작권 조기 전환에 필요한 역량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작권 전환조건: ①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br/>②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br/>③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li> <li>•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조건①) 점검·보완을 위한 2단계 완전운용 능력(FOC)* 검증평가의 예행연습(상하반기)을 통해 향후 검증평가에 대비</li> <li>※ 연합검증평가(3단계) : 기본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li> <li>* FOC(Full Operational Capability) : 미래연합사가 필수임무과업 상의 주요 과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능력</li> <li>• 글로벌호크, 탄도탄감시레이더 운용,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품질 인증 사격시험 통과 등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전력 전력화</li> <li>• 한·미간 '전작권 전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 공감*하고, 코로나19로 순연된 완전운용능력평가(FOC)를 '22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21.12월, S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3월) 한미국방장관회담, ('21.9월) 한미통합국방협의체</li> </ul> </li> </ul> </li> </ul>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작권 전환 이후 현재의 연합사와 유사한 체제 지속 유지, 한국군 4성장성의 미래연합군사령관 임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한·미간 합의('18.10월)</li> <li>• 미래연합군사령관의 합참의장 미검직, 별도의 한국군 4성 장성 임명에 한·미간 합의('19.6월)하여,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지휘구조 기본안 확정</li> <li>•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동맹의 포괄적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 (매년 한·미 공동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년부터는 별도의 4성급 군사회의체인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 신설·운영('19.3월~)</li> </ul> </li> <li>•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체제 등을 규정한 <b>전략문서* 공동초안</b> 수정·보완 및 <b>한미 합의</b>('20.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R(Terms of Reference)/SD(Strategic Directive) : 관련약정(연합군사령부와 군사위원회의 성격 규정) / 전략지시(연합군사령부의 임무와 관련내용을 명시)</li> </ul> </li> <li>•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점검·보완을 위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19.8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예행연습('20년, '21년) 실시</li> </ul> |
| <b>개선·보완<br/>필요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로 전작권 전환의 핵심인 2단계(FOC) 연합검증평가가 '22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22년 평가를 위한 준비 철저 필요</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국방개혁 핵심과제 재선정·추진</li> <li>■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 및 군 사법 개혁 등을 통해 국방 체질 개선 추진</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 지원 등 비전통위협에 적극적 대응</li> <li>■ 다만, 수원·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지자체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바, 적극적인 갈등 해소 노력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첨단전력 중심의 군 인력구조 개편으로 병력구조 정예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 상비병력을 감축('21년, △2.5만명)하고, 전투력 유지를 위한 간부·군무원은 확대('21년 간부 1.6천명, 군무원 5.3천명 증원)</li> <li>• 첨단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숙련 간부 보강을 위해, 초임간부('21년 △1.7천명)를 줄이고 중간간부('21년 증3.3천명)를 늘린 <b>간부 정원구조 설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상 장기 복무자 선발이 가능한 중간간부 증원으로, 안정적인 군 인력 운용 가능</li> </ul> </li> <li>• 행정·교육·군수 등 비전투부대에 대한 전문 민간인력(군무원) 확대 및 <b>국직부대 주요직위의 민간인력 전환*</b> 등으로 국방 문민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1년) 국군체육부대장, 국군재정관리단장, 국군복지단장 등 7개 직위</li> </ul> </li> </ul> </li> <li>■ <b>「군사법원법」 개정('21.9월)을 통해 군 사법개혁 과제 달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병의 인권과 재판받을 권리 보장, 군사법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 등 군 사법개혁을 위한 <b>「군사법원법」 개정 완료</b>('22.7.1. 시행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내용) ① 성폭력범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의 민간이관</li> <li>② 평시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 폐지</li> <li>③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이관</li> <li>④ 국방부 장관 소속의 군사법원 설치 등</li> </ul> </li> <li>• 군검찰 수사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각 군 참모총장 직속 검찰단*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군검찰단('21.2.1.부), 공군검찰단('22.1.1.부), 육군검찰단('22.7.1.부)</li> </ul> </li> </ul> </li> <li>■ <b>예비전력의 실전적 훈련 및 적절한 보상으로 병력동원태세 유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 전투상황 느낌의 행동화 훈련이 가능한 <b>과학화 훈련장 설치</b>(수원·평택 등 6개소) 및 <b>예비군 훈련 보상비 현실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 1만원 → ('19년) 3.2만원 → ('21년) 4.7만원 → ('22년) 6.2만원</li> </ul> </li> <li>• 비상근예비군 제도 관련 법률(「예비군법」 및 「병역법」) 개정('21.12.7.)으로 숙련된 예비역 운용 가능</li> </ul> </li> </ul> |

|                              |                                                                                                                                                                                                                                                                                                                                                                                                                                                                                                                                                                                                                                                                                                                                                                                                                                                                                                                                                                                                                                                                                                                                                                                                                                                                                                                                                                                                                                                                             |
|------------------------------|-----------------------------------------------------------------------------------------------------------------------------------------------------------------------------------------------------------------------------------------------------------------------------------------------------------------------------------------------------------------------------------------------------------------------------------------------------------------------------------------------------------------------------------------------------------------------------------------------------------------------------------------------------------------------------------------------------------------------------------------------------------------------------------------------------------------------------------------------------------------------------------------------------------------------------------------------------------------------------------------------------------------------------------------------------------------------------------------------------------------------------------------------------------------------------------------------------------------------------------------------------------------------------------------------------------------------------------------------------------------------------------------------------------------------------------------------------------------------------|
|                              | <p>■ 재난·테러 등 비전통위협 대비역량 강화로 국방의 적극적 역할 정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방신속지원단 운영체계를 제도화*하여 방역·물자·수송·시설지원·복지지원 등 지자체 요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민지원 기반 마련<br/>* 국방 재난대응 공통 매뉴얼('21.1월), 국방재난관리훈령('21.3월) 등 제개정</li> <li>대테러 작전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 지정된 대테러·대화생방 특수임무부대(22개)의 임무수행능력을 평가('21.7월, 11월)하고 첨단장비·물자 보강</li> <li>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본부'를 설치('21.1월)하고, 백신 공급·보관, 접종 시행 등에 군 가용역량을 지원하여 범정부 코로나 대응 총력<br/>* K-방역의 3T[검사(Test)-추적(Trace)-격리치료(Treat)] 및 예방접종의 쉼 과정에서 누적 인원 134만여 명, 장비 6만여 대, 치료병상 1천여 개 및 생활치료센터 285실 등 지원</li> <li>재난 상황을 상시 확인 가능한 관·군 통합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위해 국방부·국토부·지자체(서울시·용인시) 간 CCTV 공유시스템 시범 적용('21.1월)</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방분야 혁신을 위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수립·추진('19.1월)<br/>* △상비병력 감축('22년, 50만명), △군사법제도 개혁, △여군 비중 확대 등</li> <li>청년들의 병역의무 부담 완화를 위한 병 복무기간 단축*('18.10월~) 및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마련('19.11월)<br/>* (육군·해병대) 21→18개월, (해군) 23→20개월, (공군) 24→21개월</li> <li>국방부 주요직위 문민화를 통한 국방 문민화 추진<br/>* 국방부 본부 문민화율('17→'21년) : 국장급 70.6%→82.4%, 과장급 71.4%→76.3%</li> <li>육군동원전력사령부 창설('18.4월) 및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설치('18~'21년, 18개소), 예비군훈련 보상비 증액* 등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br/>* 동원훈련 보상비 증액 : 1만원('17년) → 4.7만원('21년) → 6.2만원('22년)</li> <li>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20.8월), 영창제도 폐지('20.8월), 비군사범죄 민간 법원 이관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21.8월) 등으로 장병 인권보호 강화</li> </ul> </div> |
| <p><b>개선·보완<br/>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원·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지자체 이견 해소*를 위한 조정 노력 필요<br/>* 소음피해, 기피시설로 인식 등의 문제로,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난항</li> <li>민간으로 이관되는 범죄에 대한 민·군 협조체계 구축 등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 필요</li> </ul>                                                                                                                                                                                                                                                                                                                                                                                                                                                                                                                                                                                                                                                                                                                                                                                                                                                                                                                                                                                                                                                                                                                                                                                                                                                        |

##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국방부 · 방사청]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위사업 비리 근절·차단 및 효율적인 국방 획득체계 구축</li> <li>■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국방R&amp;D 역량 확보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 R&amp;D 혁신, 부품 국산화 등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방위산업 육성 정책 수행</li> <li>■ 다만, 방산업체 해킹 사고 등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가 있어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대책 마련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산비리에 대한 시민사회 감시 강화로, 청렴 방위사업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산비리 근절 종합대책('17년) 마련 이후, 방위사업 종사자에 의한 비리 0건 및 국가 부패인식지수 지속 상승* 등 방산 분야 전반에 청렴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인식지수(CPI, 국제투명성기구) : ('18년) 45위 → ('19년) 39위 → ('20년) 33위</li> </ul> </li> <li>• 민관 협력형 부패방지체계인 「청렴 방위사업 민관협의회」 신설·운영 및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성과활동 보고(상하반기)로 투명성 제고</li> </ul> </li> <li>■ 신속획득제도로 국방 무기 획득체계의 신속성·효율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속시범획득사업*( '20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범위를 '구매'에서 '구매+연구개발'로 확장한 신속연구개발사업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이 적용된 민간 제품을 군에서 시범운용 후 소요에 따라 전력화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최초 기획부터 軍 납품까지의 소요기간'을 5년 이상에서 1년 이내로 단축</li> <li>** 방위사업법시행규칙('21.1월), 방위사업관리규정('21.4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21.6월) 등</li> </ul> </li> <li>• '21년 신속시범획득사업 31개 과제를 선정하여 군 시범운용 중이며, '20년 착수사업(6개) 중 2개(수직이착륙드론, 안티든론건)에 대해 군 소요 결정 완료</li> </ul> </li> <li>■ 국방 R&amp;D 역량을 첨단기술에 집중하여, 미래전장 환경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21.4월)으로 창의적 연구개발 및 개방·협업 등을 위한 국방 R&amp;D 혁신 기반 마련 및 성실수행 인정제도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기술개발'에 한정된 제도를 '전체 기술개발'로 확대하여, 도전적 연구개발 지원</li> </ul> </li> <li>• 미래 군사력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8대 Game Changer(양자물리, 합성바이오, 극초음속, 무인자율, 미래통신, 에너지, 인공지능, 우주) 분야에 연구개발 집중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 '18년 69억원 → '19년 200억원 → '20년 580억원 → '21년 1,204억원</li> </ul> </li> <li>• 방사청 내 '첨단기술사업단'을 설치('21.11월)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내 미사일 연구원 등 3개 연구원 및 6개 기술센터를 신설('21.6월)하여 첨단·비닉 중심의 연구소로 재구조화</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과학기술의 군·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한 ‘<b>국방과학기술위원회*</b>’ 신설(‘21.10월)</li> <li>*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 국방과학기술 혁신 방향 등 논의</li> <li>• <b>미래도전기술경진대회</b>(‘21.10월), <b>국방과학기술대전</b>(‘21.12월) 등을 통해 국방 핵심 기술 및 미래도전기술 개발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 관심 제고</li> </ul> <p>■ <b>부품 국산화 및 수출지원으로, 방산기업의 국내외 경쟁력 확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b>」 시행(‘21.4월)으로 국방 중소·벤처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방위산업 진흥 기반 마련</li> <li>*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 고난이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 지체상금 감면 및 연구개발 기간연장 등</li> <li>• 무기체계의 국산화를 위해 <b>한국산 우선구매 제도*</b>(‘21.8월), <b>방위산업 국가 정책사업 지정제**</b>(‘21.6월), <b>국산개발부품 등록제도***</b>(‘21.7월) 등 도입</li> <li>* 지출목표관리제(국내:국외=80:20), 국외 획득비용 할증(50%), 국산부품 비율평가 의무화 등</li> <li>** 국가지정사업 연구시 리스크 감소 지원을 통해 업체의 대규모·고난이도 연구개발 참여 유도</li> <li>*** 이미 개발된 부품을 시스템에 등록·공개하여, 중복개발배제 및 既개발품의 활용성 확대</li> <li>• 경남·창원 ‘<b>방산혁신클러스터</b>’ 사업 추진으로, 1,770만불(212억원)의 계약추진, 157개 품목 수출 시험평가 지원 등 지역 기반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li> <li>•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성장단계별(진입·성장·도약) 맞춤형 지원* 확대 및 <b>방위산업 공제조합**</b> 신설(‘21.7월)</li> <li>* 국방벤처 지원사업,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글로벌 방산기업 육성사업 등</li> <li>** 조합 출범 후, 19건의 공제계약 체결(공제료 약 220억원 규모)</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軍·産 유착 근절을 위한 퇴직공직자와 사적접촉 신고 의무화(‘18.4월), 방산 분야 취업제한 강화(‘20.6월), 방사청 직원 방산주식 보유금지(‘20.12월) 등 방산비리 사전예방 강화</li> <li>• 4차 산업혁명기술 등 첨단기술을 즉각 활용하여 전력화하는 ‘신속획득 시범사업’(‘19.12월) 및 ‘신속연구개발사업’(‘21.3월) 도입·시행</li> <li>• 기술변화의 선도적 반영을 위해 미래도전기술개발제도 도입(‘19.2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20.3월) 등으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li> <li>• 방산수출지원을 위한 방사청 내 전담조직 구축*, 지원사업 확대**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1.4월)</li> <li>* 국제협력관 신설 및 방산수출진흥센터 개소(‘18.11월)</li> <li>** 찾아가는 수출상담 ‘다파고(DAPA-GO)’ 운영(‘18.11월~)을 통한 지원사업 발굴</li> <li>• 무기체계의 국산화를 위해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21.8월), 방위산업 국가 정책사업 지정제(‘21.6월), 국산개발부품 등록제도(‘21.7월) 등 도입</li> </ul> </div> |
| <b>개선·보완<br/>필요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방산업체 해킹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국가 주도의 보안관제·사고대응체계 구축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li> <li>* (‘21.5월) 한국항공우주산업, (‘21.10월) 대우조선해양</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군인 및 의무복무자에 대한 복무 여건 개선과 인권보장 강화</li> <li>■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병역 면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병역 관리시스템 구축</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상 부상치료비 지원사업 시행, 자기개발 지원 확대 등으로 장병의 군 복무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li> <li>■ 다만, 성폭력 등 군 장병의 인권 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 및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생활여건 개선 노력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 봉급 인상, 치료비 지원 등 병역 이행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년 병 봉급을 전년 대비 11.1% 인상(병장기준 '21년 60.9만원 → '22년 67.6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과제 목표인 '17년 최저임금(135여만원)의 50% 수준 달성</li> </ul> </li> <li>• 장병들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고금리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혜택 부여('21.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 대상)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li> <li>(추가 혜택) 은행 기본금리(5% 수준)에 1%p 이자지원금 지원</li> <li>(관련법령 개정) 3:1매칭지원금(원리금의 33%p) 지원을 위한 병역법시행령 개정('21.12월)</li> </ul> </li> <li>• 공무상 부상 병사의 진료선택권 보장 및 부담경감을 위해 민간병원 진료비 일부(본인부담금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진료비 지원사업*'('21.8월~)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강보험 70%, 본인부담 30% → (개선) 건강보험 70%, 국가지원 24%, 개인부담 6%</li> </ul> </li> <li>• 장병 전화요금(4G/5G) 20% 추가 할인('21.10월) 및 철도승차권 원스톱 서비스 구축</li> </ul> </li> <li>■ 인권상담 확대,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 등으로 안전한 근무여건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군 인권센터* 구축 완료, 인권센터별 카카오톡 상담 채널 운영('21.2월) 및 인권상담관 확충('20년 212명 → '21년 258명)으로 인권 상담·구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군인권존중센터('20.4월), 해군인권센터('20.1월), 공군인권나래센터('21.1월)</li> </ul> </li> <li>• '민관군 합동위원회' 운영('21.6~10월)을 통해 발굴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15개 권고안 이행을 위해 법령 개정, 예산 반영 등의 후속조치*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 지침('21.9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공동활용을 위한 법무부 업무협약('21.10월), △성고충 상담인력 증원(군단급, 50명 → 사단급 제대, 150명) 등</li> </ul> </li> <li>• 여군 비중('20년 7.5% → '21년 8.5%) 및 중·대령 등 상위계급 선발인원('20년 79명 → '21년 87명) 확대와 함께, 임신·육아여건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돌봄휴가 대상·사유·일수 확대('21.4월), 장애자녀에 대한 탄력근무제 적용 확대('21.6월)</li> </ul> </li> </ul> </li> </ul> |

|                              |                                                                                                                                                                                                                                                                                                                                                                                                                                                                                                                                                                                                                                                                                                                                                                                                                                                                                                                                                                                                                                                                                                                                                                                                                                                                                                                                                                                                                                                                                                                                                                                                                                                                                                                                                                                                                                                                                                                                                                                                                                                                                                                                                                                                                                                                                |
|------------------------------|--------------------------------------------------------------------------------------------------------------------------------------------------------------------------------------------------------------------------------------------------------------------------------------------------------------------------------------------------------------------------------------------------------------------------------------------------------------------------------------------------------------------------------------------------------------------------------------------------------------------------------------------------------------------------------------------------------------------------------------------------------------------------------------------------------------------------------------------------------------------------------------------------------------------------------------------------------------------------------------------------------------------------------------------------------------------------------------------------------------------------------------------------------------------------------------------------------------------------------------------------------------------------------------------------------------------------------------------------------------------------------------------------------------------------------------------------------------------------------------------------------------------------------------------------------------------------------------------------------------------------------------------------------------------------------------------------------------------------------------------------------------------------------------------------------------------------------------------------------------------------------------------------------------------------------------------------------------------------------------------------------------------------------------------------------------------------------------------------------------------------------------------------------------------------------------------------------------------------------------------------------------------------------|
|                              | <p>■ <b>자기개발 지원·급식혁신·주거지원 등으로 군 장병 사기 진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개발비용 지원사업 확대*, 군복무 경험의 학점인정 참여대학 발굴('20년 35개 → '21년 63개), 학력 수준별 맞춤형 지원**으로 장병의 자기개발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20년 80억 → '21년 235억, (참여인원) '20년 11.4만명 → '21년 26.5만명</li> <li>** (고졸 미만) 검정고시, (고졸) 독학사 취득, (일반) 지게차운전·한식조리 등 자격증 취득기회 지원</li> </ul> </li> <li>•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21.10월)에 따라 장병 선호가 우선 반영되는 '先 식단 편성, 後 식재료 조달' 체계로 전면 개편하고 수의계약 단계적 폐지(~'24년)</li> <li>• 초급간부 복무여건 보장을 위해 간부숙소를 '1인 1실'로 개선(4,800여 실), '19년부터 동결된 직업군인 전·월세 지원 기준액을 '22년부터 11% 인상('19년 1,64억원 → '22년 1,82억원)</li> </ul> <p>■ <b>사회적 관심계층 병역이행 관리를 강화하여 공정 병역문화 확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예인, 체육선수 등 사회관심계층의 '병적 별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병역법」('21.4월) 및 신체검사 규칙('21.1월) 등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대상 확대, 고소득자 선별 정보인수, 연예인 신상통보 의무화, 신장·체중 4급 처분 기준 상향 등</li> </ul> </li> <li>• 병역이행 실태 모니터링을 통한 병역면탈 사례 적발 및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의 체중증량, 손목수술로 병역감면을 받은 축구선수 등 8명 형사처벌, △질병사유로 입영 연기 후 사회통념상 어긋나는 사회활동을 영위한 대상자 58명 입영연기 제한</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 봉급을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18.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장기준 ('17년) 21만6,000원 → ('18년) 40만5,700원 → ('20년) 54만900원 → ('22년) 67만6,100원</li> <li>* 납입한도 월 40만원, 5% 이상 금리, 비과세 혜택('21.9월 기준 약 31만명 가입)</li> </ul> </li> <li>• 복무 중 질병·부상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전·공상 병사가 완치 시까지 전역 보류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19.12월) 및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21.8월)</li> <li>• 여군 비중 확대* 및 주요직위 여군 보직**을 확대하고 양성평등 복무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군 비중 확대 : ('17년) 5.9% → ('19년) 6.8% → ('20년) 7.5% → ('21년) 8.1%</li> <li>** 항공작전사령관(육군), 상비사단 보병대대장(육군), 비행대대장(공군) 최초 여군배치 등</li> <li>※ 군 어린이집(개소) : ('17년) 125 → ('18년) 133 → ('19년) 137 → ('20년) 139 → ('21년) 147</li> </ul> </li> <li>• 군 사망사고를 외부기관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 설치('18.9월)</li> <li>• 병 개인 휴대폰 사용('19.4월~, '20.7월 전면 시행), 평일 일과 후 외출 활성화('19.2월~, 외박지역 제한 폐지('19.2월~) 등 자율·책임의 병영문화 조성</li> </ul> </div> |
| <p><b>개선·보완<br/>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급식, 성폭력 등 군 장병의 인권 침해사례가 지속 제기되고 있어, '21년 수립된 대책들의 이행상황 및 제도성과 지속 점검 필요</li> <li>•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및 집행관리 철저 필요</li> </ul>                                                                                                                                                                                                                                                                                                                                                                                                                                                                                                                                                                                                                                                                                                                                                                                                                                                                                                                                                                                                                                                                                                                                                                                                                                                                                                                                                                                                                                                                                                                                                                                                                                                                                                                                                                                                                                                                                                                                                                                                                                                                                   |

|               |                                                                                                                                                                                                                                                                                                                                                                                                                                                                                                                                                                                                                                                                                                                                                                                                                                                                                                                                                                                                                                                                                                                                                                                                                                                                                                                                                                                                                                                                                                               |
|---------------|---------------------------------------------------------------------------------------------------------------------------------------------------------------------------------------------------------------------------------------------------------------------------------------------------------------------------------------------------------------------------------------------------------------------------------------------------------------------------------------------------------------------------------------------------------------------------------------------------------------------------------------------------------------------------------------------------------------------------------------------------------------------------------------------------------------------------------------------------------------------------------------------------------------------------------------------------------------------------------------------------------------------------------------------------------------------------------------------------------------------------------------------------------------------------------------------------------------------------------------------------------------------------------------------------------------------------------------------------------------------------------------------------------------------------------------------------------------------------------------------------------------|
| 과제 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간 경험 재개 및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남북한 하나의 시장협력 등을 지향함으로써 경제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남북 평화공동체를 구현</li> </ul>                                                                                                                                                                                                                                                                                                                                                                                                                                                                                                                                                                                                                                                                                                                                                                                                                                                                                                                                                                                                                                                                                                                                                                                                                                                                                                                                                                              |
| 총 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관계 경색 등 과제추진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평화뉴딜’ 전략 수립 등 남북 경제협력·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li> <li>■ 남북 관계개선 시 후속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점진·준비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뉴딜’을 신경제구상·평화경제의 새로운 실행전략으로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장기화, 세계기후변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 및 평화경제의 실행 과제로 ‘평화뉴딜’을 제안(2021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21.8월)</li> <li>* ① 그린뉴딜 ② 디지털뉴딜 ③ 휴먼뉴딜 등 ‘한국판 뉴딜’ 3대 분야에서 남북협력을 평화 뉴딜 과제로 발전시켜 단계적 추진</li> <li>• 제3차 한반도 평화경제 국제포럼('21.6월),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21.8~9월), 평화경제 토크콘서트('21.10월) 등을 통해 평화뉴딜 공감대 확산</li> </ul> </li> <li>■ 동해북부선 복원 등 남북 경험 재개를 위한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7년 폐선 후 53년간 단절되어 있던 동해북부선 철도 남한구간(강릉 ~ 제진) 복원*을 추진하여 남북 철도연결 재개에 대비</li> <li>* (공사구간) 강릉역~제진역 111.7km, (공사기간) '21~'27년, (진행상황) '21.11월말 착공, '22.1월 착공식</li> <li>• 남북실무접촉시 신속한 대북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기술과제서 우리측(안)」을 마련(도로 '21.1월, 철도 '21.8월)</li> </ul> </li> <li>■ DMZ의 이용 확대로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체감·공감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의길 인프라 확충 및 통일걷기 행사,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등 DMZ를 평화·통일 체험 공간으로 조성</li> <li>* 통일걷기 행사 총8회 400여명 참가, 판문점 및 평양공동선언 3주년 개관전시회(도라산역 등 5곳, '21.9~11월), 염하수로 민간선박 자유항행('21.10월) 등</li> <li>• 백마고지 일대에서 지뢰 제거 및 유해 발굴을 추진하여 우리측 지역에서 총 37점의 유해를 발굴('21.9~12월)</li> <li>• 남북경계 지역의 지리·지형, 역사·문화, 생태·환경, 통일·평화 정보 1만 2,000여건을 종합하여 제공하는 DMZ 평화지도 제작 및 공개('21.8월)</li> </ul> </li> <li>■ 보건·방역·산림 협력 등을 통한 한반도 생명·평화공동체 구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의료 및 영양 관련 대북협력 물자반출 승인(11건), 남측 DMZ·민통선 지역 방역(조사·소독, 차단울타리 설치 등)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li> </ul> </li> </ul> |

• 산림청과 협력하여 '2050 산림분야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

\* 북 산림면적 939만ha 중 신규조림/재조림 5만ha, 산림복원 6만ha,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20만ha 협력 추진

**<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

• 한반도 신경제구상 발전방향 논의 및 국제사회 공감대 확보 노력

\* 한반도 신경제구상 TF를 설치('17.11월)하여 18개 정부협업체 및 16개 국책연구기관 협업체를 중심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 종합계획' 추진 방향 논의 지속

\*\* '18.4.27 남북정상회담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북한에 전달, 한중회담('17.12월)·한러회담('18.6월) 등 정상외교시 신경제구상을 설명하여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노력

(한반도 신경제구상)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우리경제의 저성장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남북간 호혜적 협력을 통해 경제통일의 기반을 닦자는 구상으로, 우리 경제의 무대를 동북아 시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하는 그랜드플랜

△한동해 권역에는 에너지·자원벨트를,  
△한서해 권역에는 물류·산업벨트를,  
△남북 접경지역에는 평화벨트를 구축하고,  
△남북간 경제협력을 위한 하나의 시장 구현



• 철도·도로 연결, 산림협력 등 남북 경협사업 추진

\* 4.27 판문점 선언에서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 현지 공동조사('18.8~12월) 및 착공식('18.12월), 남북 공동조사 결과 상호교환('19.2월), 53년간 단절된 동해북부선 복원 기본계획 수립('20.12월) 및 착공('22.1월)

\*\*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18.7월, 10월)을 통해 양묘장 현대화 및 산림병해충 공동방제에 합의하고, 양묘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 확보('19.7월), 고성·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 조성·운영, 산림협력용 종자·묘목 등 확보('20년)

• 국가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남북 경협 피해기업 지원

\* 금강산관광 중단 및 5.24조치 피해기업 93개사에 투자·유동자산 1,239억원, 425개사에 긴급운영자금 92억원 지급('18 ~'19년), 개성공단 입주기업 165개사에 피해지원금 648억원 추가 지급('18년)

**개선·보완  
필요사항**

• '21년도는 코로나19·남북관계 소강으로 경제협력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나 남북관계 개선 시 후속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준비 필요

\* 작은교역, 개별관광, 북측지역 철도·도로 협력,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등 북측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는 부족

• 남북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의 제정 적극 지원 필요 (외통위 법안소위 계류)

\* 제정법률안 3건이 의원 발의되었으나 남북관계 경색 및 국회 내 이견 등으로 제정에 차질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 간 현안 해결, 남북대화 정례화</li> <li>■ 남북기본협정 체결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제도화</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대화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등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li> <li>■ 일관된 대북메시지 발신 등을 통해 남북대화 재개 여건 조성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으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필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하여 단절된 지 약 1년 1개월 만에 복원하고('21.7월) 한미연합훈련 계기의 무응답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여 재복원('21.10월)</li> <li>* 北, 통신연락 중단('20.6.9) → 北, 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6.16) → 통신연락선 복원, 1일2회 정기통화('21.7.27) → 北, 통신연락선 무응답(8.10) → 통신연락선 재복원(10.4)</li> </ul> </li> <li>■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영상회담 시스템 구축 등 남북회담 재개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회의실 구축 완료('21.4월) 및 비접촉 회담 프로토콜 마련, 북한에 남북 영상회의 체계 구축을 제의하는 통지문 발송('21.7월)</li> <li>• 상황별(완전비접촉/접촉최소화/방역안심존)로 방역조치 및 회담을 진행하는 「안심대면회담」 추진방안 마련('21.4월)</li> </ul> </li> <li>■ 남북대화 50주년 계기 다양한 기념사업 추진으로 정책소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걸어온 길, 열어갈 미래」 주제로 기념식·학술포럼('21.9월), 사료·사진전('21.8~9월), 남북대화 78호 영문판 발간('21.9월), 남북대화 화보집 발간('21.10월 국문판, 12월 영문판), 대학생 모의남북회담 경연대회('21.11월) 등</li> </ul> </li> <li>■ 남북관계 제도화 관련 공감대 확산으로 대국민 지지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기본협정 추진 자문단(6명)을 구성하고 미래비전, 법적 쟁점, 대북 협상전략을 지속 검토 및 보완</li> <li>* 남북기본협정 추진 자문단 회의 서면 3회('21.1, 3, 11월), 대면 1회('21.12월) 개최</li> <li>• 남북기본협정 국회 회담 추진 및 제도화 관련 대국회 협조</li> <li>* 국회의장 주관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 운영('20.11월~'22.1월) 관련, 남북관계 제도화 추진 등을 위한 국회와의 소통 강화 노력</li> <li>•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필요성, 종전선언 제안 공감도 등 남북관계 제도화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21.6, 11월)</li> <li>*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 필요 72.8%, 불필요 24.4% (종전선언 제안 공감도) 공감 58.2%, 비공감 40.6%</li> </ul> </li> </ul>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를 계기로 남북대화 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식 공동입장,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참가, 북한 응원단 파견, 예술단·태권도 공연 등</li> <li>** 올림픽을 계기로 특사단을 교환하여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li> </ul> </li> <li>•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관계 개선 및 군사적 긴장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4.27 남북정상회담시 '판문점선언' 채택,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전쟁 위험 해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li> <li>** '18.5.26 남북정상회담으로 사상 최초 북미정상회담 견인, '18.9월 평양정상회담으로 '평양공동선언 및 9.19 군사분야 합의서' 채택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키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li> </ul> </li> <li>• 사상 최초의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성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전 66년만에 최초로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의 만남('19.6.30.)으로 사실상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전기 마련</li> </ul> </li> <li>• 남북간 상시 협의체계 마련 및 분야별 남북회담 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후 634일간 사실상 24시간 365일 연락협의체계가 가동('18.9.14~'20.6.8)</li> <li>** 정치·군사·경제·인도·사회문화 등 분야별 회담(36회)을 개최하여, 판문점선언 등 4개의 합의서 체결 및 남북고위급회담 등 19개의 공동보도문 합의·발표</li> </ul> </li> </ul> |
| <b>개선·보완<br/>필요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연락채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일관된 대북메시지 발신 등을 통해 남북대화 재개 여건 조성에 주력할 필요</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주민의 자유권·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하고,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추진</li> <li>■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진하고 탈북민 자립·자활능력을 제고하여 사회통합 강화</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지자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 북한주민 인권개선, 이산가족 교류기반 확충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지속</li> <li>■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 선제적 발굴 및 맞춤형 지원 강화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협력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지자체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 재개 및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개선) △「대북 영양·보건 협력 정책사업」추진(100억원) △민간단체 기금 지원 확대 (50%→70%, 연1회 → 3회) △지자체 기금 지원 명시(기금 256억원 신규 편성) △모든 지자체 (243개) 대북지원사업자 일괄 지정 △「인도협력분과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출범개최(총2회)</li> <li>** △반출 승인 11건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 30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4건 등</li> </ul> </li> <li>•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출범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협력의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 보건의료협력에 관심 있는 △정부 △민간단체·공공기관 △지자체 △국제기구 △국제 NGOs △학계·전문가 등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융합형(ON/OFF) 소통의 장('21.11월 출범)</li> <li>* 플랫폼 주체 대상 대면·화상 설명회 개최 6회, 분야별 전문가 회의 6회 등 대내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공동선언문」 발표</li> </ul> </li> <li>• 남북간 보건의료협력 확대 및 국제사회 관심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공동 인도주의 협력 사업 협의('21.5월, 한미 정상 공동성명 등을 계기로 공감대 지속 확인) △WFP·WHO·IFRC 등 국제기구 등과 긴밀한 소통·협력 강화('21.10~11월)</li> </ul> </li> </ul> </li> <li>■ 국제적 협업 및 정책소통 강화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 주요국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에 적극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인권이사회·총회 북한인권결의 참여('21.3, 12월), 북한인권 유사입장국(미국·EU·일본 등)과 협력방안 논의('21.11월), UN 북한인권실태조사 지원('21.5, 6, 10월)</li> </ul> </li> <li>• 북한인권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및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인권-인도·개발협력 단체간 상호대화('21.3월), 전문가 간담회('21.4월), 북한인권단체 역량강화 연수회('21.6, 11월), 북한인권증진 국제세미나('21.10월), 찾아가는 북한인권 단체와의 소통 12회, 정책홍보영상 아리랑TV 방영 250회, 홍보책자 배포 약4,000부, 전문가-대학생 토크콘서트 9회</li> </ul> </li> </ul> </li> <li>■ 이산가족 교류기반 확충 및 위로·지원사업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산가족 고령화 및 교류 재개에 대비하여 국내 화상상봉장 증설 7개소, 영상편지 제작 1,004편 및 유전자 검사 1,020명 등 추진</li> <li>• 이산가족 선호를 반영한 위로·지원사업 확대('20년 8건→'21년 1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망향경모제」체험영상 배포 4.8만명, 고령·독거 이산가족 위로물품 지원 2,000여명, 북한 고향사진 수집 200여점, 온·오프라인 고향사진전 방문·접속 3.3만명, 고향사진 카드 전달 2.2만명 등</li> </ul> </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 북한인권결의안에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 반영 ('21.3월) 및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산가족 상봉 촉진 지원' 등 반영('21.5월)</li> <li>■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물 우선구매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지원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21.1, 4월)</li> <li>• 사회적 통합지향형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 6대 분야, 24개 정책과제 수립('21.5월)</li> <li>• 취약계층 대상 지원 내실화* 및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로 북한이탈주민 주요 경제활동지표는 '20년 대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하반기 취약계층 조사 실시, 1,693명 대상 의료비·긴급생계비 등 1,935건 지원·연계, △노인, 한부모가정 등 가산금 증액 : 고령 720→800만원, 한부모가정아동보호 360→400만원</li> <li>** 경제활동참가율 ('20)60.1→('21)61.3%, 고용률 ('20)54.4→('21)56.7%, 실업률 ('20)9.4→('21)7.5%</li> </ul> </li> <li>•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및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전담교육사 배치 22명, 탈북학생 학업중단을 감소 ('19)3.0%→('20)2.9%→('21)1.2%</li> <li>**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 증액(400→450만원), 특성화 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에 남한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입학 등</li> </ul> </li> </ul> </li> </ul> <div data-bbox="344 954 1417 1944"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여 만의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 이후 처음 이산가족 상봉행사('18.8월, 금강산)를 개최하여 남북 170가족 833명 상봉, 개별 상봉시간 확대(2→3시간) 및 객실 내 가족식사 등 새로운 상봉문화 도입</li> <li>** '18.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 및 화상상봉·영상편지 교환 등에 합의하고 화상상봉·영상편지 교환 관련 대북제재 면제 확보('19.3월), 국내 13개 지역의 화상상봉장 점검 및 개보수 완료('19.3~4월)</li> </ul> </li> <li>•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취약계층 영양지원사업·유니세프의 모자보건사업 1900만 달러 공여('19~'20년), 세계보건기구(WHO)의 북한 모자보건 의료지원사업에 500만 달러 공여('19년)</li> </ul> </li> <li>• 북한주민 인권개선 기반 마련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17~'19년), 2차('20~'22년)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추진('17, '20년), 북한 이탈주민 대상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정책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li> <li>** 유엔 북한인권결의 참여 및 북한의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 수검시에도 적극적으로 권고에 참여, 북한인권 민간단체 지원 및 민간단체·전문가 네트워크 확대</li> </ul> </li> <li>• 취업·정착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연수·직업훈련, 경영컨설팅·판로지원 등 취·창업 지원,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주거지원금 인상(1,300→1,600만원, '18년), 정착기본금 인상(700→800만원, '19년)</li> <li>** 탈북민 생활지표 지속 개선 : 월평균소득 ('17)179→('21)228만원, 정착만족도 개선 ('17)73.6→('21)76.5%</li> </ul> </li> </ul> </div> |
| <b>개선·보완<br/>필요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탈북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지속 확충하고 세심한 지원을 추진</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도모</li> <li>■ 남북 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통한 민간지자체의 자율성 확대</li> <li>■ 남북교류협력법 정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교류협력의 안정적 기반 확충</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의 진행을 통해 추진동력을 유지하고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한 내부 준비도 지속</li> <li>■ 스포츠 교류, 국제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교류 활성화 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문화 교류사업 추진으로 민족동질성 회복 노력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 최초 통합 국어대사전의 기초가 되는 '겨레말큰사전 가제본' 제작('21.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년부터 남북 공동 추진한 합의어휘 12.5만개 및 미합의어휘 18.2만개 수록</li> </ul> </li> <li>• 그동안의 발굴사업 성과에 대한 온라인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 디지털 기록관' 운영(상시) 및 오프라인 '열 두 해의 발굴 순회전' 개최(4회)</li> <li>• 태봉국 철원성 공동발굴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지자체 협의 지속(3회)</li> </ul> </li> <li>■ 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교류재개 노력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개최(5회)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18건) 및 교류협력분과 정책자문회의 개최(4회)</li> <li>• 지자체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대상으로 북한과 협의필요 서류의 추후 보완 조건으로 합의서 체결 이전이라도 승인하는 사전승인제 실시*('21.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개 지자체 24개 협력사업에 대해 사전승인('21.12월)</li> </ul> </li> <li>• 통일부-지자체 공식 협의체로서 「지자체 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개최('21.4월) 및 실무협의회(4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통일부 차관, (위원) 17개 광역·시·도 실·국장, (기능) 정책 추진방향 공유 및 상시 소통 및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 조율</li> </ul> </li> <li>• 민간단체의 내부적인 준비와 접근이 가능하도록 대북접촉 적극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주민 접촉신고 수리 152건(사회문화 67건, 경제협력 49건, 개발협력 9건, 인도협력 27건)</li> </ul> </li> </ul> </li> <li>■ 제도개선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의 안전성·자율성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교류협력법」 정부개정안* 국회 제출('21.1월) 및 상임위 상정('21.2월), 국회 대상 설명**('21.4~5월) 및 후속조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북승인 거부사유 명확화, 남북 협력사업 중단절차 및 중단시 경영정상화 지원근거 마련, 우수 교역업체 인증제도 신설, 남북협력지구 특례 마련 등</li> <li>** 여·야 의원 보좌진 대상 「남북교류협력법」 정부개정안 취지 및 주요 개정사항 등 방문 설명('21.4월 2회, '21.5월 1회)</li> </ul> </li> <li>•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 시행(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 안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li> </ul> </li> </ul> </li> </ul> |

|               |                                                                                                                                                                                                                                                                                                                                                                                                                                                                                                                                                                                                                                                                                                                                                                                                                                                                                                                                                                                                                                                                                                                                                                                                                                                                                                                                                                                                                                                                                                                                  |
|---------------|----------------------------------------------------------------------------------------------------------------------------------------------------------------------------------------------------------------------------------------------------------------------------------------------------------------------------------------------------------------------------------------------------------------------------------------------------------------------------------------------------------------------------------------------------------------------------------------------------------------------------------------------------------------------------------------------------------------------------------------------------------------------------------------------------------------------------------------------------------------------------------------------------------------------------------------------------------------------------------------------------------------------------------------------------------------------------------------------------------------------------------------------------------------------------------------------------------------------------------------------------------------------------------------------------------------------------------------------------------------------------------------------------------------------------------------------------------------------------------------------------------------------------------|
|               | <p>■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 노력으로 남북간 합의 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유치제안서」 작성, 서울시 IOC에 제출('21.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 실현이라는 IOC의 비전과 대회 개최가 가져올 다양한 긍정적 파급 효과를 설명함으로써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 전달</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등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전환계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창동계올림픽 북한대표단 총 470명 참가, 개·폐회식 공동입장 및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출전 등</li> <li>** 2018 아시아경기대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세계유도선수권대회 등 단일팀 구성·출전, 2019 세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 합동훈련 및 경기참가 등</li> </ul> </li> <li>• 예술·문화·학술 등 다방면에서 남북 교류협력 재개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서울·강릉 공연('18.2월), 남한 예술단 평양 공연 '봄이 온다'('18.4월), 개성만월대 공동발굴 재개('18.10~12월, 남북 조사단 70여명 참여)</li> <li>** '19 아태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19.7월, 필리핀), 코리아학 국제학술대회('19.8월, 체코), 세계종교인평화회의('19.8월, 독일) 등 행사에서 남북간 교류</li> </ul> </li> <li>• 지자체·민간의 자율적인 남북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교류협력 정책·실무협의회, 민관 협업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회의·토론회 등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수시 운영</li> <li>** 통일부-시도지사협의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 체결('19.7월), 지자체를 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하고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교류협력 추진 지원</li> </ul> </li> <li>•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 추진 노력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공동 유치 의향서 IOC에 제출('19.2월), 공동유치 추진계획안 국무회의 의결('20.1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20.1월) 등 유치 노력을 지속</li> </ul> </li> </ul> </div> |
| 개선·보완<br>필요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포츠 교류, 국제 행사 참여 및 실무협의 제안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 활성화 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일·대북정책 추진기반 마련</li> <li>■ 소통·참여, 교육 등 유기적 연계로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 대비 역량 강화</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국민협약」 최종안 채택 및 권역별 통일+센터 설치 추진 등 통일 대비 역량 강화 노력</li> <li>■ 통일국민협약안의 국회논의 지원 및 국민 공감대 확산 노력 강화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및 공감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에는 사회적 대화를 총 4회('21.6.5, 12, 13, 26) 개최하여 사회적 합의를 마무리하고 「통일국민협약안」과 「권고문」을 최종 채택('21.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국민협약안」은 전문, &lt;제1장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gt;, &lt;제2장 한반도 미래상 실현의 과정과 방법&gt;으로 구성되었고, 「권고문」은 정부·지자체(13개), 국회(3개), 비정부 기구(3개), 국민(3개) 대상의 권고사항을 총 22개 항목으로 정리</li> </ul> </li> <li>• 채택된 통일국민협약 홍보 및 대국민 공감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국민협약안 및 사회적 대화 관련 주제로 KBS 특별다큐 방영('21.9월), 홍보 브로셔 제작 및 배포, 카드뉴스 및 언론 기고, 청년포럼('21.10월) 등 추진</li> <li>** 협약안 국회의장 보고 및 개별 국회의원실 설명('21.9월), 한반도국제평화포럼 참여 및 발표('21.8월) 통일비전시민회의, 참여연대, 종교계 등 의견수렴('21.9~10월)</li> </ul> </li> </ul> </li> <li>■ 통일+센터 운영 및 추가 설치를 통한 지역통일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통일+센터는 평화통일 중심기관으로 지역 내 다양한 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평화통일 종합서비스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통·참여) 청소년 통일미래 체험교육 등 24회, 1,263명 참여, (행사·공모) 유튜브 생중계 마음열기 공연(600명 참여) 등 행사 6종 개최, (탈북민 소통·협력) 탈북민 취업지원교육, 한마음 체육대회 등 행사 3종, 4회 개최</li> </ul> </li> <li>• 권역별 통일+센터 로드맵에 따라 '21년 2개소(호남·강원) 설치 착수 및 '22년 2개소(충청·경기) 신규 설치예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남·강원센터 '23년 개관 예정 및 충청·경기센터 '24년 개관 계획</li> </ul> </li> </ul> </li> <li>■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다양화로 통일교육 효과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교육주간을 온·오프라인 연계방식으로 개최하고 직접참여 프로그램 확대, 청년세대 참여 유도 및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교육주간 전체 직접 참여 약 100만명, 콘텐츠 조회수 511만회 달성</li> </ul> </li> <li>• 수요자와 최신 트렌드를 고려한 다양한 소재·형식·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문학 등 대중적 소재, 형식(캐릭터, 굿즈 등), 채널(TV, 유튜브, 인스타 등) 다변화, 전문 출판사 협업('손안의 통일', 통일그림동화 등 21종)</li> </ul> </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참가 대상, 운영 방식 다양화* 등으로 정책수요자 적극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한국학교(비대면), 대안학교·농촌지역 학교(대면), 강북구 주민(가족캠프), 학교단체(라이브방송), 청소년(대면·비대면), 대학생(대면·비대면)</li> </ul> </li> <li>■ 국내외 차세대 통일전문가 양성으로 통일준비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GO활동가, 직장인, 대학(원)생 대상 차세대 통일전문가 장기과정* 개설, 공무원 대상 통일미래기획과정 운영(2회, 3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 특강형식(8강) 운영, 교육생 37명 → ('21년) 1년 3학기(36강) 운영, 교육생 50명</li> </ul> </li> <li>• 해외 신진 북한 연구자 14명 발굴·육성, 평화공공외교협의회·협력단 지원 확대* 및 한반도국제평화포럼 기관 30개, 연사 300명 참여('21.8~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공공외교협의회」 참여단체 ('20년) 8개 → ('21년) 22개, 「평화공공외교협력단」 참여인원 ('20년) 46명 → ('21년) 80명</li> </ul> </li> </ul> </li> </ul>                                                                                                                                                                                                                                                                                                                                                                                                                                                               |
|               |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비전시민회의 출범 및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국민협약 추진 민간기구인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를 공식 출범('19.4월)하여, 통일정책에 대한 민간차원의 의견수렴 네트워크 구축</li> <li>*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추진('18~'21년, 60회 6,000여명 참여), 「통일국민협약안」, 「권고문」을 최종 채택('21.6월)</li> </ul> </li> <li>• 지역사회 통일 논의 확산의 거점으로 권역별 통일+센터 설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센터·통일교육센터 등 유관기관을 통합하여 지자체·민간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자문, 탈북민 정착지원, 통일교육 등 종합서비스 제공('18.9월, 인천 시범센터 개소)</li> <li>* 통일미래 체험교육, 청소년 평화통일 교육, 유관기관 MOU,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등 차별화된 사업 발굴로 프로그램 참여자 수 증가('19~'21년, 11,860명)</li> <li>* 인천통일+센터 성과분석을 토대로 '21년부터 7개 권역별 추가 설치 로드맵 구상('20.5월) 및 '21년 호남·강원 센터 설치 착수</li> </ul> </li> <li>• 평화통일차세대 전문가 양성 등 국내외 통일공감대 확산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학 전공자 등 대상 '차세대 통일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미·중·일·러 등 주요국 대상 고위·실무급 대화 및 한반도 전문가 대상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등 개최</li> <li>* 통일교육지원법 개정('18.9월)으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대상 통일교육 실시 의무화, 통일교육주간 운영 및 대학의 통일교육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등 마련</li> <li>* 통일교육센터 운영체계를 권역단위로 개편(기존 17개 센터→서울·경인·영남·호남·충청·강원·제주 7개 권역), 지역 통일교육 허브 역할 강화('20.4월)</li> </ul> </li> </ul> |
| 개선·보완<br>필요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국민협약안에 대한 국회 논의 지원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 노력 강화 필요</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전한 북핵폐기를 목표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다각적 노력 집중</li> <li>■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주요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각국의 긍정적 호응을 이끌어 내는 한편, 종전선언 제안을 통해 모멘텀 재점화 노력 지속</li> <li>■ 다만,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노력 지속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완전한 평화의 출발점으로서의 종전선언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21.9월)에서 종전선언 재차 제안 → 북측 긍정적 호응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김여정 부부장 담화('21.9월), 종전선언 긍정적 호응 ▲ 김정은 총비서 최고 인민회의 시정연설('21.9월), 종전선언 직접 언급하며 관심 표명</li> </ul> </li> <li>• 이후 전방위적 외교활동을 집중 전개하여 종전선언의 유효성에 대한 관련국 및 국제사회 지지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9-12월간 장차관, 북핵수석대표 등 각급에서 마중·알려 등 주요국과의 협의 약 20여회 개최</li> <li>** 미 연방하원 브래드 셔먼 의원(민주당) 등 33인, 한반도평화법 공동발의('21.12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내용) ▲ 종전선언 ▲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 북미 이산가족 상봉 등 추진</li> </ul> </li> </ul> </li> </ul> </li> <li>■ 미국 신 행정부와 빈틈없는 공조를 통해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 및 대북 대화재개 모멘텀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조기 한미 정상회담 개최('21.5월)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美 지지 재확인*, 이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목표 재확인 ▲ 기존 남북북미합의를 기반으로 한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 확인 ▲ 남북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미측 지지 확보</li> </ul> </li> <li>• 그 결과, 미국의 북측에 대한 '언제, 어디서든 전제조건 없는 대화 용의', '적대의사 불보유' 입장 수차례 공식 표명* 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6-12월 간 성김 북핵수석대표, 블링컨 국무장관 등 17차례 표명</li> </ul> </li> </ul> </li> <li>■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주요국 및 국제사회 지지 지속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중·러 등 여타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북측에 대화복귀를 설득하는 등 각국의 건설적 협력 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對일·중·러 협의(정상·외교장관·북핵수석대표 회담·통화): 전년대비 58% 증가</li> <li>**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해나갈 것" ('21.9월, 한중 외교장관회담)</li> </ul> </li> </ul> </li> </ul> |

- 양자 및 G7·ARF·EAS·ASEAN+3 등 주요 양·다자 고위급 회의 결과 문서\*에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 관련 우리 입장 적극 반영

\* (양자) ▲한·미(‘21.5월) ▲한·덴마크(‘21.5월) ▲한·네덜란드(‘21.7월) ▲한·카자흐스탄(‘21.8월) 정상회담 등  
(다자) ▲G7 외교·개발장관회의(‘21.5월)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21.8월) ▲한·아세안+3 외교장관회의(‘21.8월) ▲EAS 외교장관회의(‘21.8월) ▲ARF 외교장관회의(‘21.8월) 등

#### ■ 연락체계 복원 및 인도적 지원기반 마련을 통해 남북간 신뢰구축 추진

- 단절되었던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고(‘21.10월), ‘언제·어디서든, 무슨 의제로든’ 회담이 가능한 비대면 영상회담 시스템 구축
- 전국 지자체를 ‘대북지원 사업자’로 일괄지정해 지자체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21.9월)

#### <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

-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3회) 개최\* 및 북미정상회담과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19.6.30) 성사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추진

\* 남북/북미/남북미 정상 주요 합의내용

| 구분                                     |                    | 주요 합의내용 등                                                                                        |
|----------------------------------------|--------------------|--------------------------------------------------------------------------------------------------|
| 남북<br>정상회담                             | 판문점선언<br>(‘18.4월)  | 남북관계의 전면적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전쟁위험 해소,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 합의                                         |
|                                        | 2차 회담<br>(‘18.5월)  |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이행 등<br>※ 사상 최초 북미 정상회담(‘18.6월) 건인                                                    |
|                                        | 평양공동<br>선언(‘18.9월) |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른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비핵화 실천적 조치 합의<br>※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평양 5.1 경기장 연설 |
| 북미<br>정상회담                             | 공동성명<br>(‘18.6월)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                                                                        |
| 남북미 정상회담 및<br>북미 정상간 판문점<br>회담(‘19.6월) |                    | 북미 실무회담 개최 합의<br>※ 행동으로 사실상의 적대관계 종식하고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전기 마련                                      |

-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작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18.8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18.9월), 상호 적대행위 중지(‘18.11월) 등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차원에서 북한 비핵화 여건 조성

- 6.25 70주년 기념사(‘20.6월)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선언적 조치로 ‘종전선언’ 제안

\* ▲6.25 70주년 기념사(‘20.6월) ▲제75차 유엔총회 연설(‘20.9월)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설(‘20.10월)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미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향후 남북대화 재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국제질서 변화 등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

|                       |                                                                                                                                                                                                                                                                                                                                                                                                                                                                                                                                                                                                                                                                                                                                                                                                                                                                                                                                                                                                                                                                                                                                                                                                                                                                                                                                                                                                                                                                                                                                                                                                                                                                                                                                                                                                                                                                                                                                                                    |
|-----------------------|--------------------------------------------------------------------------------------------------------------------------------------------------------------------------------------------------------------------------------------------------------------------------------------------------------------------------------------------------------------------------------------------------------------------------------------------------------------------------------------------------------------------------------------------------------------------------------------------------------------------------------------------------------------------------------------------------------------------------------------------------------------------------------------------------------------------------------------------------------------------------------------------------------------------------------------------------------------------------------------------------------------------------------------------------------------------------------------------------------------------------------------------------------------------------------------------------------------------------------------------------------------------------------------------------------------------------------------------------------------------------------------------------------------------------------------------------------------------------------------------------------------------------------------------------------------------------------------------------------------------------------------------------------------------------------------------------------------------------------------------------------------------------------------------------------------------------------------------------------------------------------------------------------------------------------------------------------------------|
| <b>과제목표</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 및 참여 강화, 국민외교 역량 결집을 통해 통합적인 국민외교 체계를 구축</li> <li>■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우리 국정비전·외교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공공외교 추진</li> </ul>                                                                                                                                                                                                                                                                                                                                                                                                                                                                                                                                                                                                                                                                                                                                                                                                                                                                                                                                                                                                                                                                                                                                                                                                                                                                                                                                                                                                                                                                                                                                                                                                                                                                                                                                                                              |
| <b>총평</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과의 정책소통 노력을 강화해 국민 의견을 직접 정책에 반영하고 공공외교를 다변화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li> <li>■ 다만, 국민외교·공공외교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필요</li> </ul>                                                                                                                                                                                                                                                                                                                                                                                                                                                                                                                                                                                                                                                                                                                                                                                                                                                                                                                                                                                                                                                                                                                                                                                                                                                                                                                                                                                                                                                                                                                                                                                                                                                                                                                                                                                                 |
| <b>'21년도<br/>주요성과</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외교센터 및 국민외교 모바일앱 중심, 대면·비대면 국민 참여 행사 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국민외교 추진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외교센터(광화문·양재)* '18년 개소 이래 행사를 지속 확대하여 총 400여건의 행사 개최('18년 61건 → '21년 127건), 7천5백여명의 국민 이용</li> <li>• 국민외교 공감팩토리*, 국민외교 아카데미 등 사업으로 외교정책을 대국민 홍보하고 국민참여사업**,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직접 정책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국민 관심도가 높은 주요 외교 정책현안에 대해 대국민 설명 뒤 국민 질문·의견 청취 / (개최 횟수) '20년 15회 → '21년 28회 (87% 증가)</li> <li>** ('21년 사례) '수교 60주년 계기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국민의견 수렴 및 정책에 반영 / 참여자 수: ('20년) 229명 → ('21년) 295명</li> </ul> </li> <li>• 국민외교 SNS채널 및 모바일 앱 운영 활성화로 국민의 정책제안에 대한 관심 확대*, 접수 제안의 정책 반영비율 증가('20년 60% → '21년 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외교 SNS 4개 채널 구독자 수: ('21.3월) 2,500여명 → ('21.12월) 6,000여명</li> </ul> </li> </ul> </li> <li>■ 공공외교의 주제·대상 다변화를 통해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공공외교를 한층 업그레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소프트파워 순위 상승 ▲외국 대중의 굳건한 한국 호감도 등**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외교 대국민 인식조사('21.8-9월, 일반국민 2200명 대상): 응답자 73% "우리나라 공공외교 정책이 국가이미지 제고에 도움", 응답자 77% "공공외교의 취지에 공감"</li> <li>** Global Soft Power Index: ('20년) 14위 → ('21년) 11위 / '18-'20년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조사: 3년 연속 조사 대상 외국인의 75%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li> </ul> </li> <li>• 부처·지자체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14년만에 '한국의 갯벌'을 우리나라 두 번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21.7월)하는 성과 거양</li> <li>• ▲김치·한복 등 우리 문화 ▲혐오·인종차별 반대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는 한편, MOFA 스튜디오 개소('21.3월)로 디지털 공공외교를 본격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문화) 김치 제작 소개 및 한복 명인 인터뷰 등 콘텐츠 총9건 조회수 111만회 기록('21년 (글로벌이슈) 유네스코와 함께 인종차별 반대 글로벌 캠페인 'Live Together' 실시, 100여개국 5백만명 참여</li> <li>** 공공외교 종합SNS채널 KOREAZ 운영 성과 (디지털 콘텐츠 제작 시설을 갖춘 MOFA 스튜디오 개소 후 (콘텐츠 제작) '20년 791건 → '21년 1,993건 / (구독자) '20년 7.5만명 → '21년 27만명</li> </ul> </li> </ul> </li> </ul> |

|                          |                                                                                                                                                                                                                                                                                                                                                                                                                                                                                                                                                                                                                                                                                                                                                                                                                                                                                                                                                                                                                                                                                                                                                                                                                                                                                                                                                                                                                                                                                                                                                                                                                                                                                                                                                                                                                                                                                                                                                                                                                                                                                                                                       |
|--------------------------|---------------------------------------------------------------------------------------------------------------------------------------------------------------------------------------------------------------------------------------------------------------------------------------------------------------------------------------------------------------------------------------------------------------------------------------------------------------------------------------------------------------------------------------------------------------------------------------------------------------------------------------------------------------------------------------------------------------------------------------------------------------------------------------------------------------------------------------------------------------------------------------------------------------------------------------------------------------------------------------------------------------------------------------------------------------------------------------------------------------------------------------------------------------------------------------------------------------------------------------------------------------------------------------------------------------------------------------------------------------------------------------------------------------------------------------------------------------------------------------------------------------------------------------------------------------------------------------------------------------------------------------------------------------------------------------------------------------------------------------------------------------------------------------------------------------------------------------------------------------------------------------------------------------------------------------------------------------------------------------------------------------------------------------------------------------------------------------------------------------------------------------|
|                          | <p>■ 국제무대에서 <b>민주주의·평화를</b> 선도하는 책임있는 국가로서 <b>선도적 역할</b> 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정상 최초로 5년 연속 유엔총회 참석·기조연설 및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10위권 진입 등 국제무대에서 높아진 위상에 따른 책임감 발휘</li> <li>• 특히 평화구축('19-'22), 경제사회('20-'22), 인권('20-'22) 등 유엔 핵심 이사국·위원국 동시 수임 및 국제회의의 연속 개최로 평화·안보·인권 분야 국제협력 적극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평화안보 분야 최대 회의인 '평화유지장관회의' 개최('21.12월) ▲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 추진('18년 출범 후 '19년부터 국제회의의 매년 개최) ▲ 세계신안보포럼 개최('21.11월) 등</li> </ul> </li> </ul> <p>■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파견 등을 통해 국제기구에서의 역할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기구 진출 희망 청년·장애인·전역예정자 등 대상, 국제기구 진출관련 정보 적극 제공*으로 진출의 포용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유엔가입 30주년 기념 유엔 경력직 설명회 최초 개최(5월) ▲ JPO 및 UNV 간담회 각 2회 ▲ UNICEF 교육담당관 초청간담회(8월) ▲ 개별 대학·연구소 대상 특강 개최 등</li> </ul> </li> <li>•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및 유엔자원봉사단(UNV) 신규 파견과 함께, ▲ <b>既往진출 우리 국민의 고위직 진출*</b> ▲ <b>우리 전문가의 선출직 진출**</b>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부 및 재외공관을 통한 적극적인 교섭으로 기근무자의 고위직(전문직위D급) 진출 전략적 지원</li> <li>**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위원 재선(6월), 공공행정자문가위원회 위원 임명(7월), 국제법위원회 당선(11월) 등</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5년 연속(제72차~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및 미타 대표 정상급 공동 발언('20.9월) 등을 통해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 표명</li> <li>• 국민외교센터 개소('18.5월, '20.10월), 국민외교 모바일앱 개시('19.6월) 등 온·오프라인 국민외교시스템을 구축하여 쌍방향 소통 확대* 노력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통 행사 개최 : ('18년) 총 61건 → ('19년) 총 117건 → ('20년) 90건</li> <li>모바일앱 정책제안 접수 건수 : ('19년) 6건 → ('20년) 31건</li> <li>외교정책 제안 공모전을 통한 제안 접수 건수 : ('19년) 25건 → ('20년) 118건</li> </ul> </li> <li>• 주요 국제기구 이사국·위원국 진출* 및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을 통해 국제사회 내 위상을 제고하고 우호적인 외교환경 조성에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16-'18, '20-'22) ▲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17-'19) ▲ 유엔아동기금 집행이사국('18-'20) ▲ 평화구축위원회 위원국('19-'20) 등</li> <li>** ▲ 인터폴 총재 한국인 최초 당선('18.11월) ▲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연임('19-'23) ▲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당선('19.9월) 등</li> </ul> </li> </ul> </div> |
| <p><b>개선·보완 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외교·공공외교의 개념이 국민에 여전히 생소하므로, 이에 대한 <b>대국민 이해도 제고, 홍보</b> 등을 통한 <b>동참유도와 효과 극대화</b> 필요</li> <li>• <b>코로나19</b> 상황에서 주요국들과 양국 국민간 <b>우호정서 증진</b>을 위한 보다 <b>다양한 형태의 민간교류</b> 등 외교 다변화 노력 필요</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한·미 간 동맹, 한·중 간 신뢰 회복,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로서 한·일 관계, 한·러 전략적 협력 등 도모</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장기화 속 대면·비대면(화상·유선) 방식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주변 4강과의 안정적인 외교 추진</li> <li>■ 다만, '22년 한중수교 30주년 대비 외교적 노력 강화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 신 행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 공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각급에서 동맹의 호혜적 발전을 위해 긴밀히 소통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상회담 외에 외교·국방 장관회의, 외교장관회담(8회), 외교장관 통화(3회), 외교차관 회담(3회), 차관 통화(3회) 등 개최</li> </ul> </li> <li>• 「미사일지침」 종료('21.5월)로 우리 미사일·우주발사체 역량에 대한 자율규제가 완전 해제되어, 우리 기업의 우주산업 진출 토대 강화</li> <li>•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타결('21.3월) 및 협정 발효('21.9월)로 협정 공백 해소</li> </ul> </li> <li>■ 중국과 정상·고위급 전략적 소통 및 경제·문화 등 각 분야 실질협력 진전을 통해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 정상통화('21.1월), 서신교환(9회) 등 정상간 교류 지속, 외교장관회담 3차례 개최('21.4월, 9월, 10월)</li> <li>• '한중 문화교류의 해('21-'22)' 선포 및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출범('21.8월) 등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간 교류 활성화에 주력</li> <li>• 제25차 한중 경제공동위('21.11월) 계기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1-'25)' 작성으로 향후 5년간 양국 경제교류의 방향 제시</li> </ul> </li> <li>■ 對日 투 트랙 기조 견지 下, 한·일 관계 안정적 관리 및 발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시다 내각 출범 후 축하서한 발송 및 정상통화*('21.10월), 한·일 외교 장관회담(2회), 외교장관 통화(1회) 등 양국관계 경색에도 소통노력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제징용, 위안부 등 과거사 관련 해결을 위한 대화와 소통의지 재확인 ▲대북 정책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한일 인적교류 복원 등에 대한 의견 교환 등</li> </ul> </li> <li>•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모두 피해자 중심 원칙 하, 한일 양측 모두 수용 가능한 합리적 방안 도출을 위한 외교노력 지속</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출 결정('21.4월)에 대응하여,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우리의 입장 및 우려 지속 표명 및 국제사회와 공조해 처리과정 검증 예정</li> <li>• ▲한일축제한마당 ▲한일 대학생 교류 등 양국 간 민간교류를 지속 지원하면서, SNS·온라인을 활용해 개최하는 등 공공외교 다변화 노력</li> </ul> <p>■ 고위급 교류,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장관 회담('21.3월, 10월) 및 국회의장 공식 방러('21.5월) 등, 한반도 평화정착 및 양국간 실질협력 관련 고위급 교류 정상추진</li> <li>• 「9개다리* 행동계획 2.0」을 통해 중점 분야 경제협력 활성화 및 양국간 교역 확대 성과 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에너지 ②철도·인프라 ③조선 ④항만·항해 ⑤농림수산 ⑥보건 ⑦투자 ⑧혁신플랫폼 ⑨문화·관광</li> <li>** 「9개다리」전략下 역대 최대 對러 교역량 달성(273억불, '21년)</li> </ul> </li> <li>• 수소·북극항로 등 미래 유망분야 양국간 협력방안 적극 모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정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러측 「북극 수소기지」 건설사업 참여, 수소 공급망 구축 등 수소에너지 협력 확대 논의 / (지자체) 제3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21.11월, 울산) 러측 대규모 대표단(100여명) 방한 계기, 사할린 수소클러스터, 북극항로 등 협력방안 적극 논의</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정상회담(10회)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로 한·미 동맹의 호혜적 관계 지속, 미 의회·언론·학계 등 대상 적극적인 공공외교로 지지기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문제 지속 협의 조건(▲오염정화 책임 ▲사용중 기지의 환경 관리 방안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지속 논의)으로 반환 완료</li> </ul> </li> <li>• 대통령 방중('17.12월)을 시작으로, 코로나19 하 한중 방역협력 대화('20.3월, 4월), 한중 신속통로 구축('20.5월) 등 한·중 교류협력 회복 토대 마련</li> <li>• G20 정상회의('17.7월) 계기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제회의 계기 한·일 고위급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정부 출범 이후 정상회담 7회 / 총리회담 2회 / 외교장관회담 26회 등 개최</li> </ul> </li> <li>• 19년만의 러시아 국민방문('18.6월) 포함 총 10차례의 한·러 정상교류(회담 6회, 통화 4회) 등 활발한 정상외교 및 고위급 교류 추진</li> </ul> </div> |
| <p><b>개선·보완<br/>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정상 방문뿐만 아니라 고위급 교류 확대 등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필요</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아 지역 내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 속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생존 및 번영에 우호적인 평화·협력적 환경 조성 추진</li> <li>■ 평화의 기반을 확대하는 '평화의 축'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추진</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상회의 및 각종 협의체를 통해 소통·협력을 지속하고, 우리 구상을 주요국 전략과 연계해 고도화하는 등 역내 다자협력 모멘텀 주도</li> <li>■ 다만,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종합분석하고, 발전 전략 마련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주도 등 동북아 역내 다자협력 모멘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9월 유엔총회 계기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설립 제안, '20.12월 정식 출범 → '21년 본격화를 위해 ▲실질 협력사업 시범가동* ▲민관 아웃리치 등 적극 추진</li> <li>* 의료방역 물품 공동비축제 한-몽 시범가동('21.8월) 등</li> <li>•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및 정부간 협의회('21.10월)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역내 다자대화·협력* 모멘텀 유지 적극 주도</li> <li>* 역내 주요 참여국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li> <li>•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 활동 지원을 통해 정부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3국 정부간 다양한 협의체 운영** 추진</li> <li>* 우리측 제안으로 '10년 한중일 3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11년에 출범한 국제기구로, 3국간 협의체 지원, 협력사업 발굴·이행 등 역할 수행</li> <li>** 장관급 재무·교통물류·문화·특허·보건·교육·재난관리·환경 협의체 등</li> </ul> </li> <li>■ 신남방정책 고도화 단계에서 아세안·인도와의 교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21.10월) 개최, 외교장관의 신남방 핵심협력국 5개국 직접 방문** 등 신남방국가들과 소통·협력 지속</li> <li>* 한-아세안(10.26)/ EAS(10.27)/ 아세안+3(10.27) 정상회의 개최</li> <li>** ('21.6월) 베트남, 싱가포르, 인니 ('21.8월) 태국, 라오스 공식방문</li> <li>• '20년 신남방정책 플러스로 고도화 이후 7대 협력분야* 집중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미·호·프 등 주요국 외교전략과 연계협력 ▲동남아 소지역 협력 확대**</li> <li>* 보건, 교육, 문화, 무역·투자, 인프라, 미래산업, 비전통 안보</li> <li>** (주요국) 한-호주('21.2월), 한-미국('21.5월), 한-프랑스('21.7월) 아세안 정책대화 개최 (소지역) 한-메콩 외교장관회의('21.9월), 한-해양동남아(BIMP-EAGA) 고위관리회의('21.10월) 등</li> <li>• 백신·방역물품 공여, 보건분야 역량강화 지원 등 주요 협력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및 현지진출 우리기업 비즈니스 적극 지원</li> <li>* 베트남 139만회분, 태국 47만회분 백신 공여, COVAX Facility 통한 필리핀 백신 지원(48만회분)</li> <li>** '20년 인니·싱가포르와 출입국 간소화·신속통로 도입에 이어, '21년 한-베트남 특별입국 절차 도입(1월), 한-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백신타트 시행(10월)</li> </ul> </li> </ul> |

|                              |                                                                                                                                                                                                                                                                                                                                                                                                                                                                                                                                                                                                                                                                                                                                                                                                                                                                                                                                                                                                                                                                                                                                                                                                                                                                                                                                                                                                                                                                                                                                                                                                                                                                                                                                                                                                                                                                                                                                                                                                                                                                                                                                                                                                                                                                  |
|------------------------------|------------------------------------------------------------------------------------------------------------------------------------------------------------------------------------------------------------------------------------------------------------------------------------------------------------------------------------------------------------------------------------------------------------------------------------------------------------------------------------------------------------------------------------------------------------------------------------------------------------------------------------------------------------------------------------------------------------------------------------------------------------------------------------------------------------------------------------------------------------------------------------------------------------------------------------------------------------------------------------------------------------------------------------------------------------------------------------------------------------------------------------------------------------------------------------------------------------------------------------------------------------------------------------------------------------------------------------------------------------------------------------------------------------------------------------------------------------------------------------------------------------------------------------------------------------------------------------------------------------------------------------------------------------------------------------------------------------------------------------------------------------------------------------------------------------------------------------------------------------------------------------------------------------------------------------------------------------------------------------------------------------------------------------------------------------------------------------------------------------------------------------------------------------------------------------------------------------------------------------------------------------------|
|                              | <p>■ <b>신북방정책을 통해 유라시아 협력 강화 및 신성장동력 창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신북방국가와의 정상·고위급 회담*</b> 및 <b>제14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b>(‘21.11월) 개최 등 코로나19 장기화 속 <b>대면·비대면</b> 방식을 적절히 활용해 <b>고위급 교류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우즈벡 화상정상회담(21.1월) ▲한-카자흐 정상회담(21.8월) ▲한-몽골 화상정상회담(21.9월) ▲한-러 외교장관회담(‘21.3월, 10월) ▲한-우즈벡 외교장관회담(‘21.7월) ▲국회의장 중앙아-러시아 방문(‘21.3-4월, ‘21.5월) 등</li> <li>** (목적) 중앙아 5개국 외교 장·차관급 대표단 및 민간 주요인사 초청해 민관 공동 협력 사업 발굴 (주제) 산람에너지보존디지털 등 논의 (성과) 중앙아 국가들의 우리 한반도 정책 지지 확보 등</li> </ul> </li> <li>• <b>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합의</b> 등 신북방지역 대상국과의 <b>실질 협력 강화*</b>로 <b>신성장동력 창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몽골) 투자보장협정 개정 절차 가속화 논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연내 준공 합의 ▲(카자흐) 정부 기관간 MOU 11건 체결, 포스코 공장 설립 추진 등 ▲(우즈벡) 무역협정 협상 개시(‘21.4월), 디지털 산업협력 MOU체결 등</li> </ul> </li> <li>• <b>신북방청년미래개척단*</b> 및 <b>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사업**</b> 등 공공·민간 외교를 지속 추진하여 <b>민간의 신북방 진출 가속화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북방지역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을 선정, 멘토링 및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21년 제3기 개척단(9개팀, 32명) 발족, 프로그램 최종 발표회 및 시상식 완료(11월)</li> <li>** 중앙아 진출에 관심있는 국내 청년들에게 어학교육 등을 제공하고 취업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참여자 수: (‘19년) 80명 → (‘20년) 100명 → (‘21년) 170명</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아평화협력 포럼 및 정부간협의회 연례 개최*를 통해 역내 주요국 및 역외 대화파트너와 국제정세 및 경제·환경·보건 등 다양한 협력의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11월, ‘18.11월, ‘19.11월, ‘20.12월</li> </ul> </li> <li>• 대통령 아세안·인도 순방 완성* 및 러시아·중앙아 5개국 정상급 방문**으로 신남방·신북방정책 기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17.11월), 베트남(‘18.3월), 인도(‘18.7월), 싱가포르(‘18.7월, 11월),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19.3월), 태국·미얀마·라오스(‘19.9월)</li> <li>** 대통령 : 러시아(‘18.6월),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19.4월)<br/>국무총리 :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19.7월)</li> </ul> </li> <li>• ‘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20.11월 신남방정책 플러스 발표*를 통해 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한 신남방정책 이행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대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제반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포용적 동반 성장 촉진을 도모한다는 구상</li> </ul> </li> <li>• ‘9개 다리 행동계획 2.0’ 서명(‘20.10월), 한-중앙아 협력포럼 연례 개최 및 장관급 격상 등 신북방정책 구현을 위한 대내외 기반 조성</li> </ul> </div> |
| <p><b>개선·보완<br/>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아·신남방·신북방 각 지역별 외교정책에 대한 <b>5년간의 정부 성과를 종합 분석, 향후 발전 전략 마련 필요</b></li> <li>• 그동안 체결된 <b>협정·MOU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후속 보완대책 마련 필요</b></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적 대외경제 환경 조성, 신흥경제권 국가와의 협력 지평 확대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li> <li>■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상생의 개발협력 및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협력 추진체계 강화</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하 방역·백신을 포함한 양·다자간 경제협력 논의를 주도하고, 상향된 기후행동 목표 제시로 국가이미지 제고</li> <li>■ 다만, 경제안보 등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외교전략 수립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7·G20 등 다자경제협의체 내 역할 확대, 양자 경제협력채널 적극 가동을 통해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국제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7·G20 정상회의, OECD 각료이사회 등에서 국제현안 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 확대*, 특히 디지털 혁신 및 인적이동 논의 주도해 성과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20·21년), UNCTAD 설립 이래 최초로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 변경(21.6월)</li> <li>** ▲(디지털) OECD 및 APEC에서 한국판 디지털 뉴딜 소개 ▲(인적이동) OECD에서 우리나라 제출 '코로나19하 안전한 국제이동 이니셔티브' 채택(21.6월)</li> </ul> </li> <li>• 미국 등 주요 협력국과 양자외교 계기 경제협력을 심화해 교역규모 확대에 기여하고, 「경제안보TF」(외교부 내 신설 '21.11월)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현안에도 적극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정부 출범전후 주요국 교역량, KITA) ▲미국 1,097억불('16년)→1,691억불('21년)</li> <li>▲중국 2,114억불('16년)→ 3,015억불('21년) ▲호주 227억불('16년)→426억불('21년)</li> <li>** (단기) 요소수 등 긴급확보 지원 (장기)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해 조기경보시스템(EWS) 가동 등</li> </ul> </li> </ul> </li> <li>■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 개최·참석 등 적극적인 기후외교를 통해 기후대응 선도국으로서의 입지 공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4G 서울 정상회의(21.5월) 성공 개최 및 서울선언문* 채택,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21.11월)에서 실질적이고 야심찬 기후행동 목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회복의 중요성, 석탄 해외금융지원 철폐 등을 명시하는 등 구체적 행동목표를 제시 (미·중·일 등 39개국, 국제기구 9개, 국제기구 수장 3명(개인자격) 참여)</li> <li>** 대통령,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제시: 26.3% → 40%</li> </ul> </li> <li>• 제2회 푸른 하늘의 날(9.7) 기념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국제포럼 개최(21.9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21.4월)에 대한 국제공조 등 여타 환경현안 대응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 정상회의(19.9월) 계기 우리 정상이 제안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지정된 유엔 기념일</li> </ul> </li> </ul> </li> <li>■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협력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역량강화로 국익 증진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및 5개년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21년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개최 등* 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21.3월, 6월, 12월): 외교장관 주재, 무상분야 정책·전략 통합기능 강화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21.5월): 1,694건 후보사업 검토 및 153개 사업 대상 중복해소 조정</li> </ul> </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이카 커리어센터 등을 통해 개발협력 분야 취업·창업 지원*, 원격봉사단** 지속 운영 등을 통해 개발협력 생태계 조성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리어상담을 진행 후 개발협력분야 취업자 수 ('20년) 561명 → ('21년) 798명 / 해외봉사 경험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 총 12개팀 선발·지원('21년)</li> <li>** 보건, 한국어, 공공행정 등 분야에서 26개국 80개 기관 대상 341명 활동</li> </ul> </li> <li>■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등 방역·백신관련 국제협력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정상회담('21.5월) 합의내용에 기반하여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기반해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수립, 이후 국무총리 산하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통해 실현 구체화</li> </ul> </li> <li>• 구매계약 및 양·다자외교를 활용한 국내 백신 도입, 개도국에 대한 해외 백신 공여*를 통해 국내외 백신수급 안정화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139만 회분('21.10월, 11월), 이란 100만 회분('21.10월) 등 4개국 대상 총 340만 회분</li> </ul> </li> <li>• 양·다자 보건협력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중점 방역협력국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 및 인도적 지원**으로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페인('21.6월), 콜롬비아('21.8월)와의 보건·방역 협력 양자협정 체결</li> <li>▲유엔('21.7월), WHO('21.7-11월) 등 우호그룹별 논의 적극 참여</li> <li>** (포괄적 지원) 의료시설 개선, 의료·보건인력 교육 등 지원 ('20~'21년, 총 5,400만불 규모)</li> <li>(인도적 지원) 진단키트, 산소발생기, 현금 등 지원('20~'21년, 27개국 대상 총 1,337만불 규모)</li> </ul> </li> </ul> </li> </ul> <div data-bbox="344 978 1417 1787"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20 정상회의* 및 APEC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무역체제 확대를 위한 공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20 함부르크 정상회의('17.7월), G20 부에노스아이레스 정상회의('18.11월), G20 오사카 정상회의('19.6월), G20 특별 화상정상회의('20.3월), G20 리야드 정상회의('20.11월) 등</li> <li>** 제25차 APEC 정상회의('17.11월), 제26차 정상회의('18.11월), 제27차 정상회의('20.11월)</li> </ul> </li> <li>•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19.9월) 계기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제안하여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대응 의지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9.7)' 유엔 기념일 지정('19.12월)</li> </ul> </li> <li>• 우리나라 ODA 예산이 지속 증가*하여 '18년 최초 3조원 돌파하는 등 협력 대상국과의 공동번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 2조 6,359억원 → ('18년) 3조 482억원 → ('19년) 3조 2,003억원 → ('20년) 3조 4,270억원</li> <li>** '18~'19년 ODA 규모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 29개국 중 15위</li> </ul> </li> <li>• '신남방 ODA 전략*' 수립('18.8월) 및 신남방 5개국**과의 5대 중점협력 프로그램 MOU 서명('19.11)을 통해 신남방국가와의 개발협력 외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포용적 개발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십 ②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 ③한-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④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도시개발 ⑤균형성장을 견인하는 포용적 교통</li> <li>**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li> </ul> </li> </ul> </div> |
| <p><b>개선·보완<br/>필요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전략 및 실행계획 등 수립 필요</li> <li>• 상향된 기후행동 목표에 따른 국내 탄소 저감노력을 대외적으로 지속 홍보하여 기후대응 관련 국제 위상 강화 필요</li> </ul>                                                                                                                                                                                                                                                                                                                                                                                                                                                                                                                                                                                                                                                                                                                                                                                                                                                                                                                                                                                                                                                                                                                                                                                                                                                                                                                                                                                                                                                                                                                                                                                                                                                                                                                                                                                                                                                                                                                                                                                                                                                                                                                                                                                                                                                                                                                                                                                                                                                                                                                       |

|               |                                                                                                                                                                                                                                                                                                                                                                                                                                                                                                                                                                                                                                                                                                                                                                                                                                                                                                                                                                                                                                                                                                                                                                                                                                                                                                                                                                                                                                                                                                                                                                                 |
|---------------|---------------------------------------------------------------------------------------------------------------------------------------------------------------------------------------------------------------------------------------------------------------------------------------------------------------------------------------------------------------------------------------------------------------------------------------------------------------------------------------------------------------------------------------------------------------------------------------------------------------------------------------------------------------------------------------------------------------------------------------------------------------------------------------------------------------------------------------------------------------------------------------------------------------------------------------------------------------------------------------------------------------------------------------------------------------------------------------------------------------------------------------------------------------------------------------------------------------------------------------------------------------------------------------------------------------------------------------------------------------------------------------------------------------------------------------------------------------------------------------------------------------------------------------------------------------------------------|
| 과제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미·대중 등 통상 현안의 안정적 관리 및 호혜적 경제협력 확대</li> <li>■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저지하고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li> </ul>                                                                                                                                                                                                                                                                                                                                                                                                                                                                                                                                                                                                                                                                                                                                                                                                                                                                                                                                                                                                                                                                                                                                                                                                                                                                                                                                                                                                                                                  |
| 총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규제·WTO 분쟁 등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수출·물류 애로 해소 지원</li> <li>■ 다만, 공급망·디지털 통상·기후변화 등 글로벌 산업·통상 환경에 대응 필요</li> </ul>                                                                                                                                                                                                                                                                                                                                                                                                                                                                                                                                                                                                                                                                                                                                                                                                                                                                                                                                                                                                                                                                                                                                                                                                                                                                                                                                                                                                  |
| '21년도<br>주요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중국·일본과 협력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통상현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산업·통상·에너지장관회담을 개최하여 공급망·디지털·기후변화 등 新통상 이슈 협력을 강화하고, FTA 이행위를 통해 FTA 이행현안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장관 회담) 통상장관(3,8,9,10,11월), 산업장관(5,11월), 에너지장관(4,11월) 회담 개최 (FTA 이행위) 공동위(11월), 금융서비스위(6월), TBT위(6월), 자동차작업반(7월), 섬유위(9월) 등</li> </ul> </li> <li>• 미국의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3.31), 지재권 스페셜 301조 보고서(4.30)에 대해 아웃리치를 통해 우선협상·감시대상국 제외</li> <li>• 중국·일본과 고위급 협력 채널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출입국 원활화 등 기업 애로 해소 논의, 기업인 출입국 신속통로(중국) 지속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 신속통로를 통해 기업인 약 14,000명이 신속한 출입국 혜택</li> </ul> </li> </ul> </li> <li>■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 개척을 통해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남방)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21.12월), 캄보디아 FTA 서명('21.10월), 한-필리핀 FTA 협상 타결('21.10월) 등 주요 신남방 FTA 마무리</li> <li>• (신북방) 러시아·CIS 국가 현지 진출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사업 수주 지원, 우즈벡과 신규 FTA 협상 본격 개시('21.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수소(러시아), 디지털 헬스케어(우즈벡), 자동차·금속(카자흐) 등</li> </ul> </li> <li>• (중동·중남미) 사우디·UAE 등 중동 국가와 수소협력 MOU 체결(4월,11월), ICT 강국인 이스라엘과 FTA 서명(5월) 및 한-중미 FTA 전체 발효(3월)</li> </ul> </li> <li>■ 적극적인 수입규제·통상분쟁 대응 노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타국 아웃리치를 통해 반덤핑·세이프가드·상계관세 철회·제외하여 기업의 피해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상반기 對韓 신규 수입규제 조사는 전년 동기대비 약 40% 감소 (16건→9건)</li> </ul> </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산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에 대해 WTO에서 완전 승소하고, 이를 통해 최소 수준으로 관세 조정*</li> <li>* 제소이후 최소 마진 수준으로 조정 (예: 냉연 반덤핑 34.33→0%, 도금 반덤핑 47.8→0.48%)</li> <li>■ <b>코로나 19로 인한 통상 무역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수출 기업의 금융 및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b></li> <li>• 코로나19 극복 및 무역·투자 원활화를 위한 G20, OECD, APEC 등 국제 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의 관심사항을 반영한 공동선언문* 채택</li> <li>* 코로나 공동 대응을 위해 ▲백신 등에 대한 불필요한 수출제한 자제, ▲백신 공급을 위한 운송·통관 등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 ▲국경간 안전한 여행 재개 협력 등</li> <li>• '21년 167조원 규모 무역금융 공급(무보)을 통해 수출기업 금융 애로 해소</li> <li>• 임시선박 투입, 선적공간 마련 및 물류비 지원으로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에 총력 대응하고, 격리면제서 발급·전세기 편성 등 기업인 출입국 지원*</li> <li>* (격리면제) 52,606건 (백신접종) 13,450건 (전세기 지원) 전세기 50회 이상, 7,673명 (~10.31)</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lt; 정부 출범('17.5~) 이후 핵심성과 &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FTA 개정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통상 불확실성을 조기 불식</li> <li>* 한미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19. 1. 1 "개정의정서 발효" )</li> <li>• 한·중 경제통상협력 채널 재개·복원</li> <li>* '중국 정상 방문('17.12월)을 계기로 경색되었던 한중관계를 정상화하고 한중일 정상회의*( '17.12월, '18.5월, '19.12월) 및 협력 채널 지속 운영</li> <li>• 신규 FTA 추진으로 교역 안정화 및 신시장 개척의 발판 마련</li> <li>* RCEP 서명('20.11월) 및 비준('21.12월), 한·인니 CEPA 비준('21.6월), 한·영 FTA 비준('19.10월), 한·중미 FTA 전체 발효('21.3월), 한·이스라엘 FTA 서명('21.5월) 등</li> <li>• 신남방·신북방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고도화</li> <li>* (신남방)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임기중 아세안 11개국을 모두 방문하면서 산업·에너지·통상 분야의 상호 호혜적 협력모델 발굴</li> <li>* (신북방) 동방경제포럼 참석('17.9월, '18.9월), 정상 국빈 방러('18.6월), 산업박람회 참석('18.7월) 등을 통해 신북방정책 핵심협력국인 러시아와 실질협력 본격 추진</li> </ul> </div> |
| <b>개선·보완<br/>필요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망·디지털 통상·기후변화 등 글로벌 산업·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 필요</li> <li>• CPTPP 등 메가 FTA 참여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li> </ul>                                                                                                                                                                                                                                                                                                                                                                                                                                                                                                                                                                                                                                                                                                                                                                                                                                                                                                                                                                                                                                                                                                                                                                                                                                                                                                                                                                                                                                                  |